

# 영어권문화연구

17권 2호, 2024년 8월

영어권문화연구소



# Contents

## Ⅱ 강민건 Ⅱ

예이츠와 히니 시에 나타난 하위주체와 시적 재현 ..... 5

## Ⅱ 강희경 Ⅱ

『햄릿』(*Hamlet*) 연구 : 고전과 기독교 가치관을 중심으로 ..... 27

## Ⅱ 김선옥 Ⅱ

『빌러비드』의 다층적 서술기법 연구 ..... 61

## Ⅱ 김준년 Ⅱ

서사 공백 채우기와 마음-읽기를 통한 인지비평적 인물 분석  
: 필립 로스의 『인간의 오점』을 중심으로 ..... 91

## Ⅱ Sohn, Hyun Ⅱ

The Materiality of Objects in Poetry and Science:  
William Wordsworth at a Crossroads, a Cross-Cultural Study ..... 143

## Ⅱ 신희원 Ⅱ

해롤드 핀터의 *The Lover*에 나타나는 억압과 통합에 관한 연구  
: 프로이트 이론을 중심으로 ..... 183

## Ⅱ 이유희 Ⅱ

추락하지만 완전히 좌절하지는 않는: *A Good Fall*에서 하진이 재현하는  
이민자들의 초국적 정체성의 특징 ..... 211

Ⅱ 임 태 연 Ⅱ

브라이도티, 이시구로 그리고 윈터슨의 ‘인간 너머’의 세상들  
: *Never Let Me Go*와 *Frankissstein*을 중심으로 ..... 245

Ⅱ 장대철, 이지민 Ⅱ

재번역 가설은 게임 번역에도 유효한가?:  
<DIABLO II> 시리즈 영한 번역 사례 연구 ..... 283

Ⅱ Jeong, Youn-Gil Ⅱ

The Cycle of Trauma and Its Social and Psychological Impact in  
August Wilson's *Fences* ..... 315

Ⅱ 최 하 영 Ⅱ

선정소설 쓰기를 중심으로 본 *Little Women* ..... 347

Ⅱ 하 상 복 Ⅱ

신식민적 환경 폭력과 가난한 사람들의 저항  
: 임블로 음웨의 *How Beautiful We Were* ..... 377

- 『영어권문화연구』 발간 규정 ..... 411
- 『영어권문화연구』 편집위원회 운영 및 심사 규정 ..... 413
- 『영어권문화연구』 편집 및 교정 기준 ..... 418
- 『영어권문화연구』 투고 규정 ..... 425
- 『영어권문화연구』 원고 작성 및 기고 요령 ..... 426
- 원고작성 세부 지침 ..... 429
- 영어권문화연구소 연구윤리규정 ..... 432

# 예이츠와 히니 시에 나타난 하위주체와 시적 재현

강민건\*

'Backlash' and 'crack down', 'the provisional wing',  
'Polarization' and 'long-standing hate'.  
Yet I live here, I live here too, I sing,

'반동'과 '탄압', '아일랜드의 과격파',  
'대립'과 '뿌리 깊은 증오'.  
하지만 나는 이곳에 산다. 나 또한 이곳에 살지. 나는 노래한다.

(N54)

## I. 들어가는 글

정치적 혹은 문화적 범주 안에서 규정되는 하위주체는 일정 공간이나 장소 밖에서 벗어나 있거나 그 아래쪽에 있다. 최근 문화 연구에서 저항의 주체로 다시 등장하는 이 개념은 스피박(Gayatri C. Spivak)이 지적하고 있듯이 식민지 내부의 “서구의 주체 혹은 주체로서의 서구를 보존하려는 관심 있는 결과로서 등장한다.”(the result of an interested desire to

---

\*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학과 교수, heaney@daegu.ac.kr

conserve the subject of the West or the West as Subject) (24) 그러나 탈식민지 이후 하위주체성은 이른바 고급 모더니즘에 대한 주체의 전복 다시 말해서, 지식인 중심의 기록과 역사에 문제를 제기하는 새로운 주체로 떠오르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적 개념 안에서 끊임없이 주장해왔던 인간 주체의 탈특권화는 식민주체가 설정한 타자로서의 주체를 탈중심화하는 경향을 띠고 있지만, 이러한 탈특권화와 탈중심화는 이미 유럽중심주의가 설정한 인본주의적 개념으로서 주체의 해체일 뿐, 식민경험을 한 공간에서는 여전히 타자로 규정되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식된 주체”(강민건 8)로만 남아 있을 뿐이다.

이식된 주체는 식민주의 혹은 탈식민주의 안에서 식민화된 주체의 저항성을 대변하기도 한다. 이 저항성은 민족주의의 개념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특정 공간 안에서 문화적 정체성으로 다시 해석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주체에 대한 해석의 틀은 실제 존재하고 있는 하위계층들에게 대항적 저항의 담론을 형성하지 못하게 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탈식민주의 이론 내에서, 바바(Homi Bhabha)식의 식민주체의 동일성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개별 정체성에 대한 양가적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혼종성의 개념은 하위계층에게 차별적 정체성을 부여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탈식민주의 문화이론에서 이야기하는 ‘저항과 변형’, ‘흉내와 조롱’, ‘정체성의 유동성’ 등과 같은 것에서 지배권력에 대한 전복과 새로운 시대를 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론적 차원에 머무르는 한계를 지닌다. 분명한 것은 식민주의 안에서 실천적 저항 담론이 식민주의자들에 의해 우발적이거나 제한된 것이라고 치부한다면 역설적이게도 “우발적인 것과 제한된 것은 탈식민주의 비평에서 문화적 차이의 주체가 역사적으로 재현되기 위한 시간이자 공간이 된다.”(The contingent and the limited become the times and the spaces for the historical representation of the subjects of cultural

difference in a postcolonial criticism) (179) 결국 “식민주의는 타자에 대한 체계적인 부정이며 타자의 인간적인 물리적 정신적 속성을 완전히 부인하는 지배구조며, 피식민지인들에게 끊임없이 스스로 정체성을 부인하게 한다.”(강민건 74) 이 정체성의 부인은 피식민주의자들로 하여금 지배 문화에 대한 문화 변형이 아니라, 일종의 정체성 탐구를 위한 역사적 시간과 공간을 형성하게 한다.

바바는 그의 저서 『문화의 위치』(*The Location of Culture*)에서 이러한 시간과 공간에 대해 “언어 은유의 역설을 탐구하지 않는다면 포스트모더니즘 내에서 ‘새로운 시대’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즉 문화적 선언의 자리에 있는 정치, 사회적 정체성과 적대의 변두리에서 발화되는 문화적 기호를 이해할 수 없다”(We can not understand what is being proposed as new times within postmodernism—politics at the site of cultural enunciation, cultural signs spoken at the margins of social identity and antagonism—if we do not explore the paradoxes of the language metaphor) (180)고 토로하기도 한다.

오늘날, 문화적 기호는 식민주의와 탈식민주의에 대한 문화와 권력의 그리고 지배와 피지배에 대한 중요한 분석의 도구가 된다. 이를 통해 피식민자 고유의 정체성, 권력 구조, 저항의 방식에 대한 ‘해석의 행위’를 가능하게 만든다.

본 논문은 식민주의 역사적 경험과 이에 대한 저항의 주체로서 이른바 식민주의 과정에서 “표현되지 않은 목소리”로 상징되었던 하위계층이 지배 담론에 의해 어떻게 침묵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위계층의 실제 경험이 어떻게 그 침묵을 거슬러 저항의 방식으로 재현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예이츠(William Butler Yeats)와 히니(Seamus Heaney) 텍스트에 등장하는 아일랜드와 하위계층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두 시인의 대치되는 하위주체의 재현성이, 피식민지인들의 공간과 정체성을 어떻게 재구성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 하위계층이 배제된 탈식민화 공간

영국과 아일랜드의 내전을 통해서 형성된 식민주의와 피식민주의의 관계는 이른바 아일랜드 인들에게 타자의 담론을 강요한다. 이른바 서구적 현대성에 의해 형성된 공간을 후기식민주의의 공간이라고 가정한다면, 해방 이후 아일랜드는 서구적 현대의 인식론 안에 갇히게 된다. 즉 식민지 현실에서 타자화되는 과정을 지식인의 시선으로 포착함으로써 식민지적 현대의 장 속에서 잃어버린 타자의 주체성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문학적 범주 안에서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획득된 타자의 주체성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이츠(William Butler Yeats)가 주도한 문예부흥운동(Irish Literary Revival)이다. 물질적 요구와는 별개로 아일랜드인의 지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리라는 것(the intellectual, as distinct from the material, needs of Ireland) (Moody 245)에서 출발한 이 운동은 이른바 예이츠의 지나친 지적 문학주의와 예술 지상주의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무디의 저서 『아일랜드 역사의 여정』(*The Course of Irish History*)에서 이러한 예이츠의 문학주의를 다음과 같이 비판하기도 한다.

그들은 문학과 같은 지적인 삶이 없다면 아일랜드인들은 그들의 국적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예이츠는 최고의 미학적 특성이 되는 민족 문학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꿈을 꾸었다. . . . 민족주의적이면서, 심지어 분리주의적인 성향의 예이츠나 그의 동료들의 영향력은 심오했지만, 그 영향력은 동료 시인들만으로 국한되었다.

For without an intellectual life of literature, it was argued, the Irish could not long preserve their nationality. Yeats dreamed of the people cultivating a national literature that would be of the highest aesthetic quality. . . . The nationalistic, and even separatist, impact of Yeats and his friends was profound, but it was limited and confined mainly to fellow poetic natures. (246-247)



예이츠는 이러한 탈영국성(de-anglicisation)을 이상적 민족주의와 문학의 미학주의에서 찾으려 했다. 그에게 아일랜드성(Irish-ness)은 결국 타자의 주체성을 경험하는 아일랜드인들을 “가난한 노파”(poor old woman) (246)로 묘사하거나, 그의 시 「나는 아일랜드인」(“I am of Ireland”)에서는 “트럼펫과 트롬본”(The trumpet and trombone) (303)을 불며 광기의 춤을 추는 “악의적인 한쪽 눈을 치켜뜬”(Cocked a malicious eye) (304) 자들로 치부하기도 한다. 예이츠에게 아일랜드성이 복원되는 공간은, 오히려 타자로서의 하위계층이 부재한 공간으로 묘사된다.

그의 예술적 이상주의에 따라 등장하는 탈식민주의 공간은 타자를 배제하는 그저 “관능과 음악에 빠져/ 늙지 않는 지성의 기념비를 경시할 뿐”(Caught in that sensual music all neglect/ Monuments of unaging intellectuals) (“Sailing to Byzantium”) (217)이다. 주체성의 회복과 식민주의적 삶과 그 저항의 모습은 그저 “죽어가는 세대들”(dying generation) (217)이고, 열악한 현실을 외면하는 성스러운 자들만이 존재하는 ‘비잔티움’과 같은 곳으로 대체될 뿐이다.

소농민, 노동자, 부랑아, 가난한 여성들로 대변되는 하위계층은 식민지 공간 안에서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정치, 언어, 문화적 차별에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없고, 탈식민지적 도시 안에서 박탈당한 자들로 주변에 머물며 그들의 일상적 저항의 삶은 드러나지 않는다. 주변화된 존재로서 그들은 그저 “정처 없이 떠도는, 가엾고, 참회에 젖은”(hovering, piteous, penitential throng) (Yeats 79) 익명의 군중들일 뿐이다. 결국, 예이츠의 하위계층에 대한 인식은 아일랜드의 물리적 “노동자들이 포함된 환경에는 경계심과 불편함을 느끼는 것”(최진범 117)으로 간주된다.

예이츠의 문예부흥운동 안에 담긴 아일랜드 고유의 정체성 회복이 문학적 이상주의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식민주의 이후의 아일랜드 공간 안에서 하위계층의 치열한 저항은 미학이라는 예술성 안에서 배제된다. 도겏(Rob Dogget)은 그의 논문 「비판적 논쟁, 1970~

2006」(“Critical Debate, 1970-2006”)에서 예이츠의 이러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예이츠의 작품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사랑과 유기체적 사회집단의 유대를 존중하는 ‘귀족주의적 자유주의’를 입증한다. 뿐만 아니라 그의 고국에서 아일랜드 연구의 시작을 알리는 예이츠에 대한 열렬한 정치적 공격에도 마찬가지로 이다. . . . ‘현상 유지’에 반복적으로 도전했던 관용적인 예이츠의 이러한 비전은 문학 수정주의 논쟁 중에 특히 매력적인 방어를 제공했지만 아마도 과장된 주장일 것이다.

Yeats's work evinces an ‘aristocratic liberalism’ that combined love of individual freedom with respect for the ties of the organic social group, but also to the impassioned political attacks on Yeats that marked the inception of Irish Studies in his native land. . . . This vision of a tolerant Yeats who repeatedly challenged the ‘status quo’ offered an especially attractive defense during the literary revisionist debates but it would perhaps be an overstatement to claim. (Doggett 397)

도겟이 비판하는 예이츠의 문학적 수정주의는 유기적 사회집단 즉 식민주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 변형적으로 작동하는 아일랜드 내에서 귀족주의적 자유주의 형태로 잔존 한다. 예이츠의 귀족주의와 자유주의의 결합은 그의 시 「부활절 1916」(“Easter 1916”)에 잘 드러난다. 이 시에 나타난 봉기는 1922년 아일랜드 자유국과 이후, 1949년 아일랜드 공화국이 선포되는 동기를 제공했다. 1916년 더블린 우체국 앞에서 피어스(Patrick Pearse)의 아일랜드의 완전 독립선언서 낭독으로 시작된 이 혁명은 결국 주동자 16명의 처형으로 막을 내리지만 아일랜드 독립 투쟁사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다.

예이츠는 투쟁의 주체들에 대해 “단 하나의 목적만을 가진 심장”(Hearts with one purpose alone) (204)으로 묘사하면서, “살아있는 시냇물을 방해하는 돌맹이”(to trouble the living stream) (204)로 치부한다. 그리고 그들

의 희생을 “쓸모없는 죽음”(needless death) (204)으로 외면하기도 한다.

마치 거칠게 뛰어놀던 다리에 잠이 찾아왔을 때  
어머니가 아이의 이름을 부르듯,  
다만 밤이 내려 온 것일까.  
아니, 아니다. 밤이 아니라 죽음이 찾아온 것이다.  
결국 쓸모없는 죽음일까.  
왜냐하면 영국이 그 모든 행동과 말들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도 있었을 터이므로,  
우리는 그들의 꿈을 안다.  
그들이 꿈꾸고 결국 죽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그들의 과도한 사랑으로  
죽을 때까지 혼돈스러웠던들 어찌리.  
나는 그것을 시에 쓴다.

As a mother names her child  
When sleep at last has come  
On limbs that had run wild,  
What is it but nightfall?  
No, no, not night but death;  
Was it needless death after all?  
For England may keep faith  
For all that is done and said,  
We know their dream; enough  
To know they dreamed and are dead;  
And what if excess of love  
Bewildered them till they died?  
I write it out in a verse - (204-205)

에이츠의 귀족주의는 투쟁에 대한 희생을 “쓸모 없는 죽음”으로 폄하하면서 “영국이 그 모든 행동과 말들에 대한 믿음을 지킬” 것에 대한 거부로 부활절 봉기를 묘사한다. 즉 그는 1913년 영국 의회에서 아일랜드 자치법 (Home rule bill)을 통과하지만, 1차 세계대전 반발로 1914년 이 법을 유보

하기로 함으로써 더블린의 부활절 봉기의 비극이 생겼다고 판단한다. 결국 그들의 투쟁을 ‘과도한 사랑’으로 표현함으로써, 이 혁명을 “우연한 희극”(casual comedy) (203)로 평가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포기한 것”(resigned his part) (203)으로 비판한다.

아일랜드의 형식적인 독립 이후의 과도적 공간에 대한 예이츠의 판단은 대중들의 정치성을 무화하면서 그저 “어릿광대들이 행하는 곳에서 살고 있을 뿐”(But lived where motley is worn) (204)이라고 자조하기도 한다. 결국 아일랜드 대중들의 역할은 정치적 투쟁과 식민주의 잔재를 없애려는 정치 문화적 투쟁 주체가 아니라, 그저 “술집 난롯가에 둘러앉아/ 친구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조롱 섞인 말을 하거나 농담을 하는”(a mocking tale of a gibe/ To please a companion/ Around the fire at the club,) (204) “의미 없는 말들”(meaningless words) (204)을 내뱉는 무지한 타자로서 존재할 뿐이다.

아일랜드 하위계층에 대한 예이츠의 재현성은 역설적이게도 식민주의적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즉 식민지 공간 안에서 침묵의 타자적 존재로 간주하는 식민주의의 시선은 탈식민지 공간에서, 그는 “아일랜드 민족주의 시인으로서 나약하고 유치하다는 식민지적 고정관념에 맞서기 위해 남자다운 시를 생산할 것으로 기대되는”(as an Irish nationalist poet he was expected to produce manly verse in order to counteract the colonial stereotype of the Irish as effeminate and childish) (Cullingford 12) 식민주의 논리를 호전적 민족주의 논리로 전환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예이츠의 지나친 문학주의와 귀족주의적 경향은, 식민주의에서 빈번히 나타나는 하위계층에 대한 배제적 태도에 동의하면서, 타자의 공간, 저항의 주체로서의 타자, 후기식민적 재건 도시 안에서 주변으로 몰려난 하위계층들의 공간을 “완전히 변해버린/ 끔찍한 아름다움이 태어난 곳”(Transformed utterly:/ A terrible beauty is born)(203)으로 재현하는 한계를 지닌다고 평가할 수 있다.

### Ⅲ. “표현되지 않은 목소리”: 박탈당한 자들의 공간

아일랜드의 탈식민화(decolonization) 공간에서 에이츠가 집착했던 문학 지상주의와 귀족주의적 예술성은 현실적 공간을 구성하는 주체인 하위계층에게는 식민문화 혹은 문학의 우월성으로 간주된다. 애초에 그람시(Antonio Gramsci)가 정의하는 농부와 노동자들에 부여한 이 하위계층의 계급성은, 탈식민화 공간에서 생산의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생산성을 박탈당한 자들로 규정된다. 이들은 자신들의 공간에서 주변적 존재로 간주되어 일체의 담론에서 침묵 당하기를 강요 받는다.

히니는 그의 저서『혀의 지배』(*The Government of the Tongue*)에서, 탈식민화 이후 이른바 현대국가라는 공간에서 시인 혹은 지식인의 책무를, “당신의 혀를 지배하라”(Govern your tongue) (96)고 주장한다. 이 선언적 발언은 ‘혀’ 즉 시인의 언어 재현성이 일체의 “권위주의적 검열”(authoritarian censorship) (97)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에이츠의 시학과는 달리 시인과 문학의 책무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시인이 가진 혀는 정통성이나 체계에 의해 지배되고, 시인의 자유로운 표현력은 운율에서 교회의 계명에 이르기까지 보편성의 규칙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된다. . . . 시는 외부 관습이나 강요에 의해 지배되지 않고 그 자체의 필요에 따른 법칙을 따른다. 그 구성은 자연에서 발생하는 사건과, 연쇄 반응에 대한 자발성을 모두 담고 있다.

A poet whose tongue is governed by an orthodoxy or system, whose free expressiveness is under the strict control of a universe of rules, from the rules of metre to the commandments of the church. . . . The poem is not governed by external convention and impositions but follow the laws of its own need. Its composition has all the spontaneity of a chain reaction, of an event in nature. (93)

히니는 언어의 재현성을 상징하는 ‘혀의 지배’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시

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문학은 정통성이나 보편성을 넘어선 힘을 가진다고 보고 있다. 그는 후기 낭만주의의 시학의 자발적 서정성을 계승하면서도, 탈식민화 이후의 추상적 서정성을 오히려 배제하면서, “시인은 인간의 본성과 우리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현실의 속성 사이에서 예상치 못한 그리고 편집되지 않은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힘을 보장 받는다”(the poet is credited with a power to open unexpected and unedited communications between our nature and the nature of the reality we inhabited) (93)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시인의 시학은 실제 탈식민화된 아일랜드 공간에서 그들의 주체성을 박탈당한 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언어적 재현을 가능케 한다.

히니는 (탈)식민지적 공간과 하위계층의 침묵의 목소리를 “아일랜드의 비극”(Irish tragedy) (Cavanagh 212)라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카바나흐는 그의 저서 『시의 발전: 셰이머스 히니의 시학』(*Progressing Poetry: Seamus Heaney's Poetics*)에서 비극적 유산으로서의 주체이자 타자인 하위계층에 대해 “히니는 억압되거나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는 아일랜드 유산의 갈등적 요소를 재현하고 있다”(He represents conflicting elements in the Irish inheritance which continue to be repressed or unresolved) (222)고 말하고 있다.

그 재현성은 “쇠난로와 (...)/ 여름길의 길이와/ 넓이를 그을리게 하는 군중들”(Of iron stoves (...)/ Congregations blackening the length/ And breadth of summer roads) (EL 21)에 대한 애정으로 시작한다. 시인은 시집 『전등불』(*Electric Light*)에 수록된 「알려진 세상」(“Known World”)에서, 아일랜드 탈식민화 공간에서도 여전히 “오래된 비극감이 계속되는”(That old sense of a tragedy going on) (21) 그들의 박탈당한 삶을 “일상의 그 바로 가장자리에”(at the very edge of the usual) (21) 머물고 있다고 한다. 해방된 공간에서 그들의 주변성은 “한번도 나를 떠난 적 없다”(it never left me once) (21)고 성찰하면서, “그때 유감스럽게도 내가 몰랐던

것은/ 상처 입은 천사 같은 이 존재들이 실려 가는 것이지/(...) 굴뚝 공장  
이 있는 곳과 함께 말이지”(A pity I didn't know then/ The one where  
the wounded angel's being carried) (21)라고 한다. 아일랜드 공간의 주  
체로서 그들의 궁핍한 일상은 굴뚝 공장에서 고단한 노동을 하는 존재로  
비하되고, 천사 같은 존재들인 대중들은 늘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결국  
시인은 현대사회에서 이들에 대한 기억이 곧 “슬픔을 제대로 읽는  
법”(How to read sorrow) (21)라고 지적한다.

에이츠가 묘사한 아일랜드인이 “자신의 역할을 포기한 것” 그리고 “끔  
찍한 아름다움이 태어나 곳”은 히니에게는 비극과 상처를 보듬는 공간으  
로 전이된다. 그리고 이 공간에 대한 시인의 탈식민성은 현재 아일랜드에  
여전히 잔존하는 대중들의 “불신받는 문화 또는 정치 시스템의 왜곡”  
(refraction of discredited cultural or political system) (RP 6)에 대한 저  
항이라고 할 수 있다. 시인의 시적 저항성은 그의 저서 『시의 조정』(*The  
Redress of Poetry*)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다.

시는 이른바 그것이 낡은 정치적 영역에 속하든 아니면 다른 새로운 영역을  
표현하고자 하든, 포용적 의식의 실행 모델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단순화해  
서는 안 된다. 시의 투영과 발명은 그것을 둘러싸고 있고 그것이 생성되는 복  
잡한 현실을 위한 행진이어야 한다.

Poetry. let us say, whether, it belongs to an old political dispensation or  
aspires to express new one, has to be a working model of inclusive  
consciousness. It should not simplify. Its projections and inventions  
should be march for the complex reality which surrounds it and out of  
which it is generated. (90)

히니의 시적 재현성, 즉 택시 운전자, 노동자, 굴뚝 노동자, 버려진 깡통  
을 들고 거리를 배회하는 아이들 등과 같은 하위계층에 대한 애정은 그의  
저항의 순수성으로 드러난다. 이는 “그의 식민지적 헤게모니에 대한 그의

저항의 순수성을 증명하기 위한 설득력 있는 말”(to the totally persuasive word in order to prove the purity of his resistance to an colonial hegemony) (RP 9)로 재현된다. 그의 하위계층의 재현성에 나타난 서정적 정치성은 민족주의나 이데올로기를 넘어서는 현실적 공간에서 서정성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진짜는 어떻게 인위적인 곳으로 들어가지?

좀 더 쉬운 질문을 해봐,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이 정도지:

산속에 있는 시멘트 공장에서

우리가 할 예정이었던 시 낭독을 위해

우리의 택시 기사, 모든 속력에도 불구하고, 늦었어

결국 공장 관리자들과의 술을 걸든 점심은

낮잠과 머리가 멍한 깨임으로 끝이 났어.

일몰 직전에 말이야. 그러고는, 공책이 말하기를,

“이동하는 사람들, 사람들로 가득한 들판.

짐 바구니를 등에 실은 짐말들을, 가족들의

언덕 위로 밀어붙임, 끝없는 순례자의 흐름.

오늘은 총파업을 기리는

노동자의 날이다. 또한 그리스 정교회

성모의 날이다.

How does the real get into the made up?

Ask me an easier one,

But this much I do know:

Our taxi-man, for all his speed, was late

For the poetry reading we were meant to give

At a cement factory in the mountains,

So a liquid lunch with comrade managers

Ended in siesta and woozy wake-ups

Just before sunset. Then, the notebook says,

“People on the move, field full of folk,

Packhorses with panniers, uphill push



Of familie, unending pilgrim stream,  
Today is worker's day in memory  
Of General Strike. Also Greek orthodox  
Madonna's Day". (EL 22)

“1998년 5월”(May 1998) (EL 23), 히니는 “1978년 당시의 낮과 밤”(those days and nights of '78) (19)에 “술 취하지 않을 때가 거의 없는 스트루가 시 축제 기간”(When we hardly ever sobered at the Straruga/ Poetry Festival) (19)을 기억한다. 시인이 참여한 그 축제에서 그는 현실 속 진짜 「알려진 세계」와 술과 커피에 감미로움을 주는 축제의 ‘인위성’을 발견한다. 술과 시 낭독으로 낮과 밤을 오가는 동안 같은 공간에서 또 다른 이들은 언덕 위로 짐을 가득 실은 말들을 위로 올리고 있었고, 이 고단한 노동은 마치 “순례자의 여정”처럼 미화되지만, 정작 시인이 목격한 이 날은 바로 역설적이게도 노동자의 날이었다. “성모의 날”에 “교회 바깥으로/ 운반되는 성상들/ 붙여진 초들/ 꽃과 달콤한 바질 향미료가 풍성한 일종의 미사”(outside a church,/ Icons being carried, candles lit flowers/ And Sweet basil in abundance, some kind of mass) (22)와는 대조적으로 이날 노동자들은 각자의 일을 하고 있었고, 뜨거운 여름날의 “햇빛”(sunlight) (21), “그늘과 시원함”(shade and coolness) (21)이 양존하는 같은 공간을 “실락원”(Paradise lost) (21)으로 묘사하면서, 하위계층이 배제된 축제의 날을, 그 축제에서 쫓겨난 “피난민들”(the refugees) (20)의 “오래된 비극감”(21)으로 받아들인다.

히니가 경험한 이 공간은 “아무런 문제 없이/ 모든 시스템이 여전히 돌아가는”(Nema poblema. Ja / All systems go) (23)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시인은 공간의 주체이자 타자로서 자신들의 공간에서 쫓겨나가거나 자신의 목소리를 박탈당한 자들을 “트랙터 흙받이와 농장 수레를 타고,/ 트레일러, 밀집한 마차들, 박스형 이륜 손수레, 유모차 타고,/ 지팡이에, 목다리에,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다가오고 있는,”(Come loaded on tractor

mudguards and farm carts,/ On trailers, ruck-shifters, box-barrows,  
prams,/ On sticks, on crutches, on each-other's shoulders,) (EL 21) 군  
중들의 모습을, 도시 밖으로 내몰려 실락원으로 쫓겨나는 핍박받는 피난  
민의 모습으로 보고 있다.

아일랜드의 탈식민화 된 공간은 탈식민화의 주체들에게는 박탈과 쫓겨  
남의 공간이다. 히니는 그의 시집 『알코올 도수기』(*The Spirit Level*)에  
실린 「비행경로」(“The Flight Path”)를 통해 “1979년, 어느 찬란한 오일의  
아침,/ 심야 비행편으로 뉴욕에서 방금 날아와,/ 벨파스트행 열차를 타  
고”(On bright May morning, nineteen-seventy-nine/ Just off the red  
eye special from New York, I'm on the train Belfast) (24) 가다가 “세관  
초소”(customs post) (24)에서 “도로를 봉쇄한 경찰”(The policeman at  
the roadblock) (25)과의 스쳐 가는 질문과 답에서 아일랜드와 자신의 정  
체성의 관계를 단절과 희망으로 다시 보기 시작한다.

내가 '먼 곳'에서 왔다고 대답하자,  
도로를 봉쇄한 경찰관이 '그게 어디죠?'라고 획 잡아챘다.  
그 사람은 내가 말한 것을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생각했다  
그것은 변두리 어딘가의 이름이었다고,

그리고 지금은 - 내가 살아온 곳과  
떠난 곳 둘 다 - 여전히 가야 할 어떤 곳  
멀리서 오랫동안 계속되는 별빛  
도착하는데 몇 광년이 걸리는 별빛처럼.

When I answered that I came from 'far away';  
The policeman at the roadblock snapped, 'Where's that?'  
He'd only half heard what I said and thought  
It was the name of some place up the country

And now it is - both where I have been living  
And where I left - a distance still to go

Like starlight that is light years on the go  
From far away and takes light years arriving. (SP 25)

히니는 자신의 고향인 아일랜드의 어느 공간을 “변두리” 취급하는 경찰관의 성의없는 답을 통해,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 그들의 목소리를 박탈한 자들, 자신의 고향에서 변두리로 쫓겨나는 자들, 그리고 이름이 명명되지 않는 자들이 여전히 공존하는 아일랜드가 “내가 살아 온 곳”, “여전히 가야 할 곳”으로 규정한다.

식민지의 공간 그리고 탈식민의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하위계층에 대해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정치적 혹은 이데올로기적 배제에 반한 그의 시적 재현성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성찰과 비전을 통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그의 이러한 문학성은 다음과 같은 발언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우리는 주어진 흔적을 기다리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는 열성을 쏟아야 할 할 시기가 있다. 나는 문학의 종말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이 다음 세대의 급류가 다가올 때까지 현재의 조류를 타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You try to wait for a given note, but inevitably there are times when you go into overdrive. I don't think that the end of the literary world. It can be the way of riding the current until the next surge comes along) (SSIS 346)

#### IV. 나가는 글

나는 조그맣게 들리는 주술 속에서 가난한 자를 본다.  
그들의 시신이 수레에 실려 나간들 나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마비됐다, 고향의 타버린 시커먼 그루터기처럼.

I see the needy in a small pow-wow.  
What do I say if they wheel out their dead?

I'm cauterized, a black stump of home. (WO27)

탈식민 공간과 하위주체의 재현성의 문제는 식민주의와 탈식민주의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특정 공간과 특정 시간에 대한 텍스트의 특성을 정의하게 한다. 특히 탈식민화 과정에서 이식된 주체로 머문 하위계층에 대한 작가의 개입과 언어적 재현은 이른바 포스트모던 시대 혹은 세계화라고 명명되는 시간과 공간에서 중요한 문제가 된다.

탈식민화 이후, 국가의 정체성이 완전히 복원됐다고 가정되는 공간에서, 하위주체 혹은 하위계층의 용어는 어떻게 그들이 불공평한 세계에서 쫓겨나고, 지식인 혹은 시인들이 소외된 이들의 상태를 재현하는 전략적 사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즉 이들에 대한 문학적 재현성을 서론에서 제기한 바바의 혼종성에 의존한다면, 식민지적 텍스트 안에서 식민언어가 아니라 “타자의 언어의 흔적”(the trace of the language of the other) (Young 22)으로 열려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그것은 하위주체들에게 끊임없이 침묵을 강요하는 식민권위의 단일한 목소리를 흔들고, 그 안에 타자의 흔적을 개입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틀에 머무는 양가성의 문제는 실제 탈식민 공간 안에서 식민문화와 토착문화 상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고한 식민권력이 문화 혹은 문학적 재현에서 모순적 관계를 노출 시킨다.

예이츠의 하위계층에 대한 시적 재현은 이러한 모순적 한계를 잘 드러내 주고 있다. 로이드(David Lloyd)는 “예이츠는 자신의 문화 민족주의를 흡수하고 대체하는 호전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민족주의의 승리가 정치 국가와 개인 주체 모두에게 미치는 결과에 시적으로 머물러 있는”(Yeats dwells poetically on the consequences both for the political state and for individual subjects of the triumph of a nationalism whose militant expression absorbs and displaces his own cultural nationalism) (59)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아일랜드의 탈식민화 과정에서 예

이츠가 가지는 아일랜드성의 온전한 복원은 문화 민족주의를 통한 문학 혹은 예술의 부활에 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식민화와 탈식민화의 전 과정에서 드러난 하위주체의 희생과 저항을 문학주의로 미화하거나 그들의 목소리를 덮으려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히니는 에이즈의 후기 낭만주의적 성향을 계승하면서도, 탈식민 공간 복원에 개입했던 아일랜드의 호전적 민족주의를 경계한다. 삭제되거나 박탈당한 자들의 목소리를 “무의식적 기억의 어둠”(darkness of unconscious memory) (Finn 81)에서 끄집어내 그들의 희생과 저항을 재현하고 있다. 더불어 그는 시인의 책무를 혀와 언어에 비유하면서 “혀(시인의 개인적 발화 능력과 언어 자체의 공통 자원을 모두 대변하는)에는 지배할 권리가 부여되어왔다. 시적 예술은 그 자체의 권위로 인정된다”(the tongue(representing both a poet's personal gift of utterance and the common resources of language itself) has been granted the right to govern. The poetic art is credited with as authority of its own (GT92) 고 말하고 있다. 즉 히니가 이야기하는 문학의 권위는 바로 개인의 언어적 발화 즉 시적 재현성에 권위를 부여하면서 동시에 시인의 정치적 책무를 동반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히니가 극적으로 묘사한 하위주체에 대한 시적 재현성은 에이즈의 문학주의와 귀족주의, 그리고 호전적 민족주의를 대신할 수 있는, 하위주체의 정체성과 공간에 대한 서정성과 더불어 정치성의 책무를 잘 드러내 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대구대학교)

## ■ 주제어

(탈)식민주의, 하위주체, 에이즈, 히니, 시적 재현, 혼종성

## ■ 인용문헌

- 강민건. “포스모더니즘 시대의 경계문학”, 『영어권문화연구』. 4.2 (2016): 5~25.
- 강민건. “셰이머스 히니 시와 그들의 발달”, 『한국예이츠저널』 73 (2024): 71-88.
- 최진범 “*Sons and Lovers*에 나타난 육체성의 복원”, 『영어권문화연구』 17.1 (2024): 109-140.
- Bhabha, Homi. *The Location of Culture*. London and New York, 1998.
- Cavanagh, Michael. *Progressing Poetry: Seamus Heaney's Poetics*. Washington: Catholic Univ. of American P, 2009.
- Cullingford, Elizabeth Butler. *Gender and History in Yeats's Love poetry*. New York: Syracuse UP, 2006.
- Dogget, Rob. “Critical Debate, 1970-2006.” *W.B. Yeats In Context* edited by David Holeman and Ben Levitas. New York: Cambridge UP, 2010, 397-415.
- Finn, Christine. *Past Poetic: Archeology in the Poetry of W.B. Yeats and Seamus Heaney*. Dukeworth, 2004.
- Heaney, Seamus. *Electric Light*. Faber and Faber, 2001. [EL]
- \_\_\_\_\_. *North*. Farrar, Straus and Giroux, 1985. [N]
- \_\_\_\_\_. *The Government of the Tongue: Selected Prose 1978-1987*. Farrar, Straus and Giroux, 1990. [GT]
- \_\_\_\_\_. *The Spirt Level*. Faber and Faber, 1996. [SP]
- \_\_\_\_\_. *Wintering Out*. Faber and Faber, 1972. [WO]
- Lloyd, David. *Anomalous States: Irish Writing and the Post-Colonial Moment*. Duke UP, 1995.

- Moody T. William. *The Course of Irish History*. Rinechart, 2001.
- O’Driscoll, Dennis. *Stepping Stones: Interview with Seamus Heaney*. Farrar, Straus and Girous, 2018. [SSIS]
- Spivak, Gayatri. “Can the Subaltern Speak?” *The Post Colonial Studies Reader* edited by Bill Ashcroft, Gareth Griffins, and Helen Tiffin. New York: Routledge, 1997, 24–53.
- Yeats, William Butler. *Collected Poems of W. B. Yeats*. London: Macmillan, 2001.
- Yong, Robert J. C.. *Colonial Desire: Hybrdity, Theory, Culture and Race*. New York: Routledge, 1995.

■ Abstract

## Subaltern and Poetic Representation in Yeats and Heaney's Poetry

Kang, Min Gun  
(Daegu University)

The subaltern, defined within a political or cultural category, is outside or located below a specific space or place. The de-privileging of the human subject, which has been constantly argued within the concept of postmodernism, tends to decenter the subject as the other established by the colonial subject, but this de-privileging and decentralization is only the deconstruction of the subject as a humanistic concept established by Euro-centrism, and it is still defined as the other in the space that experienced colonialis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how the subaltern, who symbolized the so-called “unexpressed voice” in the colonial process as the subject of the historical experience of colonialism and resistance to it, is silenced by the dominant discourse, and how the actual experience of the subaltern is reproduced as a method of resistance against the silence. From the perspective, I will examine the correlation between Ireland and the subaltern in the texts of William Butler Yeats and Seamus Heaney, and how the representation of the two poets’ opposing subalterns reconstructs the space and identity of the



colonized.

## ■ Key words

(Post)colonialism, Subaltern, W.B. Yeats, Seamus Heaney, Poetic representation, Hybridity

## ■ 논문게재일

○투고일: 2024년 7월 30일 ○심사일: 2024년 8월 9일 ○게재일: 2024년 8월 13일



# 『햄릿』(*Hamlet*) 연구 : 고전과 기독교 가치관을 중심으로\*

강희경\*\*

## I. 서론

『햄릿』은 고대 그리스 고전 시기와 중세 기독교 시대를 거치고 맞이한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비극 작품이다. 르네상스(Renaissance)는 그 이름이 의미하듯이, 고전 시대의 부활이라고 정의하지만, 단순한 복귀가 아닌 기독교 문화 내에서의 고대 그리스 문화의 부활이다. 폴 캔터(Paul Cantor)는 르네상스 시기에 내재 되어있는 고대와 중세의 가치를 로미오(Romeo)가 구사한 모순어법의 용어, “차디찬 불”(cold fire)이나 “병든 건강”(sick health)(1.1.171)<sup>1)</sup> 같은 어휘에 빗대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가치체계이며, 불편하고 불안정하게 연합(uneasy and unstable alliance)되어 있는 가치체계로 규정한다(2~5).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과제번호)(NRF-2019S1A5B5A07111486)

\*\* 동국대학교 박사, Email: perdita7@hanmail.net

1) 로미오: “아, 싸우는 사랑, 아, 사랑하는 미움, 원래 무(無)에서 생겨난 유(有)라! 아, 무겁고도 가볍고, 진실한 허위, 보기엔 근사하나 꼴사나운 혼돈, 납덩이의 숨털, 번쩍이는 연기, 차디찬 불, 병든 건강, 늘 눈 떠 있는 잠, 그것 아닌 그것”(1.1.167-172).

서구 근대 자아의 상징적 인물인 햄릿이 주인공이자 영웅으로 등장하는 『햄릿』은 상반된 두 가치체계 -고대 그리스와 기독교- 의 융합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주인공의 내면에서 혼돈을 일으키며, 갈등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르네상스 전환기의 비극 작품이다. 사회학자 바르부(Zevedei Barbu)는 사회적 격변기에 발생하는 위기의식이 위대한 비극을 잉태하였다고 지적하며(236), 특히 근대 국가로서 극심한 변화를 겪고 있는 르네상스 영국 사회를 “떨떨 끊은 가마솥”에 비유한다(200). 헤겔 역시 비극의 탄생이 역사의 위대한 전환점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새로운 질서가 기존의 질서를 대체할 때, 비극적 갈등은 불가피해지며, 기원전 5세기의 그리스 아테네와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의 영국, 두 번의 위대한 비극의 시대가 이러한 헤겔의 역사적 도식과 일치한다고 지적한다(Cantor 13).

개인의 가치는 재발견했지만, 중세와 완전하게 결별했다고 할 수 없는 근대로의 전환기에 위치한 『햄릿』은 고전과 중세 기독교의 이데올로기가 혼재되어 있는 작품이다. 셰익스피어는 『햄릿』에서 서로 다른 두 세계를 조화롭게 융합하기보다는 내적 모순을 지닌 채로, 그 지평을 넓히면서, 대표적인 르네상스인을 제시한다. 르네상스 이상인 전인성(totality)의 개념은 오페리아(Ophelia)가 “궁정인의 화술과 군인의 칼솥씨, 학자의 통찰력”(The courtier's, soldier's, scholar's, eye, tongue, sword)(3.1.151)<sup>2)</sup>을 가졌다고 찬탄한 햄릿을 통해 구현하고 있다. 햄릿은 탁월한 위트와 언어적 능력, 연극적 재능 등 다방면에 걸쳐 빛나는 인물이다. 햄릿은 이처럼 르네상스인으로서 전인성을 지녔지만, 그 이면에 혼재되어 있는 햄릿의 분열된 자아는 지정학적 위치에서도 상징성을 찾아볼 수 있다.

햄릿은 덴마크의 왕자로서, 덴마크는 일종의 경계 지역이다. 덴마크는

---

2) 인용문의 출처인 『햄릿』은 *Hamlet, Prince of Denmark* revised with a new introduction by Heather Hirschfeld. 3rd ed. Philip Edwards. Cambridge: Cambridge UP, (2019)로 한다.

근대 유럽에 변방 지역의 국가로서, 고대 세계(old world)를 상징하는 이교적 영웅주의(pagan heroism)의 세계와 신세계(new world)를 나타내는 기독교 문명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다. 말하자면, 덴마크 북쪽에는 야만적인 “근본 없는 무뢰배”(1.1.98)의 세계인 노르웨이가 있으며, 덴마크 남쪽에는 근대유럽의 중심지인 문화적 도시 파리(Paris)와 루터(Martin Luther)와 닥터 파우스트(Doctor Faustus)의 대학 도시 비텐베르크가 위치한다. 덴마크를 이렇듯 상반된 가치의 “교차 지점”(crossroads)에 위치시켜, 햄릿의 분열된 자아를 지정학적으로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Cantor 50). 셰익스피어 작품의 지정학적 상징성은 『오셀로』(Othello)에서도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실제 극적 상황이 진행되는 사이프러스(Cyprus)를 기독교 문명 지역인 베니스(Venice)와 이교도의 지역 터키(Turkey), 중간 지점에 위치시켜, 분열된 가치의 상징적 지형도 속에서 비극에 빠지게 되는 인물로 오셀로(Othello)가 제시되기 때문이다.

지리적으로 상반된 가치의 경계 지역인 덴마크의 왕자, 햄릿은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시각을 지닌 젊은이로 제시된다. 햄릿은 유행의 도시 파리에서 공부한 레어티스와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스토이시즘을 공부한 호레이쇼가 갖는 단일한 세계관<sup>3)</sup>을 벗어나 전체적 관점에서 우주를 조망하는 시각을 갖춘 인물이다. 하지만, 덴마크의 상징적인 지정학적 경계성에서 드러나듯, 햄릿은 포괄적이면서 동시에 분열된 내면 가치를 지닌 르네상스인이다. 무엇보다도 햄릿의 특징적인 점은 그가 고전 문화에 대한 찬탄과 동시에 기독교적 가치를 내면화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통시적 관점에서, 햄릿의 복수를 둘러싸고 재현되는 상반된 가치의 세계를 탐구할 것이다. 르네상스인 햄릿의 내면에 자리한 고대 그리스로 대변되는 고전 세계와 중세 기독교의 가치는 조화롭게 융합

3) 황훈성은 『햄릿』에서 인간의 심적 기능을 몽테뉴의 분석들을 빌려 7가지로 분류한다. 호레이쇼는 영성과 이성의 갈등을 빚는 햄릿과 달리 합리적인 이성의 편에 선 인물로서, 유령의 부름을 “상상력”의 소산으로 치부하여 강한 의혹을 제기하는(280-281) 단일한 세계관의 소유자이다.

되기보다는 서로 충돌하며, 때로는 문화적 혼종(混種)의 양상을 보여준다. 우선, 고대 그리스의 고전적 가치, 특히 고대 그리스의 영웅들이 최고의 가치로 간주했던 명예의 추구는 르네상스인 햄릿에게로 이어진다. 고대 그리스의 영웅은 사후에도 자신의 명예로운 이름이 후손들에게도 전해져 기억되기를 염원했다. 말하자면 죽음을 초월하여 기억되는 영웅으로서의 ‘불멸의 명성’을 얻고자 했다. “고귀한 정신의 소유자”(a noble mind)(3.1 144), 햄릿 역시 고귀한, 명예로운 가치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 작품에서는 복수를 중심으로 명예의 가치를 추구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동시에 햄릿은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조국으로 갓 돌아온 젊은이로, “영혼의 불멸”을 믿고 있는 인물이다. 햄릿의 기독교적 관심, 특히 내세에 대한 관념이 햄릿의 뇌리에 유령처럼 때때로 출몰하여, 복수를 지연시키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본질적으로 다른 두 세계는 햄릿의 의식 속에서 균열을 일으키면서, 복수를 계속해서 지연하는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Hamlet』 속에 등장하는 또 다른 햄릿, 선왕 햄릿(old Hamlet)이자 유령 햄릿(Ghost Hamlet)은 고전과 기독교, 이 두 세계를 구체적으로,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로서 분석할 것이다. 갑옷을 입고 “당당한” 모습으로 “복수를 명령”(revenge)하는 선왕 햄릿이 나타내는 고전 세계와, 영국의 종교개혁을 배경으로 “자신을 기억하라”(Remember me)고 당부하는 유령 햄릿을 통해 형상화되고 있는 기독교 세계의 양상을 탐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불멸의 명성’을 염원했던 고대 그리스 영웅처럼, 자신의 “더럽혀진 이름(a wounded name)이 남지 않도록”(5.2.323-4) 호레이쇼에게 부탁하며 임종을 맞이하는 햄릿의 영웅으로서의 명예로운 죽음을 고찰해 볼 것이다.

## II. 고대 그리스적 가치: 햄릿은 고대 그리스 영웅이다.

고대 그리스는 햄릿에게 단지 추상적인 과거가 아니다. 햄릿에게 생생하게 작동하는 가치체계로서 자리한다. 클로디어스의 “마음을 낚아보기”(catch the conscience of the king)(2.2.558) 위해 극중극을 상연하기 전, 배우들을 만난 햄릿은 트로이 전쟁을 묘사한 대사를 직접 암송하기도 하고, 배우에게 인용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한다. 햄릿은 고대 그리스의 인물들과 문학 작품들을 매우 깊이 있게 언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는 고대 그리스 고전 세계가 그에게 단지 배경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햄릿의 내면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우선, 햄릿의 입을 빌려 처음 등장하는 인물은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 영웅 헤라클레스(Hercules)이다. 햄릿 앞에 놓인 과제는 헤라클레스가 아우게이아스(Augeas)의 더러운 마구간을 청소<sup>4)</sup>한 것처럼, 클로디어스의 형제 살해로 인해 오염된 세계를 정화해야 하는 임무가 놓여있다. 하지만 자신을 헤라클레스 같은 아버지 햄릿과 비교하면서 한없이 부족하다고 여긴다: “내가 헤라클레스에게 범접할 수 없듯이, 숙부는 내 아버지에 비하면 어렵었다”(1.2.152-153). 무엇보다도 햄릿은 고대 그리스의 핵심 가치인 명예를 추구하는 젊은이라는 점에서 고대 그리스인으로서의 성격을 읽을 수 있다.

『햄릿』은 인간 실존에 대한 수많은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다.<sup>5)</sup> 프란시스

---

4) 아우게이아스의 마구간 청소는 헤라클레스 12 과업 중 하나이다. 헤라클레스에게 에우리스테우스(Eurysteus)왕은 아우게이아스의 더러운 마구간을 단 하루 만에 청소하라는 과업을 내린다. 아우게이아스는 수천 마리의 가축을 갖고 있었는데, 그 외양간을 몇 년 동안 한 번도 청소하지 않았다. 헤라클레스는 두 강의 흐름을 바꾸어 그 물줄기가 외양간을 지나가도록 만들어 단번에 모든 오물을 씻어냄으로써 5번째에 해당하는 과업을 완수한다.

5) 메이나드 맥크(Maynard Mack)는 『햄릿』의 특징 중의 하나로 신비감(mysteriousness)을 꼽는다. 다른 극에서 보지 못할 정도의 수많은 질문이 울려

코의 “거기 누구냐”(1.1.1)라는 잘못 던져진 질문으로 시작해서, 가장 백미(白眉)로 꼽히는 질문이자 주인공 햄릿을 ‘모든 사람의 햄릿’(everyman's Hamlet)으로 끌어올린 질문은 다음과 같은 실존에 대한 물음이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다.  
어떤 것이 정신적으로 더 고귀한 것인가,  
가혹한 운명의 돌팔매와 화살을 맞아도 참을 것인가,  
혹은 고통의 바다에 대항하여, 무기를 들고,  
맞서 싸워, 그것들은 끝장낼 것인가.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Whether 'tis nobler in the mind to suffer  
The slings and arrows of outrageous fortune,  
Or take arms against a sea of troubles,  
And by opposing end them. (3.1.56-60)

수많은 논평을 산출한 3막 1장의 독백에서 햄릿은 “무엇이 더 고귀한가”, 즉 영광스럽고, 명예로운(nobler, more honorable) 것인지를 묻고 있다. 참는 것인가, 혹은 무기를 드는 것인가. 운명이 가하는 상처를 참아내는 것인가, 혹은 고난에 맞서(by opposing) 괴롭더라도 용감하게 싸우는 것인가. 불운을 참는 것은 “견뎌내는 것”(suffer)이다. 반대로 “무기를 드는 것”(take arms)은 밀물처럼 밀려드는 환난의 조수에 맞서 싸우는 것, 즉 영광스럽고, 고귀한(noble, honorable) “전사”(Belsey 111)가 되는 것이다. 첫 번째 관점은 삶을 지속하면서, 감정과 걱정을 스스로 다스리는 극기(self-mastery)의 형태로 고난(suffering)을 존중하는 기독교적 관점 내지 스토아적 전통을 읽어낼 수 있다(Hirschfeld 42). 두 번째 선택에선 복수를 염두에 두고, 설사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삶의 부조리에 맞서 싸우는

---

퍼지고 있으며, 등장인물들, 특히 햄릿이 던지는 질문이 이 극을 불가해한 세계로 향하게 한다고 지적한다(108-109).



전사가 되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햄릿의 “무엇이 더 고귀한지”를 묻는 질문에서, 고대 그리스 영웅의 명예에 대한 추구를 읽을 수 있다. 고대 그리스에서 인간을 신과 같은 불멸의 존재로 만드는 가치를 고귀함, 명예로움에서 찾았기 때문이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신들을 자신들의 형상을 본떠서, 가장 젊고 아름다운 절정의 빛나는 존재로 만들었다. 하지만 대부분 신들은 인간들에게 그다지 유용한 존재가 아니었고, 오히려 그 반대라고 이디스 해밀턴(Edith Hamilton)은 지적한다. 예를 들어 신들의 신 제우스(Zeus)는 여인들에게 위험한 연인이고, 아레스(Ares)는 전쟁과 역병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이었으며, 따라서 대부분 인간은 신들이 없어야 오히려 잘 지낼 수 있다는 것이다(47). 반면 호메로스 서사시 『일리아스』(*Iliad*)에 등장하는 트로이의 영웅 헥터(Hector)<sup>6)</sup>는 트로이인들에게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졌고, 신들보다 훨씬 훌륭한 성품을 지닌 인물로 묘사된다. 그러나 신과 인간의 결정적 차이는 존재한다. 그것은 필멸(mortality)의 여부였다. 신들은 인간과 달리 죽지 않은 존재였다. 신들은 불사의 음식 암브로시아를 먹으며, 넥타르를 마시며,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이다. 하지만 제우스의 위대한 아들이자 대표적 영웅인 헤라클레스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속성, 모든 인간은 죽어 하데스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에게 주어진 조건은 누구를 막론하고, 평등하게, 죽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다(*memento mori*). 하지만 고대 그리스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 필멸의 운명을 극복하는 방법을 ‘불멸의 명성’을 통해 영원히 사는 것에서 찾았다. 명성을 통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다. 테베(Thebe)의 예언자 테이레시아스(Teiresias)

6) 헥터(Hector)는 트로이의 왕 프라이어엄(Priam)의 아들로써 명예를 중시하는 전쟁 영웅이다. 프라이어엄의 자랑스러운 장남일 뿐 아니라 안드로마케의 존경스러운 남편이다. 트로이 사람들은 항상 헥터를 “말을 길들이는 명인”(Tamer of horses)이라고 부르며 존경했다. 셰익스피어의 문제 희극(Problem Plays) 중 하나인 『트로일러스와 크레시다』(*Troilus and Cressida*)에서 헥터는 중심인물로 등장한다.

는 헤라클레스의 어머니 알크메네(Alcmena)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수많은 그리스 여인이 황혼 무렵에 양털을 뽑으며, 당신의 이 아이와 아이를 낳은 당신을 ‘노래하게’ 되리라고 맹세합니다. 이 아이는 모든 사람의 영웅이 될 것입니다”(Hamilton 161-2). 말하자면 헤라클레스는 경이로운 그의 행적과 죽음으로 그의 이름이 시인들의 노래나 시기를 통해 ‘자손 대대로 전해져’ 사람들에게 찬양받는 영웅이 된다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 전통에서 영웅이란, 남녀 구분 없이 불멸의 존재들의 후예로서 초인간적인 능력을 겸비한 인간을 의미한다(Nagy 9). 하지만 영웅들이 어떤 식으로든, 신들의 후손이라고 할지라도 수명이 아무리 길다 해도, 영웅들은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는 필멸의 존재들이다(Nagy 9-10). 하지만 영웅들이 죽음을 극복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전쟁터에서 ‘명예롭게’ 죽음으로써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 ‘불멸의 명성’을 통해서였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 등장하는 대표적 영웅인 아킬레우스는 ‘불멸의 명성’을 얻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일 이곳에 계속해서 머물며 트로이아의 성벽 아래서 싸움을 계속한다면 나는 무사히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불멸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요. 반면에 제가 만일 조상들의 땅, 그 소중한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나의 영광은 사라지겠지만 대신 오랫동안 평온하게 살 수 있을 것이요. 그리고 내가 맞이할 죽음의 순간도 그렇게 빨리 오지 않을 것이요” (9. 412-416).

말하자면 아킬레우스는 짧은 인생이지만 영원한 ‘영광’을 누리기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고향에서의 편안하고 안락한 삶, 자연스럽게 수명이 다할 때까지 누릴 수 있는 삶을 뒤로한 채, 전쟁터에서 자신의 탁월함을 과시하며, 영광스럽게 죽음으로써 ‘아름다운 죽음’(la belle mort, fine death)

---

7) 헤라클레스(Heracles)라는 이름은 ‘헤라(Hera)의 영광(클레오스)’, 즉 ‘헤라의 영광을 가진 자’라는 의미가 들어있다. 헤라클레스는 헤라 여신의 개입으로 고행(12 labours)을 겪게 되고, 고행을 통해 영광(클레오스)을 얻게 된다(Nagy 42).

(Vernant 86)을 완성하고자 했던 것이다.

따라서 인칭 대명사 없이, 인간의 존재가치를 묻는 위대한 질문에서 “어떤 것이 더 고귀한 것인가”(Whether 'tis nobler)를 묻는 것은 명예를 의식하는 고대 그리스의 가치가 “마음에”(in the mind) 새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 구절은, “가혹한 운명의 돌팔매와 화살을 맞아도 참는 것”(to be)을 택할 것인지, 혹은 “고통의 바다에 대항하여, 무기를 들고 맞서 싸울 것인지”(not to be) 하는 양자택일의 대사로 이어진다. 이 대사에 앞서, 선왕 유령은 햄릿에게 “참지 말라”(Bear it not)(1.5.81)라는 명령을 당부하고 사라졌다. 따라서 이 질문의 방점은, 인내의 삶(to be)보다는 고대 그리스 영웅들처럼 목숨을 던지더라도(not to be) ‘명예롭게’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에 찍힌다고 볼 수 있다.

햄릿이 고전 세계의 영웅을 기리는 대사는 햄릿의 마지막 독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부 비평가들은 이 독백을 의심과 주저에 종말을 고한다는 점에서 햄릿의 가장 단호한 독백으로 묘사한다. 이 독백에서도 햄릿은 자신의 복수 지연의 의미를 질문한다.

얼마나 모든 상황들이 날 비난하고  
내 무더진 복수에 박차를 가하는가! 인간이란 대체 무엇인가,  
만약 자신의 시대를 이용한 최상의 선과 이득이  
오로지 잠자고 먹는 것이라면? 짐승에 불과하지.

How all occasions do inform against me  
And spur my dull revenge!" What is a man  
If his chief good and market of his time  
Be but to sleep and feed? A beast no more. (4. 4. 32-5)

“모든 상황들”은 클로디어스와 폴로니어스가 자신들을 “합법적 스파이”(lawful espials)(3.1.31)로 정당화하여 자신을 감시하고, 무엇보다도 햄릿을 죽음으로 몰아넣기 위해 영국으로 보낼 음모를 꾸미는 상황이다. 또

한 햄릿이 배우들에게 부탁한 연극 대사 속에 등장하는 피러스(Pyrrhus)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피러스는 아버지(아킬레우스)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트로이의 왕 프라이엄(Prime)을 죽이는 인물이다. 햄릿은 복수를 계속해서 연기하는 자신을 질책하며, 자신의 복수를 감행하지 못하는 이유를 “동물 같은 망각”(bestial oblivion)이나,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소심한 주저”(some craven scruple/ Of thinking to precisely on th’event)(4.4.39-40)라고 여긴다. 그러면서 햄릿은 자신이 모델로 삼는 포틴브라스(Fortinbras)의 영웅적 가치를 되새기며, 명예에 대한 의미를 묻는다.

진정으로 위대하다는 것은  
 대단한 명분 없다고 해서 거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푸라기 한 올만큼이라도 명예가 걸려있으면  
 당당하게 명분을 삼는 것이다.

Rightly to be great  
 Is not to stir without great argument  
 But greatly to find quarrel in a straw  
 When honour's at the stake. (4.5.53-5)

햄릿은 고대 그리스 영웅들이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덕목으로 간주한 명예의 의미를 포틴브라스의 행동에서 찾고 있다. 햄릿은 “젊지만 고상한 왕자”(4.4.47) 포틴브라스를, “영혼은 신성한 야망에 부풀어. . . 위험이나 운명, 죽음까지도 감수하는”(4.4.48-51) 인물로서 높이 평가한다. ‘강한 어깨’라는 이름의 포틴브라스는 햄릿처럼 아버지를 잃었고, 젊은 혈기에 사로잡혀 무분별하게 “근본 없는 무뢰배들”(landless resolute) (1.1.98)<sup>8)</sup>을

8) 보초 서는 장면에서 시작된 이 극의 특징으로 볼 때, 포틴브라스는 보초의 원인이 되는 인물로서 처음 소개되어(1막 1장), 마지막 장면(5막 2장)에서 무혈입성하여 왕국을 물려받는 인물로서 상황을 정리하는 역할을 한다. 이 점에서 포틴브라스는 햄릿의 대비 인물(foil character) 이상의 중요성을 지닌다. 마가렛 드 그

끌어모아 복수의 일환으로 덴마크를 침공할 계획을 세웠지만, 노르웨이의 왕인 삼촌의 꾸지람을 듣고,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는 인물로 제시된다. 하지만 햄릿과는 달리 무력함(inactivity)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명분을 지키기 위해 폴란드로 진격하는 인물이다. 포틴브라스는 대의명분의 가치를 중시하여, “지푸라기 한 올이라도 명예가 걸려있으면” 수천, 수만 명의 군사들의 목숨을 걸고라도 싸우는 인물이다. 햄릿은 이러한 포틴브라스의 영웅적 태도를 존경하며, 임종의 순간, 유언으로 그를 차기 왕으로 지명한다. 명예를 대단히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고전 영웅들처럼 햄릿은 선친의 명예, 더럽혀진 어머니의 명예를 위해, 그리고 자식으로서의 명예를 걸고 더 이상 복수를 미루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게 된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생각들이 잔인해져라, 아니면 내 생각은 무용지물이다”(Oh from this time forth/My thoughts be bloody or be nothing worth) (4.4.65-6).

---

라지아(Margareta de Grazi)는 유물론적 관점에서, 『햄릿』을 토지와 연관되어 갈등을 일으키는 작품으로 분석한다. 토지와 극 중 인물들과의 행위를 연결시켜, “영토를 얻기 위해 서로 싸우며 죽이는 세계”(2)로 파악한다. 선왕 포틴브라스와 선왕 햄릿과의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결투에서 시작하여, 폴란드의 쓸모 없는 “땅 한 조각”을 얻기 위해 벌이는 노르웨이와 폴란드 간의 영토 분쟁, 그리고 햄릿과 레어티스가 오펜리아의 흙무덤을 두고 벌이는 다툼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영토 분쟁이 이 극을 이끌어가고 보았다. 이런 맥락에서 “근본 없는”(landless) 무죄배들의 주인(lord)인 포틴브라스가 마침내 덴마크를 차지해서, 이들에게 토지(land)를 부여하는 인물로 제시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토지란 단지 물질적인 흙더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체성을 이루는 발판이 되기 때문이다. 마치 오뒷세우스에게 고향 이타카(Itaca)처럼 말이다. 오뒷세우스가 10년간 방랑하면서, 온갖 유혹과 고난을 무릅쓰고, 이타카로 굳이 돌아가려 했던 것은, 그곳에서 진정한 오뒷세우스 자신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 Ⅲ. 복수극: 고대 그리스 고전과 기독교

『햄릿』은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 인기 있는 장르 중 하나인 복수극 형태를 띠고 있다. 복수극은 고전과 기독교의 내적 긴장(inner tension)을 드러낼 수 있는 최적의 드라마 장르라고 할 수 있다. 복수에 관한 고전 세계와 기독교와의 관점의 차이는 예수와 아킬레우스가 지닌 정반대의 시각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Cantor 25). 이 작품에서 햄릿의 복수를 대하는 태도는 고전과 기독교적 가치가 혼재되어 있는 양상을 보여준다.

우선, 고대 그리스에서 복수는 명예와 관련된 행위로 여겼다. 고전 그리스 시대 영웅주의(heroism)는 복수를 탁월함(*par excellence*)을 보여주는 숭고한 행위(activity)로 간주했다(Cantor 28). 고전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스』는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노래하소서, 여신이여!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분노를,  
아카이오스족에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고통을 가져다주었으며,  
술한 영웅들의 굳센 혼백들을 하데스에게 보내고,  
그들 자신은 개들과 온갖 새들의 먹이가 되게 한  
잔혹한 분노를! (1.1-5)

『일리아스』의 대표적 영웅 아킬레우스는 분노에 휩싸여, 눈물 없는 신들까지도 노여움에 이르게 할 정도의 잔인한 복수를 하는 인물이다. 첫 번째 분노의 대상은 자신의 “명예의 선물”(gift of honour)<sup>9)</sup>을 가로챈 아가멤논(Agamemnon)이었으며, 두 번째 대상은 자신의 친우 파트로클로스(Patroclus)를 살해한 헥터이다. 아킬레우스는 자신의 “명예의 선물”인 브리세이스를 아가멤논에게 보내며, 자신은 명예가 없는 자라며, 트로이와

---

9) 그 당시 ‘명예의 선물’은 전사의 무공에 따라 배분되었다. 전사의 지위와 공적에 따라 배분되는 것으로 물질적 가치를 능가하는 용사의 명예를 상징하는 전리품이었다.

의 전투에 참전하지 않겠다는 복수를 한다. 아킬레우스는 ‘불멸의 명성’을 얻고자 트로이 전쟁에 참여했고, 따라서 ‘명예의 선물’을 빼앗긴 자신은 더 이상 전쟁에 참여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스 최고의 명장 아킬레우스가 사라진 전투에서 그리스 군들의 사기는 추락하여 사망하고, 전쟁터에는 그리스 군들의 시체가 즐비하게 널려 있게 된다. 보다 못한 파트로클로스가 아킬레우스의 갑옷을 입고, 아킬레우스의 용사인 미르미돈(Myrmidon)인들을 이끌고 참전하지만, 헥터에게 죽음을 당하게 되자 아킬레우스는 친구 파트로클로스의 복수자<sup>10)</sup>가 되어 헥터에게 광기 어린 잔인한 복수를 한다.

『일리아스』는 복수의 인물 아킬레우스의 분노가 어떻게 다스려지고 있는가를 다룬 작품이다. 아킬레우스는 아들 헥터의 시신을 찾으러 온 프리아이의 고통에 공감하며, 연민을 갖고 헥터의 시신을 돌려주며, 헥터의 장례식을 치르는 것으로 이 서사시는 끝난다. 자아 인식의 순간 영웅 아킬레우스의 분노는 사라지고, 진정한 깨달음을 얻게 된다(Nagy 13).

『햄릿』에서 아킬레우스의 아들, 피러스(Pyrrhus)가 등장하여, 트로이 왕자 패리스(Paris)에게 살해당한 아버지 아킬레우스의 복수를 한다. 피러스는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트로이의 왕 프라이어엄(Priam)에게 칼을 겨눈다. 프라이어엄을 향해 칼을 내려치려는 순간 피러스는 멈칫하고, 피러스의 정지한 그 순간을 셰익스피어는 포착하고 있다.

프라이어엄 왕의 백발 성성한 머리를 향해  
사정없이 내려치던 그의 칼은 허공에 박힌 듯 멈춰 섰고,  
그림 속 폭군처럼 얼어붙은 피러스는

10) 아킬레우스는 헥터를 창으로 찌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헥터여! 그대는 파트로클로스의 무구들을 벗겼을 때 무사하리라 믿고, 멀리 떨어져 있는 나는 염두에도 없었겠지. 어리석도대! 멀리 속이 빈 함선들 옆에는 그대보다 훨씬 강한, 그의 복수자가 뒤에 남아 있었다. 그대의 무릎을 풀어버린 이 내가 말이다. 그대는 개 떼와 새 떼가 보기 흉하게 찢게 될 것이나 그는 아카이오이족이 후히 장사 지내주리라”(22. 331-336).

의지와 결행 사이에 끼인 듯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더라.

for lo, his sword,  
Which was declining on the milky head  
Of reverend Priam, seemed i'th'air to stick,  
So, as a painted tyrant, Pyrrhus stood,  
And like a neutral to his will and matter,  
Did nothing. (2. 2. 435-440)

셰익스피어는 고전 영웅 피러스의 멈칫한 그 순간, 번쩍이는 광휘 속에 서 실체를 인식하는 순간을 부여한다. 젊고 용맹한 피러스는 자신의 칼 휘두르는 소리에 놀라 자빠진 백발 성성한 나약한 노인 프라이엄과, 그 프라이엄을 죽이려는 잔인한 자신의 모습을 순간적으로 인식한 것이다. 하지만 그 섬광 같은 찰나의 인식을 무시한 채, 피러스는 복수자의 역할을 계속해서 프라이엄을 죽이게 된다: “피러스는 멈춰 선 뒤, 복수심을 일깨워 새로운 도발을 감행한다”(so after Pyrrhus pause,/A roused vengeance set him new a-work )(2.2.445-6). 헥터의 주검을 찾으러 온 프라이엄을 “동정과 연민”(love and pity)(24. 309)으로 살려준 아킬레우스와 다르게 말이다. 또한 부친의 복수를 다각도에서 고려하여 계속해서 복수를 지연하는 햄릿과도 다르게 말이다.

『햄릿』에서 유령 햄릿은 아들 햄릿에게 복수를 당부한다: “그자의 가장 극악하고 패륜적인 살인에 복수해다오”(Revenge his foul and most unnatural murder) (1.5.25) 햄릿도 아버지의 죽음에 복수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여기며 복수하는 것을 명예와 연관시킨다.

햄릿     자네는 어찌 생각하지 않겠는가, 이제는 내 의무가 아닌가  
          내 선친을 죽이고, 내 어머니를 능욕하고,  
          왕으로서의 선출과 내 희망 사이에 갑자기 끼어들어  
          그럴듯한 술책을 부리며 내 목숨을 뉘우려고



속임수를 쓴 자인데

Hamlet Does it not, think thee, stand me now upon--  
He hath killed my king, and whored my mother,  
Popped in between th'election and my hope  
Thrown out his angle for my proper life,  
And with such cozenage (5.2.63-7)

햄릿 자신의 왕위 계승에 대한 희망을 짓밟고, 여성의 명예인 어머니의 정절(honour)을 더럽힌 클로디어스를 처단하는 것을 명예롭고 정당한 행위로 규정한다. 이와 같이 햄릿은 고대 그리스 영웅들의 명예 의식을 숭상하고, 이런 맥락에서 포틴브라스를 영웅의 한 실례로 존경한다. 포틴브라스는 극 중 인물 중 가장 전통적인 영웅주의를 구현한 인물이다(Cantor 47). 햄릿은 그의 용기에 감명받고 그와 같은 영웅적 결심을 보여주지 못한 것에 대해 자신을 비난한다. 하지만 포틴브라스의 영웅적 행위 저변에 깔린 허상을 간파한다. 그가 수천, 수만의 목숨을 희생해서 얻는 그 대가란, “작은 땅덩어리로 고작 이름에 불과한”(a little patch of ground/ That hath in it no profit but the name)(4.4.18-9) 것으로, 실제적인 가치가 없는 그저 허울에 불과하다고 인식한다. 포틴브라스의 영웅적 행위에 대해 찬탄한 뒤, “달걀 껍질”(egg-shell)(4.4.53)이라는 용어로 그에 대한 환상을 해체 시킨다. 햄릿은 그의 영웅적 행위에 대한 찬탄과 비판을 동시에 하는 양가적(ambivalent)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햄릿의 또 다른 내면을 구성하고 있는 기독교의 가치는 복수보다 용서와 자비를 강조한다: “또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마태복음 5장 38-39) 무엇보다도 복수를 인간의 영역을 초월한 행위로 규정한다. “복수는 나의 것이니, 내가 갚겠노라”(로마서 12장 19절)라고 명령하며, 사적인 복수를 금지한다. 복수는 신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인간이 스스로 의지에 따라

복수하는 것은 신의 권능에 도전하는 행위이다. 이런 맥락에서 복수에 대한 햄릿이 지닌 기독교적 가치관은, 복수를 명예의 행위로 간주하는 고대 그리스 고전주의 가치관과 충돌하는 형태를 띤다.

무엇보다도 르네상스인 햄릿과 고대 그리스 영웅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내세<sup>11)</sup>에 대한 태도이다. 에드워즈(Philip Edwards)는 햄릿이 오피리아나, 클로디어스와 달리 스스로 거의 종교적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으며, 그 예로 햄릿이 딱 한 번 농담조로 기도에 대해 언급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누구나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이 있으니까 변변찮은 나도 그러니, 기도하러 가겠네”(1.5.131-2). 하지만 계속해서 에드워즈는 『햄릿』은 일차적으로 종교적인 극이고 햄릿은 끊임없이 천국과 지옥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파악한다고 주장한다(50). 그의 뇌리엔 천국, 지옥, 연옥, 참회, 심판 같은 개념으로 가득 차 있다. 햄릿은 결코 기독교도가 아닌 적은 없다. 다음 제시되는 밀서의 내용은 매우 유사한 문장 구조를 지녔지만 서로 다른 내면을 지닌 클로디어스와 햄릿의 차이를 확연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

햄릿      영국 왕은 칙서를 읽자마자 즉각 추호의 지체도 없이  
 도끼날을 버릴 순간도 주지 말고,  
 내 목을 내리쳐 없애버리라고 하는 거야.

Hamlet    That on the supervise, no leisure bated  
 No, not to stay the grinding of the axe,  
 My head should be struck off. (5. 2. 21-4)

햄릿은 밀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바꿔치기한다.

11) 호메로스의 작품에서 그려진 사후 세계는 죽은 자들이 실체 없는 “그림자”(『일리아스』23.103)처럼 존재하는 곳이다. 하데스에서, 자신을 칭송하는 오뒷세우스에게 아킬레우스는 “사자들을 통치하느니 차라리 지상에서 머슴이 되어 농토도 없고 재산도 많지 않은 가난한 사람 밑에서 품이라도 팔고 싶다”(『오뒷세이아』11. 489-491)라고 말한다. 내세보다는 현세를 중시하는 그리스인들의 인간 중심관을 읽을 수 있다.

햄릿    칩서를 읽고 내용을 파악 하자마자  
 더 이상 논의조차 하지 말고  
 참회의 시간조차 허용하지 말고  
 영국 왕은 칩서를 가져간 자들을 즉각 처형하라.

Hamlet    That on the view and knowing of these contents  
 Without debatement further, more or less,  
 He should those bearers put to sudden death,  
 Not shriving time allowed. (5.2. 44-7)

햄릿을 죽이라는 내용을 적은 클로디어스의 밀서에는 지체 말고 즉각적으로 햄릿의 목을 베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서 사용되는 언어는 마치 단두대에서 사람을 처형하는 것처럼 무자비한 무기와 즉각적인 처형을 영국 왕에게 명령하는 내용이다. 반면 바뀌치기한 햄릿이 작성한 밀서의 내용은, 클로디어스의 “스펀지”(sponge)(4.1.12)가 된 죽마고우들의 참회를 허락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햄릿이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은 내세로서, 그에게 중요한 것은 죽는 순간의 참회이다. 참회하여 죄의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기도하는 클로디어스를 죽이지 않는 것보다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도저히 구원의 여지가 없는 모종의 행위를 하고 있을 때  
 이 자를 처치해 천국을 발로 차고 거꾸로 떨어져  
 그의 영혼이 지옥처럼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저주받은 채로  
 지옥으로 곧두박질하도록 해야겠다.

or about some act  
 That has no relish of salvation in't-  
 Then trip him that his heels may kick at heaven,  
 And that his soul may be as dammed and black  
 As hell whereto it goes. (4. 4.91-5)

복수의 절호의 기회를 얻었으나, 행동하지 않는 햄릿의 이와 같은 대사에 대해 코올리지(Samuel Coleridge)나 쉘레겔(Friedrich Schlegel) 같은 낭만주의 비평가들은 햄릿의 복수 지연에 대한 일종의 변명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햄릿이 이상적으로 여기는 복수는 불멸의 영혼에게 하는 복수이다. 햄릿이 원하는 완벽한 복수는 클로디어스의 육체의 파멸뿐만 아니라, 영혼의 파멸이다. 켄터는 기도하는 클로디어스를 살해하지 않는 햄릿에게 긴 대사를 부여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원수(클로디어스)가 지옥에서 저주받는 것을 보고 싶은 욕망을 표현하기 위해 긴 대사를 햄릿에게 주었다는 것이다(41). 말하자면, 내세에 대한 햄릿의 지극한 종교적 관심이 복수의 행위를 한층 더 복잡하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종교적 가치관은 햄릿이 종교개혁의 요람인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수학한 대학생이란 사실과 연관된다. 햄릿의 첫 독백에서 드러나듯, 햄릿은 살인을 금하는 계율로 인해 자신이 그토록 염원하는 자살 의지를 접는다. 또한 “사느냐, 죽느냐”의 독백을 복수의 주제와 연관시켜 볼 때, 복수 의지를 막는 것은 기독교적 양심으로 제시된다.

이렇게 양심<sup>12)</sup>이 우리 모두를 겁쟁이로 만든다.  
 이렇게 해서 결의의 자연스러운 색조가  
 사색의 창백한 색조로 그늘져 병색으로 물든다.  
 의기충천하던 큰 뜻도 마침내 방향을 잃고  
 실행의 이름을 잃게 된다.

Thus conscience does make cowards of us all,  
 And thus the native hue of resolution  
 Is sicklied o'er with the pale cast of thought,  
 And enterprises of great pitch and moment  
 With this regard their currents turn awry  
 And lose the name of action, (3, 1, 83-9)

12) 에드워즈는 양심(conscience)을 잃고 그름을 판단하는 내적 인식, 종교적 인식으로 해석한다(147).

햄릿의 종교적 “양심”(conscience)으로 인해 복수하고자 하는 “결심”(resolution)을 꺾은 것은 “저주에 대한 두려움”(fear of hell)(Belsy 113), 즉 내세에 대한 두려움이다. 『리처드 3세』에서 이와 유사하게, 리처드 3세로부터 리처드의 형 클래런스(Clarence) 공작을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았지만, 최후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암살을 포기하는 자객을 등장시킨다.

자객 1            겁이 나나, 자넨?  
자객 2            죽이는 건 겁나지 않아, 영장을 갖고 있으니까.  
                     하지만 죽인 죄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막아줄  
                     영장은 없지 않은가.  
자객 1            뭐야, 결심이 돼 있는 줄 알았지.

First Murderer    What art thou afraid?  
Second Murderer   Not to kill him- having a warrant-but to be damned for  
                              killing him, from the which no warrant can defend me.  
First Murderer    I thought thou hadst been resolute.

(1.4. 106-112)

자객 2는 양심의 가책(scruples)으로 갈등하게 되지만 보수를 떠올리며 ‘양심’을 쫓아낸다: “나는 상관하지 않겠네. 양심은 사람을 겁쟁이로 만드니까”(I'll not meddle with it, it makes a man a coward) (1.4.132-133). 그렇지만 그는 끝내 살인하지 않았고, 따라서 자객 1은 자객 2의 비겁함(cowardice)을 탓하며, 그에게 보수를 주지 않고 그를 쫓아낸다. 내세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인을 포기하고, 그 원인을 ‘겁쟁이 양심’ 탓으로 돌리는 『리처드 3세』의 자객 2는 햄릿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있다.

햄릿은 기독교적 ‘양심’과, 자식으로서 ‘명예로운 복수’의 과업 사이에서 “양다리 걸친 사람처럼... 망설이다 양쪽 다 못하고 마는”(3.3.41-3) 기도하는 클로디어스처럼, 계속해서 복수를 지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 IV. 선왕 햄릿(Old Hamlet) 과 유령 햄릿(Ghost Hamlet)

『햄릿』의 원전으로 간주하는 12세기 후반 삭소 그라마티쿠스(Saxo Grammaticus)의 『덴마크 역사』(*Histoiae Danicae*)에는 유령이 등장하지 않는다. 원전에서 호르웬딜 왕(King Horsendil)은 자신을 시기하는 인물인 형제 팡(Feng)에게 살해당하는데 비밀스럽게 행해진 암살이 아니라 공공연한 시해였다. 팡에게는 강력한 왕권이 있었고, 호웬딜 왕이 아내 거루타를 거칠게 학대했다는 것을 살해의 명분으로 삼았다. 하지만 『햄릿』에서 선왕 햄릿의 살인은 클로디어스의 “사악한 간계”(wicked wit)(1.5. 44)로 은밀하게 이루어졌고, 선왕 햄릿은 자다가 독사에 물려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런 사실을 알리기 위해 유령은 유용한 장치였고, 셰익스피어의 동시대 복수극에서 유령은 빈번하게 등장했다. 특히 『햄릿』의 선배 격인 작품 『서반아 비극』(*The Spanish Tragedy*)<sup>13)</sup>에서도 유령의 존재를 찾아볼 수 있다.

“모호함의 걸작”(masterpiece of ambiguity)(Hibbard 40)인 유령을 셰익스피어는 기존의 유령과 다르게 창조하고 있다. 유령은 이 작품에서 고전과 기독교 세계를 구체화하고 있는 인물로 제시한다. 아들 햄릿이 두 세계를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갈등에 빠진 인물이라면, 유령 햄릿은 고전과 기독교 시대를 외형적으로,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인물이다. 본 논문에서는 햄릿의 선친을 고전과 기독교적 특성을 부각시켜, 선왕 햄릿과 유령 햄릿으로 명명할 것이다. 말하자면, 햄릿에게 융합한 무사이자, 신과 같은 존재인 선친 햄릿을 선왕 햄릿(old Hamlet)으로, 기독교를 배경으로

13) 『서반아 비극』에서 유령의 역할은 인간의 운명을 통제하지만 현실과 멀리 떨어진 채, 사물의 신비를 구경하는 비극의 코러스 역할이지만, 『햄릿』에서 유령은 초현실적인 동시에 현실성 있는 인물이며, 동시에 경험의 세계에 국한되지 않는 인물이다. 시대적으로 먼 영웅적 서사의 세계에 속하면서도 현실적인 실재성이 강조되는 특징을 지닌 존재로 『햄릿』의 가장 독창적인 성과이다(유재덕 196-197).

연옥에서 온 것 같은 선친 햄릿을 유령 햄릿(ghost Hamlet)으로 편의상 분류하여 분석할 것이다.

우선, 유령은 서사적인 영웅의 모습으로 “야심만만한 노르웨이 왕”과 결투할 때의 갑옷을 입은 채, 등장한다. 선왕 햄릿(old Hamlet)은 선왕 포틴브라스(old Fortinbras)와의 일대일 전투에서 그의 영토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빼앗는 등 혁혁한 승리를 쟁취한 과거 덴마크의 영웅으로 서사시적 영웅 세계를 상징한다. 햄릿은 선왕 햄릿을 고전 세계와 연관시켜, “히페리온의 곱슬머리, 주피터의 이마, 위협을 하고 명령하는 군신 마르스 같은 눈, 전령의 신 머큐리 같은 자세”(Hyperion's curls, the front of Jove himself,/ And eye like Mars, to threaten and command;/ A station like the herald Mercury)(3.4.56-58)를 갖춘, 신과 같은 존재로 묘사한다. 햄릿에게 선왕 햄릿은 신에 필적하는 존재이지만 필멸의 인간인 고전 시대의 영웅을 떠올리게 하는 상징적 인물이다. 유령의 모습으로 나타난 선왕 햄릿은 “추악하고 반인륜적 살인”에 대해 자식으로서 복수해달라고 명령한다: “만일 네가 지금까지 너의 진정한 아버지로 사랑했다면 . . . 그자의 가장 극악한 살인에 복수해다오”(If thou dost ever thy father love . . . Revenge his foul and most unnatural murder) (1.5.23-25). 기독교가 전파되기 이전의 이교도적 복수의 가치관에 따르면, 자식들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야 한다고 여겼다(Greenblatt 303). 복수는 명예와 관련된 행위였기 때문이다.

또 다른 선친 햄릿의 정체성은 연옥으로 보이는 곳에서 온 유령이다. 유령 햄릿은 오직 아들 햄릿에게 자신은 “네 아버지의 혼령”(1.5.9)이며, “내 살아생전 저지른 더러운 죄가 불에 타 정화될 때까지 일정 기간 밤에는 걷고, 낮에는 불 속에서 참회 단식을 해야 하는”(1.5.11-4) 운명에 처해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확실하게 유령 햄릿이 연옥에서 온 영혼임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신교는 연옥의 존재를 부정하며 유령은 악령이라고 치부했지만, 구교는 연옥의 존재를 인정했다. 연옥은 죄지

은 영혼이 자신이 생전에 지은 죄를 씻기 위해 오랜 기간에 걸쳐 불 속에서 정화해야 하는 장소였다.

기독교도들은 죽고 나면, 사악한 영혼은 곧장 지옥으로, 성스러운 영혼은 천국으로 가지만, 대다수를 차지하는 완전하게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영혼은 연옥으로 간다고 믿었다. 연옥은 거대한 감옥과 같은 곳으로 영혼들은 거기서 생전에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를 때까지 고통을 겪는다고 한다. 교회 사제들에 따르면, 연옥의 고통은 지옥의 고통처럼 끔찍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연옥은 무한정 고통받는 장소가 아니라, 기한이 있는, 즉 끝이 있는 정화소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 기간은 1,000년이나 2,000년 정도의 긴 기간이었고, 그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길은, 사제에게 청해 미사를 드리거나, 산 자가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적절한 의식을 통해 죽은 자를 기억한다면, 고통이 경감된다고 하였다 (Greenblatt 313). 따라서 유령이 사라지면서 햄릿에게 “나를 기억하라” (1.5.91)는 명령은 연옥 영혼인 유령 햄릿이 아들 햄릿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나에게

내 갇힌 곳의 비밀을 발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 않다면  
말하면 가장 가벼운 단 한 마디라도 네 영혼은 고통을 받고  
네 영혼은 갈가리 찢기고 네 젊은 피는 얼어붙으며  
두 눈알은 유성들이 궤도를 튀어나오듯 튀어나오고,  
너의 잘 정돈된 머리가 갈라져  
가닥가닥 갈가리 끝까지 솟아올라  
마치 격분한 고슴도치의 침 같은 털 모양 곤두설 것이다.

But that I am forbid  
To tell the secrets of my prison house,  
I could a tale unfold whose lightest word  
Would harrow up thy soul, freeze thy young blood,  
Make thy two eyes like stars start from their spheres,



Thy knotted and combined licks to part  
And each particular hair to stand an end  
Like quills upon the fretful porpentine. (1.5. 14-20)

물론 유령 햄릿의 말에서 연옥에 대한 확실한 지칭은 없다. 하지만 유령 햄릿이 “내가 갇힌 곳(my prison house)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 금지당했다”라고 했을 때, 『햄릿』을 감상하던 관객들은 “갇힌 곳”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았을 것이라고 그린블랫(Stephen Greenblatt)은 설명한다(319). 헨리 8세 이후, 영국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뒤, 개신교 권위자들은 가톨릭교회가 죽은 자들과 협상하는 방법으로 신도들에게 제공했던 믿음이나 의례들을 공격하고 불법화했다. 또한 연옥에 대한 모든 관념은 거짓이고 신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이 가져온 구원의 힘에 대한 굳건한 믿음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은 옛 가톨릭 교회의 의례에 대한 그리움과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었다.<sup>14)</sup> 햄릿은 유령의 말을 들은 직후 호레이쇼에게 연옥의 성자 “성 패트릭”에 걸고 맹세하는 것도 역시 유령 햄릿은 연옥에서 왔다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유령 햄릿이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하는 당부는 연옥에서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기억해서,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해, 잊지 말고 애도해달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지옥의 유향불에서 고통을 당하는 연옥 영혼인 자신을 “기억하라”는 당부와, 자신을 살해한 숙부에게 “복수하라”라는 명령을 동시에 하는 선왕이자 유령 햄릿은 “비기독교도인 동시에 기독교적 인물”(Cantor 30)로 볼 수 있다. 선왕이자 유령 햄릿이 아들에게 하는 이율배반적인 명

---

14) 셰익스피어의 아버지인 존 셰익스피어(John Shakespeare)는 그 당시 많은 사람이 그렇듯이, 종교적 박해의 위험을 무릅쓰고 “영성문”(spiritual testament)에 이름을 남겼다. “영성문”은 예수회 수도자들이 구교를 믿는 신자들에게 비밀스럽게 돌리던 문서였다. 셰익스피어의 경우 개신교 구교에 정기적으로 참가했으리라 추측한다. 왜냐하면 셰익스피어의 이름은 종교적 반항자 목록에는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Greenblatt 316-317).

령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효심이 있거든 그대로 참지 말라.

...

그러나 네가 아무리 이 일을 하든지 간에  
너의 마음을 더럽히지 말며, 너의 영혼조차  
네 모친에 대해선 위해 어떤 짓도 저지르지 말라.  
그녀를 하늘에 맡겨  
그녀 가슴에 깊이 박혀 있는 가책의 가시들에  
찔리도록 놔두라.

If thou hast nature in thee bear it not,

...

But howsomever thou pursues this act  
Taint not thy mind, nor let thy soul contrive  
Against thy mother aught, Leave her to heaven  
and to those thorns that in her bosom lodge  
To prick and sting her. (1, 5, 81-88)

무방비상태에서 억울하게 살해당한 자신의 아들로서, 비겁하게 “참지 말고”, 떳떳하고 명예롭게 복수해달라고 유령은 명령한다. ‘복수’의 명령은 단지 사적인 복수뿐만 아니라, 클로디어스가 오염시킨 덴마크를 정화해달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sup>15)</sup> 두 번째 명령인 복수를 하더라도 “너의 마음을 더럽히지 말라”는 유령의 명령은 유령의 외면적 모습, 무사(武士)의 모습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유령은 무섭고 두려운 존재이기 하지만 동시에 장엄한 이미지를 보여주며, “군인다운 걸음”과 “당당하고 도전적인 모습”으로 “얼음 위에서 썰매 탄 폴란드 병사들을 쳐부수는” 덴마

15) 이런 맥락에서 유령의 첫 번째 명령은 과거와 동시에 미래를 향하고 있다고 드워즈는 지적한다. 이미 살해당한 자식으로서의 복수(과거)와, 근친상간적 결혼과 암살로 더럽혀진 덴마크의 타락을 참지 말고, 정화해야 한다(미래)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한다(43).

크 영웅으로서, 일차원적으로 명예를 숭상하는 무사이다. 하지만 햄릿이 실행하려는 복수는, 선왕 햄릿이 전투에서 갖는 마음가짐, 즉 영광스럽게 승리해야겠다는, 단순하고 단일한 마음가짐으로 임하는 무사의 행위와는 다른, 복잡한 차원의 복수 행위이다. 말하자면 선왕 햄릿의 “마음을 더럽히지 말라”는 명령은 선왕 자신의 세계관을 반영한 복수 명령으로 복잡한 가치관을 지닌 르네상스인 햄릿으로서는 수행하기 어려운 과제가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거트루드(Gertrude)에 대한 당부는 현실적인 복수를 명령하는 클로디어스에 대한 명령과는 다르다. 거트루드에 대한 복수는 그녀 자신의 양심의 가책, 즉 내세에 대한 심판을 함축하고 있는 종교적 차원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살해당한 자의 아들로서, 용사의 명예를 갖고 “복수하라”고 하면서, 동시에 연옥 영혼인 자신을 위해 애도하며 “기억해달라”고 하는 선왕이자, 유령 햄릿의 명령은 아들 햄릿에게 혼란을 초래하며, 사실상 햄릿의 복수 행위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다. 왜냐하면, 햄릿은 유령을 만난 뒤, 광기를 가장하는데 그것은 복수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클로디어스가 햄릿을 로젠크란츠와 길던스턴을 통해 감시하게 하고, 폴로니어스가 조언을 얻게 만드는 등, 궁정인들의 관심과 추측의 대상이 되도록 하기 때문이다.

## V. 결론: 햄릿의 명예로운 죽음

“천국과 지상을 기어다니는”(crawling between earth and heaven)(3. 1.124) 존재로 자신을 파악한 르네상스인 햄릿은 기독교적인 내세관(heaven)과 고대 그리스인들이 지냈던 현세적(earth) 영웅 의식으로 내면화되어 있다. 이 두 세계-- 고전과 기독교--의 가치는 융합되어 조화를 이루기보다는 모순적으로 충돌하기도 하며, 때때로 혼종의 형태를 보여

주기도 하면서, 햄릿의 의식을 형성한다. 이 작품에서 셰익스피어는 혼란된 형태로 작용하고 있는, 양립할 수 없는 두 이데올로기를 조화롭게 통합하여, 잘 다듬어지고 깔끔하게 정리된 세계로 제시했다기보다는 해결되지 못한 상태로 남겨 놓았다고 보인다. 이런 맥락에 그린블랫은 『햄릿』에서 셰익스피어가 풀어야 할 수수께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불투명성(opacity)을 전략적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한다. 익숙한 설명을 거부하고 각 장면에서의 탁월한 배치나 병치를 이루는 줄거리들을 결합하여 내적 구조를 구축했다는 것이다(324).

본 논문에서는 이 두 세계의 가치관이 햄릿의 내면에 자리하고 있지만 논리적 합일점보다는 각각 독립적으로 발전되기도 하고,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면서 이 극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런 갈등을 복수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갈등을 더 심화시키기 위해, 햄릿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혼란과 분열 의식을 제시할 뿐 아니라, 구체적인 외형적인 형태로 선왕이자 유령인 또 다른 햄릿과, 그의 명령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햄릿은 호레이쇼에게 자신의 명예를 지켜 달라고 부탁한다. 호레이쇼는 “이성과 감정이 잘 조화되어 운명의 여신의 손가락에 놀아나지 않는”(3.2.59-61) “공평무사한, 명예로운”(just)(3.2.44)<sup>16)</sup> 성품을 지녔다고 햄릿이 존경하는 인물이다. 또한 호레이쇼라는 이름에는 ‘말하는 사람<sup>17)</sup>’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그 이름에 걸맞게 호레이쇼는 이 극에서 전달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호레이쇼는 비교적 긴 1막 1장이 끝날

16) 개정판 아덴 셰익스피어의 저자 앤 톰슨(Ann Thomson)은 “just”의 의미를 ‘균형 잡힌, 명예로운, 그리고 신중한’(well-balanced, or honourable, judicious)으로 해석했다(330). 반면, New Cambridge Shakespeare의 저자 필립 에드워즈(Philip Edwards)는 신중한 것이 아니라 명예로운, 공정한(not judicious, but honourable, upright)으로 해석한다(166). 따라서 “just”의 의미를 “명예로운”으로 해석하는 것이 무리가 없을 듯하다.

17) 호레이쇼란 이름에는 ‘웅변’(Oratio)이란 의미가 있다. 또한 ‘이성’(Ratio)란 의미도 들어있어 호레이쇼의 성격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무렵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언급되는 햄릿(young Hamlet)을 처음으로 소개한 인물이다.<sup>18)</sup>

햄릿은 “참극을 목격하고 창백하게 질린 채”, “자신이 행한 일과, 그 이유에 대해 영문을 모르는 사람들”(5.2.312-319)에게 자신의 “더럽혀진 이름(a wounded name)이 남지 않도록”(5.2.323-324), 그래서 일어난 사건의 진실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자신이 명예롭게 최후를 맞을 수 있도록, 호레이쇼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부탁한다.

고대 로마인처럼 명예롭게 자살하겠다는 호레이쇼에게 “천상의 행복”(felicity)(5.2.326)을 뒤로한 채, 자신의 이야기를 올바르게 전해 달라고 하는 햄릿의 부탁은 고대 영웅들의 영광을 노래한 무사 여신(Mousai)(뮤즈)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호메로스는 『오뒷세이아』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오뒷세우스      역시 가인들은 지상의 모든 인간들에게 제 몫의  
명예와 존경을 받고 있구려. 무사 여신이 그들에게  
노래를 가르쳐 주시고 가인들의 종족을 사랑하시기 때문  
이겠지.<sup>19)</sup> (8. 479-481)

여기서 무사 여신들의 후예인 가인(歌人)들, 즉 음유 시인들은 영웅이나 여타의 인물들이 명예로운 일이나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였을 때, 그 행적을 노래하여 후세에 전달하는 존재들(박규철 29)이다. 고대 그리스 영웅에게 궁극적인 삶의 경험이란 역설적으로 죽음이다. 영웅들은 죽음을

18) 호레이쇼: “오늘 밤 우리가 본 것을 햄릿 왕자님께 전하세. 이 유령은 우리에게 는 함구했지만, 그분에게는 말할 걸세”(1.1.169-170).

19) 이런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오뒷세우스의 행위를 이해할 수 있다. 오뒷세우스는 이타카로 귀향한 뒤, 페넬로페의 구혼자들을 차단한다. 이윽고 음유 시인과 사제, 두 명이 남았을 때, 오뒷세우스는 칼로 사제의 목을 가차 없이 내리쳤고, 사제는 기도 중에 죽었다. 반면 오뒷세우스는 시인들을 성스럽게 노래하도록 ‘신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존재’로 여기고, 더 노래하도록 시인의 목숨을 살려준다(Hamilton 219).

자신의 마지막 말과 함께 설명(script)할 필요가 있으며, 반드시 노래 속에 기록되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야 했다(Nagy 32). 이런 맥락에서 음유 시인들은 고대 영웅의 명예로운 행적과 이름을 노래나 시를 통해 후손들에게 길이길이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이다. 그리하여 영웅들이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도 염원했던 ‘불멸의 영광’을 얻어 사람들의 뇌리에 기억되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다.

호레이쇼가 이 극에서 맡은 역할은 뮤즈 여신의 후예인 시인의 역할이라 볼 수 있다. 호레이쇼는 ‘햄릿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올바르게 전달해야 할 사명을 햄릿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햄릿은 고대 영웅처럼 명예로운 죽음을 통해 자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남기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햄릿에게 남은 것이자, 그토록 염원하던 영원한 “휴식”(the rest)은 자신이 직접 전달할 수 없는 “침묵”(silence), 적정(寂靜)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햄릿의 최후 예식은 고대 영웅의 행위를 구현한 포틴브라스의 지휘 아래, ‘용사’<sup>20)</sup>의 예식으로 치르게 된다. “통치의 기회가 주어졌다면 보기 드문 군주가 되었을”(5.2.376-377) 햄릿은 용사의 예식을 통해, 비극의 주인공 공이자 영웅으로 명예롭게 이름을 남기게 될 것이다.

(동국대학교)

## ■ 주제어

르네상스, 복수, 기억, 고대 고전주의, 영웅, 명예, 기독교, 내세.

---

20)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서 ‘용사’(warrior)는 영웅과 동의어이다(Finley 113). 군약과 조포를 울리며 ‘용사’의 예식으로 치러지는 햄릿의 장례식은, 햄릿의 죽음을 영웅의 죽음으로 애도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 ■ 인용문헌

- 바르부, 제베데이. 『역사심리학』. 임철규 옮김.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7.
- 박규철 외 7인. 『명예란 무엇인가』. 파주: 한국 학술 정보, 2012.
- 유재덕. 「『햄릿』에 나타난 유령의 극적인 의미」, 『중세르네상스 영문학』. 제15권 1호, 2007, 187-231.
- 황훈성. 「햄릿: 실재론과 유명론 사이 전환기에 처한 근대적 개인주의자의 초상」, 『영어권문화연구』. 16.2, 2023, 271-301.
- 호메로스. 『일리아스』. 천병희 옮김. 서울: 도서 출판 숲, 2012.
- 호메로스. 『오뒷세이아』. 천병희 옮김. 서울: 도서 출판 숲, 2012.
- Shakespeare, William. *Hamlet*. ed. Ann Thompson and Neil Taylor. London: The Arden Shakespeare Bloomsbury, 2020.
- \_\_\_\_\_. *Hamlet*. ed. Harold Jenkins. NY: Methuen, 1982.
- \_\_\_\_\_. *Hamlet*. ed. G.R Hibbard. Oxford : Oxford UP, 1987.
- \_\_\_\_\_. *Hamlet, Prince of Denmark*. revised with a new introduction by Heather Hirschfeld 3<sup>rd</sup> ed. Philip Edwards. Cambridge: Cambridge UP, 2019.
- \_\_\_\_\_. *Hamlet, Prince of Denmark*. ed. Philip Edwards. Cambridge: Cambridge UP, 2014.
- \_\_\_\_\_. *Richard III*. ed. Janis Lull Cambridge: Cambridge UP, 1999.
- \_\_\_\_\_. *Romeo and Juliet*. ed. Blackmore Evans Cambridge: Cambridge UP, 2000.
- Belsey, Catherine. *Why Shakespeare?*. NY: Macmillan, 2007.
- Cantor, Paul A. *Shakespeare: Hamlet*. Cambridge: Cambridge UP, 2004.
- Finley, M.I. *The World of Odysseus*. NY: The Viking, 1980.
- Grazia, Margareta de. *Hamlet without Hamlet*. Cambridge: Cambridge

UP, 2007.

Greenblatt, Stephen. *Will in the World : How Shakespeare Became Shakespeare*. NY: Norton, 2004.

Hamilton, Edith. *Mythology*. NY: Little, Brown, 1969.

Mack, Maynard. *Everybody's Shakespeare*. Lincoln: Nebraska UP, 1993.

Nagy, Gregory. *The Ancient Greek Hero in 24 Hours*. Cambridge: Harvard UP, 2013.

Vernant, Jean - Pierre. *The Universe, the Gods, and Men: Ancient Greek Myths*. Trans. Linda Asher, NY: HarperColins, 2001.



■ Abstract

## Hamlet, a Hero of Renaissance: Focusing on Ancient Classicism and Christian Culture

Kang, Hee Kyung

(Dongguk Univ.)

This paper aims to examine Hamlet as a hero in Renaissance context. Renaissance, as the name suggests, is a rebirth of ancient-Greek and Roman- classical culture within a Christian culture. As a result, Renaissance is characterized by uneasy, unstable and incompatible alliance of classical and Christian elements. Because the values of classicism and Christianity are so difficult to fuse like the terms “cold fire”, “sick health” in *Hamlet*.

Hamlet is a representative Renaissance hero whose inner world is divided into two cultures. On one side, Hamlet, a noble mind, as Ophelia described, has a deep knowledge of and pursues ancient Greek hero's glory, or honor through ‘immortal fame’. The great ancient classical heroes and warriors sacrificed their lives for winning ‘immortal fame.’ Revenge is related with warrior – hero's value in ancient classical world. Hamlet, the son of murdered king, thinks revenge as a kind of ‘honorable’ obligation, and “enterprises of great pitch and moments”. With this regard, Hamlet shows respect Fortinbras as his role model, because Fortinbras pursues the causes when honour's at the stake.

On the other hand, Hamlet strongly believes in immortality of soul and after-death. “The dread of something after death” and religious “conscience” make Hamlet hesitate revenge Ghost Hamlet commanded. When he has a perfect opportunity to kill Claudio, Hamlet refuses to strike out against Claudius. If Hamlet is to take revenge on Claudius, it must be revenge on his immortal soul. Likewise Christian perspective of his makes his task of revenge even more difficult.

The other Hamlet, old and ghost, plays a role in extremely deepening the conflict between two cultures, externally and concretely. He commands young Hamlet to do two things—“revenge” and “remember”. Old Hamlet commands young Hamlet to revenge “foul and unnatural murder” as a obligation of a son and to “bear it not” honorably, while Ghost Hamlet asks him to remember the suffering soul in the purgatory. These commandments of his make Hamlet more confused and pretend “antic disposition”.

Finally Hamlet asks Horatio to report his story “aright to the unsatisfied” who need to be explained. Horatio, as his name (*Oratio*: oration) suggests, is related with the role of bards, Muse’ descendants in ancient Greek. They are beings who sing the honorable deeds of heroes and pass them on to future generations. As it were, heroes in ancient Greek can get their ‘immortal fame’ through bards’ song and poetry. Hamlet dying, wants not to leave “a wounded name”, but to leave an honorable name behind him like ancient heroes through messenger-bard, Horatio. It's because “the rest” Hamlet has so longed for is “silence” that he can not deliver directly.

## ■ Key words

Renaissance, revenge, remember, ancient classicism, hero, honor, Christianity, afterlife.

## ■ 논문게재일

○투고일: 2024년 7월 31일 ○심사일: 2024년 8월 12일 ○게재일: 2024년 8월 13일



# 『빌러비드』의 다층적 서술기법 연구\*

김선옥\*\*

## I. 들어가며

17세기 식민지 시절부터 약 300년간 지속되었던 미국의 노예제도는 현대를 사는 미국인들에게 “국가적 기억상실증”(national amnesia)<sup>1)</sup>을 유발한, 아무도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는 역사의 악몽이다. 그것은 피부색을 기반으로 한 “역사적으로 가장 잔인했던”(Zinn 28) 인종주의적 노예제였기에 현대에 이르러서도 역사의 피해자인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내면에 깊은 상흔을 남겼고, 가해자였던 유럽계 백인들에게도 미국의 원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역사의 짐을 제공했다. 또한, 노예제도는 현대 미국 사회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인 흑백 갈등과 인종차별의 근원적 요인이기에 노예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된 지 15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되짚어야 할 역사적 사안이다. 그런 이유로 토니 모리슨(Toni Morrison)이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기반으로 상상력으로 되살려낸 ‘노예 어머니’의 이야기는 유령처럼 맴도는 노예제도라는 미국의 악몽과 대면하여 과거의

\* 이 논문은 2024학년도 원광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원광대학교 조교수, soyd66@naver.com

1) 모리슨은 1993년 노벨상 수상 연설에서 이 표현을 언급하며 미국사회에서 노예제라는 어두운 과거를 애써 잊으려는 현상을 비판했다.

상처를 제대로 치유하고 묻음으로써 흑백 상생의 미래로 나가기 위해 현대 미국인들의 ‘국가적 기억상실증’을 새로운 방식으로 일깨운 강력한 ‘노예 이야기’(slave narrative)라 할 수 있다.

아프리카계 미국 문학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노예 이야기’는 남북 전쟁 기간까지 비교적 흔한 장르였지만 노예 해방 이후 미국 문학의 전통에서 제외되었다. ‘노예 이야기’는 전형적으로 1인칭 서술을 통해 노예 경험과 탈출, 그리고 자유로의 여정이라는 개인 삶의 역사를 다루면서 역사 기록으로부터 지워진 흑인 주체를 익명성과 부재 상태에서부터 이끌어냈지만(Bowers 62) 현대의 독자와 단절되는 역사적 경험으로 여겨지기 쉽다. 반면 모리슨의 『빌러비드』(*Beloved*, 1988)는 노예제도를 개인적 차원이 아닌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집단 경험으로 다루면서 노예제도가 이들의 정신세계에 남긴 트라우마의 치유와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남녀간의 사랑과 모성의 문제 등 보편적 주제를 흑인 전통문화에 기반을 둔 예술적 토대 위에 구축했다는 점에서 현대의 독자들에게도 강한 호소력을 지닌다. 요컨대, 『빌러비드』는 내용과 주제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전달하는 서사적 기법 면에서도 기존의 노예 이야기와 차별화된 작품으로서 현재까지도 유명처럼 떠도는 미국의 역사적 악몽과 대면하여 그 상처를 제대로 묻음으로써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올바른 정체성 확립과 미국의 역사적 발전을 모색한 위대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모리슨이 『빌러비드』에서 다루고 있는 노예제도는 작품 속의 인물들이 모두 그 경험을 기억하거나 이야기하기를 꺼려한다는 점에서 현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내면 심리와도 연결된다. 그런데 이 작품이 드러내는 ‘재기억’(rememory)<sup>2)</sup>이라는 강한 주제 의식에서도 드러나듯, 악몽의 역

2) ‘재기억’(Rememory)은 모리슨이 작품 속에서 고안한 독특한 용어로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이 현재의 삶을 침탈하는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인물들 사이에서 강제된 기억하기와 이야기하기를 통해 개인의 기억을 넘어 상호적인 이해와 공유를 통해 개인과 집단의 관계를 회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작품 속에서 인물들은 각자 과거의 기억에서 도망치려 하지만 상대방의

사는 묻어두려 하면 할수록 유령처럼 현재의 삶을 침범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작품 속의 인물들이 노예 경험이라는 악몽의 상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나 현대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자신들의 내면에 깃든 역사적 상처를 치유하고 미국인으로서 올바른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 고통의 역사와 정면 대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모리슨이 인터뷰에서 언급한 것처럼 “과거는 우리가 그것에 맞서 견뎌낼 때까지 계속해서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찾아올 것”(Caldwell 241)이기 때문이다.

『빌러비드』에서 모리슨은 현재에도 다양한 형태로 찾아오는 이 노예제 도라는 과거의 망령을 소환하여 그 속에서 죽어간 이들을 애도하고 살아남은 자들의 고통을 ‘재기억’의 형태로 재현하면서 트라우마의 극복과 자아 회복이라는 주제 의식을 형상화하기 위해 복잡한 서술 양식을 채택한다. 사실, 모리슨이 『빌러비드』에 구현한 독특한 서술기법은 이 작품을 미국 문학 전통에서 새로운 정전으로 확립하는 데 기여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모리슨은 게일 칼드웰(Gail Caldwell)과의 인터뷰에서 문학은 정치적 사회적 사상들과 맞서야 하지만 예술작품으로서 아름다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238). 『빌러비드』가 뛰어난 문학 작품으로서 1988년 풀리처상을 수상하고 1993년 모리슨의 노벨상 수상에 기여하게 된 것은 독자에게 호소하는 주제 의식과도 관련 있지만 바로 그 주제 의식을 전달하는 문학 형식과 언어의 아름다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빌러비드』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역사와 재기억, 모성과 자아회복 등 핵심적인 주제에 주목하거나 트루디에 해리스(Trudier Harris)나 이본느 앳킨슨(Yvonne Atkinson)처럼 작품에 구현된 흑인 미학적 요소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이 작품의 서술기법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는 부족한 편이었다. 90년대 이후 활발히 논의된 탈식민주의적 연구도 최악의 식민지배와

---

요구에 의해 강제로 기억이 소환되기도 하고, 과거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진실을 발견하거나 상처 치유의 가능성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일반 기억과 다른 다층적이고 집단적인 의미를 갖는다.

탈식민적 저항이라는 주제의식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이 작품이 갖는 서사적 특징에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빌러비드』를 예술작품으로서 구현한 것은 내용이나 주제뿐만 아니라 미국문학 전통에서 벗어난 듯이 보이는 다채로운 서사기법에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 글은 『빌러비드』의 독특한 서술 기법에 초점을 맞춰 노예제도가 야기한 “말해지지 못한, 말할 수 없는 생각들”(unspeakable thoughts, unspoken)<sup>3)</sup>이 어떠한 방식으로 서술되어 악몽의 역사와 대면하는지 탐색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본론에서 먼저 유행이라는 초자연적 요소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뒤섞이는 ‘마술적 사실주의’(Magical realism)가 흑인 문화적 전통 위에 구현된 양상과 이러한 환상적 요소가 작품의 주제의식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살펴보겠다. 다음으로는 과거의 기억이 현재의 삶을 침탈하는 ‘재기억’의 양상이 인물들의 이야기와 작품의 전체 구조 속에 “빙빙 도는”(circling 161) 순환적 형태로 서술된 특징들을 점검함으로써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물들의 심리 상태와 서술기법이 한데 어우러지는 양상을 탐색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여러 인물의 스토리텔링이 흑인 구전 전통인 ‘부름과 응답’(call and response)의 형식으로 긴밀하게 엮이다가 다층적 목소리로 한데 뒤섞임으로써 과거의 진실이 드러나고 개인과 집단의 치유와 화해가 일어나는 과정을 검토함으로써 흑인의 문화적 전통에 기반을 둔 작품의 서술적 특징이 결말 부분의 희망적인 비전과 어우러지는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3) Toni Morrison, *Beloved* (New York: Penguin Books, 1988) 199. 이후 인용은 쪽수만 표시하겠다. 이 표현은 스탬프 페이드(Stamp Paid)가 시드의 집 앞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말소리를 노예제 하에서 죽어간 무수한 원혼들의 아우성 소리로 언급한 것으로 흑인 집단 전체가 경험한 노예제의 악몽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모리슨은 이 표현과 관련된 “Unspeakable Things Unspoken”라는 글에서 아프리카계 미국 문학의 위상에 관해 논한 적이 있다.



## II. 미술적 사실주의: 현실 속에 공존하는 과거의 유령

『빌러비드』는 1856년에 실제로 일어났던 마가렛 가너(Margaret Ganer)의 영아살해 사건을 토대로 한 것이다. 그녀는 켄터키의 노예 생활로부터 탈출했다가 다시 붙잡히게 될 위기에 놓이자 자신의 아이들이 노예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두 죽이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막내딸을 살해했다.<sup>4)</sup> 이 사건은 『빌러비드』에 그대로 재현되었고, 모리슨은 이 작품에서 마가렛의 실제 사건을 중심에 놓고 노예제를 겪은 다양한 인물들의 참혹한 고통과 역사적 악몽을 사실적으로 다루면서도 유령을 비롯한 몇몇 미술적 장치들을 도입한다. 작품이 시작되자마자 주인공인 시이드(Sethe)와 그녀의 딸 덴버(Denver)가 거주하는 실제적 공간인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블루스톤가(Bluestone Road, Cincinnati, Ohio) 124번지는 아기유령의 원한에 사로잡혀 있다고 소개된다(3). 온 집안을 흔들어대는 아기유령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을 괴롭히지만 시드는 그 원한을 알고 있기에 말없이 그 존재를 받아들이고 덴버는 아기유령을 유일한 친구로 삼는다. 이러한 유령의 존재는 『빌러비드』를 이전의 노예 서사와 구분되게 만드는 독특한 요소로서 모리슨은 인터뷰에서 유령 이야기가 아프리카의 종교적 전통과 관련된 것이라고 언급했다(Caldwell 242). 서아프리카의 종교적 전통에 따르면 고통스럽게 죽은 사람은 반드시 현세의 삶으로 돌아와 살아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는데, 이러한 종교적 믿음은 아기유령의 모습에 그대로 형상화되어 있다.

『빌러비드』의 독특한 점은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노예제라는 매우 현실적인 역사 경험을 다루면서도 초자연적인 유령 이야기를 기본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빌러비드』는 단순히 초자연적인 분위기를 그려낸

---

4) 모리슨은 랜덤 하우스의 편집자로 있던 1974년에 노예제하의 흑인의 삶과 문화를 다룬 『흑인의 책』(*The Black Book*)을 출간했는데, 마가렛의 사건은 여기에 수록된 것이다.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빼앗은 엄마를 벌하기 위해 집을 뒤흔드는 원한에 찬 아기유령과 현실 세계로 돌아온 육화된 유령이 주요 인물들과 함께 거주하는 마술적인 세계를 보여준다. 역사적 공간에 자연스럽게 들어온 이러한 비현실적 유령의 존재가 독자들에게 던져주는 혼란은 작품이 발표된 직후에 쓰인 여러 비평가들의 리뷰에도 잘 드러나는데, 이들은 모리슨의 유령이야기를 어떤 문학적 관례로 규정할지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sup>5)</sup> 대부분의 비평가들은 『빌러비드』에 등장하는 유령과 초자연적 요인들에 대해 “고딕적”(gothic, Ahn 233)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이 작품의 서사적 특징에 대해 명확히 정의내리기를 꺼려한다. 그 이유는 모리슨이 『빌러비드』에서 1873년 미국 신시내티라는 ‘역사적 현실적 배경’ 속에 흑인 민담의 ‘마술적, 비현실적 요소’들을 ‘사실주의적인’ 방식으로 구현했기 때문이다. 요컨대 『빌러비드』의 세계는 유세비오 로드리그(Eusebio L. Rodrigues)가 언급한 것처럼 “사실적 비현실의 세계”(a real unreal world 148)이고 이로 인해 서구 문학 전통의 관례로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생긴다.<sup>6)</sup>

대부분의 미국 평자들과 달리 비교문학 비평가인 가브리엘 포맨(P. Gabrielle Foreman)과 루이스 자모라(Lois Parkinson Zamora)는 모리슨을 미국의 대표적인 마술적 사실주의 작가로 규정하는데, 이들의 견해는 고딕소설이나 환상문학과 다른 『빌러비드』의 서사적 특징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사실, 육화된 유령이 현실 공간에 거주하는, 현실과 비현실이 사실주의적으로 결합된 『빌러비드』의 세계는 50년대에서 70년대 사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붐을 이룬 뒤 80년대 포스트모더니즘의 물결 속에서

5) 일레로 마가렛 애트우드(Margaret Atwood)는 『빌러비드』에 등장하는 유령이 독자에게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존재가 아니라 매우 사실적인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고딕소설과 다르다고 언급하면서도 이것을 단지 흑인의 민담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전체적인 서사에 집중할 것을 권고한다(Atwood 40-42).

6) 마술적 사실주의에 관한 내용은 본 연구자의 2014년 논문 「『빌러비드』에 나타난 마술적 사실주의와 흑인 미학」의 내용 일부를 수정하고 간추린 것이다.

보편화된 미술적 사실주의 세계<sup>7)</sup>라 할 수 있다. 모리슨 역시 캘드웰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작품 세계와 미술적 사실주의의 유사성을 인정하는데 (243), 자신의 문학적 바탕은 철저히 흑인 전통문화를 토대로 하고 있음을 강조한다(Conner, “Introduction” xi).

모리슨이 『빌러비드』의 미술 세계를 흑인의 전통문화와 믿음 체계에 두고 있지만 웬디 패리스(Wendy B. Faris)가 언급한 미술적 사실주의의 대표적인 특징들은 『빌러비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sup>8)</sup> 패리스에 따르면 미술적 사실주의 작품에는 일반적인 자연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미술적인 일들이 ‘실제로’ 발생하는데, 이것들이 전통적인 사실주의적 기법으로 묘사됨으로써 현실과 비현실이 자연스럽게 혼합되고, 물질이 고유한 생명을 지니는 물활론(animism)적 미술 현상이 자연스럽게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의 세계가 뒤섞이고 사실과 허구의 경계가 모호해지며 시간, 공간, 정체성 등 기존 관념도 혼란스러워진다. 무엇보다 미술적 사실주의 소설들은 사회 정치적 비판을 수행하기 위해 미술을 끌어들이는데, 모리슨 역시 『빌러비드』에서 노예제도의 참상과 그 속에서 외면된 개인과 공동체의 역사를 복원하기 위해 미술을 이용한다. 마지막으

---

7) 미술적 사실주의는 20세기 중반까지 라틴 아메리카 소설 양식을 지배한 유럽 사실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사실과 환상을 결합시켜 라틴 아메리카의 독특한 토착적 현상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용어는 알레호 카르펜티에르(Alejo Carpentier)가 1949년 「아메리카의 경이로운 현실에 대하여」(“On the Marvelous Real in America”)에서 언급한 라틴 아메리카의 토착적 현상을 작품 속에 구현하려는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이후 1970년대까지 라틴 아메리카에서 유행한 붐소설(the boom novels) 양식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이게 되었고 가브리엘 마르케스(Gabriel Garcia Marquez)의 『백년 동안의 고독』(*One Hundred Years of Solitude*)을 계기로 세계 문단의 주목을 받았다. 테오 다엔(Theo L. D'haen)에 따르면 서구 세계의 중심으로부터 주변화된 라틴 아메리카 작가들은 미술적이고 환상적인 방식으로 리얼리즘의 특권적 중심을 해체하는 탈중심적 글쓰기를 시도했다(194-95).

8) 뒤에 요약된 내용은 패리스의 글 167-76에 서술된 미술적 사실주의에 관한 부분을 간추린 것이다.

로 미술적 사실주의 서사의 바탕에는 전통적인 신앙과 토착적 민속이 깔려있고 이로 인해 미술은 집단적 무의식의 발현으로 다루어진다. 『빌러비드』에도 미술적 사실주의의 이러한 보편적 특징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이 작품의 환상적 요소를 흑인문화의 전통에 바탕을 둔 미술적 사실주의로 규정할 수 있다. 모리슨은 “미국 흑인의 현실 인식 속에는 미신이나 미술도 포함되어 있고 이는 세계를 보는 또 하나의 방식”(Foreman 298 재인용)이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 포맨에 따르면 모리슨의 이러한 견해는 카르펜티에르가 언급한 라틴아메리카의 ‘경이로운 현실’과 유사한 것이다(298). 이것은 다른 환상문학과 달리 또 다른 현실을 상정한 것이 아니라 토속적 믿음과 세계관을 통해 실제 현실 영역을 확장시킨 것이다.

사실, 『빌러비드』는 아기유령이 출몰하는 124번지 집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소녀의 모습으로 육화된 빌러비드가 마을 여인들에 의해 추방되는 것으로 끝나는 ‘유령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첫 장면에 등장하는 124번지의 집은 원한에 찬 아기유령의 물질적 구현으로서 그것을 대신해서 살아 움직이는 존재로 묘사된다. 이 점은 덴버가 집을 “울고, 웃고, 떨고, 발작을 일으키는 사람처럼”(29) 인식하거나 빌러비드가 떠난 뒤 폴 디(Paul D)가 “집이 더 이상 자신을 쏘아보지 않는다”(264)고 느끼는 데서 잘 나타난다. 그런데 산 자들을 괴롭히는 아기유령은 고딕소설에 등장하는 공포스럽거나 오싷한 존재가 아니라 아기 수준에서 분풀이하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거울을 박살내고, 케이크에 손자국을 내고, 끓는 주전자를 엮는 등의 아기유령의 만행은 엄마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아기의 모습을 보여준다. 18개월 어린 나이에 엄마 손에 죽은 아기유령의 원한을 알고 있기에 시이드와 덴버는 그 횡포를 묵묵히 받아들이거나 대화를 시도해보려고 애쓰는데, 이러한 모습은 사실과 환상이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결합돼 있는 미술적 사실주의의 혼한 장면에 해당한다.

18년 만에 시이드의 집을 찾아온 폴 디에 의해 쫓겨난 아기유령이 20세 소녀의 모습으로 육화된 빌러비드는 실제와 환상, 현실과 초현실, 현재와

과거가 공존하는 모습으로 그 자체로 마술적 존재임을 드러낸다. 캔드웰이 언급한 것처럼 124번지에서 쫓겨난 후 시이드의 집에 온 빌러비드는 평범한 소녀의 모습으로 “마치 동네 설교자가 오후에 방문하는 것처럼”(242) 자연스럽게 등장한다. 대부분의 고딕소설에 등장하는 유령과 비견되는 공포스러운 분위기는 전혀 없고 아기유령과의 연속성을 암시하는 단서와 징후들이 곳곳에 제시된다. 그녀의 이름은 시이드가 죽은 딸을 위해 비명에 새긴 단어와 같고, 손바닥에는 지문이 없으며, 이마의 손톱자국과 목에 난 흉터자국과 거친 목소리는 톱으로 목이 잘린 사건을 암시한다. 또한 그녀는 아기처럼 며칠 동안 잠만 자고, 젖을 먹듯 물을 마시고, 단 것에 탐닉하며, 서투른 언어를 구사하고, 머리를 손으로 받치고 다니기도 한다. 이밖에도 모리슨은 빌러비드의 초인적인 능력을 곳곳에서 보여줌으로써 그녀가 상징적 존재나 집단적 환각이 아니라 ‘실제’ 유령임을 강조한다.<sup>9)</sup>

폴 디가 떠나고 세 모녀가 124번지에 칩거한 뒤부터 유령으로서의 빌러비드의 존재는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우선 시이드는 자신과 아이들만이 아는 노래를 빌러비드가 흥얼거리는 소리를 듣고 그녀가 죽은 딸임을 알아본다. 스탬프 페이드(Stamp Paid)는 124번지 집 바깥에서 들리는 요란한 말소리를 들으면서 “124번지가 한층 강력해진 유령에 시달리고 있고”(172) “유령들이 떼로 몰려와서 시이드와 덴버를 괴롭힌다”(170)고 생각한다. 스탬프 페이드가 124번지 바깥에서 듣는 아우성 소리는 빌러비드가 단지 시이드의 죽은 딸만이 아니라 노예제 하에서 원통하게 죽어간 노예들의 집단 원혼임을 짐작하게 한다. 모리슨은 빌러비드의 무질서한 내

9) 예를 들어 베이비 석스(Baby Suggs)가 설교하던 숲 속 공터에서 시이드가 시어머니의 위안의 손길을 기원하자 ‘친숙한 느낌’의 손이 나타나 목을 주무르다가 갑자기 목을 조르는데 덴버는 그것이 빌러비드의 소행임을 알아챈다. 빌러비드는 또한 폴 디가 시이드와 가까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의 남성성을 무력화시켜 서서히 집을 떠나게 만들고(114-17), 헛간의 어둠 속에서 갑자기 덴버 앞에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기도 한다(122-23).

면독백을 통해 중간항로(the Middle Passage)의 장면을 되살림으로써 그녀를 둘러싼 요란한 소리들을 아메리카에 도달하지도 못한 채 배 안에서 참혹하게 죽어간 수많은 흑인들의 원혼과 연결한다.<sup>10)</sup>

아기유령과 빌러비드 외에도 이 작품에는 직간접적으로 여러 유령들이 등장하는데,<sup>11)</sup> 이러한 유령과 초자연적 현상들은 ‘확장된 현실’로서 작품 세계에서 ‘실제로’ 존재한다. 시이드가 죽은 딸의 악령에 사로잡혀 있다는 얘기를 들은 엘라(Ella)는 빌러비드의 정체를 의심하는 대신 유령이 죽음의 세계에 머물지 않고 현재의 삶을 침탈한 것에 대해 분노한다. 이로 인해 그동안 시이드의 행위와 오만한 태도를 비난했던 엘라는 “두 세계 사이의 약간의 소통은 상관하지 않았지만 이걸 완전히 침략”(257)이라고 말하면서 동네 여인들과 함께 빌러비드를 추방하는 의식에 앞장선다. 이렇게 흑인 공동체는 서구의 합리주의적 인식에서 현실 영역 바깥에 존재한다고 보는 마술적 현상을 삶의 일부로 수용하고 사자의 세계와 소통하는 공동체적 믿음을 드러낸다. 이러한 초자연적 세계에 대한 공동체의 집단적 믿음과 이를 기반으로 한 마술세계의 ‘사실성’이 다른 환상문학과 마술적 사실주의를 구분짓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라틴 아메리카의 마술적 사실주의가 인디언과 스페인 문화가 혼합된 고유한 토착 신앙과 세계관을 반영한 것과 마찬가지로 『빌러비드』에 등장하는 유령의 모습은 죽음의 세계에 대한 흑인 고유의 세계관과 종교적

10) 빌러비드의 의식에 떠오르는 중간항로 장면은 노예 사냥꾼에 붙잡힌 아프리카인들이 겹겹으로 배에 실려서 그들 중 절반 정도가 질병과 기아와 매질로 사망한 채 바다에 던져진 비극적 사건을 보여준다. 시이드에 의해 살해된 아기가 중간항로에 대해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통 노예제하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집단적 무의식이 빌러비드의 무질서한 기억을 통해 발현된 것으로 해석되지만 그녀가 노예선에서 살아남은 실제 인물일수도 있다는 단서로 인용되기도 한다(House 118).

11) 예를 들어 덴버는 방에서 홀로 기도하는 시이드의 허리를 감싸는 하얀 드레스 유령을 목격하고(29), 식소는 숲속 건물 안에 거주하는 홍인종 유령에게 입장 허락을 받고(24), 베이비 석스 유령은 계단에서 망설이는 덴버에게 세상 밖으로 나갈 것을 종용한다(244).

믿음을 반영한 것이다. 흑인 고유의 전통적인 믿음에 따르면 개인이 죽으면 육체성을 지니지는 못하지만 그 영혼은 공동체 안에 머물면서 현세의 삶에 영향을 준다. 공동체 안에서 그를 알고 있는 마지막 사람이 죽으면 비로소 그 영혼은 오래 전에 죽은 조상들과 합류하는데, 그때까지 이들은 현세의 인간들과 조상 집단을 연결하는 매개자 역할을 한다(Morrison, “Rootedness” 331). 그런데 죽은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Darling 249) 엘라가 스템프 페이드에게 말한 것처럼 “비참하게 죽은 사람은 무덤에 머물지 못하고”(188) 돌아와 산 자에게 해를 끼친다.

죽음과 유령에 대한 흑인 고유의 세계관은 미술적 사실주의 작품에서 흔히 등장하는 사물 세계에 대한 물활론적 인식과도 연관된다. 일례로 시이드는 시간과 기억의 문제에 대해 덴버와 이야기하면서 “세상에 죽는 건 아무것도 없다”(36)고 말한다. 그녀는 덴버에게 어떤 기억들은 절대 잊혀지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그것은 자신의 기억력과 관계없이 그 일이 일어난 장소가 그 사건의 흔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한다. 시이드의 진술은 사물 세계의 물활성, 즉 사물이나 인간 이외의 생명체가 어떤 의식이나 목적, 고유한 영혼을 갖고 있다는 흑인의 전통적인 세계관을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아기유령이 출몰하는 집뿐만 아니라 식소(Sixo)의 경험을 통해서도 묘사된다. ‘30마일의 여인’(The Thirty-Mile Woman)을 만나러 먼 길을 걷던 식소는 숲에서 발견한 건물에게 들어가도 좋은지 먼저 “허락을 구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에는 ‘홍인종의 영령’(Redman's Presence)에게 자기 여자를 데려와도 좋으냐고 물어 “그것이 좋다고 말하자”(24) 연인에게 건물의 위치를 알려준다. 이렇듯 인간 외의 생명체나 사물에 고유한 의식과 영혼이 존재한다는 인식은 서구 근대성의 이성적, 합리주의적 세계관과 배치되는 것이지만 흑인 전통사회의 보편적인 믿음이자 미술적 사실주의의 주된 세계관이기도 하다. 다윈 터너(Darwin Turner)는 모리슨이 미술을 통해 실제 현실을 확장시키고 “불

신을 버리고 이야기의 마술을 믿으라고 독자를 설득할 수 있는 이야기꾼의 재주를 지녔다”(Foreman 298 재인용)고 언급한다.

이렇게 모리슨은 『빌러비드』에서 흑인 고유의 세계관과 믿음을 토대로 아무도 기억하기를 원치 않는 노예제의 악몽과 그 속에서 희생된 이름 없는 사람들의 잊혀진 삶을 사실과 환상이 결합된 마술적 사실주의로 구현한다. 이를 통해 모리슨은 엄마 손에 죽은 딸의 원혼이자 노예제 하에서 희생된 이름 없는 노예들의 집단 원혼이라 할 수 있는 빌러비드를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공간 속에 불러내고 흑인 문화의 이야기 전통을 끌어들이 산자들로 하여금 악몽의 역사와 대면케 함으로써 과거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시이드의 아기 살해는 흑인 집단 전체가 경험한 노예제라는 끔찍한 사회 역사적 맥락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그녀의 치유 가능성을 통해서 독자는 악몽으로서의 역사를 극복하는 단서를 얻을 수 있다.

『빌러비드』에서 시이드의 치유 과정은 과거의 유령과의 직접적인 대면을 통해 그녀가 억누르고 도망쳤던 과거의 기억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데서 시작된다. 빌러비드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요구함으로써 시이드로 하여금 과거의 고통에 맞닥뜨리게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고통을 타자의 시각에서뿐만 아니라 집단적 경험 속에서 보게 한다. 이 점에서 토마스 에드워즈(Thomas Edwards)가 언급한 것처럼 빌러비드는 “과거의 표상으로서 개인적 경험뿐 아니라 집단적 경험이 압축된 존재”이고 “현재 속에 들어와 머물면서 기억되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과거의 유령”(82)이라 할 수 있다. 그 소망대로 과거는 올바르게 기억되어야 하고 그것은 현재의 미국 흑인들이 누구인지를 밝혀줄 단서이지만 악령으로 변해가는 빌러비드에 휘둘리는 시이드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듯 과거에 대한 집착은 현재를 질식시키고 마비시키는 요소가 된다. 따라서 빌러비드를 통해 과거의 악몽을 대면한 작품 속 인물들도, 소설 『빌러비드』를 통해 노예제의 어두운 역사를 마주한 독자들도 과거를 올바르게 기억하고 제대로 묻음으로써



미래를 지향한 현재의 삶을 살아야 한다. 모리슨은 작품을 끝내는 마지막 구절에서 빌러비드의 이야기는 더 이상 “전할 이야기가 아니다”(275)라고 언급하면서도 여전히 그 이름을 부르며 서사를 완성한다. 노예제의 고통과 치유 이야기를 끝내는 마지막에 부르는 빌러비드의 이름은 과거의 악령이 아니라 현재의 온전한 삶을 이어가기 위해 불러주어야 할 소중한 과거의 기억이 될 것이다.

### III. ‘순환적’ 서술기법과 ‘부름과 응답’의 스토리텔링: 재기억의 재현과 치유

현실적 시공간에 환상적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마술적 사실주의 기법 외에 『빌러비드』는 과거를 떠올리기조차 두려워하는 다양한 인물들의 조각난 기억들이 현재와 과거를 오가며 시작되다 중단되고 다시 시작되는 ‘순환적’(circling) 서술방식과 주요 인물들이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서사를 확장하는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을 기본으로 한다. 먼저 『빌러비드』의 서술 방식이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빙글 빙글 순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주된 이유는 시이드를 비롯하여 주요 인물들이 과거를 떠올리거나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려하는 데서 연유한다. 노예로서의 경험은 떠오르는 것조차 두려운 악몽이기에 이들은 의식적으로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도망치려 하고, 그것에 대해 떠올리거나 이야기하기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인물들이 과거로부터 도망치려 하고, 과거의 기억을 억누르려 하면 할수록 과거는 일상의 사소한 경험을 매개로 현재를 침범한다. 모리슨은 노예제에서 살아남은 주요 인물들이 과거의 침탈로 겪는 이러한 고통을 ‘재기억’으로 명명하면서 이것을 형상화하는 방법으로 시이드의 아기 살해라는 중심 사건을 두고 “빙글 빙글 화제를 돌리며”(161) 이야기를 심화시키는 서술기법을 전개한다. 몇몇 비평가들은 모리

슨의 이러한 서술 방식을 포스트모더니즘의 한 양식으로 규정하기도 하지만, 로레인 리쇼(Lorraine Liscio)는 『빌러비드』가 역사를 해체하기보다 공식 역사에서 지워진 흑인의 역사를 재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글쓰기 양식과는 다르다고 언급한다(36). 요컨대 중심 사건을 맴돌며 이야기를 심화시키는 『빌러비드』의 독특한 서술 방식은 아무도 떠올리기를 원치 않지만 끊임없이 현재의 삶을 침탈하는 ‘재기억’의 작용을 재현하면서 이것을 집단적 소통의 매개체로 삼아 서사를 확장해나가는 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노예제를 경험한 이들에게 과거는 떠올리기조차 힘겨운 “말할 수 없는 생각들”(199)이 침잠해 있는 고통의 늪이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과거가 떠오를 때마다 거기서 달아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시이드에게 있어 미래 혹은 더 나은 삶이란 “과거가 스며들지 않는 삶”(67)이기에 그녀는 과거의 침입으로부터 현재를 보호하기 위해 일상의 노동에 맹렬하게 집착한다. 이 점은 시이드가 빌러비드의 간청으로 자신도 모르게 목매달려 죽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끝낸 후 “시트를 개고, 또 개고, 다시 개는”(61) 반복되는 동작에서 잘 나타난다. 일상의 노동은 과거의 침탈로부터 그녀를 지켜주는 유일한 보호막이며 이것이 그녀가 ‘소여(Sawyer)의 식당’ 부엌에서 맹렬하게 일에 매달리는 이유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과거를 묻어두고자 하는 의지와 그것을 뚫고 의식 표면으로 올라오는 과거의 기억 사이에 놓인 긴장 관계는 18년 전에 ‘스위트 홈’(Sweet Home)에서 시이드와 노예 경험을 공유한 폴 디가 그녀 앞에 나타나면서 증폭된다. 폴 디는 시이드와 마찬가지로 노예 경험의 악몽으로부터 달아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데, 노예로서의 과거가 그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가장 큰 이유는 노예제 하에서 남성성을 박탈당하고 자신이 수탉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다는 자괴심에서 비롯된다. 이것은 그로 하여금 감옥에서 탈출한 후 모든 것을 체념하고 떠돌게 만들었고, 124번지에 이르러 시이드를 만나 그녀와 함께 했던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면서도

“더 나아간다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빠져들게 될지도 몰라”(73) 가슴 위에 걸어둔 담배갑 속에 과거의 기억들을 봉인하려 한다.

이렇듯 과거는 주요 인물들에게 떠오르는 것조차 두려운 공포의 대상이지만 ‘재기억’의 형태로 끊임없이 현재를 침범하는 악몽이기에 그들의 기억이나 내면세계를 논리적이고 일관되게 서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점은 폴 디가 스템프 페이드로부터 건네받은 신문에서 아기 살해 기사를 본 뒤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시이드에게 찾아갔을 때 그녀가 취하는 동작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난다.

그녀는 방안을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 . . 그는 어지러움을 느꼈다. 처음에는 그녀가 방안을 돌고 있다고 생각했다. 사실 그녀는 화제를 맴돌면서 그 주위를 돌고 있었다. 빙글 빙글, 결코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 . . 그는 그녀가 말할 것 중에서 겨우 몇 마디만 알아들었다. 그건 괜찮았다. 왜냐면 그녀가 사건의 주요 부분, 그가 노골적으로 묻지는 않았지만 그녀에게 보여주었던 신문 조각에 있었던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She was spinning. Round and round the room. . . It made him dizzy. At first he thought it was her spinning. Circling him the way she was circling the subject. Round and round, never changing direction. . . He caught only pieces of what she said--which was fine, because she hadn't gotten to the main part--the answer to the question he had not asked outright, but which lay in the clipping he showed her. (161)

여기서 방안을 빙글빙글 도는 시이드의 동작은 차마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설명하도록 요구된 상황에 놓인 그녀의 불안정한 내면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폴 디의 언급대로 핵심적인 이야기를 피해 가며 “화제를 돌리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녀가 신문기사에 관한 폴 디의 질문에 답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사건이 재기억으로서 현재에도 떠올리기 어려운 참혹한 고통이기도 하지만 설사 이야기한다 해도 그가 이해할 수 없으리라는 판단 때문이기도 하다. 자신보다 더 사랑했던 딸을 노예제로부터 “안

전하계”(163) 지키기 위해 그녀를 죽인 것은 자신에게는 너무나 “단순한 진실”(163)이지만 그러한 명백한 진실을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키기란 어렵고도 가혹한 고통이 따르는 일이기에 시이드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변명조차 하지 않고 침묵하는 쪽을 택한다. 따라서 시이드가 아기를 살해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폴 디는 그녀의 행동을 네 발 달린 짐승의 행동에 비유함으로써(165) 두 사람의 의사소통의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지고 시이드는 다시 침묵과 고립을 택한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방안을 빙글빙글 돌며 “화제를 돌리는” 행동으로 묘사된 시이드의 불안정한 모습은 『빌러비드』의 전체적인 서술 방식과도 일치한다는 점이다. 앞에서 언급했듯, 이 작품은 명확한 인과관계에 기반한 연대기적 서술을 제공하지 않고 사건의 중심을 빙글빙글 맴돌면서 과거와 현재를 순환하며 주요 인물의 기억과 현재의 심리 상태를 파편적으로 전달한다. 이것은 한 공간이나 시간을 기점으로 연상 작용에 따라 인물의 의식이 흐르는 과정을 서술하는 모더니즘의 ‘의식의 흐름 기법’과는 다르다. 이것은 『빌러비드』의 주요 인물들이 의식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억압하기 때문인데, 이들은 과거의 노예제 경험을 기억하지 않으려 하거나 어쩌다 떠오르는 생각조차 현재를 침탈하는 고통스러운 ‘재기억’으로 작용하기에 이들의 기억을 다루는 이야기가 시작되었다가 중단되는 과정이 계속 반복된다. 따라서 시이드의 아기 살해 사건은 작품의 서두에서부터 암시되지만 그 일이 어떻게 그리고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작품 후반부에 이를 때까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는다. 따라서 독자는 이 중심 사건 주변을 “빙글 빙글 돌며”(Circling, circling 162) 전개되는 다양한 인물의 파편적인 기억과 이야기를 통해 사건의 퍼즐을 맞추듯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해야 한다.

인물들의 재기억을 따라 현재와 과거를 순환하며 “화제를 돌리는”(161) 서술 방식과 더불어 『빌러비드』의 서사를 구성하는 또 하나의 핵심은 흑인의 구전 전통인 ‘부름과 응답’에 기반한 스토리텔링이다. 빌러비드는 시

이므로 하여금 18년 동안 묻어두었던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도록 유도함으로써 그녀로 하여금 서서히 과거의 고통과 마주하도록 만든다. 시이드에게 이것은 과거의 경험을 그대로 다시 경험하는 재기억의 과정이기에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이야기하기’가 치유의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는 암시가 다음의 서술에 잘 나타나 있다.

“얘기해줘요.” 빌러비드는 행복하게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 . . 시이드는 빌러비드가 자신의 이야기로부터 큰 만족을 얻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빌러비드를 기쁘게 하는 것만큼이나 시이드를 놀라게 했다. 자신의 과거의 삶을 언급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기 때문이다. . . . 그러나 귀걸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그녀는 자기도 이야기하기를 원하고 그 이야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Tell me,” said Beloved, smiling a wide happy smile. . . . Sethe learned the profound satisfaction Beloved got from storytelling. It amazed Sethe (as much as it pleased Beloved) Because every mention of her past life hurt... But, as she began telling about the earrings, she found herself wanting to, liking it. (58)

시이드는 이야기에 탐닉하는 빌러비드의 요청으로 노예 시절의 경험을 풀어놓기 시작하지만 아기 살해와 관련된 기억에 이르면 고통을 감당할 수 없어 본능적으로 침묵을 유지한다. 그런데 주요 인물들에 의한 스토리텔링은 주로 빌러비드에 의해 촉발되지만, 자신의 탄생 이야기를 즐기는 덴버에 의해서도 행해지고, 폴 디와 시이드도 이야기를 통해 과거의 경험을 공유한다. 각 인물의 스토리텔링은 덴버의 출생 이야기처럼 주요 인물에 의해 시작되다 전지적 화자에 의해 재구성되기도 하고, 폴 디의 이야기처럼 인물을 매개하지 않고 전지적 화자가 직접 들려주기도 하지만, 시이드의 결혼식이나 베이비 석스(Baby Suggs)에 관한 이야기처럼 시이드 자신의 목소리로 직접 진술되기도 한다. 이러한 다양한 방식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인물들은 서로의 감정을 이끌어내고 과거의 기억을 공유하며 독

자 또한 청자의 위치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사건의 진실에 다가간다. 그러나 1부 후반부에 이르러 전지적 화자에 의해 베이비 석스의 관점에서 시이드의 아기 살해 사건이 직접 묘사될 때까지 이야기들은 여전히 사건의 중심을 맴도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아기 살해와 관련된 총체적 진실은 시이드가 빌러비드를 환생한 딸로 확신한 뒤 더 이상 과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속에 묻어둔 모든 이야기를 풀어놓을 수 있을 때까지 유보된다. 시이드는 풀 디가 도망치듯 떠나버린 뒤 우연히 빌러비드가 자신이 만든 노래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그녀가 자신의 환생한 딸이라고 확신하면서 “더 이상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것들로 인해 너무도 기쁘다”(183)고 언급한다. 시이드가 과거를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그녀에게 과거가 더 이상 달아나려고 애써야 하는 고통의 진원지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이제 그녀는 과거와 정면 대결할 수 있고 아기를 죽인 것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진술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시이드가 모든 것을 말할 수 있게 되자 이전까지 주된 서사를 이끌어왔던 전지적 화자의 목소리는 1인칭 목소리로 바뀌게 된다. 시이드는 빌러비드를 향한 내면독백 형태로 그때 일어났던 모든 정황, 즉 학교 선생이 학생들에게 자신의 동물적 특성을 나열해보라고 했던 일, 아이들이 팔려갈지도 모른다고 남편이 걱정했던 일, 아이들을 위해 탈출 계획을 세웠던 일 등을 설명하고, 그때 자신이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했었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한다. 작품 전반에 걸쳐 시이드의 내면은 주로 전지적 화자에 의해 언급되지만, 이렇게 아기 살해와 관련된 심정은 시이드 자신의 목소리로 직접 진술됨으로써 독자들은 자식에 대한 “너무 진한”(164) 사랑이 야기한 사건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 점은 시이드의 내면독백 뒤에 이어지는, 시점과 목소리를 달리한 네 개의 이야기들을 통해 더욱 구체화된다.

『빌러비드』의 독창성을 드러내는 이 부분은 전지적 화자의 개입 없이 세 개의 독립적인 장을 통해 각각 시이드와 덴버, 그리고 빌러비드의 목소

리를 통해 이야기가 서술되고, 네 번째 장에서는 세 인물의 내면적 진술이 공명을 울리며 대화를 나누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시이드의 이야기는 앞장에 이어 아기를 살해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정황들을 빌러비드에게 설명하려는 것이고, 덴버의 이야기는 시이드의 행위를 이해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어린 소녀의 심리를 제공하며, 빌러비드의 무질서한 이야기는 사물이나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갓난아기의 시점으로 중간항로의 노예선에서 부모를 잃은 아기의 상황을 열거한다. 그리고 이 세 목소리가 공명을 울리며 교차하는 네 번째 장은 겉으로 보기에 세 인물 간의 완벽한 합일을 보여주는 듯하지만, 과거에 사로잡힌 세 인물이 서로에게서 각자가 원하는 답만 듣는다는 점에서 의사소통의 실패를 보여준다. 이것은 이후의 장에서 시이드와 빌러비드의 관계가 퇴행적이고 파괴적인 관계로 변해가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빌러비드에 대한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시이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그녀에게 못다한 사랑을 주려하고, 엄마의 손에 죽어야 했던 빌러비드는 시이드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그녀에게서 사랑을 보상받으려 함으로써 둘의 관계는 퇴행적이고 파괴적인 관계로 변한다. 그러나 둘의 관계를 지켜보면서 양쪽의 이야기를 경청한 덴버는 궁극적으로 시이드의 행위가 자식에 대한 지나친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을 깨닫고 점점 포악한 악령으로 변해가는 빌러비드로부터 시이드를 구하기 위해 공동체에 도움을 요청한다.

이렇게 세 인물의 직접적인 이야기를 통해 시이드의 아기 살해 사건을 둘러싼 총체적 진실이 드러나고 여기서 인물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독자도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을 내리는 청자의 위치에 놓이게 된다. 그런데 1인칭 화자로 된 주요 인물의 이야기 외에도 베이비 석스나 스탬프 페이드와 같은 여러 인물의 목소리는 시이드의 아기 살해 사건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제공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이 사건에 대해 간단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게 한다. 시이드의 직접적인 이야기를 통해 독자가 그녀의 깊은 모성에 공감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기 살해를 들

러싼 다양한 관점들은 그녀의 행위가 정당한가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 모리슨도 “시이드를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그녀가 죽인 딸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그 점이 빌러비드를 등장시키게 된 이유”(Caldwell 248)라고 언급한다.

『빌러비드』는 이렇게 다양한 인물의 이야기를 긴밀하게 엮어 독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열린 텍스트로서 이것은 『빌러비드』가 서아프리카에 기원을 둔 흑인 구전 전통인 ‘부름과 응답’의 서사적 구조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름과 응답’은 노예제 시절에 문자에 접근할 수 없었던 흑인 노예들에 의해 활발하게 이루어진 스토리텔링뿐만 아니라 흑인영가와 노동요에서도 흔히 발견되는 대표적인 흑인 구전 전통으로 즉흥성과 반복성을 토대로 계속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집단예술의 특징을 보여준다. 이야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화자와 청중 사이에서 ‘부름과 응답’을 통해 집단의 욕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의미와 개성이 덧붙여지면서 이야기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한다. 따라서 이야기는 특정한 화자의 소유물이 아니고 이야기를 듣는 청자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 새로운 이야기를 첨가하거나 기존의 이야기를 변형해서 화자의 위치로 바뀌기도 하면서 이야기는 반복되고 순환되고 확장된다. 덴버의 출생 이야기가 시이드로부터 덴버로 전해지고 다시 덴버가 화자의 입장이 돼서 자신의 개성을 덧붙여 빌러비드에게 전달하는 과정은 전통적인 스토리텔링의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또한 시이드의 아기살해 사건을 중심으로 여러 인물들에 의해 주요 사건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되고 청취되고 반복되고 순환됨으로써 서사가 완성되고 이 과정에서 청자의 위치로서 독자의 참여가 요구되는 것도 ‘부름과 응답’의 서사 구조와 관련 있다고 할 수 있다. 화자와 청자가 함께 의미를 만들어가는 이러한 ‘부름과 응답’의 스토리텔링은 『빌러비드』에서 모녀의 온전한 사랑을 불가능하게 했던 노예제의 악몽이 구현된 중심 사건을 두고 다양한 목소리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들을 통해 독자가 다각적인 관점에서 역사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Sale 177).



‘부름과 응답’에 기반한 스토리텔링은 화자와 청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들이 공유된다는 점에서 집단적이고 공동체적인 목소리를 띠게 되는데, 이것은 『빌러비드』의 인물들을 지배하는 고통스러운 재기억에 새로운 가능성을 부여한다. 재기억은 개별 인물들로 하여금 노예제 시절의 고통을 그대로 다시 경험하게 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이지만 이야기를 주고받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과거의 경험을 공유하고 각자의 기억을 하나로 모으는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재기억의 집단적 경험을 통해 각자의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있던 인물들은 타자의 고통을 바라볼 여지를 갖게 됨으로써 상호 이해와 화해 및 자아 회복의 가능성을 갖게 된다.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통한 재기억의 긍정적 기능은 “정보의 집단적인 공유”(Darling 248)를 통해 개인과 집단의 치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흑인의 구전 전통인 ‘부름과 응답’의 고유한 기능이 잘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육화된 모습으로 돌아온 과거의 유령 빌러비드는 인물들의 재기억을 촉진시킴으로써 과거의 진실에 다가가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그들을 재기억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치유의 기능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빌러비드에 사로잡힌 시이드가 세상과 단절하고 과거의 늪에 빠져 서서히 죽어가는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세대에 속하는 덴버는 공동체를 향해 도움의 손길을 요청함으로써 시이드를 과거의 악령에서 구할 수 있게 된다. 폴 디 역시 빌러비드가 떠난 뒤 시이드를 찾아와 자신의 이야기를 그녀의 이야기 옆에 나란히 두기로 결심하고 그녀가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일깨워준다(173). 폴 디의 격려에 희미하게나마 자신이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인식하는 시이드의 마지막 모습은 악몽의 역사를 경험한 흑인 개인이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상실된 자아를 되찾아 온전한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서로의 이야기를 주고받는 집단적 공유를 통해서만 가능함을 암시한다.

## IV. 나가며

1993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모리슨의 대표작이자 현대 미국소설을 대표하는 작품 중 하나인 『빌러비드』는 노예제도라는 미국 사회의 원죄를 백인 가해자와 흑인 피해자와의 관계가 아니라 노예제에서 살아남은 이들이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방법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노예 서사와 다르다. 또한 현대 미국사회에서 흑백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소환되는 노예제라는 과거의 악몽을 남녀간의 사랑과 부모 자녀 관계,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더 나아가 자아회복의 문제 등 보편적인 주제들과 함께 다룬다는 점에서 현대 독자에게도 강한 호소력을 지닌다. 또한, 노예제라는 어둡고 무거운 주제가 아름다운 시적 문체와 흑인의 전통문화에 기반한 독특한 서술 기법을 통해 예술적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본론에서 살펴본 것처럼 모리슨은 『빌러비드』에서 흑인 고유의 세계관과 현실인식을 토대로 흑인문화에 바탕을 둔 독특한 마술적 세계를 사실주의적인 방식으로 구축했다. 유령이나 몰활론적 인식이 현실과 자연스럽게 혼합되는 『빌러비드』의 마술적 사실주의 세계는 서아프리카에 바탕을 둔 흑인 고유의 믿음과 세계관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공동체적 믿음에 의해 마술적 현상들은 현실의 확장으로서 자연스럽게 수용된다. 이 마술적 세계의 중심에 있는 빌러비드는 여러 평자들이 언급한 것처럼 무덤에서 돌아온 시이드의 딸이자 아프리카에서 강제로 끌려와 중간항로 과정에서 무참히 죽어간 이름 없는 이들의 집단적 원혼이며 과거 노예제의 악령이기도 하다. 이렇게 현실세계로 돌아온 빌러비드는 마술적, 상징적, 역사적 의미를 띠는 다층적 존재로서 인간의 의식의 한계를 뛰어넘어 과거의 진실에 이르는 안내자 역할을 한다. 또한 김혜진의 언급대로 빌러비드는 “침묵당한 자의 목소리를 회복시키며 과거와 현재를 통합하여 작품 속의 인물들이 주체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277).

미술적 사실주의 외에도 과거에 사로잡힌 인물들의 재기억에 따라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중심 사건 주위를 빙빙 돌며 이야기를 확장해 가는 순환적 서술방식과 ‘부름과 응답’이라는 흑인의 구전전통에 입각한 주요 인물의 스토리텔링은 『빌러비드』의 독특한 서술기법으로 작품의 주제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노예제가 야기한 시이드의 아기 살해라는 비극적인 사건을 가운데 두고 “화제를 돌리며”(161) 과거와 현재를 순환적으로 오가는 서술 방식은 고통스러운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려는 인물들의 태도와 부합하며, ‘부름과 응답’을 기초로 한 다양한 인물의 스토리텔링은 이야기의 집단적 공유를 통해 인물들과 독자로 하여금 과거의 총체적 진실에 다가가게 하고 노예제가 야기한 트라우마의 치유를 가능하게 한다.

모리슨은 이러한 다층적 서술 전략을 통해 시이드의 경험을 노예제를 경험한 흑인 집단 전체의 경험과 연결시킴으로써 소설 말미에서 공동체와의 화해를 통한 개인의 구원 가능성을 보여준다. 시이드는 자신의 고통을 개인적인 것으로 여기고 공동체로부터의 고립을 택하지만 악령으로 변한 빌러비드로부터 그녀를 구해내는 것은 바로 흑인 공동체이다. 사실 어머니로서 자식을 잃은 시이드의 경험은 시어머니인 베이비 석스나 자신의 친어머니를 비롯하여 흑인 여성 전체가 겪은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시이드는 자신의 고통을 그들과 나누려 하지 않았다. 따라서 시이드의 구원 가능성은 이 공동체와의 화합으로부터 가능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작품 말미에 묘사되는 흑인 공동체는 모두 노예제라는 끔찍한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이룩한 공동체로서 시이드를 멀리했던 엘라도 빌러비드를 자신에게 돌아온 유령으로 보고 그녀를 구출하는 데에 앞장선다. 따라서 빌러비드를 몰아내기 위해 마을 여인들이 시이드의 집 앞에 모여 부르는 주술적 노래와 합성은 아프리카 고유의 전통으로 빌러비드로 육화된 과거의 악령을 몰아내고 새로운 공동체를 불러들이는 의식 행위라 할 수 있다. 시이드는 이 소리를 듣고 물속에서 세례 받고 나온 것처럼 몸을 떠는데 (261), 이는 그녀의 구원 가능성과 새로운 삶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것과

관련하여 모리슨은 “그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공유하게 되면 그들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 되고, 셋이 되고, 넷이 됩니다. 집단 전체가 이야기를 공유하면 그것은 개인을 치유하게 되고 집단 전체를 치유하게 됩니다”(Caldwell 248)라고 언급한다.

아프리카에서 끌려와 미국 노예제에 희생된 6천만 명 이상의 흑인 노예의 고통은 현대의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피해갈 수 없는 역사의 악몽이다. 그 과거의 유산을 애써 잊으려 하고 지워버리려 한다면 그것은 빌러비드처럼 언제든지 유령으로 나타나 현재의 삶을 침범하게 될 것이다. 이 점에서 빌러비드는 작품 속에 등장하는 실제적인 유령을 넘어 노예제라는 역사의 악몽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Anderson 139). 빌러비드가 지닌 이러한 상징성은 현실 속에 떠도는 노예제라는 과거의 유령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의 문제를 제기한다. 모리슨의 언급대로 미국사회가 ‘국가적 기억 상실증’을 가장하며 과거의 기억을 애써 외면할 수도 있지만 소설 『빌러비드』는 과거의 유령과 적극적으로 대면하여 유령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 원한을 이해하며 아픔을 다독일 때 현재를 살아가는 이들의 구원과 치유도 가능성을 보여준다. 공동체 전체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과거의 상처에 대면하게 될 때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조상과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

(원광대학교)

## ■ 주제어

『빌러비드』, 토니 모리슨, 마술적 사실주의, 순환적 서술기법, 스토리텔링

## ■ 인용문헌

- 김선옥. 「『빌러비드』에 나타난 미술적 사실주의와 흑인 미학」. 『현대영미 소설』 21.2 (2014): 5-31.
- 김혜진. 「기억하는 유령 그리고 치유하는 유령: 토니 모리슨의 『빌러비드』에 나타난 유령 이야기」. 『융합영어영문학』 9.1 (2024): 277-97.
- Anderson, Linda. “The Re-Imagining of History in Contemporary Women's Fiction.” *Plotting Change: Contemporary Women's Fiction*. Ed. Linda Anderson. London: Edward Arnold, 1990. 129-41.
- Atkinson, Yvonne. “The Black English Oral Tradition in *Beloved*: “listen to the spaces.”” *Critical Essays on Toni Morrison's Beloved*. Ed. Barbara H. Solomon. New York: G.K. Hall, 1998. 247-60.
- Atwood, Margaret. “Haunted by Their Nightmares.” *Critical Essays on Toni Morrison's Beloved*. Ed. Barbara H. Solomon. New York: G.K. Hall, 1998. 40-42.
- Bowers, Susan. “Beloved and the New Apocalypse.” *Journal of Ethnic Studies* 10 (1990): 59-77.
- Caldwell, Gail. “Author Toni Morrison Discusses Her Latest Novel *Beloved*.” *Conversation with Toni Morrison*. Ed. Danille Taylor-Guthrie. Jackson: Mississippi UP, 1994. 239-45.
- Conner, Marc C. “Introduction: Aesthetics and the African American Novel.” *The Aesthetics of Toni Morrison*. Ed. Marc C. Conner. Jackson: Mississippi UP, 2000. ix-xxviii.
- D'haen, Theo L. “Magical Realism and Postmodernism: Decentering Privileged Centers.” *Magical Realism: Theory, History,*

- Community*. Eds. Lois Parkinson Zamora and Wendy B. Faris. Durham & London: Duke UP, 1995. 191-208.
- Darling, Marsha. "In the Realm of Responsibility: A Conversation with Toni Morrison." *Conversation with Toni Morrison*. Ed. Danille Taylor-Guthrie. Jackson: Mississippi UP, 1994. 246-54.
- Edwards, Thomas. "A Ghost Story." *Critical Essays on Toni Morrison's Beloved*. Ed. Barbara H. Solomon. New Nork: G.K. Hall, 1998. 78-83.
- Faris, Wendy B. "Scheherazade's Children: Magical Realism and Postmodern Fiction." *Magical Realism: Theory, History, Community*. Eds. Lois Parkinson Zamora and Wendy B. Faris. Durham & London: Duke UP, 1995. 144-63.
- Foreman, P. Gabrielle. "Past-On Stories: History and the Magically Real, Morrison and Allende on Call." *Magical Realism: Theory, History, Community*. Eds. Lois Parkinson Zamora and Wendy B. Faris. Durham & London: Duke UP, 1995. 285-304.
- Hakyoung Ahn. "Haunting Landscapes: Ecogothic Echoes of Trauma and Recovery in Toni Morrison's *Beloved*." 『미국소설』 31.1 (2024): 233-52.
- Harris, Trudier. *Fiction and Folklore: The Novels of Toni Morrison*. Knoxville: Tennessee UP, 1991.
- House, Elizabeth B. "Toni Morrison's Ghost: The Beloved Who Is Not Beloved." *Critical Essays on Toni Morrison's Beloved*. Ed. Barbara H. Solomon. New Nork: G.K. Hall, 1998. 117-26.
- Liscio, Lorraine. "Beloved's Narrative : Writing Mother's Milk." *Tulsa Studies in Women's Literature* 11 (1992): 31-46.
- Morrison, Toni. *Beloved*. New York: Penguin Books, 1988.

- \_\_\_\_\_. “Rootedness: The Ancestor as Foundation.” *Literature in the Modern World*. Ed. Dennis Walder. London: Oxford UP, 1990. 339–45.
- Rodrigues, Eusebio L. “The Telling of *Beloved*.” *Critical Essays on Toni Morrison's Beloved*. Ed. Barbara H. Solomon. New York: G.K. Hall, 1998. 148–65.
- Sale, Maggie. “Call and Response as Critical Method: African-American Oral Traditions and *Beloved*.” *Critical Essays on Toni Morrison's Beloved*. Ed. Barbara H. Solomon. New York: G.K. Hall, 1998. 177–88.
- Zamora, Lois Parkinson. “Magical Romance / Magical Realism: Ghosts in U.S. and Latin American Fiction.” *Magical Realism: Theory, History, Community*. Eds. Lois Parkinson Zamora and Wendy B. Faris. Durham & London: Duke UP, 1995. 497–550.
- Zinn, Howard. *A People's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1492–Present*. New York: Harper Perennial, 2005.

■ Abstract

A Study on Narrative Techniques of Toni Morrison's *Beloved*

Kim, Sun-ok  
(Wonkwang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explore representative narrative techniques in Toni Morrison's *Beloved*, which contributed to making the story of slavery and its survivors the great novel that won the Pulitzer Prize in 1988. *Beloved* treats slavery as a collective experience of African Americans, addressing issues such as history, motherhood, recovery of self,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s and the community. These universal themes are built on unique narrative techniques rooted in black traditional culture. First, Morrison creates a world of magical realism, where magic is naturally combined with reality, based on the traditional beliefs and worldview of black people. In this 'real unreal world,' *Beloved*, the ghost of Sethe's dead daughter, serves as a guide to the truth of the past by stimulating characters to confront the nightmare of slavery. Another technique is the narration method of "circling the subject" around the main event, representing characters' painful memories. The narration alternates between the past and the present, dealing with characters' fragmented memories and their current psychological state under the repression of past



memories. Lastly, *Beloved* includes various kinds of storytelling by characters with the omnipresent narrator supplementing them. The storytelling is based on ‘call and response,’ the black oral tradition that involves other characters and readers as listeners. This kind of storytelling is very effective in helping characters understand one another, heal their trauma, and eventually recover their sense of self, with readers gaining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truth of the past.

### ■ Key words

*Beloved*, Toni Morrison, Magical realism, Circling narration, Storytelling

### ■ 논문게재일

○투고일: 2024년 7월 25일 ○심사일: 2024년 8월 9일 ○게재일: 2024년 8월 13일



# 서사 공백 채우기와 마음-읽기를 통한 인지비평적 인물 분석 : 필립 로스의 『인간의 오점』을 중심으로

김준년\*

## I. 서사의 공백과 사람의 마음의 인지적 탐색

소설의 서사 공백과 사람의 마음을 비교해 보면, 구조적 및 기능적 유비가 관찰된다. 서사의 공백과 사람의 마음은 둘 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구조적 유사성을 지니고, 보이지 않지만 모종의 노력을 통해 읽어냄으로써 행간과 이면의 진실이 드러날 수 있다는 기능적 유사성을 지닌다는 말이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 낭만주의 인지비평가 앨런 리처드슨(Alan Richardson)이 인지 서사학자라고 칭하는 데이비드 헤르만(David Herman)은 “이야기 세계”(storyworld)는 “필연적으로” “공백이라는 속성”(gappiness)을 지니는 까닭에 “허구적 세계가 미완의 상태인 것은 불가피하다”라고 전제한다 (*Story Logic* 66-68). 소설 속 등장인물의 손짓이나 걸음걸이, 호흡 방식이나 운전 행위 하나하나를 미주알고주알 늘어놓으면, 이야기가 한없이 길어져 한 권의 텍스트 안에 담길 수 없게 되기에 그렇단 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헤르만은 “독서의 일반 특징을 공백을 채워나가는 과정”으로 보는 수용이론의 관점을 받아들이고, “허구적 세계의 창작자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독자, 청자, 관객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에서, 독자의 위

\* 홍익대 교수, junyonk@hongik.ac.kr

상을 “창조적으로 공백을 채우는 인지적 존재”(cognitively creative, gap-filling beings)로 개념화한다(*Story Logic* 67; 저자 강조).

독자가 소설을 읽으며 서사 공백을 채우는 행위는 우리가 대화 속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짐작하는 인지 활동과 유사하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서사 공백이나 소설 속의 행간은 노력하는 독자에게 접근이 허용되는 노천 의미 채굴지인데 반해, 사람의 마음은 오직 자기 자신만이 아는, 타인이 관여할 수 없는 불가침의 성소라는 점이다. 이 지점에서 잠깐 멈춰 생각해 보면, 소설 읽기가 마음-읽기(mind-reading)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전제하는 인지비평의 최근 경향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휴브리스(*hubris*)를 초깃값으로 상정하는 발본적 태도를 견지하는 동시에, 머지않은 미래에 마음의 물적 매트릭스인 뇌가 송두리째 다운로드되거나 양도될 수 있는 상황을 부정하지도 거부하지도 않는 입장일 수 있겠다. 우려가 생긴다. 이에 유념하여, 서사의 공백을 채운다거나 텍스트의 행간을 읽는다는 것이 ‘한 길 사람 속’에 감춰진 진실을 알게 되는 도저한 형국과 유비할 겨라는 점을 신중히 확인할 때, 필립 로스(Philip Roth)의 혹은 그의 ‘인지적 동반자’<sup>1)</sup> 네이션 저커먼(Nathan Zuckerman)의 인간적 정념이 담긴 ‘마지막’ 소설로 볼 수 있는 『인간의 오점』(*The Human Stain*)은 중첩하는 두 작업—공백 채우기와 마음-읽기—을 통해 탐색할 가치가 충분한 텍스트로 보인다. 『인간의 오점』은 앞서 언급한 공백이 유난히 두드러진 소설로서, 불가피하게 생략되거나 우발적으로 누락시킨 서사 공백이 모두 채워질 경우, 361쪽이라는 종이책의 분량을 너끈히 초과하는 행간의 이야기가 무수히 발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소설이 시작되는 현재 시점인 1998년 여름에 일흔한 살인 주인공 콜먼 실크(Coleman Silk)는 매사

1) 로스는 2000년 5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 도중에 저커먼을 작가의 “분신”(alter ego)이라고 부르는 진행자를 향해 자신의 “또 다른 두뇌”(alter brain)라고 수정한 바 있다. 로스의 말을 인지적으로 종합해보면, 저커먼을 자신의 뇌 속에 살며 정보과 가치를 공유하는 인격체로 간주하는 인상도 주고, 자신의 글쓰기 여정에 동행하는 반려자로 대하는 듯한 느낌도 준다.

추세츠주 서부 산촌에 소재한 가상의 아테나 대학(Athena College)에서 20여 년간 고전문학을 가르치고 이어서 학장으로 16년을 더 재직한 뒤 은퇴한 유대인으로 소개되지만, 그가 1956년경으로 추정되는 시점에 정년 보장 트랙의 교수로 부임한 이래 1996년에 발발한 흑인 여학생 인종차별 소동에 휘말려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대학을 떠날 때까지 약 40년간의 긴 세월이 소설 속에서 공백으로 처리되어 있다. 콜먼은 그 긴 공백기 동안 자신이 유대계 백인이 아니라 겉보기에 피부가 흰 흑인, 이른바 ‘패서’(passer)라는 인종 정체성을 마음속 깊이 은폐한 채 살아간 인물이다. 소설의 서사 공백과 말하지 않은 주인공의 마음이 절묘하게 겹치는 이야기 구조인 것이다.

이처럼 주인공의 생애 40년이 소설의 서사에서 통으로 생략된 사례가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포터 애벗(H. Porter Abbott)이 『진짜 미스터리: 서사와 알 수 없는 것들』(*Real Mysteries: Narrative and the Unknowable*)에서 밝히듯, 소설 장르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endemic) 서사 공백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107). 애벗은 「읽히도록 거기 있지 않은 것을 어떻게 읽지?」(“How Do We Read What Isn't There to Be Read”)라는 논문에서 공백을 읽는 세 가지 방식을 설정해 소설, 영화, 시에서 각각 예를 가지고 와 설명한다. 그는 서사 공백을 “비서술된(disnarrated) 것은 아니고” 다만 “그럴 거라고 감지되는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그림자 이야기”(shadow stories)로 간주하고(“How Do” 104), 헤밍웨이의 단편소설 「심장이 둘인 큰 강」(“Big Two-Hearted River”)을 예로 들어 그런 공백을 묶는 방식을 제시한다. 이 단편소설에서 닉 애덤스(Nick Adams)는 홀로 미시간 북부의 한적한 산천을 찾아 캠핑과 송어 낚시에 푹 빠진 태평스러운 모습으로 묘사된다. 하지만 그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살아 돌아온 참전 용사이다. 서사의 표층에 전쟁의 참상에 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지만, 닉의 머릿속에는 전쟁의 트라우마가 그대로 웅크리고 있음이 틀림없다. 그런고로 독자가 책을 읽는 순간 행간에

존재하는 전쟁 이야기가 독자의 마음속에서 인지적으로 재생될 수 있다. 애벗은 “닉이 전쟁터에 있었다”가 그림자 이야기의 뼈대가 되고(“How Do” 115), “경험 많은 독자”(sophisticated readers)가 공백으로 처리된 그림자 이야기를 마음속으로 충분히 자각하여 현재 서술되는 이야기와 중첩하여 이해하는 것을 “공백 묶기”(binding the gap)라고 설명한다(“How Do” 108). 소설가 토니 모리슨(Toni Morrison)도 독자와 독서 행위 간의 긴밀한 상관성을 강조하며, “행간, 행 아래, 행 바깥에”(under, between, outside the lines) 숨어있는 이야기를 “보이지 않는 잉크”(invisible ink)라고 흥미롭게 명명하고, 텍스트에 진지하게 다가가는 “올바른 독자”(the ‘right’ reader)라면 “보이지 않는 잉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348). 이렇게 보면, 서사 공백 채우기란 수용적·수동적 독서 행위를 넘어 자각된 유무형의 정보를 재조합하여 새로운 이야기를 재생산하는 적극적인 인지 활동이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독자가 세심하게 더듬어나가는 덩굴손이 행간의 그림자 이야기를 찾아낸다는 서사학적 관점이 마음-읽기의 방식과 패턴에 주목하는 인지비평의 본령과 맞닿는다.

그런데 『인간의 오점』의 줄거리에 드러나는 콜먼의 서사 공백은, 닉 애덤스의 경우와 달리, 묶거나 채우기가 녹록치 않다. 구조적으로 콜먼의 그림자 이야기는 장기간에 걸쳐 누적되면서 하나가 아닌 여러 갈래로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닉이 단독으로 등장하는 「심장이 돌인 큰 강」과는 달리, 『인간의 오점』에는 여러 인물이 저마다의 그림자 이야기를 여러 개씩 갖고 등장한다. 예컨대 콜먼과 관계를 맺는 네 명의 여인 중 마지막 인물인 포니아(Faunia)는 1998년 현재 서른네 살의 백인 여성이다. 포니아의 경우, 열네 살에 가출해 6년여간 남부 플로리다 일대를 전전했던 그림자 이야기, 스무 살에 고향인 뉴잉글랜드로 돌아와 열살 이상 연상인 레스터 팔리(Lester Farley)와 결혼한 그림자 이야기, 남편의 의처증과 상습적인 구타로 결혼 12년 만에 이혼하는 그림자 이야기 등이 소설의 행간에 걸쳐 있다. 포니아의 그림자 이야기 중에 행간 읽기나 공백

뭉기를 통해 납득하기 가장 버거운 이야기는, 이혼한 이듬해인 1996년, 당시 여덟 살, 다섯 살이었던 두 자녀가 “경찰 추정, 실내 난방기(space heater) 과열로 인한 화재”(246)로 질식사한 사건이다. 그나마 포니아에 관한 이 정도의 신상 정보도 화자 저커먼이 그녀의 연인이 된 콜먼으로부터 전해 들은 것이고, 포니아의 삶은 더 깊은 행간에 더 많이 존재한다.<sup>2)</sup> 포니아의 전남편인 레스(터) 팔리도 포니아 만큼 여러 겹의 그림자 이야기를 지닌 인물이다. 팔리는 월남전에 두 차례 파병된 특이한 이력 탓인지 두 얼굴을 가진 참전 용사이다. 전쟁의 트라우마로 인해 “26년째 빌어먹을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70)지만, 노샘프턴(Northampton) 재향군인 관리국(Veterans Administration) 교정 시설에 여러 차례 들락거리며 치유 프로그램을 이수한 끝에 지금은 매우 노련하게 PTSD 증후군을 연기할 수 있다. 물론 팔리를 이렇게 평가(의심)하는 것은 그의 그림자 이야기를 조합해 도달할 수 있는 해석의 영역이다. 분명한 사실은 월남에서 돌아온 팔리가 얼빠진 촌뜨기(1차 파병 당시)도 아니고 정신 나간 ‘포라이’(2차 파병 당시)도 아니라는 점이다. 그는 말과 행동 둘 다에서 위장, 가장, 잠행과 같은 생존 전략에 능수능란한, 그야말로 상대의 마음을 교란시켜야 이기는 생존 게임에 최적화된 인물로, 그와 경쟁해야 하는 포니아, 콜먼, 저커먼의 머릿속에 강도 높은 인지 부하를 일으키는 장본인이다.

이처럼 『인간의 오점』의 서사 공백에는 주요 인물들의 그림자 이야기가 어긋는다. 따라서 전체 서사의 패턴을 잘 포착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

2) 저커먼은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한 사람의 인물로서 자신이 알 수 없는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 창조적 추정을 통해 1인칭 화자의 한계를 극복한다. 일레로, 델핀루(Delphine Roux)에 관한 저커먼의 서사 추측(narrative speculations)과 관련해, 데릭 파커 로열(Derek Parker Royal)은 이렇게 설명한다. “독자들은 저커먼이 델핀을 안다고 짐작할지 모르겠지만, 실제 그는 델핀을 만난 적이 없다.” 저커먼은 델핀의 그림자 이야기를 전할 때, “그가 아는 지식의 불확실성을 강조하려는 듯 ‘아마도’(maybe), ‘어쩌면’(perhaps), ‘대체로’(probably), ‘인 것 같은’(seemed), ‘일어났을 수도’(could have happened), ‘그랬을지도’(might have been) 등과 같은 어구를 되풀이한다”(119-21).

행간 읽기가 요구되는데, 이 소설의 서사 공백을 메우기가 특히 힘든 이유는 주인공 콜먼을 비롯한 주요 등장인물이 그림자 이야기 속에서마저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는 가장하기(pretending)를 통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가장하기란 실제와 다르게 보이도록 언행을 연출하는 것인데, 가장(pretense)이 언어를 매개로 수행될 때 즉흥적인 구어의 수준에서는 거짓 말이나 말장난(pun)으로, 더 길고 정교한 문어적 수준에 이르면 시와 같은 은유의 집이나 소설과 같은 허구의 세계로 확장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인지비평의 선구자인 마크 터너(Mark Turner)가 『햄릿』의 한 대목에서 간파한 폴로니우스와 햄릿의 대화에서 흥미롭게 제시된다. 햄릿이 폴로니우스에게 “저기 낙타 모양의 구름이 보이냐”고 묻자 폴로니우스는 “정말 낙타처럼 보인다”고 응답한다. 그러자 햄릿은 “[자기] 생각에 족제비 같다”고 했다가, 다시 “고래 같다”고 말을 바꾼다(12). 햄릿의 말재간은 폴로니우스의 마음을 떠보려는 의도를 가지고 연출된 것이 분명한데, 여기서 우리는 구름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표면적 지각이 일치하더라도 마음속 더 깊은 곳에서 작동하는 인지는 미묘하게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sup>3)</sup> 이러한 맥락에서 한 편의 이야기가 만들어지거나 사건화될 수 있는 것이다. 터너는 이를 “인간의 마음은 언제나 작은 이야기들을 축조하고 그것들을 투사하는 일을 한다”(12)라고 설명한다. 애벗이 마음의 속성을 “다사다난함”(eventfulness), 즉 ‘쉽 없이 일어나는 이야기거리로 가득함’으로 보았듯이(“How Do” 115), 터너도 인간의 마음속에서 의미가 생성되는 원리가 이야기하기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파악하고, 계속해서 허구를 만들어내어야 살 수 있는 셰헤라자드(Shahrazad; sic)의 운명에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기획—미래에 투사—하는 마음 활동과 인간의 자기보

3) 문화인류학자 스투어트 구트리(Stewart Guthrie)의 『구름 속의 얼굴』(*Faces in the Clouds*)의 앞표지를 보면, 지난 1976년 바이킹 1호가 화성 표면(Cydonia)을 찍은 사진에서 포착된 사람의 얼굴 이미지가 채택되어 있다. 지금은 꽤 유명해진 이 이미지는, 터너가 햄릿의 마음에서 읽어낸, 인간의 지각과 인지 사이의 상호 관련성과 영향력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설명되고 있다.



존을 위한 노력 사이의 유비를 간과한다(3-5). 이런 관점에서 볼면, 포니아, 델핀 루, 팔리의 가장하기를 자기보존을 지향하는 마음의 ‘일’로 이해하면, 인지비평으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한층 가까이 보인다.

앞서 언급한 애벗이 인지 연구로 학문적 관심사를 넓힌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서사학자 헤르만도 인지과학적 세계관을 서사와 담화를 분석하는데 대폭 수용하고 도입한다. “여기 있는 마음(the mind in here)으로 돌아가자”는 그의 제안은 데카르트의 이원론에서 벗어나 인지과학적 관점에서 재구성된 ‘체화된 정신’(the embodied mind) 이론에 1980년대 이후에 부상한 “담론 분석”의 영향을 더한 것으로, 인지 작용이라는 것이 “여기 안에서(in here)뿐 아니라 저기 밖에서(out there)도 일어난다”고 주장하기 위한 초석이다(“Narrative Theory after the Second Cognitive Revolution” 160). 그의 담화-심리학적 관점은 말과 글로 구축된 담화와 서사에 내재한 인지 과정을 정밀하게 추출해 분석하면, 인간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논리를 따른다. 애벗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헤르만이 그의 심리-담화 서사론을 설명하기 위해 예로 드는 작품도 헤밍웨이의 단편소설인 「흰 코끼리 같은 언덕」(“Hill Like White Elephants”)이다. 헤르만이 「흰 코끼리 같은 언덕」의 숨은 서사 구조에 접근하는 방식은 『인간의 오점』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부여된 인지적 깊이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헤르만이 상기시켜주듯, 헤밍웨이의 소설은 인물의 “기질, 생각, 성향, 기억 등과 같은 내적 상태”를 서사의 표면에서 의도적으로 누락시키는 행동주의 서사의 전형을 보여준다(“Narrative Theory” 157). 그런데, 헤밍웨이의 무미건조한 서사에 “인지 혁명이 견인하는 담화-심리학적 방법론”으로 접근하면, 그가 원칙으로 삼은 “빙산의 일각” 작법으로 인해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8분의 7”이 되려 인지적 재해석의 무한한 보고가 된다는 것이 헤르만의 논지이다.

「흰 코끼리 같은 언덕」의 서사는 무명의 미국 남성과 지그(Jig)라는 이름의 여성이 어느 여름날 스페인의 시골 간이역에서 약 40분 뒤에 도착할

열차를 기다리며 나누는 짧은 대화가 전부이지만, 인지 과정이 담화를 통해 제정된다는 인지비평적 관점으로 두 사람의 대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이 말로 나누는 짧은 대화 속에 말로 나누지 않은 어마어마한 분량의 마음이 구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자는 기차를 기다리는 동안 맥주를 마시며 남자와 대화하면서, 간이역 건너편에 보이는 1) 희끄무레한 언덕을 바라보았고, 그 언덕의 지세에서 2) 흰 코끼리의 형상을 연상했고, 그 흰 코끼리의 이미지에서 “원치 않는 선물”이 되어가는 3) 태아를 상상한 것이다. 이에 반해 연신 맥주를 훌쩍거리며 낙태를 강요하지 않는 척하느라 마음이 바쁜 남자는 여자가 가리키는 언덕 방향으로 4) 눈길은 주지만, 찬찬히 5) 관찰하지 않는다. 둘은 말로 대화하지만 둘 사이에 마음은 (필자가 구분한) 5중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다. 여기서 남자는 당시의 지배적 젠더 관념에 따라 이야기의 논리를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헤르만이 주장하듯이, 말과 침묵의 패턴을 추적하는 담화-심리학적 서사 분석을 훈련받은 현대의 독자라면, “남성을 권위 있는 지식과 건전한 판단의 출처로 보았던 성차별주의 거대서사를 하나하나 교란할 수 있는”(“Narrative Theory” 164) 독서 역량을 갖게 되고, 대화의 표면에 부재하는 서사의 이면을 탐색하는 인지 과업을 통해, “어디서든지 헤밍웨이의 이야기에서 관찰된 것과 유사한 정도의 젠더 비대칭을 읽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Narrative Theory” 173). 서사학 이론서 『이야기 논리』의 저자로서 형식주의 비평에 치중하는 헤르만이 이처럼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를 거론하는 것이 이례적이지만, 인지비평적 관점에서 행간 읽기와 마음-읽기를 통해 서사와 담화의 수면 아래를 탐색하는 작업은 그가 지적한 “젠더 비대칭”뿐만 아니라, 미국의 문학 전통과 미국인의 마음속에 여전히 만연하다고 의심되는 ‘인종 비대칭’을 가려내는 데에도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용한 리처드슨도 엘렌 스폴스키(Ellen Spolsky), 메리 크레인(Mary Crane), 리사 zunshine(Lisa Zunshine), 엘리자베스 하트(F. Elizabeth Hart) 등의 신역사주의 인지비평가들과 두루 공명하며, “문학 연구와 마음과 뇌

과학”을 융합하는 “학제간 연구”는 “서사학과 시학에서 수행 이론과 식민지 담론에 이르기까지 여러 하위 학제”에서 소정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 자신할 뿐 아니라(*The Neural Sublime* ix), 인지비평의 융통성을 잘 활용하면, 계급, 성, 인종, 국적의 문제가 야기한 사회관계가 지금보다 훨씬 노골적으로 반영된 영국 근대 문학의 긴 그림자를 재발견하고 재조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The Neural Sublime* 9-10).

서론을 마무리하며, 준샤인이 전망하는 인지비평의 두 갈래 전략적 목표에 관해 간략히 덧붙일 필요가 있다. 이는 필자가 인지 문학 이론을 수용하는 계기와도 관련이 있다. 준샤인은 인지가 단순히 신경 결정론적인 메커니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매개하고 사회심리학적으로 공진화하는 복합적인 체계로 보는 이론적 토대 위에서, 인지과학에서 얻은 통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인간의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을 새롭게 이해하자는 취지의 “인지-문화 상호 작용론”을 펼친다(“What Is Cognitive Cultural Studies?” 2-4). 이러한 사유의 결과물로 나온 것이 ‘인지 문학비평’을 ‘인지 문화연구’로 확장시키자는 첫 번째 전략 목표이다. 준샤인의 두 번째 목표는 인지과학적 발견과 성찰에 근거한 마음이론(Theory of Mind, ToM)을 소설 읽기에 전폭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문학 연구에 실사구시의 숨을 불어넣자는 전략이다. 이에 소설 읽기와 마음-읽기의 인지적 연관성을 조목조목 추적하면서, 마음-읽기에 다름 아닌 소설 읽기를 통해 독자가 실제 상황에 더 능률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는 인지 적응론이 탄생한다(*Why We Read Fiction* 6-18). 준샤인이 마음-읽기의 대상으로 삼는 소설은 복잡한 서사 구조를 지닌 제인 오스틴, 헨리 제임스, 버지니아 울프, 블라디미르 나보코프 등의 백인 작가들이 쓴 의식의 흐름 계열의 텍스트이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헤밍웨이 특유의 통명스러운 문장으로 구사된 단편소설에서도 담화에 투사된 남녀의 마음을 읽어냄으로써 독자는 자신과 타인의 마음을 함께 이해하는 공리적 역량을 키울 수 있다. 특히 자신의 인종 정체성을 숨기는 인지 부조화가 내면화되는 양상을 다루

는 패싱(passing) 소설을 통해, 독자는 인물의 (나아가 상대방의) 굴절된 마음을 읽는다는 것이 정치적으로 부담스럽고, 심리적으로 불편하지만, 윤리적으로 피할 수 없는 길임을 간접 체험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인종 간 마음의 충돌과 제동을 표상하는 미국 흑인문학이나 성 소수자의 마음을 노정하는 퀴어 문학은 인지비평적 접근법이나 방법론이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는 의미의 노다지일 것이다.

이상과 같이 간추려본 서사학적 공백 채우기와 인지비평적 마음-읽기의 유비성을 염두에 두고, 본 논문의 본론은 소설 읽기를 “소설이 [독자와 벌이는 인지 게임](Zunshine, *Why We* 118)으로 간주하여 『인간의 오점』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이 마음을 운영하는 방식과 패턴을 고찰한다. 이를 통해 인지적으로 계몽된 독자는 책을 읽으며, 무엇이 보이고 보이지 않으며(존재의 지각), 무엇을 알 수 있고 없으며(사물의 인식), 어디까지 믿고 믿지 않을지(대상의 판단) 등에 관한 발견적 또는 자기 주도적 인지 안내서를 작성할 수 있다.

## II. 콜먼의 ‘흑인’ 마음 읽기: 패싱 이전의 서사 패턴

『인간의 오점』의 주인공 콜먼은 1926년 11월 12일 뉴저지주 이스트오렌지(East Orange)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클래런스 실크(Clarance Silk)는 조지아 태생으로 대이주(Great Migration) 기간에 뉴저지로 올라와 직업 훈련학교를 졸업한 뒤 유대인들이 모여 살았던 이스트오렌지 변두리에 터를 잡아 안경점을 열었고, 뉴저지 태생인 어머니 글래디스 실크(Gladys Silk)는 뉴어크(Newark) 최초로 외과 병동의 수간호사가 된 흑인 여성이었다. 넉넉하진 않았지만 건실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3남매 중 콜먼의 형 월터(Walter)는 지역 최초의 흑인 교장에 이어 최초의 흑인 교육감에까지 올랐고, 여동생 어네스틴(Ernestine)도 교사로 정년퇴직했으니, 교수가

된 콜먼을 포함해 “교육자 집안”(322) 사람들로 불릴 만했다. 그런데 콜먼은 어릴 적부터 가족들과 생각이 달랐다. “피부색으로 치자면 월터도 콜먼만큼 이례적으로 흰 편이어서”(104) 백인으로 통할 정도였지만, 형은 모범적인 흑인의 길을 걸었던 반면, 동생은 그렇지 않았다. 콜먼은 흑인 특유의 공동체주의에 묶이기 싫어했다. 콜먼은 “우리라는 압제”(the tyranny of the we, 108)에서 하루빨리 해방되어 “나라는 위대한 개척자, 그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자”(the greatest of the great *pioneers* of the I, 108)가 되기를 염원한다.<sup>4)</sup> 콜먼은 이렇게 미국식 자수성가를 뒷받침하는 중핵 가치인 자유와 개인주의를 삶의 비전으로 삼는다. 이 축을 중심으로 콜먼의 패싱 서사와 그림자 이야기가 전개된다고 볼 때, ‘우리’와 ‘나’라는 길항하는 두 가치는 필자가 설정한 콜먼의 7라운드 정체성 게임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계기로 작용하면서, 콜먼의 마음을 인종보다 개인을 우선시하는 인지 패턴으로 이끈다.

콜먼은 게임을 좋아하는 소년이었다. 상대와 싸우는 게임을 특히 좋아했다.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기보다는 머리를 써서 이기고 싶다는 전략 전술에 부푼 꼬마 전사였다. 콜먼이 최초로 매료된 게임은 사각의 링 위에서 단둘이 싸우는 권투 시합이었다. 1936년 6월 19일 뉴욕의 양키 스타디움에서 성사된 미국의 조 루이스(Joe Louis)와 독일의 막스 슈멜링(Max Schmeling)의 세기의 대결은 소설에서 행간에 묻혀 있지만, 실제로는 텔

---

4) 로스는 2번 각주에 인용한 인터뷰에서 진행자 찰스 맥그래스(Charles McGrath)가 이번 소설이 “백인으로, 유대인으로 행세하는 흑인에 관한 책”이 아니냐고 묻자, 콜먼의 패싱을 흑인의 가족력을 버리고 백인으로 행세하는 선에서 처리했지, 굳이 그가 유대인의 정체성을 추구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답한다. 덧붙이기를, “콜먼의 선택은 유대교의 윤리적, 영적, 신학적, 역사적 측면과는 무관하니까요. 그건 또 다른 ‘우리’에 소속되는 문제이기에 콜먼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의 선택은 자신의 ‘우리’로부터 달아나려는 의도에서 성공적으로 채택된 간계인 거죠. 정확히는 실리주의적인 선택”이라는 것이다. 몰리 고드프리(Mollie Godfrey)가 재인용하듯, 로스가 “정체성 정치”나 “유대인 작가라는 꼬리표”에 대해 저항감이 컸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236). 이를 고려하면, 로스가 “우리”를 하필이면 “압제”라는 단어와 연결시켰는지 조금은 수궁할 수 있다.

레비전 전파를 타고 세계의 시선을 끌었던 사건이다. 리버럴 미국과 나치 독일의 자존심이 걸린 대결이었고, 민주주의와 전체주의의 대리전 양상을 띠었고, 당시 크게 부각되진 않았지만 흑백 인종의 대결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 시합을 두고 콜먼이 아버지와 나눈 대화의 주제는 거시적인 정치의 영역이 아니었다. 작가 로스는 당시 콜먼이 몇 살이었는지 기록하지 않았지만, 콜먼의 아버지가 한 말인 “네가 기억한다면”(96)에 근거해 추정하자면, 세기의 중계를 시청했을 때 1926년생 콜먼은 열 살가량의 초등학교생이었을 것이다. 어린 둘째가 권투에 빠진 것을 보고 주먹질의 말로를 연상한 듯, 실크 씨는 거리에 만연한 폭력으로부터 자식을 지킬 의도로 “심지어 조 루이스도 나가떨어져 정신을 잃었잖니?”(96)라고 대전의 결과를 상기시켜준다. 콜먼은 대뜸 아버지의 회유를 무시하고는 루이스에 비해 약체였던 슈멜링이 경기에 끌려가면서도 마지막 12라운드에서 루이스를 때려눕혔던 상황을 나름 자세히 설명하며 “그게 다 머리를 썼기 때문”(97)이라고 반박한다. 콜먼은 승리의 비결이 몸이 아니라 머리에 있다는 걸 신봉한 피부가 흰 흑인 아이였던 것이다. 한 단락 분량에 불과한 이 짧은 대목에 주목하는 비평은 거의 없지만, 행간을 묵직하게 채우는 역사적인 스포츠 이벤트를 두고 벌이는 아들과 아버지의 설전은 콜먼의 마음을 읽는데 빼놓을 수 없는 그림자 이야기이다. 정체성 게임 1라운드로 볼 수 있는 이 일화에서 콜먼은 1930년대 당시 미국 흑인들이 열광했던 민족의 영웅 조 루이스에 대해 별다른 인종적 유대감이나 연대감을 보이지 않고, 대신 대서양을 건너온 다른 나라 백인 슈멜링에 감정이입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인지 과정이 담화를 거치며 제정된다는 담화-심리학적 관점을 고려하건대, 콜먼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마음이 자신과 다르게 구성되고 있음을 일찍부터 자각할 수 있었어야 했다.

정체성 게임 2라운드도 권투와 관련이 있다. 열네 살 무렵부터 보는 권투가 아닌 하는 권투에 눈뜬 콜먼은 백인 경찰 맥 매크론(Mac Machrone)이 부업으로 공동 운영하는 빈민가 도장에 다니고 있었다. 콜먼이 서서히

대학진학을 준비해야 할 시기인 열여섯 고2가 되자, 실크 씨와 글래디스 부인은 아들이 빈민가 권투 도장에 그만 다녔으면 하는 뜻을 피력한다. 권투를 관두기 싫었던 콜먼은 부모님의 끈질긴 권유를 수용해 도장을 옮긴다. 콜먼의 아버지는 뉴어크 보이즈 클럽(Newark Boys Club)이라는 체육관을 추천한다. 그런데 이 스포츠 클럽은 “유대인 의사, 변호사, 사업가의 아들들이 취미 삼아 운동을 하는” 곳으로, 복싱광으로 알려진 닥 치즈너(Doc Chizner)라는 유대인 치과의사가 “유대계 특권층의 아이들”에게 방과 후에 권투를 지도하고 있었다(97). 상대적으로 열악한 흑인 중산층에 속했던 콜먼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콜먼의 아버지는 지금은 펜실베이니아 철도회사의 식당칸에서 웨이터로 일하고 있지만, 젊은 시절 직업 학교를 나온 전문 검안사로 지역사회에서 안경점을 운영했었다. 사업이 한창일 때는 대형 노동조합인 UEW(United Electrical Workers) 조합원들에게 독점적으로 안경을 공급하기도 했는데, 당시 조합 회원 전담 치과의사로 일하고 있던 치즈너와 친분을 쌓아둔 것이다. 졸지에 아버지 덕을 보게 된 콜먼은 뉴어크 보이즈 클럽의 유일한 흑인 회원이 된다. 세상 물정에 눈떠가는 청소년으로서 정확히 명명할 수는 없었겠지만, 콜먼은 미국 사회에서 유대인성(Jewishness)과 흑인성(blackness)이 서로 다른 문화 자산이자 상징자본으로 유통됨을 어렵듯이 감지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콜먼의 출중한 권투 재능을 단박에 알아본 치즈너 코치는 콜먼에게 귀가 솔깃한 제안을 한다.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 체육특기생으로 4년 전액 장학금을 받고 피츠버그대학에 입학할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단, 자신이 주선한 시험을 하게 되면, 유대인 행세까지는 아닐지라도 절대 흑인임을 밝히지 말고 닥 치즈너가 1순위로 추천하는 모범 선수에 걸맞게 처신해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마침내 콜먼은 미 육사(West Point)에서 열리는 연례 친선 경기에 심판으로 참가하는 치즈너 사범과 동행하게 되고 그곳에서 시범 경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된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만다. 치즈너의 지인인 피츠버그대학 권투 코치가 심판을 보는 시범 경기에서, 순진한 동네 선수 콜먼은 과도하게 긴장한 탓인지 선수 보호 차원에서 시합을 중단시키려 한 심판의 명령에 불복하고 이미 의식을 잃은 상대 선수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함으로써 심판의 눈 밖에 나고 만다. 피츠버그 대학에 권투 특기생으로 입학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스스로 날려버린 것이다. 정체성 게임 1라운드에서 흑인 루이스가 아니라 백인 슈멜링을 응원하며 머리를 써야 이길 수 있다고 뽐냈던 소년 콜먼이 정작 대학 입학을 보장하는 장학금 매치에서는 꼭 필요한 머리를 쓰지 못한 것이다. 콜먼은 치즈너 코치의 주문에 따라 백인처럼 보이겠다고 마음은 먹었겠지만, 마치 혀가 미끄러져 내면에 숨긴 동기나 의도가 입 밖에 나와버리는 착행증(parapraxis)처럼,<sup>5)</sup> 상대 백인 선수를 한 방에 제압하려는 공격성을 제어하지 못한 것이다. 『인간의 오점』을 랄프 엘리슨(Ralph Ellison)의 『보이지 않는 인간』(*Invisible Man*)의 “느슨한 속편”(211)으로 보는 팀 패리시(Tim Parrish)는, 『인간의 오점』에 출몰하는 권투 모티프와 관련하여, 미성년 콜먼이 권투에 몰입해 상대 백인 선수들을 물리치는 데서 눈먼 희열을 느끼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인간』에 나오는 배틀로열 매치(Battle Royal)의 패러디로 읽는다. 보이지 않는 화자 “나”와 또래의 흑인 선수들이 실제 눈가리개를 한 채 사각의 링에 갇혀 서로를 무참히 쓰러뜨리면서 백인을 위한 눈요깃거리로 전락하는 데 반해, 로스는 콜먼을 적어도 링 위의 승자로 둬으로써 “엘리슨이 표상하는 인종의 덧”(217)에서 구해낼 여지를 남긴다.

콜먼의 정체성 게임 3라운드는 링이라는 동네 가설무대에서 내려와 압

5) 다이앤 마틴(Dyanne K. Martin)은 콜먼의 패싱 서사에 심대한 균열을 일으킨 두 설화(舌禍)—백인이 흑인을 비하해 부르는 “스푸크”(spook)라는 호칭과 흑인이 백인을 비꼬아 일컫는 “백합/백옥같이 흰 낫짖”(fucking lily-white face)이라는 표현을 콜먼이 사용함으로써 발발한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인 두 사건—에 그의 “이중의식”(double consciousness)이 새어 나온 착행증적 요소가 강하다고 주장한다(66-68).



초와 소용돌이가 가득한 해협을 통과해야 하는 일종의 성년식으로 볼 수 있다. 승부욕이 강한 콜먼은 복싱뿐만 아니라 학업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콜먼은 어머니가 간호사로 일하는 병원의 “거물 외과의사”(85)인 펜스터먼 박사(Dr. Fensterman)가 자기 아들 버트(Bert)에게 수석 졸업생 자리를 양보하면 “아버지의 1년 벌이보다 더 큰 액수의 대가”(88)를 제안하는 거래가 들어왔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를 모른 척하며 유대계 백인 동급생들을 모두 제치고 고등학교를 “수석 졸업하는 아들”(117)이 된다. 당시 콜먼의 부모가 그런 그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콜먼은 펜실베이니아대학이나 피츠버그대학을 포기하고 아마추어 언어학자이자 셰익스피어 애독자로서 자식들에게 정확한 영어를 구사하도록 엄격하게 가르친 아버지의 뜻에 따라 흑인 명문대학 하워드(Howard)에 진학한다. 이는 아버지를 상대로 한 게임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저주는 연기였는지 모른다. 콜먼은 하워드에 입학한 뒤 첫 주말을 맞아 흑인 룸메이트와 함께 워싱턴 기념탑 구경을 가게 되는데, 시내의 핫도그 가게에서 난생처음으로 “깜둥이”(nigger)라고 불리는 충격을 체험한다(102). 고등학교를 수석 졸업했던 명문대학에 진학했던, 흑인을 일개 “깜둥이”로 무(력)화시키는 백인 지배권력의 불가항력과 처음으로 마주한 것이다. 때는 1944년이었으니 놀랄 일은 아니었다. 사실 그에게 더한 고통은 하워드대학이라는 흑인 공동체가 재학생들을 “우리”라는 “인종”(Negro)의 일원으로 살도록 강요하는 옥죄임이었다. 바로 그때 콜먼은 아버지의 부고를 받는다. 장정훈은 콜먼이 백인 행세를 하기로 결심한 이유를 셋으로 간추리는데, 가장 중요한 계기로 부친 상실을 든다. 장정훈의 해석대로 “아버지의 죽음은 실크에게 뿌리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261)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를 지양하고 “나”를 지향하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콜먼의 마음을 이해하면, 부친의 사망은 자신에게 인종의 굴레를 씌운 선천적 계기 중의 하나가 사라지는 해방의 순간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 작가인 로스도 콜먼을 효자와는 거리가 먼 개인주의의 화신으로 그리고 있다. 장

레식을 마치자마자 콜먼은 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단박에 대학을 자퇴한 뒤 입대를 결심한다. 결과론적으로, 콜먼의 하워드 진학이 아버지에게 지는 척한 것으로 밝혀진 만큼, 아들에게 더 다정하게 다가가지 못한 실크 씨는 콜먼의 마음-읽기에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윽고 콜먼은 자신을 규정하는 거대한 세계의 시선을 기만하겠다는 공식적 패싱에 도전한다. 콜먼은 만 18세가 되어야 자원할 수 있다는 군복무 연령 규정을 알았지만, 입대 원서에 자신의 생년월일을 한 달 앞당겨 10월 12일로 기재함으로써 나이를 속이고 그의 인종도 속일 수 있다고 믿는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공문서인 입대 서류에 자신을 18세 백인으로 기입하는 순간, “그의 심장은 난생처음 중범죄(his first great crime)를 저지르기 직전처럼 쿵쾅거리며 뛰기 시작했다”(109). 로스는 여기서 패싱의 순간을 죄짓는 자의 마음에 비유한다. 브레트 애슐리 캐플런(Brett Ashley Kaplan)이 언급하듯, 이 장면은 “인종 정체성에 부과된 법의 엄격함으로 인해 패싱이 범죄 행위로 간주되던 시대의 징후를 보여주는”(131) 동시에, 흑인의 백인 행세이든 유대계의 백인 행세이든 당시 인종의 선을 넘는 파격적 일탈의 심적 부담이 얼마나 컸는지 암시한다. 미국으로 이산한 유대인이 ‘백인’이 되는 길고 복잡한 이야기를 여기서 다룰 수는 없겠지만, 『유대인은 어떻게 백인이 되었나』(*How Jews Became White Folks*)의 저자 캐런 브로드킨(Karen Brodtkin)이 지적하듯이, “백인성을 추구한 유대인이 거둔 성공은 유대계 문화, 유대계 정체성, 진정한 유대계 영혼의 상실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이룬”(182) 절반의 성취였다. 백인의 세계로 건너가는 패싱도 물릴 수 없는 뿌리 상실의 죄책감을 수반하는 것이었다. 콜먼도 그렇게 순수의 영혼을 상실하는 3라운드 통과제의를 마치고 죄짓는 자 성인이 된다.

콜먼의 정체성 게임 4라운드는 다시 사각의 링을 둘러싸고, 링 위에서 일어난다. 달라진 건 선수인 콜먼이 게임의 원리를 숙지한 경험 많은 주체로 성장했다는 점이다. 1944년 10월에 입대한 콜먼은 1946년 가을에 2년

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한다. 형 “윌터가 이탈리아 전선에서 히틀러와 싸우고 있다”(106, 109)는 소식이 소설에서 두 차례 언급되는 데 반해, 콜먼의 참전 서사는, 노포크(Norfolk) 해군기지 인근 사창가에서 겪은 치욕적인 수모를 제외하면, 완전한 공백으로 처리되어 있다. 따라서 화자나 독자 모두 그가 어느 전선에 파병되었는지조차 알 길이 없다. 아무튼 스물두살이 된 콜먼은 제대 군인 원호법(GI Bill)의 수혜자로 1948년 뉴욕대에 입학하는 것으로 서사의 전면에서 다시 등장한다. 그가 뉴저지 집을 떠나 이곳에 거처를 마련한 이유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당시 뉴욕의 그리니치 빌리지는 종전 이후 유행한 보헤미안식의 자기 변신이 무한히 허용되는 곳이었고 이미 백인으로 자기 연출(self-fashioning)을 하는데 능숙해진 콜먼은 발각의 두려움에 따른 인지 부하를 최소화하며 그곳의 고급진 하위문화를 구가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바로 이러한, 뭐든지 해도 될 것 같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가 만연한 그리니치빌리지 시절에 일어난 일이 콜먼의 패싱 서사를 통틀어 가장 도발적인 자기 연출인 “왜냐면 전 깡둥이는 키우지 않으니까요”(Because I don't carry no nigger, 117)라는 선언이었다.

뉴욕대에 다니며 자기의 재능을 싹히지 않고 아르바이트 삼아 링에 오를던 콜먼은 어느 날 “대전료 100달러가 걸려있는 6라운드”(116) 권투 시합에서 흑인 선수와 마주한다. 경기 전에 백인 프로모터 설리 타박(Solly Tabak)은 “4라운드 정도까지 끌면서 관중들에게 돈값을 했다고 느끼게 해 주라”(116)고 주문했지만, 콜먼은 그의 지시를 어기고 1회전에 상대를 KO 시켜 버린다. 링을 내려오는 그에게 설리가 편잔을 주자 “왜냐면 전 깡둥이는 키우지 않으니까요”라는 말로 속삭이듯 대꾸한 것이다. 이 대꾸가 돌발적으로 튀어나왔건 치밀하게 계산된 발언이었건 간에, 아이러니와 양가성이 응축될 대로 응축된 이 대답 속에 콜먼의 마음속 인지 패턴이 여실히 드러난다. 상대 선수가 같은 흑인이라고 해서 봐주는 시합을 하지 않겠다는 의향을 던지시 표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안에 더는 흑인

의 싹을 키우거나 흑인의 정체성을 실어나르지 않겠다는 결의를 에둘러 표방한 것이다. 콜먼의 자기-연출적 발언이 전략적으로 유용한 또 다른 이유는 ‘나는 백인이야’라는 불가능한 (백인이 될 수 없으므로) 자기 긍정도 아니고 ‘나는 흑인이 아니야’라는 불가능한 (흑인이 아닐 수 없으므로) 자기 부정도 아니라는 점이다. ‘부정적인 흑인성이 나에게 투사되는 것을 거부하겠다’는 태도는 역으로 자신에게 실효적인 것을 추구하겠다고 다짐하는 강한 긍정으로 들리기도 한다. 인지 과정이 담화를 통해 표출되기도 하며 그렇게 외부로 투사되는 마음의 패턴을 해독하고자 하는 인지비평의 전망을 재삼 상기하면, 백인 설리의 문책이 콜먼의 패싱을 정당화하는 마음의 구축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고 마침내 콜먼은 대타자의 거만한 어투를 흉내 내어 비루한 인종의 잔재를 덮어버렸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흑인성을 지우고 개인성을 내세우는 자기 연출 패턴은 앞으로 도래할 정체성 게임에서도 자신의 승리를 견인할 중핵 전략으로 인용되고 수행된다.

콜먼의 정체성 게임 5라운드는 결혼과 가족 상실의 역설적 서사로 채워진다. 소설에서 콜먼은 총 4명의 여성과 만났다 헤어진다. 그중 세 번째가 아내 아이리스 기틀먼(Iris Gittelman)과의 결혼과 사별이다. 아이리스의 역설적 위상은, 콜먼을 스쳐 간 나머지 세 여인이 그가 흑인임을 알았던 반면 정작 아내인 그녀만이 죽는 날까지 남편을 유대인 학자로 믿었다는데 있다. 콜먼은 뉴욕대 시절 2년간 정신없이 교제한 미네소타 출신의 백인 여성 스티나 팔슨(Steenaa Palsson)과 가슴에 사무친 이별을 했고, “5개월간의 막간극”(132)으로 희화된 흑인 여성 엘리 매기(Ellie Magee)와 사귀며 웃음을 되찾는 치유과정을 거쳤고, 그 뒤 유대인 여성 아이리스를 알게 된다. 유대인이면서 극단적 무신론자이자 과격한 무정부주의자라는 이상한 조합의 괴팍한 부모에게서 벗어나고픈 기회를 엿보던 아이리스는 스물한 살이 되던 1953년, 당시 NYU 박사과정생이었던 스물일곱 콜먼을 만나자마자 곧바로 결혼을 결심한다. 콜먼이 아이리스를 아내로 택한 이

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세상의 모든 이례적인 것들에 대한 타고난 관용”(130)이 돋보였고, 둘째, 그녀의 “머릿결이 흑인의 촉모보다 훨씬 더 곱슬곱슬하고 무성한 덩불”(136)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콜먼은 언젠가 자신의 패싱을 눈치채더라도 관대하게 덮어줄 아내가 필요했던 것이고, 태어날 자녀들의 흑시 모를 인종적 표현형(phenotype)에 관해서도 변명할 수 있는 합리적(과학적) 구실까지 계산에 넣어두는 철두철미한 자세로 결혼에 임한 것이다.

그렇게 결혼 준비를 마친 콜먼은 어머니를 찾아간다. 3년 전 백인 약혼녀 스티나를 소개시키고자 고향집에 갔던 날, 그 어색했던 “일요일 저녁”(118)을 트라우마처럼 생생히 기억하는 콜먼은 이번에는 아이리스를 대동하지 않은 채 결혼 통고와 그 이상을 하려고 어머니를 방문한다. 어머니 실크 부인도 이번에는 “아들이 백인 여성과 결혼하겠다고 말하더라도 놀라지 않을 거라고, 심지어는 그 여성이 자기[콜먼]가 흑인인 걸 모른다고 말하더라도 놀라지 않을 거라고”(136) 마음먹고 있었다. 그렇게까지 아들의 마음을 읽고 있었고, 아들과의 만남이 정체성 게임이 되어버린 마당에 그 정도 수준의 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들은 판정패 정도를 예상하고 기다리던 어머니에게 KO패보다 더한 기권패를 요구한다. 아이리스에게 자기 부모는 둘 다 사망했다고 말했으니, 어머니는 영원히 며느릿감을 볼 수 없을 거라는 통첩이었다. “그 말은 차후에 내 손주들도 볼 수 없게 된다는 뜻이냐”(137)는 어머니의 반문에 콜먼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럼 할미가 아니라 파출부 브라운 아주머니가 되어 집안 청소를 해주고 애들을 재워주는 건 되느냐? 너희 가족이 일요일 나들이하는 광경을 먼발치에서 보는 건 되느냐?”는 어머니의 애절한 물음에 콜먼은 그럴 수 없다고 답하고는 어머니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권은 “자기와 의절해주는 것”(138)이라고 잘라 말한다.

이와 관련해, 김영미·이명호의 공저 논문은 여성/모성주의 시각에서 콜먼의 패싱 서사를 “어머니 살해의 서사”(13)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그의

패싱은 어머니를 상징적으로 살해하는 행위이다”(12)라는 공저자의 단호한 관점은 아들이 어머니와 의절하는 대목에서 “그는 그녀를 살해하고 있었다”(138)라고 기술한 로스의 수사적 표현에 근거했을 것이다. 김영미·이명호가 지적하는 대로, “이 점에서 그의 패싱 서사는 자아 창조의 서사인 동시에 종족에 대한 배반, 어머니 살해의 서사”(13)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행간에 묻힌 그림자 이야기들을 최대한 소환해 콜먼의 마음-읽기를 시도해 보면, 조금 다른 해석에 이를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패싱을 선택한 이유만으로 아들의 인지 과정에서 어머니가 삭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머니의 입장에서 보기에 의절을 선택하라는 아들의 요구는 기권패를 강요하는 것 같지만, 세상의 모든 아들은 어머니와의 게임에서 언제나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걸 (어머니는 늘 져주신다는 걸) 알고 있기에, 이기는 대신 관계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게임 자체를 무산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해석을 내놓을 수 있다. 그렇게 어머니의 발등에 단단히 못을 박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콜먼은 흑인으로서의 가족 정체성과 인종의 과거사를 통째로 물어버린다.

서두에서 소개한 서사학자 애벗은 “영구히 채워질 수 없는 공백인 생략”(permanently unfilled gaps—‘ellipses’)과 채울 수 없어 보이지만 서사의 완성을 위해 채워야만 하는 “극심한 공백”(the egregious gap)을 서로 구분한다(*Real Mysteries* 109-112). 콜먼이 마음속에 묻은 어머니의 존재는 후자에 해당한다. 더 이상 ‘흑인’으로 살지 않겠다는 아들을 붙잡지 못한 실크 부인은 서사의 수면 아래로 완전히 사라지지만, 다른 곳이 아닌 콜먼의 마음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음을 증거하려는 듯, 극도로 파편화된 회상과 상상 속에 뒤섞여 출몰한다. 첫 번째는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였다. 어머니 손에 의절의 선택권을 쥐여주고 돌아선 지 2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너의 그 백옥(백합)같은 낫짱(lily-white face)을 다시는 이 집에서 보이게 하지 말라”(145) 했던 형의 경고가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콜먼은 손자를 데리고 어머니를 찾아가 “자신을 어머니께 보여주고 싶은 충

동”(180)을 느낀다. 두 번째 충동도 그 무렵에 일어난다. 펜실베이니아대학에서 열린 3일간의 학회에 참석했다가 롱아일랜드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운전대를 잡고 있던 콜먼은 “프린스턴대학에 지원해보라는 저명한 스타 교수의 제안을 새김질하며, 자신이 인생의 정점에 오르고 있다는 생각”(180)에 젖는다. 그 순간 남쪽으로 차를 돌려 어릴 적 일 년에 한 번씩 방문했던 가족 소풍 행선지, 어머니의 고향마을을 찾고 싶다는 강한 욕망을 느낀다. 콜먼은 두 욕망 모두 억누르고 만다. 하지만 욕망은 억누를 수 있을지언정 절대 소멸하지 않는다. 욕망은 (기억과 함께) 마음속에 남아 인지에 작용한다. 세월이 흘러 셋째와 넷째(쌍둥이)까지 흑인의 유전적 특질이 발현되지 않고 백인의 외모로 태어났을 때, 콜먼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근심거리가 마침내 근절되는 순간”(177)이라고 느낀다. 그리곤 큰아들 제프(Jeff)를 낳았을 때와 “거의 같은 부질없는 감상”(180)에 빠진다. 콜먼의 패싱 서사에서 가장 깊은 공백으로 처리되어 있어 잘 읽히지 않지만, 콜먼이 느끼는 그러한 기분의 정체는 뇌의 신경망 가장 깊숙한 곳에서 희미하게 깜박이는 어머니를 향한 윤리적 무의식이다. 영국 낭만시 연구자로서 인지비평에 투신한 리처드슨이 설명해주듯, 뇌는 시각적 지각 없이도 상상이라는 인지 역량을 발휘할 수 있으며 (“Imagination” 225), 쉬지도 잠들지도 않는 뇌 기능/체계의 “초깃값 양식”(default mode)에 근거해 또는 그로 인해 (“Imagination” 230-31), 뇌의 활성화 패턴은 회상과 상상, 기억과 몽상을 동시에, 즉 일어난 과거 일화와 일어나지 않은 미래 사건을 (별개가 아니라) 혼합 및 연동된 것으로 인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Imagination” 235-36). 이러한 인지과학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콜먼의 뇌 속에 저장된 어머니의 기억은 결코 소멸될 수 없으며 현재와 미래의 시공간에서 관련 일화가 발생할 때마다 병발적으로 회상/상상될 수 있다.<sup>6)</sup> 이 소설의 수많은 행간에는 독자를 끌어당기

6) 형 월터가 남긴 “백옥/백합 같은 낮짹”(145)이라는 트라우마성 발언이 콜먼의 뇌 속에 40여 년간 저장되어 있다가 그가 자신의 변호사 넬슨 프라이머스(Nelson

는 묘한 마력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마력은 표면에 올라온 한두 단락의 짧은 서술보다는 수면 아래 흐르는 44년 세월의 비서술에 출몰하는 어머니의 존재를 인지할 수 있게 해준다. 그렇게 행간을 읽으면, 철없던 이십 대에 던진 말 한마디를 일흔하나 눈을 감을 때까지 주워 담지 못하고 견뎌야만 했던 아들이 마음에 쌓아온 어머니의 무게를 실제처럼 묵직하게 감지할 수 있게 된다.

### III. 콜먼의 ‘백인’ 마음 읽기: 패싱 이후의 서사 패턴

정체성 게임 6라운드는 논문의 도입부에서 언급한 콜먼의 생애 40년의 서사 공백을 뛰어넘고 일어나는, 어찌 보면 그 공백을 깨트리는 사건이기도 하다. 6라운드의 경기장 중앙에 던져지는 이슈는 스푸크(spooks) 사건이다. 스푸크 사건이 터진 배경은 이렇다. 16년간 실세 학장으로 맹활약하며 “침체하고 낙후된 시골 유명 같던(Sleepy Hollowish) 대학”(5)을 “20세기에 걸맞은 활기찬 반석”(6)으로 혁신한 콜먼은 학자 본연의 자세로 경력을 마무리할 목적으로 강의실로 돌아간다. 희랍 교전을 가르치는 예순아홉의 노교수 콜먼은 평소처럼 출석을 부르던 중, 6주 차가 되도록 수업에 한번도 들어오지 않은 두 학생을 거명하며 “애들 스푸크 아냐?”(6)라고 한마디 덧붙인다. 정확한 영어를 구사하라고 엄하게 가르친 자칭 언어학자 아버지의 영향으로, 실크 씨네 아이들은 어릴 적부터 “저 멍멍이 봐”(See the bow-wow)나 심지어 “저 강아지 봐”(See the doggie)라고 말하는 대신에 “저 도베르만 봐,” “저 비글 봐,” “저 테리어 봐”라는 식으로 “사물을 칭하고 분류”하는 데 철저했다(93). 또한 문학을 업으로 평생을 살아온 학자로서, 콜먼은 강의실에서 “보이지 않는 학생들(invisible students)에 대해,

---

Primus)를 해고할 때 던지는 문구로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을 보더라도, 기억은 단지 인출 실패될 뿐이지 결코 소멸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보이지 않는(invisible), 망령(a ghost), 유령(a specter)이라는 뜻을 첫 번째(primary) 정의로 지닌 어휘인 스푸크를 썼다”(85)고 누차 항변했다. 그런데 해당 수업에 결석한 두 학생이 흑인이었음이 밝혀지고 그중 한 명인 트레이시 커밍즈(Tracy Cummings)라는 여학생이 “실크 교수님이 학생들 앞에서 악의적인 인종 비속어로 자신을 묘사했다”(193)라고 고소하면서 불거진 일이 이른바 스푸크 사건이다. 본말과 정황이 어땀었던 간에, 공적 공간에서의 인종 문제가 치명적으로 민감한 미국 사회에서 권위 있는 백인 교수로부터 인종차별적 모욕을 당했다는 가난한 흑인 여학생의 이야기는 일파만파 확산하였고, 흑인학생회와 지역의 흑인 인권단체, 학내외 매스컴까지 가세하면서 비난의 압박이 커지게 되자, 대학 당국은 진상을 조사하는 상벌위원회를 꾸려 아테나 대학을 현재의 위상에 올려놓은 장본인을 인종차별주의자라는 수치의 심판대에 세운다.

스푸크라는 특정한 단어를 소설의 플롯에 관여하는 주요 제재로 설정한 이상, 작가는 그에 따른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로스는 『인간의 오점』을 구상하게 된 크고 작은 집필 동기 가운데 스푸크 소동과 관련된 일화를 밝힌 바 있다. 캐플런에 의하면, “로스는 1960년대에 프린스턴대학에 상주 작가로 있을 무렵 멜빈 튜민(Melvin Tumin)이라는 사회학과 교수와 친분을 쌓았는데, 그로부터 수업에 들어오지 않던 두 학생을 가리켜 실제로 ‘스푸크’라는 말을 사용하는 바람에 인종차별주의자라고 고소당할 적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로스는 그 이야기에 착안하여 자신의 친구 튜민을 콜먼의 모델로 삼았다고 주장했다”(113).<sup>7)</sup> 스푸크 사건의 본질

---

7) 『인간의 오점』이 출판된 직후 서평가들 사이에서 콜먼의 실제 모델이 아나톨 브로야드(Anatole Broyard)일 거라는 추측이 쏟아져나왔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헨리 루이스 게이츠 2세(Henry Louis Gates, Jr.)는 1997년에 출판한 『흑인 남성을 바라보는 13가지 방식』(*Thirteen Ways of Looking at a Black Man*)의 한 장을 “아나톨 브로야드의 패싱”(The Passing of Anatole Broyard)이라는 제목으로 할당한 바 있다. 게이츠가 요약하는 브로야드의 전기기를 읽어가다 보면, 실존 인물 아나톨과 소설 속의 콜먼 사이에 가족사의 유사점, 인종과 나이를 속이고 해군에 입대한 유사점, 맨해튼에서 매사추세츠 소도시로 이사 간 유사점 등 굵직

과 관련해, 로스가 밝힌 이 여담성 진술보다 더 논의할 가치와 필요가 있는 부분은 바로 텍스트를 텍스트로 주고받는 상호텍스트성에 근거하는 관련성이다. 패리시가 지적하듯이, 로스는 여러 에세이와 인터뷰에서 랄프 엘리슨과 그의 대표작 『보이지 않는 인간』에 대해 오마주에 가까운 의견을 피력하였다. 미국의 소수민족 작가임에도 정체성 정치에 함몰되지 않고 개인의 예술적 취향을 집단 논리에 선불리 양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두 작가는 서로 공명하고 공유하는 지점이 많았다. 이에 패리시는 “『인간의 오점』이 『보이지 않는 인간』을 다시 쓰면서 훌륭하게 변신한 방식”에 주목하면서, “스푸크라는 용어는 『보이지 않는 인간』의 유명한 도입부에서 파생 및 전치되어 『인간의 오점』의 중심적 서사 장치로 자리를 잡는다”(215)라고 해설한다.

그런데 미국 흑인문학 전통에서 문학의 역할에 관한 엘리슨의 미학적 입장이 양가적으로 평가받는 것과 유사한 맥락에서,<sup>8)</sup> 정치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개인을 집어넣는 로스의 예술관도 유대계 비평가들 사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예컨대, 래리 슈왈츠(Larry Schwartz)가 지적하듯이, “로스는 『인간의 오점』이 인종 정치학에 관한 소설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자신의 글쓰기는, 적어도 의식적으로는, 정치적 논평으로 의도된 바 없다고 분명히 선을 긋는다”(66). 하지만 “나는 스푸크가 아니다”라고 도도히 읊조리며 시작하는 엘리슨의 소설을 강하게 환기시키는 스푸크 이슈를 놓고서 정치적 해석과 인종정치학적 비판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은, 작가의 의사와 무관하게, 독자의 독서 역량을 제한하고 침해

---

한 에피소드뿐만 아니라, 사진과 음악 등 소품에 이르는 단서들까지 서로 겹침을 확인할 수 있다.

8) 흑인 모더니스트 엘리슨은 제임스 볼드윈(James Baldwin)의 등장을 환영하며 이제 흑인 작가도 “리처드 라이트에서 졸업하자”(to out-Wrighting Richard)고 촉구했던 반면, 유대계 비평가 어빙 하우(Irving Howe)는 엘리슨에게 흑인 작가의 사회(주의)적/정치적 소명을 즐기치게 상기시키며 그를 라이트 옆에 나란히 묶어두고 싶어 했다. 엘리슨의 『그림자와 행동』(*Shadow and Act*)과 하우의 『에세이 선집 1950-1990』(*Selected Writing 1950-1990*)을 참고할 것.

하는 월권행위일 수 있다. 슈왈츠를 다시 인용하면, 로스는 자신의 대변인 격인 저커먼의 입을 통해 “스푸크 사건은 더 이상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에 관한 것으로만 한정되지 않는다”라고 항변하지만, “콜먼은 자신의 비밀을 폭로하지 않고서는 인종차별주의라는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고 본 저커먼의 깨달음”(73) 자체가, 미국 사회에서 일단 이슈화가 되면 그것이 인종의 문제이건 성의 문제이건 간에, 개인의 사생활과 공적 거대담론이 총알같이 빠르게 연동하는 치명적인 현실을 방증한다. 대부분의 비평가들이 언급하듯이, 『인간의 오점』의 현재 시점이 1998년으로 설정된 이유는 로스가 그해 여름 TV 앞에 앉은 미국인의 눈과 마음을 심히 불편하게 만들었던 클린턴-르윈스키 성 추문 사건을 소설의 배경 모티프로 삼았기 때문이다. 장정훈이 조망하듯이, “로스는 이 작품을 통해 나이가 절반밖에 안 되는 르윈스키와의 관계 때문에 클린턴을 탄핵하고자 하는 정치인들의 주장과 34세인 파니아와 71세의 실크와의 관계에 대해 도덕적 질타를 가하는 아테나 대학 관계자들의 주장이 유사함을 제시한다”(259). 이처럼 나이 어린 여성을 탐한 훈남 대통령을 탄핵의 벼랑으로 몰아갔던 미국의 집단지성을 두고, 화자 저커먼은 “백여 년 전 우리 집 대문에서 불과 몇 마일 떨어진 곳에 살았던 호손이 ‘박해 풍토’(the persecuting spirit)라고 명명했던”(2) 신생 국가의 결벽증을 판박이로 목격한다. 저커먼이 “위장 독실의 황홀경”(the ecstasy of sanctimony, 2)이라는 말로 정곡을 찌른 것은 비단 “미국인의 오랜 집단 열망”(2)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자기보다 더 우월한 타인이 조금이라도 덜 성스러워 보일 때 단박에 취하는 이기적 태도인 것이다.

이렇듯 무심결에 나온 말 한마디로 인해 치욕의 심판대에 서게 된 콜먼은 처음에 당당한 자세로 맞선다. 패싱 이후에 자신의 것이 된 백인 남성의 권위를 양도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하루아침에 남편을 비도덕적인 인종차별주의자로 만들어 버린 대학 당국의 처사와 옛 동료들의 등 돌림에 충격을 받고 쓰러진 아이리스가 병원에 실려 간 지 하루 만에 사망

하자, 콜먼의 흥분과 노기는 주체할 수가 없을 지경에 이른다. 링 위에 올라간 젊은 날의 복서처럼 허공에 펀치를 날리며 항변하기도 하고, 자신의 무고함을 일일이 소명하면서 적이 된 친구의 비밀을 낱낱이 폭로하는 “스푸크”라는 제목의 두꺼운 자서전을 준비하기도 한다. 하지만 서서히 자신을 돌아보고 주변을 둘러볼 수 있게 되면서 콜먼은 이 게임에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자신이 백인의 가면을 쓰고 안온한 상아탑 안에서 권위를 쌓아왔던 40년 세월과 정확히 겹치는 시기에 바깥 세계에서는 자유주의 가치와 진보적인 비전이 빚어낸 민권운동, 블랙파워, 다문화주의, PC (political correctness) 운동과 같은 일련의 정치적 성과들이 백인 남성의 절대 권위를 조금씩 침식하고 있었고, ‘스푸크’라는 작은 단어 하나에 거대한 역사적 사안들이 줄줄이 엮여 있음을 감지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고드프리는 “짐 크로(Jim Crow)에 의해 제정된 흑백 이분법에서 탈출하려 한 그의 고귀한 노력이, 진보적 다문화주의와 정체성 정치로 인해 오히려 그 이분법이 영속화됨으로써 결국 수포로 돌아간다”(235)고 해석한다. 필자는 흑인임을 숨긴 콜먼의 패싱을 “고귀하다”고 보거나 다문화주의와 정체성 정치가 과열된 양상을 부각시켜 미국의 인종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효과를 초래했음을 두둔하는 듯한 고드프리의 시각에 동의할 수 없으나, 어쨌든 콜먼이 역사 변천의 아이러니한 희생자가 된 것은 분명하다. 이에 대해 저커먼도 친구 콜먼이 “아직 역사가 되지도 않은 역사의 뒷에 걸린 셈이 되고 말았다”(335)고 애석해한다. 실로 스푸크라는 비속어 한마디가 40년을 날아 되돌아온 부메랑이 되어 콜먼의 뒤통수를 가격한 것이다. 이 게임에서 콜먼이 KO패를 면할 수 있는 길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다. 적어도 비길 수 있는 묘수가 하나 있었다. 아테나 대학에서 이룬 자신의 성공 서사를 공백으로 환원함으로써, 즉 자신이 40년간 백인 행세를 한 흑인이라고 ‘커밍아웃’함으로써, 흑인 학생을 불쾌하게 했을 지언정 같은 인종끼리 차별한 것은 아니었다는 논리에 기대는 전략이 있었다. 하지만 콜먼의 마음은 그러기에 이미 백인의 마음으로 패턴화되어

있었다.

콜먼의 정체성 게임 7라운드, 마지막 회는 콜먼 없이 진행되는 사후 게임이다. 하루 전날 “낮에도 으스스한 기운이 감도는”(285) 숲속의 외딴 묘지에서 치러진 포니아의 장례식에 저커먼 포함 고작 14명의 조문객이 찾아온 반면, 아테나 대학 부속 예배당에서 엄숙하게 거행된 콜먼의 장례식에는 3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참석한다. 그 모든 절차적 성대함은 아버지의 장례식에 모인 콜먼의 자식들이 실추되었던 아버지의 명예를 복원하겠다는 결심에 따라 기도된 것이었다. 스푸크 사건만 없었더라면 아버지는 존경받는 원로 교수로 은퇴했을 것이고, 어머니와 함께 평화롭게 노후를 보내었을 것이다. 그랬으면 좋았을 콜먼-아이리스 부부는 다행히 네 자녀를 두었다. 장남 제프리(Jeffrey)와 둘째 마이클(Michael)은 체격 건장한 이공계 교수이고 둘 다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다. 쌍둥이로 태어난 셋째 딸 리사(Lisa)는 삼십 대 후반의 언어치료사로 학교에 근무하고 있고 아버지와 가장 친밀하게 지내며 정기적으로 소통한 자식이다. 쌍둥이 막내 마크(Mark)는 “아들 중 유일하게 스컬캡을 쓰고”(307) 장례식에 참석한 독실한 유대교 신자로, 어려서부터 가족사에 관해 끈질기게 질문했지만 한 번도 속 시원히 대답해주지 않는 아버지와 가장 꺾여지게 지낸 자식이다. 넷은 자라면서 아테나 대학의 많은 교직원들이 아버지의 덕을 보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들을 회유하기도 하고 겁박하기도 하면서, 말년의 추문과 쉬쉬했던 사고사로 하마터면 ‘보이지 않는 인간’으로 초라하게 묻힐 뻔했던 아버지를 대학이 공식 후원하는 장례식의 주인공으로 복권시킨 것이다. 아버지의 권위를 되돌려 놓겠다는 유대인 자식들의 치밀한 노력은 장례라는 일시적 허례허식에 그친 게 아니라 대학 캠퍼스에 아버지의 이름을 딴 건물을 남기겠다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업으로 이어진다. 그들은 아버지가 십여 년간 학장으로 재직하면서 드나들었던 학교본부 건물이 “6각형의 시계탑이 돋보이는 캠퍼스의 랜드마크”(294)로서 “담쟁이덩굴이 휘감은 고색창연한 식민지 시대의 아름다운 벽돌 건

물”이었음에도, 그 위용에 걸맞지 않게 단순히 “북관”(North Hall)으로 불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 행정 건물이 콜먼실크관(Coleman Silk Hall)으로 재헌정될 수 있도록”(307) 추진하겠다고 결의한다.

고드프리는 이처럼 “아버지의 이름을 딴 대학 건물을 확보하겠다는 자식들의 의지” 덕분에 콜먼의 “사회적 가시성”이 회복되는 계기가 마련된다고 해석한다(251). 아버지의 실추된 명예를 되찾겠다는 의지는 부모를 위한 자식들의 당연한 도리임이 틀림없겠지만 이는 동시에 그들과 그들의 후손의 이름에도 오점이 남지 않게 하겠다는 미래 지향적 이기심이 동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콜먼의 자식들은 아버지의 석연찮은 죽음의 배후를 밝히려는 저커먼의 제안에 반대한다. 의문의 교통사고로 아버지와 함께 사망한 젊은 여성의 이름이 지역 신문과 법정 게시글에 오르내리게 되면, “콜먼실크관은 영원한 꿈으로 남게 될지 모른다”(308)는 현실적 우려가 작용한 것이었다. 아버지의 불륜 사실을 대하는 자식의 불편한 마음을 읽으면 현안을 애써 외면하는 그들의 태도를 마냥 비난할 수 없겠지만, 콜먼의 두 아들 제프와 마이클이 아버지의 연인 포니아를 부정하는 방식은 저커먼의 귀를 의심하게 한다. 아버지와 함께 죽은 여성이 대체 누구인지 일말의 관심과 연민도 없이 그녀를 “보잘것없는 싸구려 계집”(this cheap little cunt)이라 칭하는 제프와 마이클의 목소리가 “대학에서 과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아니라 20세기 폭스사의 경영진처럼 들렸기”(308) 때문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고드프리는 “콜먼의 사회적 가시성이 그의 흑인성의 삭제와 공공연히 지표화되는 유대인성의 삭제에 기대고 있을 뿐 아니라, 포니아의 지속적 비가시화에 기반한다”(251)라고 지적한다.

콜먼의 정체성 게임 7라운드를 주도한 자식들의 뜻에 따라 아테나 대학의 북관에 콜먼실크관이라는 새 명판이 붙게 되면, 그는 대학의 역사에 길이 남는 인물로 정초되는 것이고 “아테나 대학에서 학장까지 올라간 최초이자 유일한 유대인”(5)으로 회자될 것이다. 그렇게 그의 복권을 영구화하

는 금석문이 각인되고 나면, 동판이든 새김돌이든 그 어디에도 그가 흑인이었다는 진실은 낙서될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백인 콜먼의 승리로 그의 패싱 서사가 종료되려는 순간, 작지만 아이러니한 반전이 일어난다. 지난 40여 년간 콜먼의 생일에 맞춰 대학으로 전화를 걸어 1년에 한 번씩 오빠와 의례적인 대화를 이어온 여동생 어네스틴이 장례식에 참석해 저커먼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다. 에이미 로빈슨(Amy Robinson)에 의하면, 전통적인 패싱 서사는 “행세자(the passer), 속는 자(the dupe), 내집단 투시자(the in-group clairvoyant)로 이루어지는 삼각 구도”(qtd. in Dawkins 17)에 기반한다. 이 구도를 적용하면, 콜먼이 “행세자,” 콜먼의 패싱 전후를 모두 알고 있는 어네스틴이 “내집단 투시자”가 되고 유대인 친구의 죽음을 애도하는 저커먼이 “속는 자”가 된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소설의 서사가 닫히기 전에, “행세자”의 꼭짓점을 점했던 콜먼이 사라지고, 데우스 엑스 마키나처럼 홀연히 나타난 어네스틴 덕분에 저커먼이 “속는 자” 꼭짓점에서 “투시자” 꼭짓점으로 합치됨으로써, 패싱 서사의 기본 구도인 삼각형이 폭삭 와해되는 반전이 일어난다. 다만 ‘작은’ 반전인 이유는 저커먼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인물이 여전히 “속는 자”로 남아 콜먼의 비밀이 유지되기 때문이고, 반전이 아이러니한 이유는 콜먼을 애도하고 떠나보내려 했던 저커먼이 그를 다시 소환해 작중 소설인 “이 책”(337)을 쓰겠다고 결심하게 만든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어네스틴은, 소설의 주 서사에서 생략된 그림자 이야기의 주인공으로서, 고인의 과거에 관한 저커먼의 궁금증을 상당 부분 해소해줌으로써 콜먼의 서사 공백을 사후에 채워주는 특이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sup>9)</sup> 준샤인의 마음-읽기 이론에 따르

9) 다소 보수적인 중산층 흑인의 목소리를 지닌 어네스틴은 저커먼이 몰랐던 콜먼의 과거사를 알려줄 뿐 아니라, 그들 남매가 성장했던 1940-50년대부터 성인이 된 이후인 1980-90년대에 이르기까지 미국 흑인의 변천사를 공인된 역사 교사처럼 개괄해주는 역할을 한다. 리처드 엘리엇(Richard Elliott)에 따르면, 흑인여성 어네스틴이 백인남성 저커먼이 모르거나 무관심했던 흑인의 현대사를 들려주는 대목은 백인 작가가 흑인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있겠느냐는 우려와 비판

면, 어네스틴과 같은 인물은 주인공의 신상에 관해 “유일한 정보원”(just one source of information)으로 존재하는 화자의 오류와 한계를 수정보완하는 “다중 정보원”의 지위를 부여받는다. 인물의 정체에 다각적으로 접근하는 “분산된 마음-읽기”를 가능하게 해주는 장치가 서사의 후미에 배치된 것이다.<sup>10)</sup>

#### IV. 포니아의 마음 읽기: 쓰고 지우는 생존 게임의 서사 패턴

포니아의 서사에도 콜먼만큼 많은 공백과 넓은 행간이 있다. 콜먼의 서사 공백을 채우고 행간을 읽는 데 있어, 독자들은 그와 2년 이상 친교를 이어온 저커먼을 가장 신뢰할 만한 정보원으로 여길 수 있겠지만, 포니아의 마음을 읽는데 저커먼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저커먼은 포니아를 단 두 차례—처음에 콜먼을 따라 그녀가 일하는 “유기농 가축”(Organic Livestock) 낙농장에 가서(45), 두 번째는 탱글우드(Tanglewood) 야외음악당에서(211)—우연히 만났을 뿐 직접 대화를 나눈 적이 없기 때문이다. 저커먼이 알고 있는 포니아에 관한 정보는 콜먼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것이 다일 텐데, 독자의 관점에서 그나마 다행인 점은 콜먼이 패싱을 통해 정체성 게임을 하며 긴장된 삶을 산지라 상대의 마음을 읽는 데 명민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콜먼이 저커먼에게 알려준 정보에 근거할 때, 포니아의 생애 서사는 3회전 생존 게임으로 설정할 수 있다. 문학을 전공

---

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로스가 신중하게 고안해 포석한 서사 장치라는 것이다(94-95).

10) “다중 정보원”(multiple sources of information)과 “분산된 마음-읽기”(distributed mind reading)는 인물의 마음을 보다 정확하고,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준샤인이 인지적 소설 읽기에 적용하는 개념이다(*Why We* 103-109).



한 노교수의 눈에 포니아의 생존 게임 1회전은 성장소설(*Bildungsroman*)에서 보이는 가출 서사와 귀향 서사로 구성된 것 같지만, 그녀가 겪은 통과제의의 내용은 성적 유린과 착취와 같은 반성장적 요소로 점철되어 있다. 포니아의 게임 2회전은 고향으로 돌아와 스무 살에 결혼해서 1995년 경 이혼하기까지 약 12년간의 결혼생활이 중심 서사를 이루는데, 많은 부분 공백으로 처리되어 있어 알기 쉽지 않지만, 이 또한 채워짐이 아니라 빼앗김의 기록인 점은 분명하다. 3회전은 불의의 사고로 자식을 잃은 포니아가 다시 처연한 자기 치유의 과정을 겪고 치유의 길 위에서 콜먼을 만나 그와 함께 34년 짧은 생을 마감한다는 서사가 주를 이룬다.

포니아의 생존 게임 1회전을 듣는 콜먼의 마음에는 아마도 부성의 연민 같은 것이 작동했을 것이다. 포니아는 뉴잉글랜드의 “부유한 특권층 아이”(28)로 태어났으나, 어머니의 불륜이 발각되어 어머니와 함께 집에서 쫓겨난다. 불과 다섯 살 때 일이었다. 친부가 친딸까지 포기한 이유는 행간에 묻혀 있어 알 길이 없다. 포니아의 생모는 외모가 출중했고 곧 돈 많은 남자와 재혼한다. 문제는 계부가 “천사같이 예쁜 금발 아이”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해서 아이의 “몸에 손을 대는”(fondle) 추행을 일삼았다는 데 있었다(28). 포니아는 얼마나 싫었을까. 그런 세월이 무심히 흘렀고 의붓딸이 열네 살이 되던 해, 계부는 급기야 성폭행을 시도한다. 생모는 계부의 과거 추행 전체를 문제 삼는 딸을 정신과 의사에게 데리고 간다. 총 10회의 상담을 마칠 때쯤 의사는 고객인 계부의 편을 들었고 친모는 딸의 심리상담 의사와 또 불륜을 저지른다. 포니아는 더는 참을 수 없어 집을 나가기로 결심한다. 딸의 가출을 안 생모는 계부의 편에 서서 “제 남편은 엄격한 사람이에요, 제 딸은 규칙을 지키며 살 애가 못되나 봐요”(245)라고 비정하게 허위진술을 한다. “딸을 지키려 하지 않은 몹쓸(spoiled) 엄마”(50)로 인한 모녀의 악연은 포니아가 집으로부터 영구 도주해 떠돌이 삶을 살게 되는데 한몫 단단히 한다.

친부의 냉정한 의결, 계부의 음흉한 성추행, 생모의 어이없는 배신으로

인해 열네 살 어린 나이에 가출을 감행한 포니아는 멀리 남부로 내려가 닥치는 대로 노동하는 삶을 살며 수직적 계급 강등을 체험한다. 홀로 객지에서 5~6년에 걸친 도피성 독립을 추구하는 동안 포니아는 성적으로 꽤 많은 불행을 겪은 것으로 행간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그녀 나이 열일곱, 어느 식당에서 일할 때 사귀었던 남자친구는 학대와 (그녀 물건의) 절도를 일삼았다고 한다. 참다못한 포니아는 다른 남자를 만났고 그 사실을 안 남자친구는 자신을 “양다리를 걸친 년”(two-timing slut)이라 부르며 더한 폭력을 행사했다고 한다(40). 플로리다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는 동안에는 은퇴한 사업가들로부터, 일주일에 두세 번 여자친구가 되어주면 “좋은 아파트와 좋은 차에 옷이든 보석이든 사고 싶은 걸 다 살 수 있도록 계좌를 열어주겠다”는 제안을 1년에 서너 번꼴로 받았다고 한다(160). 하룻밤 1,000불은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하고, 마음에 드는 단골이었던 쿠바 남자가 던진 자기 정부가 되어달라는 요청을 잠시 진지하게 고민한 적도 있었다(161). 나이 다섯 살부터 열아홉이 지날 때까지 이런 식으로 진행된 생존 게임에서 포니아는 남녀의 성에 관련된 온갖 추한 일들이 하늘 아래 가득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소설이 출판되었던 2000년에 로스는 예순일곱이었고, 소설 속 현재인 1998년에 저커먼은 예순다섯 살로 등장한다. 대체 무슨 마음으로 노인 작가와 노인 화자는 십 대 포니아로 하여금 성의 비루한 측면만을 쉽 없이 대면하게 했을까? 스쳐 지나가는 많은 교제를 통해 그녀가 성(폭행)의 공포로부터 무디어질 수 있다고 믿었을까? 남자들이 자신의 아름다운 자태에 쉽게 빠져든다는 걸 체험한 것이 포니아에게 씹쓸한 자기 위안으로 작용했다면, 그런 자위를 반복하는 패턴은 치유가 아니라 더 다치지 않도록 마음을 담금질하는 것일 뿐이다.

스무 살 성인이 되어 뉴잉글랜드로 돌아온 포니아는 버크셔(Berkshires) 지역에서 영세한 낙농장을 운영하는 띠동갑 연상의 월남전 참전 군인 레스 팔리와 결혼한다. 둘의 결혼이 어떻게 성사되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앞서 언급했듯이, 소설에서 포니아의 결혼생활 12년은 많은 부분 서사 공백

으로 처리되어 있어 포니아의 속마음이 어떠한지 말 그대로 미스터리이다. 다만 독자는 몇몇 파편화된 정보로 공백을 묶어봄으로써 그녀의 마음을 최대한 읽어내려고 애쓸 수밖에 없다. 로스는 “베트남전 베테랑들이 맞는 전후의 삶을 이혼, 알코올중독, 마약으로 이어지는 최악 중의 최악”(73)으로 규정한다. 팔리도 예외가 아니었다. 포니아는 전쟁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남편의 손찌검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한번은 실신 상태(coma)에 이르고”(28), “두 번은 병원에 실려 가기까지 했다”(40). 잦았던 부부싸움이 그나마 외양간에서 일하던 중에 일어났을 경우, 주먹질 대신 “뜨듯한 소동 대전”(the great warm shit fight)으로 완화되었고 부부는 헛간에서 호스로 대충 오물을 씻어낸 뒤 곧바로 섹스를 했다. 하지만 부부싸움의 에너지가 뜨거운 부부관계로 연장된 건 아닌 듯, 팔리는 “워낙에 둔해 빠져 제대로 해주는 적이 없었다”(Too dumb even to fuck right)고 포니아가 전한다(29). 그렇게라도 해서 둘 사이에 두 아이가 태어났지만, 웬지 팔리의 마음속에서는 피해망상과 울분의 강도가 점점 거세져서 수시로 보훈병원과 교정 시설을 드나들게 된다.

결국 결혼 12년 만에 이혼한 포니아는 혼자서 두 아이를 양육하고, 앙심을 품은 팔리는 전처를 스토킹하는 새로운 패턴의 전투를 개시한다. 이혼한 지 1년쯤 지나 포니아는 목수 남자친구를 사귀고 되고 어느 날 집 앞 도로변에 주차한 “그의 픽업트럭 안에서 카섹스(오럴섹스)를 하는”(67) 동안, 집안에서 난방기 과열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한다. 전처와 전처의 애인을 몰래 훑쳐보고 있던 스토커 팔리는 베테랑의 축으로 연기 냄새를 직감하고 집안으로 뛰어 올라가 구출을 시도했지만 8세 딸인 롤리(Rawley)와 5세 아들인 레스 주니어(Les Junior)가 이미 질식사한 뒤였다(71). 모든 것을 잃었다는 충격과 죄책감에 포니아는 두 차례 자살을 시도했지만 두 번 다 실패한다. 망연자실한 포니아는 멍한 상태에서 “이십 년 만에 처음으로 [생모에게] 전화를 건다.” 자식을 잃은 자식이 자식을 버린 생모에게 손을 내민 건 단순한 위로를 넘어 구원이 필요하다는 절체절명의 신호였

다. “어머니, 포니아예요”(It’s Faunia, Mother)라고 목소리를 짜내었겠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미안해요, 그런 이름 가진 사람 전 모릅니다”(245)였다. 어머니의 존재를 마음에 써보았다가 또 지우며 위아래 천륜이 모두 절단되었음을 확인한 포니아는 속절없이 죽음만을 궁리한다.

그 무렵 포니아는 두 눈이 감길 정도로 두들겨 맞은 권투선수가 비틀거리며 링에서 내려와 주섬주섬 라커룸을 챙기는 기분으로 살았을 것이다. 하루는 알고 지내던 술친구 시씨(Sissi)로부터 자기 일 하나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는다. 그 일이 시간당 100불에 5시간짜리 돈이 되는 부업이라서가 아니라, ‘죽은 자의 집 청소’라는 특이한 일임을 알고 떠나서기로 한다. 부부싸움 끝에 장총을 입에 물고 자신의 뇌를 날려버린 남편의 잔재가 바닥과 벽 여기저기에 붙어있는 방에서 포니아는 “썩내 비슷한(Metallic) 죽음의 냄새를 맡으며”(338) “왜 사람들이 자살하는지”(339) 그 속마음을 알고 싶어 한다. 그런데 이 짧은 ‘죽음’ 에피소드는 매우 흥미로운 방식으로 전달된다. 괄호인용한 쪽수 339가 암시하듯, 소설에서 이 시점은 포니아와 콜먼의 장례식이 끝난 뒤이다. 해 질 무렵 콜먼의 무덤 앞에 선 화자가 “내[저커먼]는 그녀[포니아]가 그[콜먼]에게 말하는 걸 들었다”(338)라고 운을 떼며, 죽은 자의 집 청소 이야기를 독자에게 들려주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저커먼은 호모디에게시스적 화자를 초월해 헤테로디에게시스적 화자로 이미 변신해 있다.<sup>11)</sup> 자기가 듣지 않은 산자들의 대화를 상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들을 수 없는 사자들의 대화까지 재구성할 수 있는 미술적 리얼리즘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포니아는 남자가 자살 당일 약장 안에 있던 “정신과 처방약”(psychiatric drugs)을

11) 호모디에게시스적(homodiegetic) 화자란 작품 내에 한 사람의 인물인 ‘나’로 등장하는 화자를 지칭하는 서사학 용어이다. 반대 개념으로 이야기 안에 등장하지 않고 전지적 시점에 가까운 역량을 가진 헤테로디에게시스적(heterodiegetic) 화자가 있다. 이와 관련해 야스민 바디르(Yasmine Badir)와 로저 에드홀름(Roger Edholm)의 논문을 참고할 것.

복용하지 않은 걸 어떻게 알았냐는 콜먼의 질문에 “몰라요, 그냥 그렇게 짐작하는 거죠”(339)라고 대답한다. 그리고는 “이건 내가 쓰는 이야기에요. 나의 이야기죠”(339)라고 덧붙인다. 리처드 엘리엇은 이 대목을 타인의 이야기를 “전유하는 데 가담하기보다는 매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98)는 화자의 중재자적 입장을 잘 보여주는 장면으로 포착한다. 작가 로스가 화자 저커먼이 그랬을 거라고 짐작하고 화자 저커먼이 등장인물 포니아가 그랬을 거라고 짐작하듯, 포니아도 시신 없는 작중 남자가 그랬을 거라고 짐작하는 가운데, 희미한 마음속 진실이 점점 더 많이 분산되어, 점점 더 또렷하게 읽히는 것이다. 누구도 다른 누구의 진실을 전유할 수 없을지라도, 이야기로 패턴화되는 마음이 전해지면서 진실의 일단이 짐작될 수 있다. 이것이 타인의 마음-읽기로서의 소설 읽기에 필연적으로 개재되는 복합적—여기서는 3중—디에게시스(diegesis) 인지 작동의 원리이다. 마음-읽기로서의 소설 읽기에 치중할 때, 이렇게 건너 건너 전달되는 그림자 이야기들이 점점 더 정합적으로 짜 맞추어져 실체화된다는 말이다.

포니아의 생존 게임 3라운드는 소설에서 둘의 나이 차를 즐기치게 반복하는 34세의 포니아와 71세의 콜먼 간의 짧은 사랑으로 구성된다. 포니아는 죽은 아이들의 유해가 담긴 철제 용기를 2년째 침대 밑에 두고 지낸다. 우체국 바닥을 닦는 시간제 청소부로 일했고, 단출하게 11마리 저지종(Jerseys)을 키우는 조그만 낙농장에서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젖 짜는 일도 했고, 아테나 대학에서 비정규직 잡역부로도 일했다. 이렇게 말 없는 노동으로 연명하던 포니아와 대학에서 쫓겨난 콜먼의 마주침은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한 찬가로 싹 달아오른다. 인지적 차원에서 사랑은 두 마음이 한 마음으로 융합되는 밀월기로 정의될 수 있다. 물론 마음의 융합은 몸의 만남을 통해 앞당겨지고, 포니아와 콜먼의 만남과 헤어짐도 그런 짧은 융합의 순간을 거친다. 앞서 인용했듯이, 많은 독자와 비평가는 콜먼과 포니아의 사랑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의심하고 어떻게 불가능했는지 질문하며

클린턴과 르윈스키를 소환하고 딘즈데일 목사와 유부녀 헤스터를 연상한다. 이 질문에 대해 우선 일흔한 살의 노인 콜먼은 비아그라 때문에 가능했다고 직설한다. “이봐 네이션, 비아그라(Viagra)가 없었더라면, 이 중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32)라고 고백하는 콜먼의 이실직고는 사랑이 마음의 일일 뿐 아니라 몸의 일이기도 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오륙년 전 암 진단을 받고 전립선 제거 수술을 받은 저커먼은 사랑을 하는 노인인 콜먼이 부럽다. “수술로 인한 심각한 신경 손상으로 자기에게는 [비아그라]가 무용지물”(36)인 점을 되뇌며 이제 그는 세상에 “무해한 환관”(37)이 되어버렸다고 자조한다. 그리고는 콜먼과 포니아의 결합을 가능하게 한 것이 “책임감도 아니요, 의무감도 아니요, 돈도, 공유하는 철학도, 문학에 대한 사랑도 아니며” 다름 아닌 “전율”(the thrill)이었을 거라고 추측한다(33). 전율이라는 인지적 지복 상태를 선물한 것이 바로 비아그라나 시알리스 같은 물질이었던 것이다. 전율의 역설적 탄생에 관해 저커먼이 내린 결론을 현재연은 “섹스라는 오염물은 인류를 이상으로부터 분리하고 우리의 물질성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우리를 구원하는 타락”(250-51)<sup>12)</sup>이라고 번역한다. 콜먼의 불가능한 사랑을 추인하는 저커먼의 착잡한 마음은, 준샤인이 지적하는, 험버트(Humbert)의 불가능한 사랑을 시샘하는 『롤리타』(*Lolita*)의 독자들이 취하는 인지적 경계심과 일맥상통한다(*Why We* 102-3).

전율을 선물 받은 콜먼의 들뜸에 대한 포니아의 대응은 담백하고 단호하다. 자신에게 뭘 바라냐는 콜먼의 물음에 포니아는 “어떤 반려자가 되어주기. 때론 지식을 줄 테죠. 섹스와 쾌락도. 걱정하지 말아요, 그게 다니

---

12) 원문은 “The containment of sex, the redeeming corruption that de-idealizes the species and keeps us everlastingly mindful of the matter we are.”(37)이다. 『인간의 오점』(2000)의 국내 번역서인 『휴먼 스테인』(2009)에는 “섹스를 타락시키는 것이야말로 인류를 탈이상화하는 구원의 타락이자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를 영원히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니 말이다.”(77)라고 모호하게 오역되어 있다.

까”(30)라고 투명하게 대답한다. 토요일 저녁마다 콜먼의 집에서 FM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을 함께 청취하며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한주, 두 주 쌓여 가자, 그는 포니아에게 “이건 섹스 이상이야”라며 만남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포니아의 대답은 이번에도 한결같았다. “아뇨, 그렇지 않아요. 당신은 단지 섹스가 뭔지 잊고 살았던 거예요. 이게 섹스예요. 그게 다예요. 뭐가 다른 게 있는 척하면서 이걸 망치지 마시라구요”(203). 무의미한 의미 찾기를 지워버리는 포니아의 부정은 현실 직시 이상의 효력을 지닌다. 쓰고 지우는 패턴이 생긴 포니아의 마음은 회피라는 방어기제를 작동시키지 않고, 가장이라는 차폐막마저 꺼버린다. 그래서 포니아의 마음 읽기는 쉽고도 어렵다. 포니아는 문맹인 척하고 살아왔다. 비평가들은 이를 지적 패싱이라고도 한다. 하지만 그녀는 생각할 수 있다. 생각한 바를 말로 당차게 옮길 수도 있다. “입을 줄은 몰라도 셀 순 있어요. 덧셈. 뺄셈. 글을 못 읽어도 셰익스피어가 누군지는 알아요. 아인슈타인도 알구요. 남북전쟁에서 어디가 이겼는지도 안다구요. 난 바보가 아니에요”(160). 포니아의 인지 역량은 생존과 교양의 수준에 머물지 않는다. 가만 보면 논리정연한 동시에 메타-사고의 능력도 갖춘 여성이다. 그러므로 그녀가 문맹을 가장하는 것은 고도로 자의적인 생존 전략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교제 중인 전직 고전문학 교수와 자기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밀당’의 성격을 파악하지 못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는 말이다. ‘섹파’로 시작했다가 마음을 열게 되고 아파서 꺼내기 싫었던 서로의 과거를 하나둘씩 공개하게 되는데, 두 아이의 죽음과 두 차례의 자살 시도에 이어 어느 죽은 자의 집 청소를 하러 갔던 이야기까지 꺼낸다. 그날 자신의 최악을 얘기해준 날, 콜먼은 40년 묵은 자신의 비밀, 자신이 백인이 아니라 흑인으로 태어났음을 고백한다. 포니아는 전혀 놀라지 않는다. 괜찮다고 주름진 그의 얼굴을 쓰다듬어 주었는지도 모른다. 그녀 나이 다섯 살 때 시작된 불행의 여정은 인간의 작음과 마음의 어두움에 대한 깨달음으로 이어졌고 이는 소설의 제목이기도 한 “인간의 오점”에 관한 결론으로 안착한다. 인간은 오점을 지닌 존

재여서 “우리는 오점을 남기는 거예요”(242)라고 포니아가 설명할 때, 그녀는 목소리에 “역겨움의, 경멸의, 규탄의 어조는 한 가닥도 묻어있지 않았다”(242). 인간의 종 정체성에 대해 이만큼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 포니아에게 인간 콜먼의 인종 정체성은 어떠한 귀책 사유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포니아의 말과 표정에서 “그녀는 남을 판단하는 데 관심이 없고[.] 그녀는 스티나처럼 달아나지 않을 거라는”(341) 느낌을 받은 콜먼이 40년간 올리고 살았던 가드를 내린 것이다. 그녀와는 정체성 게임을 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니, 40년 동안 들어가 살았던 백인의 피부를 벗어던지고 밖으로 걸어 나올 수 있게 된다.

이즈음 포니아와 콜먼은 게임의 규칙과 압박에서 해방되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감추고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야 했던 존재의 짐을 잠시 내려놓는다. 그 순간 삶은 ‘나의 최상의 공여와 ‘나의 최애의 공유(라는 불가능으로 채워질 준비를 끝낸다. 팔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 둘은 보스턴 심포니 교향악단의 공개 리허설이 예정된 녹음 우거진 탱글우드 야외 음악당으로 차를 몬다. 포니아의 오른손 중지에는 조금 전에 콜먼이 선물한 우윳빛깔 오팔 반지가 끼워져 있다. 콜먼은 포니아에게 림스키-코르사코프(Rimsky-Korsakov)의 관현악 모음곡에서 “오보에와 플루트 소리가 얼마나 감미로운지”(207) 들려주고 싶었고, 프로코피예프(Prokofiev)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을 연주하기로 한 “브론토사우루스처럼 우람한 브론프만”(209)이 어떻게 건반을 누르는지 보여주고 싶었고, 라흐마니노프(Rachmaninoff)의 피아노 협주곡을 함께 듣고 싶었다(212). 그날 고전문학 교수 콜먼은 “옆자리에 바짝 붙어 앉은”(207) 포니아에게 이들 작곡가의 발음하기 힘든 이름과 곡명을 거론하며 생경한 분위기를 연출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저 말없이 음악의 선율을 느꼈을 것이다. 로스는 그날을 “너무나 사랑스러운 날, 선물 같은 날, 아무것도 결여되지 않은 완벽한 날”(209)이었다고 저커먼을 통해 추억한다. 그렇게 여름부터 가을까지 과육처럼 단단해져 간 두 남녀의 결합은 포니아가 관능적인 춤사위를 선사



했던 1998년 시월의 마지막 밤에 터질 듯이 무르익는다.

마음-읽기로서의 소설 읽기의 맥락에서 숙고할 때, 11월 첫날의 평화로운 일요일 아침 식탁에서 발발한 둘 사이의 설전은 전격적인 게임의 재개를 신호한다. 둘의 충돌의 원인 제공자는 뉴욕타임스 일요판에까지 직접적으로 실린 클린턴-르윈스키 성추문 기사였겠지만, 근원적으로는 체화된 두 마음이 하나로 융합되는 밀월이 영속될 수 없음에 따라, 잠시 벗어있던 인지의 이기적 기제가 철커덩하고 재가동될 시간이 되었기 때문이다. 콜먼은 50년 전에 놓쳐버린 “볼루타스(Voluptas)를 [다시] 찾았다”(234)는 어젯밤의 지복감에서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볼루타스가 미투나(mithuna)의 현신으로 연장되기를 기대한 모양이나, 그러한 몽환적 욕망은 일상에서 실현될 수 없는 것이었다. 콜먼은 무심히 신문에 난 기사를 읽어주었을 뿐이라고 변명할 수 있겠지만, 둘의 불륜을 훈계하듯 노력하는 구독자들의 수많은 눈을 인지한 포니아는 불현듯 마음의 잠에서 깨어난다. “그놈의 세미나 관둘 수 없어요? 지긋지긋한 세미나! 난 배울 수 없어요! 배우지 못해요! 배우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빌어먹을, 날 가르치려 들지 말라구요!”(234)라며 마음의 빗장을 열고 방아쇠를 당겨버린다. 화산폭발 같은 발화 이후 포니아는 2쪽 반에 걸쳐 무엇이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냉정하게 따져본다. 이 대목을 읽는 독자에게도 콜먼과 포니아의 만남을 “전율” 넘치는 사랑으로 규정한 화자를 너무 많이 신뢰한 게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한다. 그리고 처음으로, 혹은 가장 선명하게, 포니아의 눈을 통해 콜먼의 모습을, 아직 신문을 손에 든 채 안쓰러운 낭패감에 휩싸인 노인의 얼굴을 흘깃 볼 수 있게 된다. 순간 쓰고 지우는 게임에 최적화된 포니아의 마음이 재가동되면서, 그동안 너그럽게 받아주었던 콜먼의 불평불만들이 요란하게 다시 소환되고 이번에는 그게 그렇게 호들갑 떨 일이냐고 그에게 차갑게 쏘아붙이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런데 그녀가 퍼붓는 차가운 비난은 말로 발설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가두어둔 채 되먹이는 것이었다. 그 순간 콜먼도 급히 가드를 다시 올리고 게임에 임하는 자세로 돌

아가 상대의 마음-읽기를 시도함으로써 어떻게든 사태를 수습하려 했겠지만, 서로의 잘잘못에 관한 준엄한 판단 끝에 포니아가 내린 결론은 전광석화처럼 간단명료했다. 어젯밤 여기서 자지 말아야 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그녀는 아무리 밤이 깊었어도, 거센 뇌우가 시야를 가린 날이었어도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 짧은 찰나에 포니아의 마음은 또 몇 바퀴를 돌아 “지난 몇 달간 자신이 저 노인의 몸을 구석구석 핥고 빨아주었다는 사실이 믿을 수 없는”(236) 지경에 이른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급변할 수 있는 것이었다.

아침 식탁을 박차고 뛰쳐나온 포니아는 곧장 차를 몰고 외딴 숲 지대에 자리한 조류보호협회 건물로 향한다. 화재 사건 이후 유일하게 마음을 두었던 까마귀 프린스(Prince)를 보러 간다. “콜먼과 사귀 이후 몇 달 만에 다시 찾은 것이었다”(239). 포니아는 화재 사건으로 두 아이를 잃고 거대한 자책에 빠졌었다. 자식들이 연기에 고통받고 있었을 그 분초에 자신은 펠라티오에 몰입하고 있었다는 성의 가벼움을 참을 수 없었다. 모성의 실패와 이상성육의 승리가 공존하는 자신의 인간 조건에 대한 환멸의 끝에서 탈인간 존재가 눈에 들어왔던 것이다. 프린스는 사람 손에 키워지는 바람에 “까마귀의 언어를 배우지 못하고”(242), 그 결과 야생으로 돌아가 다른 까마귀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게 된 까마귀이다. 포니아는 그런 프린스의 처지에 공감하고 감정이입하는 정도를 넘어 “자신도 까마귀가 되어”(168) 같이 살고 싶어 했다. 그런 간절함으로, 인간의 몸에 갇힌 까마귀를 해방시켜 줄 누군가를, 아니면 인간의 신체를 벗고 까마귀가 될 수 있는 종전환 수술을 집도해줄 외과 의사를 갈구하기까지 했다(169). 몇 달 만에 오두번 협회(Audubon Society) 전시관의 유리 새장 안에 있는 프린스 앞에서 포니아는 자신이 “회색 추리닝 바짓바람에 남자용 줄무늬 잠옷을 걸치고 실내용 슬리퍼를 신은 채”(238) 여기까지 달려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는 스스로 겸연쩍어한다. 하지만 프린스는 그녀의 그런 옷차림을 타박하지 않는다. 그래서 포니아는 기분이 좋았던 것이다. “거기서는

그 어떤 [산 동물도 죽은 박제도] 그녀를 가르치려 들지 않았고, 그 무엇도 그녀에게 뉴욕타임스를 읽어주려 덤비지도, 지난 3천 년 인류의 역사를 요약해주려 애쓰지도 않았기 때문이다”(240). 포니아는 “사피엔스의 역사에서 꼭 알아야 할 두 가지, 인간의 무자비함과 무방비함을 알아버렸기”(240) 때문에 더 이상 아무런 미련이 남아있지 않았다. 이에 포니아는 “까마귀로 사는 법을 모르는 까마귀와 여자로 사는 법을 모르는 여자가 만났으니, 우린 서로 딱이야. 결혼해 줘, 프린스. 넌 내 운명이니까”(247) 라고 말하며 영롱하게 빛나는 오팔 반지를 까마귀에게 건넨다.<sup>13)</sup> 이날로부터 불과 열흘 뒤쯤인 1998년 11월 12일 저녁, 포니아는 콜먼과 함께 자동차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더 길었으면 좋았을 그녀의 서사는 닫히고 만다.

## V. 나가며: 마음속의 잔영

소설의 마지막 장인 5장의 종결부에서 저커먼은 포니아와 콜먼의 장례식 이후 종적을 감춘 레스터 팔리를 우연히 찾게 된다. 콜먼의 혈육 어네스틴의 초청을 받아 뉴저지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7번 국도(Route 7)에 더 빨리 올라탈 수 있는 지름길을 찾아 평소에 다니지 않던 산길로 들어섰는데, 인적 드문 숲속 도로의 노견 공터에 “전쟁 포로/작전 중 실종(POW/MIA) 범퍼 스티커가 붙은 회색 픽업트럭”이 주차된 것을 발견한 것이다(344). 저커먼은 브레이크를 밟는다. 팔리는 자신의 친구 콜먼과 그의 소중한 연인 포니아를 살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용의자일 뿐 아니라, 자신이 마무리 중인 작중 소설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줄 인물이기도 했기 때문이

---

13) 마샤 도킨스(Marcia Alesan Dawkins)는 패싱에 관한 자신의 단행본 제5장 “취미로서의 패싱”(Passing as Pastime)에서 『인간의 오점』의 소설 및 영화 버전을 함께 다루는데, 인간들이 좋아하는 갈까마귀(raven)로 보이고 싶어 하는 까마귀(crow)에 관한 이솝우화를 인용하며, 까마귀 프린스와 백인으로 보이고 싶어 하는 흑인 콜먼의 유비적 관련성에 주목한다.

다. 비평가들은 팔리라는 인물에 크게 주목하지 않는다. 전쟁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정부와 사회에 적개심을 품고 사는 베테랑 정도로 다룬다(Badir 271; Kaplan 106, 139; Parrish 213; Dawkins 114). 그런데 그의 복수 서사의 행간을 좀 더 엄밀하게 읽으면, 콜먼과 포니아의 사적 관계를 미국의 공적 담론과 연결하는 역사적 고리 역할을 팔리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팔리가 콜먼을 죽이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전처의 상간남에 대한 사적 원한 때문만이 아니라, 자기 같은 시골 무지렁이들이 베트남에 파병되어 무기로 죽어 나갈 때, 국내에서 “반전 시위나 했던 옛같은 놈들이” “지금 버젓이 대학교수가 되어 있는” 국가의 현실 때문이었다(70). 팔리의 눈에 콜먼은 “그런 별 볼일 없는 유대인 교수 놈들”(70)을 대표하는 인물로 비쳤고 그런 그를 응징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집단주의나 공동체주의와 같은 외부의 압박에 초연했던 작가 로스의 입장과 무관하게, 『인간의 오점』은 이렇게 개인의 사생활이 거시사의 굴곡에 무겁게 연루되는 정황을 반영하는 텍스트로 읽힐 수 있다.<sup>14)</sup>

차에서 내린 저커먼은 잔설이 희끗희끗한 산길을 걸어 버크셔 외딴 숲속의 고요한 호숫가에 도달한다. 그리고 거기서 얼음낚시를 즐기고 있는 팔리를 목격한다. 저커먼과 팔리의 최후의 게임이 벌어지는 공간이 백색의 황야라는 점은 의미심장한 아이러니를 품고 있다. 저커먼이 “인간 도래 이전의 세계,” “원초적 순수와 고요의 땅,” “승고의 이편”(345)이라고 묘사하는 그곳은 인간의 언어가 무용지물인 음소거된 아마겟돈을 연상시킨다. 거기서 저커먼은 자기가 쫓던 친구의 살인자를 찾아내지만, 거기서 팔리는 초조하게 쫓기는 범인이 아니다. 오히려 팔리는 호수처럼 평온하다.

14) 역사와 아예 무관한 개인의 삶이 있을 수 있는가? 필자는 없다고 본다. 일례로, 지극히 사소설적인 1976년 일본 합작 영화 <愛のコリーダ>(Ai No Corrida: 사랑의 투우/질주/오르가즘)—불어 제목 <L'Empire des Sens>, 영어 제목 <In the Realm of the Senses>, 한국어 제목 <감각의 제국>—에서도 에로티시즘에 탐닉하는 사적 치정의 극치와 파시즘을 조장하는 제국의 세기말적 퇴폐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있음이 잘 연출되어 있다.

거기서 팔리는 인간보다 대자연에 더 가까운 존재로 보인다. 저커먼은 언어로 먹고사는 소설가이고 팔리는 비언어의 아수라장에서 살아 돌아온 참전 용사인지라, 둘의 조우는 언어 대 반언어의 길항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런 억측이 낳는 날 선 긴장감은 팔리가 보여주는 뜻밖의 달변으로 일거에 해소되어 버린다. 팔리는 짱짱 언 호수 아래에 서식하는 민물고기들의 생리를 훤히 꿰뚫고 있고 또 그러한 생존의 이치를 말로 술술 풀어낸다. 이에 저커먼은 팔리의 “유창함이 나를 매혹시켰다. 그가 저런 달변가일 줄은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350)라고 속내를 털어놓는다. 거기서 팔리는 PTSD 환자로 보이지도 않는다. 애초부터 PTSD는 그에게 부적합한 호명이자 안일한 문명사회의 오진이었던지도 모른다. 모든 소음을 집어삼키는 눈 덮인 오지의 얼음 호수 위에서 팔리의 한마디 한마디는 역설적으로 더 또렷이 들리는 반면, 저커먼은 점점 더 말더듬이가 되어 간다.

말을 통해 상대의 마음을 읽고자 하는 것이 문명사회의 부질없는 진실 게임이라면, 게임의 승리를 직감한 팔리는 비열한 농과 뻔뻔한 거짓을 섞어 낭패한 저커먼을 야만의 수사로 압박하기 시작한다. “작가 양반이라고?”(349) “그래서 지금 무슨 책을 쓰고 있소? 추리물?”(356)이라는 질문을 필두로 “실화요?”, “로맨스도 있소?”, “포르노는 아니겠지”라고 툭툭 던지다가 대뜸 “한 권 구할 수 있겠소?”라고 묻는다. 입이 얼어붙어 가는 저커먼은 아직 완성되지 않아 그럴 수 없다고 겨우 대답한다. “나오면 사서 보겠소”(356)라는 팔리의 짧은 대꾸에 저커먼은 자기가 한 권 보내주겠다고 말하며 이름을 묻는다. 팔리는 일말의 주저 없이 이름을 밝힌 뒤 자신의 주소까지 알려주며 책을 꼭 보내라고 대응한다. 연속적으로 예기치 못한 역공을 당한 저커먼은 자신이 이미 그의 감시망에 포획된 사냥감으로 전락했을 뿐 아니라, 그가 앞으로 나올 소설의 내용까지 감시하는 검열관으로 등극하고 있음을 직감한다.

만약 저커먼이 팔리의 픽업트럭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 가던 길을 갔더

라면, 팔리는 말없이 물고기를 잡는 평온한 악인으로 지내며 더는 보복하겠다는 마음의 실행을 공리하지 않았을 것이다. 애당초 팔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포니아의 서사 공백과 콜먼의 그림자 이야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복수의 대상이 제거되었고 운까지 좋게 완전범죄로 처리됨으로써, 달리 말해, 분주하고 집요하게 포니아와 콜먼을 겨누었던 마음의 일이 종료됨으로써, 낚시 삼매경에 빠진 팔리의 뇌는 기한 없는 인지적 휴지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을 작중 인물로 창조 중이라는 소설가의 고백을 듣는 순간, 동면에 들어갔던 그의 마음의 기제가 기민하게 깨어나기 시작한다. 멀리서 직접 찾아와 자신의 잠든 마음을 흔들 어준 소설가 덕분에 팔리는 지배자 독자로 부활한 것이다. 극도로 긴장된 대질을 마치고 차로 돌아가는 저커먼의 뒤통수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팔리의 차가운 눈은 이제 단순히 관찰하고 감시하는 눈이 아니다. 그 눈은 소설 속에서 소설이 출판되기를 기다리는 메타비평가의 예리한 눈이다. 순백의 동토를 배경으로 소설의 완성을 기다리는 팔리의 (푸른) 눈이 저커먼의 뇌리를 떠나지 않는 한, 소설의 출판은 저커먼의 피를 말리며 지연될지도 모른다. 더 가혹하게 평가하자면, 팔리가 소설의 출판을 기다리는 메타픽션적 혹은 메타표상적 검열관의 지위를 자처하고 나선 이상, 소설가 저커먼이 유지해온 자신의 작중 기능이 동결되고 동시에 로스의 편리한 화자로서의 역할도 종료되는 패잔의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

『인간의 오점』에는 소설의 제목이 암시하는 바가 기술된 대목이 나온다. 앞서 논의했듯이, 반복되는 불행 속에서 불행 뒤에 살아남기 위해 ‘쓰고 지우는’ 마음의 패턴에 스스로 갇힌 포니아가 시월의 마지막 밤을 마지막으로 콜먼마저 지우기로 마음먹고 비인간 프린스를 찾아가 종횡단(trans-species)<sup>15)</sup> 구애를 빙자하며 남기는 변명에서이다. “[인간은] 오점

15) 종횡단(transspecies)이라는 용어는 탈인간중심적 동물연구(Animal Studies)에서 종종 거론되는 심층 생명평등주의(a deep bioegalitarianism) 또는 조에-기

을 남겨요. 자취를 남기죠. 자국을 남긴다고요. 불순함(Impurity), 잔인함(cruelty), 학대(abuse), 실수(error), 배설물(excrement), 정액(semen). 달리 어쩔 수 없잖아요”(242). 직시하기에 불편한 오명들이지만, 포니아의 변명대로 “우리네 삶이 그렇게 돌아가니”(242) 달리 피할 도리가 없다. 조세프 오지어스(Joseph Ozias)는 이상 여섯 가지 인간의 결함을 『인간의 오점』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에 적용한다. 불순함은 포니아에게, 정액은 콜먼에게(르윈스키의 파랑 드레스에 그것을 남긴 클린턴 포함), 잔인함과 학대는 팔리에게, 실수는 델핀에게, 마지막으로 배설물/분뇨는 전립선암 수술 후유증으로 요실금을 겪고 있는 저커먼에게 연결짓는다(69-70).

『인간의 오점』이 남긴 여섯 오점이 인간의 몸이 남기는 오점이라면, 그래서 인간의 몸이 세상에 “오점”과 “자취”와 “자국”을 남긴다면, 인간의 마음은 마음 안에 잔영이나 잔상을 남길 수 있다. 인지과학에서 눈을 감는 순간은 매우 중요하다. 눈을 감는 순간, 감각 지각에 무언가가 추가되거나 혼합되는 상상 지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눈을 감으면, 낭만주의 인지비평가 리처드슨이 설명하듯이, 인간은 세 가지 다른 사과를 상상할 수 있다.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잘 익은 빨간 사과,” 현실 세계와 이야기 세계에 공히 존재할 수 있는 장식용 “황금 사과,” 그리고 현실 세계에 대응물이 없는 “불타는 사과”(“Imagination” 225). 이 중 가장 오래, 가장 인상적으로 기억되는 것은 영롱한 화염에 이글거리는 세 번째 사과일 것이다. 인지적으로 비슷한 맥락에서, 눈에 보이는 문자 텍스트를 해독하여 습득한 정보보다 잠시 눈을 감고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함으로써 얻게 되는 잔영이 때로 더 강도 있게 저장된다. 아마도 그 이유는 눈을 감음으로써 시각 지각을 잠시 차단했을 때, “고요 속에 회상된 정서”처럼, 상상된 이미지가 더 섬세하고 몽클하게 마음에 파고들어 작동하기 때문일 것이다. 『인간의 오점』에서 공백으로 처리된 행간을 읽으려고 애쓰면서 필자의 마음에 가장 질게 각인된 잔영은 슬픔의 잔상이었다. 한두 방울 이상의 눈물이 번졌을

---

반 종평등 체계(a zoe-centered system of egalitarianism)에 기반한 개념이다.

것 같은 스티나 팔슨의 편지지가 ‘보여’ 슬펐고, 친애하는 까마귀에게 오팔 반지를 양도하고 돌아서는 포니아의 뒷모습이 ‘보여’ 슬펐고, 질식한 두 자녀의 시신을 양 옆구리에 낀 채 오염하는 팔리의 꿇은 무릎이 땅에 깊이 박힌 게 ‘보여’ 슬펐고, 치매에 걸린 글래디스 실크 부인이 아기 콜먼을 연신 챙기는 목소리가 ‘들려’ 슬펐다. 영화를 보면서 행간을 상상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속도감 있게 뒤에서 밀고 들어오는 영상들이 앞 영상들을 무자비하게 밀어내어버리기 때문이다. 적어도 극장에서는 일시정지버튼을 누를 수도 없다. 소설에서는 가능하다. 그래서 행간 읽기로서의 소설 읽기는 가장 강도 높은 마음의 일이 된다.<sup>16)</sup>

(홍익대학교)

## ■ 주제어

『인간의 오점』, 인지비평, 마음-읽기, 서사 공백, 정체성 게임

---

16) 필자는 로버트 벤티(Robert Benton) 감독의 영화판 <인간의 오점>(2003)을 의도적으로 보지 않고 있다. 조금 노쇠해 보이지만 에드 해리스(Ed Harris)가 팔리 역을 맡은 것은 나쁘지 않고, 게리 시니즈(Gary Sinise)의 캐스팅으로 저커먼의 노인 이미지가 열리는 게 색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만 했다. 따라서 이 논문에 기술되거나 묘사된 모든 내용은 작가의 마음에서 화자의 마음을 거쳐 필자의 마음으로 옮겨진 것들이다.



## ■ 인용문헌

- 김영미, 이명호. 「『인간의 오점』에 나타난 패싱의 재현」. 『미국소설』 23.1 (2016): 5-30.
- 장정훈. 「위선과 편견 그리고 삶의 비극: 필립 로스의 『인간의 오점』을 중심으로」. 『미국학논집』 36.3 (2004): 259-79.
- 현재연. 「『인간의 오점』에 나타난 정화의 의미」. 『영어권문화연구』 10.3 (2017): 239-59.
- Abbott, H. Porter. “How Do We Read What Isn't There to Be Read?: Shadow Stories and Permanent Gaps.” *The Oxford Handbook of Cognitive Literary Studies*. Ed. Lisa Zunshine. New York: Oxford UP, 2015. 104-19.
- \_\_\_\_\_. *Real Mysteries: Narrative and the Unknowable*. Columbus: Ohio State UP, 2013.
- Badir, Yasmine. “‘He’ Who Knows Better than ‘I’: Reactivating Unreliable Narration in Philip Roth's *The Human Stain* and Jean Echenoz' *Nous trois*.” *Narrative Unreliability in the Twentieth-Century First-Person Novel*. Elke D'hoker and Gunther Martens. Germany: Walter de Gruyter, 2008. 259-80. E-book.
- Brodkin, Karen. *How Jews Became White Folks and What That Says about Race in America*. New Brunswick: Rutgers UP, 1998.
- Dawkins, Marcia Alesan. *Clearly Invisible: Racial Passing and the Color of Cultural Identity*. Waco, TX: Baylor UP, 2012.
- Edholm, Roger. “The Narrator Who Wasn't There: Philip Roth's *The Human Stain* and the Discontinuity of Narrating Characters.”

- Narrative* 26.1 (2018): 17–38.
- Elliott, Richard. “The Fantasy of Purity is Appalling’: (De)constructing Identity in *The Human Stain*.” *Philip Roth Studies* 16.1 (2020): 92–110.
- Gates, Henry Louis, Jr. “The Passing of Anatole Broyard.” *Thirteen Ways of Looking at a Black Man*. New York: Random House, 1997. 180–214.
- Godfrey, Mollie. “Passing as Post-Racial: Philip Roth's *The Human Stain*, Political Correctness, and the Post-Racial Passing Narrative.” *Contemporary Literature* 58.2 (2018): 233–61.
- Guthrie, Steward Elliott. *Faces in the Clouds: A New Theory of Religion*. New York: Oxford UP, 1995.
- Herman, David. “Narrative Theory after the Second Cognitive Revolution.” *Introduction to Cognitive Cultural Studies*. Ed. Lisa Zunshine. Baltimore: Johns Hopkins UP, 2010. 155–75.
- \_\_\_\_\_. *Story Logic: Problems and Possibilities of Narrative*. Lincoln: U of Nebraska P, 2002.
- Kaplan, Ashley Brett. *Jewish Anxiety and the Novels of Philip Roth*. New York: Bloomsbury Academic, 2015.
- Martin, Dyanne K. “Racial Passing and Double Consciousness in Philip Roth's *The Human Stain*.” *Philip Roth Studies* 14.1 (2018): 55–69.
- Morrison, Toni. “Invisible Ink: Reading the Writing and Writing the Reading.” 2011. *The Source of Self-Regard: Selected Essays, Speeches, and Meditations*. New York: Vintage, 2020. 346–50.
- Ozias, Joseph. “The Fragmented Mark: Zuckerman's Characters as Self-Making in *The Human Stain*.” *Philip Roth Studies* 19.2

(2023): 58-73.

Parrish, Tim, "Becoming Black: Zuckerman's Bifurcating Self in Philip Roth's *The Human Stain*," *Philip Roth: New Perspectives on an American Author*. Ed. Derek Parker Royal. Westport, CT: Praeger, 2005. 209-23.

Rankine, Patrice D. "Passing as Tragedy: Philip Roth's *The Human Stain*, the Oedipus Myth, and the Self-Made Man." *Critique: Studies in Contemporary Fiction* 47.1 (2005): 101-12.

Roth, Philip. *The Human Stain*. New York: Vintage, 2001.

\_\_\_\_\_. Interview with Charles McGrath. "Zuckerman's Alter Brain." *New York Times*, 7 May 2000. <https://www.nytimes.com/2000/05/07/books/interview-zuckerman-s-alter-brain.html>. Accessed 26 Jan. 2024.

Richardson, Alan. "Imagination: Literary and Cognitive Intersections." *The Oxford Handbook of Cognitive Literary Studies*. Ed. Lisa Zunshine, New York: Oxford UP, 2015. 225-45.

\_\_\_\_\_. *The Neural Sublime: Cognitive Theories and Romantic Texts*. Baltimore: Johns Hopkins UP, 2010.

Royal, Derek Parker. "Plotting the Frames of Subjectivity: Identity, Death, and Narrative in Philip Roth's *The Human Stain*." *Contemporary Literature* 47.1 (2006): 114-40.

Schwartz, Larry. "Erasure of Race in Philip Roth's *The Human Stain*." *Philip Roth Studies* 7.1 (2011): 65-81.

Turner, Mark. *The Literary Mind: The Origins of Thought and Language*. New York: Oxford UP, 1996.

Zunshine, Lisa. *Why We Read Fiction: Theory of Mind and the Novel*. Columbus: Ohio State UP, 2006.

\_\_\_\_\_. “What Is Cognitive Cultural Studies?” *Introduction to Cognitive Cultural Studies*. Ed. Lisa Zunshine. Baltimore: Johns Hopkins UP, 2010. 1-33.

■ Abstract

**A Cognitive Inquiry into the Characters of  
*The Human Stain* through Mind-Reading and  
Narrative Gap-Filling**

Kim, Junyon  
(Hongik Univ.)

Drawing on the analogy between mind-reading in cognitive criticism and narrative gap-filling in narratology, this paper attempts to uncover what lies in the characters' minds by reexamining the narrative gaps scattered throughout Philip Roth's *The Human Stain*. To achieve the critical goal of combining cognitive criticism and narrative theory, this paper engages in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that bridge cognitive research and literary studies. Through a cautious cognitive exploration of unreadable minds and unspoken intentions in *The Human Stain*, its narrative gaps can be more reliably filled. In other words, even the permanent gaps in the novel can be supplementarily filled not only by the narrative speculations of its heterodiegetic narrator—a narrative voice outside the story—but also by the reader's cognitive invention of shadow stories. Considering that the novel's four main characters are all certain types of “passers” who pretend to be something other than themselves, a fuller understanding of the multiple and distributed sources of character information will help analyze the cognitive patterns through which

those characters operate their minds.

### ■ Key words

*The Human Stain*, cognitive criticism, mind-reading, narrative gaps,  
identity game

### ■ 논문게재일

○투고일: 2024년 7월 24일 ○심사일: 2024년 8월 12일 ○게재일: 2024년 8월 13일

# The Materiality of Objects in Poetry and Science:

William Wordsworth at a Crossroads,  
a Cross-Cultural Study\*

Sohn, Hyun\*\*

Until I spoke its name,  
It had been  
no more than a mere gesture.

When I spoke its name,  
It came to me  
and became a flower.

Now, will anyone speak my name,  
one fitting this colour and odour of mine,  
as I spoke its name?  
I may go to him  
and become his flower.

We all wish  
to become something.

---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22S1A5A2A01047503)

\*\* Assistant Professor at Sungkyul University, [hyks2@hanmail.net](mailto:hyks2@hanmail.net)

You to me and I to you  
wish to become an unforgettable glance,<sup>1)</sup>

(Chun-soo Kim, "Flower")

## I. Introduction: Literature, Science, and the Material Turn

Literature has historically been subject to diverse interpretations, which in turn have been influenced by the prevailing intellectual climate. In our contemporary era, science has emerged as a significant force shaping literary interpretations. As C. P. Snow noted, literary scholars have long been antagonistic towards science (4–8), reflecting the challenges science presents to literary understanding. Today,

---

1) The translation is my own, based on references from multiple sources, including Jong-gil Kim's translation in Chun-soo Kim, *The Snow Falling on Chagall's Village: Selected Poems*, Ithaca: Cornell University, 1998, Chae Pyong Song's at [https://www.nyculturebeat.com/index.php?mid=Salon2&document\\_srl=3062253](https://www.nyculturebeat.com/index.php?mid=Salon2&document_srl=3062253) and Alex Rose's at <https://blog.naver.com/elguapo81/20170048417>. The last phrase "the unforgettable glance" is the poet's own rephrasing of "the unforgettable meaning" in the earlier version. In the original poem, the term "그" (pronounced as "gue") is literally equivalent to "he" in English. However, translators variously render it as "it," "he," or "she." This is because, in Korean, "그" can refer to a personified object, and since Korean pronouns do not distinguish gender, it can also refer to "he" or "she" depending on the poet's or the translator's gender. Among these options, I consider translating "그" as "he" problematic, most importantly because "그" contextually refers to a different entity in the first half of the poem than it does in the second half. Translating both as "he" in English leads to the erroneous interpretation that both pronouns refer to the same person, thus shifting the poem's focus from a profound exploration of human identity and relationships to a simple reciprocal love poem. Therefore, I have translated "그" as "it," which I believe better aligns with the contextual meaning. Unless otherwise noted, translations from Korean texts are my own.



however, most notably with the advent of AI at the intersection of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human creativity, the traditional boundary between the human and nonhuman has eroded. Literature can thus no longer afford to ignore science as a mode of thought. Literature now faces a pivotal moment: it must either integrate the insights offered by scientific inquiry or risk stagnating by clinging to its traditional, but short-sighted, disregard for science.

One of the most compelling aspects of this crossroads, which is attracting critical attention, is the materiality of objects in poetry. Traditionally, objects in poetry have been handled representationally, that is, as embodying the emotions and meanings projected by the poet onto the world. For instance, as illustrated in the epigraph above, it is through the poetic calling that an indifferent “it” is transformed into a “flower,” which thus becomes a symbolically meaningful entity for the poet. Consequently, literary critics have often conceptualized poetry as a practice that imbues the physical world with human significance by intertwining objects with human creative imagination.

In contrast, the contemporary ‘material turn’ emphasizes recognizing the materiality of objects as fundamental to existence, coupled with an awareness of the anthropocentrism embedded in traditional views of human imagination. Emerging as a multi-faceted response to the idealistic perspectives that prioritize the mind or spirit in interpreting reality, new materialism posits that matter is the core substance of nature. Some proponents of this perspective argue that philosophy has been unduly constrained by ‘correlationism’ ever since Kantian idealism. According to them, such ‘correlationalism’ confines our understanding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ought and

being, thereby excluding the possibility of knowing things independently of human cognition.<sup>1)</sup>

Additionally, some theorists contend that matter is neither passive nor inert, but instead possesses agency and the capacity to affect and be affected.<sup>2)</sup> Others propose that humans should no longer be viewed as the world's primary subjective agents but instead simply one of many objective things—a thinking ‘thing.’<sup>3)</sup> This perspective leads to object-oriented ontology, which claims that existence is shaped by the interdependent relationships among all objects, including humans, without privileging subjects over objects. In this vein, various emergent materialist movements are challenging traditional boundaries between human and nonhuman, subject and object, and advocating for all entities’ equal interdependence. These movements reflect a philosophical response to the materialistic leveling of all things, an idea that modern science has advanced.

One of the worthiest figures deserving reconsideration in this

---

1) For a prominent example, refer to Quentin Meillassoux's *After Finitude: An Essay on the Necessity of Contingency*. Meillassoux defines correlationism as “the idea according to which we only ever have access to the correlation between thinking and being, and never to either term considered apart from the other” (5).

2) For a prominent example, refer to Jane Bennett's *Vibrant Matter: A Political Ecology of Things*. Bennett explores the vitality of matter, suggesting that non-human entities have a form of agency.

3) For a prominent example, refer to Levi R. Bryant's “The Ontic Principle: Outline of an Object-Oriented Ontology.” The term, “a thinking thing,” was introduced by the philosopher René Descartes to describe the act of thinking as the essence of human beings. Now, material realists shifts its focus from ‘thinking’ to ‘a thing’ to emphasize humans as an entity among “the swarm of differences” (Bryant, 268).

context is the English Romantic poet, William Wordsworth. Romantic literature is often criticized for significantly contributing to the cultural divide described by Snow, with “literary intellectuals” representing Romanticism scholars on one side of that cultural divide (Snow 4). Wordsworth, as a quintessential Romantic poet, can be seen to exemplify this critique. Popularly, he is known for expressing a strong anti-scientific sentiment, even going so far as stating, “We murder to dissect.”

This paper argues that, on the contrary, while Romantic literature broadly emphasizes nature, Wordsworth in particular is focused on natural objects' materiality. He approaches nature as a tangible entity, deliberately stripping it of its conventional symbolic meanings. His poetry frequently features everyday elements such as trees, rocks, and clouds drawn from his native landscape of Lake Districts. This critical approach presents Wordsworth in a possibly contradictory light: as both an anti-scientific Romantic and a poet who engages deeply with material things. Thus, Wordsworth is himself at a crossroads, caught between long-standing accusations of scientific ignorance and the need for reinterpretation through a materialistic perspective.

Indeed, Wordsworth is positioned squarely at this crossroads amid the critical turn to materialism. Among critics who share this materialistic perspective, understandings of Wordsworth's poetry are evenly divided. For example, Adam Potkay, focusing on elements that resist unifying narration in Wordsworth's poetry, describes the poet's work as representing “a less reified world, one in which human and nonhuman activities are viewed as interanimate with objects, made

and unmade” (401). Similarly, Evan Gottlieb contends that Wordsworth's poems anticipate the movement of object-oriented ontology, as both share a commitment to taking things seriously. Gottlieb views the relationship between subject and object in Wordsworth's poetry not as a correlational one but rather as one based on “a reception model of human agency” (152).

In contrast, Timothy Morton observes that Wordsworth despises reading without contact with things as an ecologically distasteful form of auto-affection. Nonetheless, Morton argues, “to be troubled by auto-affection in the manner of environmentalism is ironically to inhabit a mode of reflexive (auto-affective) subjectivity: the Romantic beautiful soul, the correlationist mode par excellence” (173). Alternatively, Mary Jacobus points to the “doubled ending” (73) itself in Wordsworth's poetry, which signifies neither the collapse of Wordsworth's creed nor the dogmatism of so-called Romantic ideology. With the layer of critical duality added to the poetic duality inherent in Wordsworth's poetry, critics' understanding of Romantic literature appears to be at a crossroads.

In this essay, I challenge the validity of the material turn as an alternative to both self-centered idealism and anti-scientism by reconsidering the materiality of objects in poetry from a cross-cultural perspective. I adopt this perspective because, particularly in Eastern literature, the physical presence of objects is intrinsic to poetry. I contend that this facet of Eastern poetry can provide new insights into Western poetry, especially that of the Romantics. Specifically, I will compare Wordsworth's poetry with works of two prominent Asian literary figures: the Chinese poet Li Bai and the

Korean Buddhist monk and poet Wonhyo. Their writings stand out for their emphasis on objects' very tangible aspects, and they do so without any connection to modern scientific materialism. By tracing how the poetic mind relates to the material presence of objects in each case, I thus re-evaluate strategies for moving beyond anthropocentric idealism and establishing a new relationship between science and poetry.

It should be noted that the current arguments against idealism and anthropocentrism do not conclude with materialism as their final stance. Rather, they advocate for a different form of realism that requires new considerations of reality, encompassing both the material and immaterial realms. For example, Morton states, "OOO is troubling for materialisms that rely on any kind of substrate, whether it consists of discrete atoms or of a continuum" (179). He argues that OOO instead embraces the irreducible withdrawal of objects, which are "only partially 'translated' by minds" (170). Nevertheless, it is undeniable that in terms of priority and directionality, they prioritize matter over mind and objects over subjects, thereby, as Andrew Cole cautions, potentially falling prey to anthropomorphism(322). In an interview with Ben Woodard, Slavoj Žižek proposes that materialism's true formula should be not that "material reality is all there is" but rather that "material reality is non-all" (408). From his perspective, the central question shifts from "can we penetrate things-in-themselves beyond subjectively-constructed phenomena" to "how do phenomena themselves arise within the flat stupidity of reality"; in other words, "how does reality redouble itself and start to appear to itself" (415). In support of Žižek's position, I argue for the necessity of a new theory of 'imagination,' the Romantic term for the poetic mind,

that avoids strict alignment with either transcendental idealism or materialism. Furthermore, I contend that a cross-cultural approach effectively underscores this point.

The comparison between Romantic and Eastern poetry is particularly meaningful because as Western literature evolved into the Romantic era, when lyric poetry became the predominant genre, it encountered the East's longstanding lyrical traditions. Therefore, in the following sections, I will first address Romantic poetry's lyrical turn. Next, I will explore how the poetic mind responds to objects' materiality in Wordsworth's poetry. My comparison uses the works of Li Bai and Wonhyo to underscore Wordsworthian distinctions. I will then discuss these differences using metaphors for the representational phases described in this paper's epigraph. Through this analysis, I aim to demonstrate that: (1) through the lyrical turn, the materiality of objects is internalized in Romantic poetry; (2) what characterizes Wordsworthian poetry as unique is its capacity to leap beyond material limitations, and then using these constraints to further creative exploration; and (3) the literary imagination needs to be reevaluated for a renewed collaboration between science and poetry.

## II. The Lyrical Turn in Romantic Poetry

In *Comparative Poetics*, Earl Miner argues that a culture's poetics is closely connected to its most valued genre (6). He notes that, in Western cultures, the main genre is explicitly dramatic, whereas in most other cultures, it is implicitly lyric (12-33). According to this

perspective, poetics changes depending on the cultural context. Romanticism marks a significant shift in this regard: one of its significant impacts is that in the West, ever since Romanticism, poetry has been perceived primarily as lyric; thereafter, literature has been closely associated with expressing the poet's inner world. For instance, we can appreciate *Hamlet* without knowing anything about Shakespeare, but when we read the poetry of Li Bai or Wordsworth, we naturally become aware of their lives and surroundings. Notably, as traditional distinctions between Eastern and Western primary genres have faded, lyric poetry has become primary in both traditions since Romanticism.

Determining how Western literature underwent its lyrical turn is complex, but one possible contributing factor is the Scientific Revolution in the seventeenth century. Before then, a scientific understanding of nature was often intertwined with idealism. For example, in traditional Western thought, the moon was viewed as a perfect celestial object with a smooth surface, distinct from the imperfect terrestrial realm, in accordance with Aristotle's dualistic cosmology.<sup>4)</sup> However, in the early seventeenth century, Galileo's telescopic observations contradicted this theory by revealing that the moon's surface was in fact not smooth but uneven and rugged (Galilei

---

4) According to Aristotle's dualistic cosmology, the universe is divided into two distinct realms: the terrestrial and the celestial. The terrestrial realm, which encompasses the sublunary sphere of Earth, is characterized by change and imperfection. In contrast, the celestial realm, above the Moon, is characterized by eternal, unchanging perfection. This dualism reflects Aristotle's belief in the fundamental differences between the mutable, corruptible world of earthly phenomena and the immutable, divine nature of the heavens.

1989, 11-16) . Even to the naked eye, the moon's surface exhibits dark spots. Among those who, at the time, held to such an idealistic perspective, these imperfections were disregarded. In contrast, Galileo approached the moon as a physical entity, independent of such idealistic notions, and documented its roughness. Galileo asserted that “none of the conditions by which Aristotle distinguishes celestial from elemental bodies has any other foundation than what he deduces from the difference in natural motion between the former and the latter” (Galilei 1967, 37). The essence of modern science lies in disentangling matter from abstract ideas and understanding it through its material properties.

Undoubtedly, the division of mind and matter was not easily achieved. Just as Galileo faced significant persecution, including being tried by the Inquisition for his scientific work, the mind also strongly resisted being separated from matter. Newton's scientific inquiries, contrary to common notions, began by questioning why an apple falls from the tree to the ground; this then led to Newton discovering the law of universal gravitation. According to this law, the motion of all objects in nature is unified under a single physical principle, asserting that everything—whether in the heavens or on earth, in holy temples or rural cottages—follows the same gravitational laws. As such, objects that had previously been considered hierarchically separate in the realm of ideas are united under a single physical law. However, in response to this systematic explanation of the world, the mind turned to deism. With the emergence of modern science, or the newly emerging scientific method, the mind did not withdraw the traces of faith embedded in matter but instead replaced



them with a new ideology of rationalistic religious views that aligned faith with rational truth. Just as science continually challenges ideas with new discoveries, these ideas have persistently resisted the dominance of material explanations and have evolved accordingly.

The lyrical turn in Romantic literature marks a pivotal moment when the mind acknowledged its separation from matter, embarking on its own path of spiritual exploration. This assertion is bold and therefore necessitates thorough argumentation. I have delved into this topic more extensively in another paper, drawing on the ideas of philosopher Sang-hwan Kim(Sohn 2020). Here, I will limit my discussion to some key points regarding the lyrical turn in Romantic literature, with additional analysis of poetry to follow.

Firstly, the separation of mind and matter is evident in the internalization of consciousness in Romantic literature. As the mind detaches from matter, consciousness becomes centered not on its relationship with external objects but on the self, the thinker. After the rise of modern science, consciousness, now separate from external material nature, is “always self-conscious” (S. Kim 110). Secondly, the idea that the mind charted its own course through Romantic literature is closely tied to the self-expressive nature of lyric poetry. With the external world reduced to mere matter, the spirit, once part of the external world, now exists purely as the mind within the self. Romantic lyric poetry represents the effort of this internalized mind to articulate itself poetically. Essentially, the mind finds its own path by seeking truth within the individual, separate from the external truths of nature.

In this context, the dual nature of the Romantic self in relation to

the materiality of objects is unavoidable. On the one hand, the Romantic self is based on an understanding of the material world; without this comprehension, the separation of mind from matter wouldn't be possible. On the other hand, the internalized Romantic self carries a significant risk of egocentrism. For a self detached from external objects, thinking shifts from contemplating the objective world external to it to pure self-reflection. Thus, the Romantic self is fundamentally divided between an awareness of the material world and egocentrism, with these two aspects being like two sides of the same coin. In fact, the egoistic idealism of Romantic literature is the counterpoint of a materialistic awareness of the world.

Given this division, the internal conflict within the mind leads to the aestheticization of truth as a form of self-expression. The validity of truth is now confirmed not by external standards but by the subjective sense of sublimation felt by the self. The divided reflective self is characterized by its position “between reason and madness” (S. Kim 115) as it simultaneously denies objective truth and remains perpetually skeptical of its own consciousness. It creates a psychological state in which everything is reduced to zero, thus enabling all things to be born anew. There certainly resides the possibility for this state to veer toward aesthetic idealism, often referred to as the “beautiful soul.” However, akin to Žižek's view of matter as non-all, Coleridge's notion of Romantic imagination, which “dissolves, diffuses, dissipates, in order to re-create” (Ch. 13), and S. Kim's idea of “a project of excess—aimed at the undefined, the void, or the infinite; surpassing the thinkable totality, the entirety of beings and meanings, and the whole of factual history” (116), help explain

why the Romantic self, or lyrical self, has the potential to lead the world.

Importantly, the unique relationship between the world and the self, established through the lyrical turn, is not static but exhibits characteristics of topological change and continuity. This distinctive structure between the world and the lyrical self adapts its forms according to different objects and situations, similar to how a topological structure varies in shape while retaining its inherent properties.<sup>5)</sup> Lyric poetry typically captures and expresses the poet's emotions toward specific objects and situations. Just as these emotions shift according to different situation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orld and the self within a single lyrical poem changes depending on the context. This results in diverse expressions of either objective materiality, subjective ideality, or the project of excess in a poem. As illustrated in this paper's epigraph, a single object can be perceived differently by the poet depending on his or her mood—either as an “it,” “a flower,” or even as “a [ . . . ] gesture.” Naturally, the cultural background is also a determining influence regarding this diversity.

Thus, to understand how the poetic mind engages with the materiality of things in Romantic poetry, one must examine the poet's responses at the crossroads where the separation between things and mind occurs. These intersecting points reveal the poet's sense of direction. Given lyric poetry's modal versatility, such junctures are

---

5) A topological structure changes its shape but maintains its fundamental characteristics, such as connectivity or continuity. For example, a doughnut and a coffee cup are topologically similar because both have a single hole, despite their different appearances.

prevalent. This holds true for Eastern lyric poetry as well. However, there are instances where specific junctures are deliberately dramatized by the poet as part of his or her artistic strategy, thus articulating the poet's directional intent. In Romantic poetry, a notable example is the Simplon Pass episode in Book 6 of Wordsworth's *The Prelude*. In Eastern literature, similar moments are most notably present in Li Bai's "Drinking Alone under the Moon" tetralogy, especially in the first poem, and in Wonhyo's "Tomb Anecdote."<sup>6)</sup> To highlight the unique aspects of Wordsworth's approach, this study will analyze his poetry in terms of materiality of objects and draw comparisons with the works of Li Bai and Wonhyo from a cross-cultural perspective.

It would be salient to note again that in Eastern literature the materiality of objects is inherently present. However, in Western literature, such materiality only becomes more prominent in Romantic poetry, thus marking a vital distinction between the two. As addressed earlier, the key factor in this shift is the rise of modern science, indicating that materiality in Romantic poetry is closely tied to scientific themes. Given that Eastern culture, despite its materiality's ubiquity in poetry, has historically been less integrated with modern scientific developments, it can be provisionally inferr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science and poetry in Romantic literature

---

6) This anecdote is more popularly known as the "Skull Water Anecdote." According to the story, Wonhyo staying in a cave during a storm drank water from a gourd at midnight, only to discover in the morning that the gourd was actually a skull. However, "Biography of Uisang from the country of Silla, [vassal to] Tang," where this anecdote originally appears, does not mention a skull (Muller 303). It is generally believed that the detail of the skull was added later to make the story more dramatic.

cannot be comprehensively addressed through the concept of a material turn alone.

### III. Wordsworth at a Crossroads: The Simplon Pass Episode

*The Prelude*, subtitled *Growth of a Poet's Mind*, is an autobiographical lyric poem that traces Wordsworth's development as a poet, functioning as a poetic bildungsroman. Originally completed in thirteen books, the poem includes the Simplon Pass episode at the end of Book 6. Books 1 to 6 address Wordsworth's formative years, from childhood through his time at Cambridge, while Books 7 to 13 explore his post-graduation experiences, including his time in industrial London and revolutionary Paris. The Simplon Pass episode, positioned between these early and later phases, marks a crucial transition in Wordsworth's journey from "a stripling" (6: 693) to a more seasoned poet. This shift signifies a profound change in perception, where the mind redefines its relationship with the material world, moving beyond conventional viewpoints.

The Simplon Pass episode depicts Wordsworth's experience in the Alps while a student at Cambridge University. At Cambridge, he was introduced to new disciplines such as geometry and Newtonian science (6: 110–187). Amid pondering his personal aspirations as a poet and the professional expectations surrounding him, he undertook this Alpine journey. The exploration of his educational path and his Alpine ascent are sequentially connected, reflecting his contempl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 and poetry,

and, more broadly, between science and poetry. The Alps, revered for their grandeur, symbolize a majestic quest for a higher purpose in life. Wordsworth's journey through the mountainous terrain represents his search to reconcile the two distinct paths and dedicate his passion to the right one.

Wordsworth begins his journey in Calais, France, and traverses the Alpine peaks via the Simplon Pass. However, during his passage through the pass, he becomes distracted, loses his way, and is separated from his group. After wandering for some time, he encounters a local farmer, who informs him, to Wordsworth's surprise, that he has already crossed the mountain peaks. Despite being near, or even in the middle of, the majestic scenery he had been anticipating, it turns out that Wordsworth failed to recognize its grandeur. This experience leads the poet to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imagination, which he articulates as follows:

Imagination!—lifting up itself  
Before the eye and progress of my Song  
Like an unfather'd vapour; here that Power  
In all the might of its endowments, came  
Athwart me; I was lost as in a cloud,  
Halted without a struggle to break through,  
And now recovering to my Soul I say  
I recognize thy glory; in such strength  
Of usurpation, in such visitings  
Of awful promise, when the light of sense  
Goes out in flashes that have shewn to us  
The invisible world, doth Greatness make abode  
There harbours whether we be young or old,  
Our destiny, our nature, and our home

Is with infinitude, . . . (6: 525-39)

The fact that the poet unknowingly crossed the summit of grandeur he had been so eagerly anticipating is an apt example of the separation between mind and matter. This suggests that the symbolic meanings humans project onto nature are fictitious, separating nature as a material entity that does not correspond with the mind. As the poet calls it “an unfathered vapour,” imagination is cast into doubt and faces a kind of castration threat. It's akin to a child discovering that a cherished doll, when broken, is merely a piece of plastic. Thus, the poet, feeling “lost as in a cloud, / Halted without a struggle to break through,” stands still, unable to move forward.

However, paradoxically, in this scenario whereby nature's materiality is exposed, the poet instead discerns the “glory” of imagination. At the moment of revealing its own lack of a foundation, imagination becomes something even greater. This paradox illustrates well Wordsworth's unique approach in addressing nature's materiality. Geoffrey Hartman, a prominent Wordsworth critic, elucidated the connection between nature and imagination in the Simplon Pass section, asserting that “Wordsworth does not adhere to nature because of natural facts, but despite [them] and because of human and poetic fact” (48). In Hartman's idiom, Wordsworth's imagination transcends nature “via naturaliter negativa” (48), that is, by using its materiality as a stepping stone. While Hartman's interpretation has become controversial among post-modernists due to its transcendentalist logic,<sup>7)</sup> I consider the paradoxical reasoning he

---

7) Paul de Man addresses Hartman's criticism in his *Romanticism and*

employs crucial for understanding the principles of Romantic imagination in relation to nature's material essence.

In the subsequent lines, Wordsworth asserts that imagination reveals its greatness “when the light of sense / Goes out in flashes that have shewn to us / The invisible world.” In essence, imagination demonstrates its power by revealing an infinite world after sensory perception dims. This means that when nature's materiality is exposed to him in the Alps, imagination operates independently of these physical conditions and acts with subjective agency. In a similar vein, a child loves a doll not because he or she believes it is real but out of his or her own choice, despite knowing it is nothing more than a piece of plastic. This kind of love is not a conventional love but a subjective act of loving according to one's own will. Because imagination surpasses material constraints and operates in accordance with human will, as the poet says, “Our destiny, our nature, and our home, / Is with infinitude.”<sup>8)</sup>

Now, whether the imagination, as it operates subjectively toward nature, should be labeled as idealistic and correlational must be further examined. This is because, during the ascent of the Simplon Pass, imagination itself bifurcates into two types. Before setting out on his journey, the poet imagines the Alps as something majestic. In reality, the Alps have no inherent meaning; they gain symbolic significance only because humans project their self-reflective images onto them, creating a correlation between nature and humanity. At

---

*Contemporary Criticism: The Gausee Seminar and Other Essays.*

8) I have explored a similar argument in a different paper, where I connected it with the concept of the uncanny (Sohn 2022).



this stage, the poet's imagination does not distinguish between the Alps' physical reality and their symbolism; there is no gap between the two. Fixing an object onto a single symbolic meaning causes the symbolism to become rigid and conventional. At this juncture, it is challenging to classify the process as imagination, as it conforms to a fixed correspondence between object and symbolism rather than exhibiting imaginative creativity. Nonetheless, it will continue to be referred to as such because, ultimately, all symbolism is a product of the imaginative process.

However, after the ascent, the poet's imagination becomes entangled with a division between the Alps' physical aspects and symbolic meanings. This division calls into question the reality of symbolism. In the Romantic era, imagination operates amid this division and doubt. One 'imagines' because reality seems hollow and uncertain; there is no need to imagine when the world around one feels fulfilling. Traditionally, these two types of imagination have been categorized as either conventional or creative. However, in this context, they can be understood as either rejecting or embracing nature's material aspects. The former avoids engaging directly with nature's physicality to preserve symbolic significance whereas the latter is firmly grounded in materialism, recognizing nature's material aspects while surpassing them. Imagining beyond material conditions does not mean sublimating into pure spirit; rather, it denotes imagining despite material conditions for the sake of human love. Furthermore, for this imagination to remain creative, it must be strongly supported by a materialistic attitude that questions symbolic validity. When Wordsworth says he is no longer a "stripling" after

ascending the Alps, he implies that imagination, in this sense, is related to a mature subjectivity, one that is grounded in a recognition of material reality.

## IV. Two Eastern Literary Figures at the Crossroads

### i. Li Bai, a Chinese Tang Dynasty Poet

Li Bai, one of China's most famous Tang Dynasty poets, is well-known for his use of drunkenness as a poetic motif. For instance, in the fourth poem of his tetralogy entitled “Drinking Alone under the Moon,” the poet initially laments that although his sorrows are boundless, he has only three hundred cups of wine (端窮愁千萬, 美酒三百杯). Yet, he finds solace in drunkenness, reflecting that “the sage of wine [the poet] knows that when the wine flows freely, the heart naturally opens (所以知酒聖, 酒感心自開).” Here, wine opens the poet's mind to the natural world, allowing him to “be intoxicated [by nature] on the high terrace under the moon (乘月醉高臺).” Drinking thus acts as a pretense to unleash his anthropomorphic imagination on nature. This interplay between drinking and imagination is a recurring theme in East Asian literature,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a genre known as “wine poetry.”

However, the notion that imagination requires a pretense suggests that it struggles to function without one. In other words, the poet's acute awareness of the Wordsworthian “unfathered” nature of imagination necessitates a mask or pretense. This symbolic gap

between mind and matter is a defining characteristic of Eastern lyric poetry. In the first poem of the tetralogy, Li Bai, much like Wordsworth, consciously dramatizes this symbolic gap but resolves it in his own distinctive manner:

Among the blossoms waits a jug of wine.	花間一壺酒，
I pour myself a drink, no loved one near.	舉杯邀明月，
Raising my cup, I invite the bright moon,	獨酌無相親。
and turn to my shadow. We are now three.	對影成三人。
But the moon doesn't understand drinking,	月既不解飲，
and my shadow follows my body like a slave.	影徒隨我身。
For a time moon and shadow will be my companions,	暫伴月將影，
a passing joy that should last through the spring.	行樂須及春。
I sing and the moon just wavers in the sky;	我歌月徘徊，
I dance and my shadow whips around like mad.	我舞影零亂。
While lucid still, we have such fun together!	醒時同交歡，
But stumbling drunk, each staggers off alone.	醉後各分散。
Bound forever, relentless we roam:	永結無情遊，
Reunited at last on the distant river of stars. <sup>9)</sup>	相期邈雲漢。

In the initial part of the poem, the poet, alone without friends to drink with, invites the moon and his shadow as his companions. One may be tempted to interpret this as a typical instance of anthropomorphism. However, I argue that the poet is fully aware that he is projecting his own personal emotions onto mere material objects, thereby acknowledging that they neither understand drinking nor accompany the poet of their own volition. The poet dramatizes the split in symbolism, as if confessing to a repressed self-knowledge. Thus, the

---

9) The translation is David Bowles' at <https://davidbowles.us/poetry/drinking-alone-under-the-moon-by-li-bai/>

unfathered nature of imagination reveals itself to Li Bai not as a sudden revelation but as a significant, inherent truth of poetry. Yet again, like Wordsworth, Li Bai takes a paradoxical stance toward imagination; that is, the poet, under the condition that it be a temporary “passing joy,” pushes through the imaginative companionship for a short while, at least during the blooming season of spring.

However, while Li Bai acknowledges the inherent split in poetic symbolism, he crucially diverges from Wordsworth in that he does not seek to move beyond this crossroads. When he states, “While lucid still, we have such fun together! / But stumbling drunk, each staggers off alone,” Li Bai embraces the oscillation between poetry and knowledge, following the rhythm of sobering up and getting drunk. Similar to the poetic narrator, Eben Flood, in Edwin Arlington Robinson's “Mr. Flood's Party,” who reflects on his life's happiness and loneliness following the ebb and flow of the tides, Li Bai's poetry is a characteristic mix of melancholy and revelry when confronting nature's materiality. This duality is then reaffirmed in the final part of the poem through expressing regret about mortality and the solace rediscovered in the afterlife, when one is re-unified with nature.

Consequently, what ultimately distinguishes Li Bai from Wordsworth is that, for him, life becomes a form of play characterized by its repetitive nature. At the crossroads, the poet desires freedom to move in any direction, akin to play, rather than committing to a single path. This movement is repetitive but not mechanical, and its extent reflects the poet's poetic magnanimity. Just as the poet envisions a reunion in the afterlife, imagination can extend into the infinite,

depending on its scope of movement. Nevertheless, this infinity does not signify transcendence beyond nature; rather, it represents a return to the original nature with potential for rebirth. Infinity, in this context, is not a destination achieved through linear progress, but a state realized through constant repetition, perpetually linking one individual to another, despite each entity's limitations. Li Bai's imagination, or "the mind" as he calls it, is deeply materialistic and object-oriented, acknowledging humans as fundamentally part of the objective natural order. It also holds strong ethical significance, enabling the poet to reflect on life as a play constrained by material limits. However, it remains challenging to eliminate anthropomorphic elements from Li Bai's imagination; moreover, given the poem's focus on repetitive cycles, his imagination does not seek to advance scientific or material progress.

## ii. Wonhyo, a Korean Monk and Poet

Wonhyo was a prominent monk and poet from the ancient Korean kingdom of Silla in the seventh century. He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shaping Eastern Buddhist doctrines through his commentaries on key scriptures; these include *Commentary on the Awakening of Faith in the Mahayana* (『大乘起信論疏別記』) and the *Exposition of the Diamond Samadhi Sutra* (『金剛三昧經論』). Scholars often consider his philosophical stance as having been crystallized through a pivotal experience at a crossroads.

In his youth, Wonhyo traveled to China to study under the Tang Dynasty, accompanied by a fellow monk, Uisang. One day, they

reached a river and, due to a storm, sought shelter overnight in a nearby cave. The following morning, they discovered that the cave was in fact a ruined tomb. Having mistaken the tomb for a cave, they spent the night there in peace. Since the weather remained unfavorable, they decided to stay another night in the same location. As night fell, however, a ghost appeared and tormented Wonhyo (Muller 303). This experience, in which the same place elicited two contrasting reactions based on his state of mind, vividly illustrates the symbolic gap between the mind and the world.

This is how Wonhyo speaks of the situation:

From this one can understand that it is because a thought arises that the myriad dharmas<sup>10)</sup> arises. If thought subsides, then the shrine and the tomb are no different. Thus the three worlds are merely mind, the myriad dharmas are only consciousness. Outside the mind there are no dharmas, there is no use in searching else. I will not go to Tang. (生故種種法生 心滅故龕墳不二 又 三界唯心萬法唯識 心外無法故用別求, Muller 303)

When we are not consciously focusing on it, even a grave can seem peaceful. However, once we begin to contemplate it, the reality that it is a grave generates concern and unease. Similarly, when the mind becomes active, various distinctions and discriminations emerge; but when the mind ceases its activity, these distinctions dissolve. The mind is thus the source of worry and discrimination. However, Wonhyo does not advocate for suppressing the mind to eliminate worries. Instead, he asserts that “outside the mind, there are no

---

10) In Buddhist philosophy, dharmas are fundamental elements or phenomena that constitute the fabric of reality.

dharmas,” meaning that the mind is the fundamental principle underlying the world. At a crossroads, Wonhyo, like Wordsworth and Li Bai, prioritizes the mind over empirical materiality, but unlike them, he does so because of the mind's autonomy, rather than despite its “unfathered” nature. Wonhyo refers to this mind as the “one mind,” signifying that it is the singular substance from which all phenomena arise. In this regard, Wonhyo appears to be an idealist.

The paradox of the “one mind” is that when Wonhyo asserts that there are no dharmas apart from the mind, he implies that there is no mind independent of dharmas. As long as we use our minds, we will always and inevitably be subject to distinctions and differences. According to Wonhyo, “The essence of this one mind is original enlightenment, but it operates according to ignorance (無明), resulting in birth and death” (Wonhyo 2000, 86–87). Although the universal law is uniform, our ignorance leads to the emergence of various distinctions. These distinctions, originating from the one mind, are fundamentally arbitrary and can transform into new relationships at any time. Thus, we should navigate through these differences without attachment, following the path of “no hindrance”(無碍), just as Wonhyo describes:

. . . the constant mind changes following the conditions of ignorance to create an impermanent mind, yet its constancy remains unchanged; similarly, the one mind changes to generate myriad minds of ordinary beings according to the ties of ignorance, but this one mind always remains undivided. (如說常心隨無明緣戀作無常之心 而其常性恆自不變 如是一心隨無明緣戀作多衆生心 而其一心常自無二, Wonhyo 1992, 131)

The true nature of existence is described as “one mind,” but due to

ignorance, myriad distorted distinctions arise. The one mind remains constant, yet because we do not realize it, it produces numerous differentiated minds of mundane beings according to worldly ties. Enlightenment is not about distinguishing between two things and discarding one; it's about understanding that, despite things appearing to be different, they are fundamentally one. Hyung-hyo Kim interprets this paradox as “a mode of existence where differences coexist in both harmony and antagonism” (H. Kim 68). In other words, the notion that the mind is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existence does not endorse a transcendental idealism but rather challenges it. Ideas are merely temporary phenomena created by the mind out of ignorance, whereas enlightenment provides the means to attain liberation from those illusory ideas.

To clarify, Wonhyo's concept of enlightenment should not be understood as an escape into spiritual hedonism, a critique Žižek addresses in his analysis of Westernized Buddhism (Žižek 2001). Nor does it represent a form of skepticism that avoids making distinctions. Instead, as Wonhyo asserts, “While departing from extremes and not residing at the center, [the enlightened mind] encompasses all principles of existence and non-existence, and fully covers the nuances of affirmation and negation” (Wonhyo 2000, 19). Thus, liberation involves freely moving amid all distinctions without being confined to any singular viewpoint. For instance, following his transformative experience at the grave, Wonhyo abandoned Confucian studies and returned to Silla, leading a nomadic life reminiscent of a poet. During this time, he focused on writing and teaching, referring to himself as a “humble layperson” (小姓居士) and engaged in public education



through performances and casual discussions while traveling through villages. Though Wonhyo's approach to enlightenment differs from Li Bai's method of intoxication, both shared a free-spirited, wandering poet's lifestyle. Ultimately, Wonhyo's doctrine of the one mind is non-transcendental and object-centered, aiming for the unity of objects and self (物我一體). This is done, as he proposed, by rejecting distinctions between self and others. It should be noted, however, that his work does not anticipate scientific materialism, as it does not recognize the independence of material entities separate from the mind.

## V. Wordsworth, Li Bai, and Wonhyo and Science

In this paper's epigraph, the poet initially refers to an object as “it,” then as “a [ . . . ] gesture,” and finally as “a flower.” Notice the progression: “it” transitions to “a flower” through the phase of “a gesture.” Although the poet downplays the intermediate phase as “a mere gesture” to emphasize the final product of his poetic calling, he understands that for “it” to become “a flower,” “it” must pass through the phase (one of potentiality) of “a gesture.” The poet must perceive the object as something in a state of activity or becoming before it can be meaningfully symbolized. This idea is later clarified when “a gesture” is emphatically rephrased as “an unforgettable glance.” For the poet, an object is not merely represented in two stages but rather in three distinct phases: first, a material “it”; then a “gesture,” which contains the potentiality for transformation; and then a symbolic

“flower.” Now, to provide a comprehensive review before discus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Wordsworth's poetry and science, I will synthesize my previous analyses of the works of Wordsworth, Li Bai, and Wonhyo, focusing on the evolution of these three phases in each instance.

First, regarding Wordsworth, his experience in the Alps represents a dramatic encounter with nature's materiality. Despite this, powered by “such visitings / Of awful promise,” he pursues the symbolism of a flower, thus leaping over its material nature. However, he seeks a symbolism that is no longer collective and conventional but one of “the invisible world” discovered within the poet's own self. This is possible because imagination awakens nature as a gesture, offering possibilities for new symbols. It serves primarily to awaken these possibilities. Once “a gesture” becomes fixed as “a flower,” imagination is no longer considered creative. Thus, for Wordsworth, imagination traverses the three stages of the material, the potential, and the symbolic, with a focus on the potential in preparation for new symbolic leaps.

Li Bai's approach also involves a leap, but one between “it” and “a gesture.” He does not allow for the flower-like symbolism of nature. This might seem contradictory, considering Li Bai's anthropomorphic imagination, which appears to project humanistic meanings onto nature. However, he maintains an awareness of nature's materiality as a poetic background for such symbolism. Li Bai's imagination should be seen as moving between “it” and “a gesture,” with symbolism playfully gestured toward rather than actively pursued by the poet.

Wonhyo, unique among the three, is open to both materiality and symbolism but remains in the “gesture” phase to avoid being confined by either. He engages with both the material aspects of things and their symbolic meanings but does not become attached to either, choosing instead to dwell in the equilibrium of potential gestures.

Therefore, when comparing Wordsworth to figures like Li Bai and Wonhyo, we notice his distinctive tendency to leap toward symbolism. By using images such as “lifting up,” “power,” and “usurpation,” Wordsworth presents imagination as a symbolically controlling mode of mind over nature. Yet, this approach does not confine nature to a single symbol but instead opens it to the potential for endless new symbols. While Wonhyo remains passive regarding the numerous forms the mind can take, Wordsworth, by comparing imagination to “vapour,” promotes the mind's ability to take limitless shapes. It is through this imaginative lens that Wordsworth interprets the relationship between poetry and science.

In his Preface to *Lyrical Ballads*, the first collection of his poems, Wordsworth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poetry and science at considerable length. He essentially asserts that both poets and scientists engage in dialogue with nature to uncover knowledge, claiming that “The knowledge both of the Poet and the Man of science is pleasure” (8). Thus, according to Wordsworth, poets and scientists are united in their pursuit of pleasurable knowledge. However, he differentiates between the aspects of nature they each engage with: poets interact with “general nature,” whereas scientists focus on “those particular parts of nature” (11). This distinction results in different types of knowledge for each. As Wordsworth explains:

. . . but the knowledge of [the Poet] cleaves to us as a necessary part of our existence, our natural and unalienable inheritance; the other is a personal and individual acquisition, slow to come to us, and by no habitual and direct sympathy connecting us with our fellow-beings. The Man of science seeks truth as a remote and unknown benefactor; [. . . ] Poetry is the breath and finer spirit of all knowledge; it is the impassioned expression which is in the countenance of all Science. (8)

Expanding on the previously noted distinction between the “general” nature of poetry and the “particular” nature of science, Wordsworth characterizes poetic knowledge as “necessary” and “natural and unalienable,” while describing scientific knowledge as “personal and individual,” “[un]habitual and [in]direct,” and “remote and unknown.” Despite some ambiguities, his frequent use of similar descriptors implies that, for him, poetry and science differ in how closely the knowledge they confer is linked to the human experience. If science, in its particularity, separates knowledge from human experience, then poetry conveys knowledge more closely aligned with human nature. Consequently, the “general” aspect of poetry is often seen as having an exclusive superiority over science’s “particularity.” For instance, if science may be viewed as dehumanizing, then poetry can be considered, so to speak, as humanizing. The statement, “Poetry is the breath and finer spirit of knowledge,” appears to support this anti-scientific view.

However, as seen in the following passage, poetry’s superiority over science renders such an interpretation meaningless. As Wordsworth wrote:

If the labours of Men of science should ever create any

materialrevolution, [. . .], the Poet [. . .] will be ready to follow the steps of the Man of science, [. . .] carrying sensation into the midst of the objects of the science itself. The remotest discoveries of the Chemist, the Botanist, or Mineralogist, will be as proper objects of the Poet's art as any upon which it can be employed, if the time should ever come when these things shall be familiar to us, and the relations under which they are contemplated by the followers of these respective sciences shall be manifestly and palpably material to us as enjoying and suffering beings. If the time should ever come when what is now called science, thus familiarised to men, shall be ready to put on, as it were, a form of flesh and blood, the Poet will lend his divine spirit to aid the transfiguration, and will welcome the Being thus produced as a dear and genuine inmate of the household of man, (9)

Here, Wordsworth clearly states that poetry is a companion to the scientific revolution. In this context, poetry's role is to restore to science the materiality and sensory aspects of things. This statement may appear unusual as science is generally seen as materialistic and poetry as humanistic and spiritual. However, in the Wordsworthian view, poetry brings materiality back to science. The resolution to this paradox lies in Wordsworth's belief that both the poet and the scientist, through their dialogues with nature, discover knowledge; essentially, poetry and science help each other to integrate nature into the realm of symbolic meaning and representational order. Alfred N. Whitehead's idea of a "widespread instinctive conviction in the existence of An Order of Things" (5) within Western culture is clearly reflected in Wordsworth's view of science and poetry. Wordsworth contends that when science, by focusing on specific articles of knowledge, starts to lose its appreciation for nature's material nature, poetry steps in to restore this material sensitivity. Building on this

perspective, Amanda J. Goldstein suggests that “the aim of poetic attunement to ‘human nature’ in this area of the ‘Preface’ is less to isolate what is essentially human or to naturalize poetic craft than to keep increasingly ‘remote’ men of science and pretentiously ‘celestial’ poets in physical contact with other natures” (11). It is thus clear that a material turn certainly takes place in Romantic poetry.

However, it is important to distinguish that the materiality emphasized here, despite the word “material” directly used, refers to the materiality of “a gesture” rather than that of “it.” The idea that poetry restores material sensitivity to science suggests that as scientific knowledge becomes more particularized and disconnected from human experience, thereby reducing nature to inert matter, poetry works to reawaken in the scientist a more vivid sensory perception of things, which is essential for scientific observation. As Wordsworth writes elsewhere, through poetry “are multiplied / The spiritual Presences of absent Things” (“Excursion,” 6: 1233–34). Referring to an object's three phases, if science moves from “it” to “a flower,” then poetry helps rediscover “it” as “a gesture,” or more dynamically, as “an unforgettable glance.” By revitalizing nature as something with symbolic potential, poetry helps expand science's particularity into universality. Thus, poetry is always ready to make a material revolution with science. It can therefore be said that Romantic poetry engages with science not through a material turn but through imagination.

## V. Conclusion

By comparing Wordsworth's poetic engagement with the materiality of objects with the perspectives of Eastern literary figures like Li Bai and Wonhyo, we can draw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ly, the materiality of objects is both prevalent in and intrinsic to poetry. Not only is this characteristic foregrounded in lyrical poetry but it is also a potential element of all self-reflective art. Scholars' recent focus on objects' materiality is a cultural counterbalance to the Western tradition of mythic symbolism, which projects a highly unifying symbolism onto external objects.

Secondly, an excessive self-awareness of the materiality of the world can lead to self-centered anthropomorphism or an object-like equilibrium of spiritual subjectivity. Both Li Bai and Wonhyo maintain a delicate balance between the material world and subjective agency through their remarkable imagination and logic. However, if such imagination and logic were to become popularized, they could potentially result in a distorted idealism, akin to the possibility of egoistic distortion in the Wordsworthian imagination.

The third conclusion one can draw i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Romantic poetry and science is established not through materialism but through imagination. Although imagination is often universally considered the highest virtue in the humanities, the recognition is distinctly modern and Western, emerging prominently during the modern Romantic era. In the East, as Li Bai's and Wonhyo's works testify, poetic sensibility is regarded as "mind" rather than "imagination." In the West, broadly speaking, different eras valued

distinct mental faculties: imitation in Classical Greece, human nature during the Renaissance, and reason in the Enlightenment and Neoclassical era. The rise of imagination in the Romantic period signifies that imagination is the form of mental activity that best corresponds to the spirit of science. As the materiality of nature became more pronounced in the broader culture, it was imagination, rather than reason or faith, that was called upon to envision human love. Today, if the challenge for the mind is to respond to scientific materialism, a renewed focus on imagination—rather than a material turn—is required.

(Sungkyul Univ.)

### ■ Key words

Materiality, William Wordsworth, Li Bai, Wonhyo, Imagination



## ■ Works Cited

- Bennett, Jane. *Vibrant Matter: A Political Ecology of Things*. Durham: Duke UP, 2010.
- Bryant, Levi R. "The Ontic Principle: Outline of an Object-Oriented Ontology." *The Speculative Turn: Continental Materialism and Realism*. Eds. Levi Bryant et al. Melbourne: re.press, 2011. 261-278.
- Cole, Andrew. "Those Obscure Objects of Desire: The Uses and Abuses of Object-Oriented Ontology and Speculative Realism." *Artforum International*, 53/10 (2015): 319-323.
- Coleridge, Samuel T. *Biographia Literaria*. Ed. Adam Roberts. Edinburgh: Edinburgh UP, 2014.  
<[https://web.english.upenn.edu/~cavitch/pdf-library/Coleridge\\_Biographia\\_Literaria.pdf](https://web.english.upenn.edu/~cavitch/pdf-library/Coleridge_Biographia_Literaria.pdf)>
- de Man, Paul. *Romanticism and Contemporary Criticism: The Gauss Seminar and Other Papers*. Eds. E. S. Burt et al. Baltimore: Johns Hopkins UP, 1993.
- Galilei, Galileo. *Dialogue Concerning the Two Chief World Systems—Ptolemaic & Copernican*. 1632. Trans. Stillman Drake. Frd. Albert Einstein. Berkeley: U of California P, 1967.
- \_\_\_\_\_. *Sidereus Nuncius, or, The Sidereal Messenger*. 1610. Trans. Albert Van Helden. Chicago: U of Chicago P, 1989.
- Goldstein, Amanda Jo. *Sweet Science: Romantic Materialism and the New Logics of Life*. Chicago: U of Chicago P, 2017.
- Gootlieb, Evan. "Seeing into the Life of Things: Re-Viewing Early

- Wordsworth through Object-Oriented Philosophy.” *Beyond Sense and Sensibility: Moral Formation and the Literary Imagination from Johnson to Wordsworth*, Ed. Peggy Thompson, Lewisburg, PA: Bucknell UP, 2015. 145-162.
- Hartman, Geoffrey H. *Wordsworth's Poetry: 1787-1814*. New Haven: Yale UP, 1964.
- Jacobus, Mary. *Romantic Things: a Tree, a Rock, a Cloud*. Chicago and London: U of Chicago P, 2012.
- Kim, Chun-soo. “Flower.” *Flower: A Representative Poetry Collection by Chun-soo Kim*, Seoul: Chazeulmoh, 1999.  
[김춘수. “꽃.” 『꽃: 김춘수 대표시집』. 서울: 찾을모, 1999]
- Kim, Hyung-hyo. *Wonhyo's Mahayana Philosophy*. Seoul: Sonamu, 2006.  
[김형효. 『원효의 대승철학』. 서울: 소나무, 2006.]
- Kim, Sang-hwan. *The Formation of the Modern Worldview: Descartes and Hegel*. Seoul: Epiphany, 2018.  
[김상환. 『근대적 세계관의 형성: 데카르트와 헤겔』. 서울: 에피파니, 2018.]
- Li Bai. *The Collected Poems of Li Bai*, Trans & Annot. Young-joo Lee et al. Seoul: Hakgobang, 2019.  
[이백. 『이태백시집』. 이영주 등 역주. 서울: 학고방, 2019.]
- \_\_\_\_\_. “Drinking Alone under the Moon.” *The First Poem*, Trans. David Bowles.  
<<https://davidbowles.us/poetry/drinking-alone-under-the-moon-by-li-bai/>>
- Meillassoux, Quentin. *After Finitude: An Essay on the Necessity of Contingency*. New York: Continuum, 2008.

- Morton, Tomothy. "Here Comes Everything: Promise of Object-Oriented Ontology." *Qui Parle*. 19/2 (2011): 163-190.
- Muller, A Charles. Ed. *Wonhyo: Selected Works*. Trans. A. Charles Muller et al. Paju: Chun-il Munhwasa, 2012.
- Podkay, Adam. "Wordsworth and the Ethics of Things." *PMLA*. 123/2 (2008): 390-404.
- Snow, C. P. *The Two Cultures*, 1959. Intro. Stefan Collini. Cambridge: Cambridge UP, 1998.
- Sohn, Hyun. "A Review on Science in Romanticism for Convergence Studies: Wordsworth, the Uncanny, Imagination." *Inmunkwahakyeonku*. 46/1 (2022): 189-225.  
[손현. 「융합론적 관점에서 낭만적 과학관 재고하기 -워즈워스, 언캐니, 상상력-」. 『인문과학연구』. 46/1 (2022): 189-225.]
- \_\_\_\_\_. "Moon Science and Moon Gender: The Romantic Transformation of the Feminine Myth of the Moon and the Euthanasia of Scienc." *Yongbong Journal of Humanities*. 57 (2020): 69-107.  
[손현. 「달의 과학, 달의 젠더 -달에 관한 여성 신화의낭만적 변용과 과학의 안락사」. 『용봉인문논총』. 57 (2020): 69-107.]
- Whitehead, Alfred North. *Science and the Modern World*. New York: The Free Press, 1967.
- Wonhyo. *Commentary on the Awakening of Faith in the Mahayana*. Trans. Eun Jeonghui. Seoul: Iljisa, 1992.  
[원효. 『대승기신론 소·별기』(大乘起信論疏別記). 은정희 역주. 서울: 일지사, 1992.]
- \_\_\_\_\_. *Exposition of the Diamond Samadhi Sutra*. Trans & Annot. Eun Jeonghui and Song Jinhyeon. Seoul: Iljisa, 2000.

[원효. 『금강삼매경론』(金剛三昧經論). 은정희, 송진현 역주. 서울: 일지사, 2000. ]

Wordsworth, William. *The Prelude: 1799, 1805, 1850*. Eds. Jonathan Wordsworth et al. New York: W. W. Norton, 1979.

\_\_\_\_\_. “The Excursion.” *The Poetical Works of Wordsworth*, Ed. Thomas Hutchinson and Ernest de Selincourt. London: Oxford UP, 1981. 589–698.

\_\_\_\_\_. “Preface to Lyrical Ballads.”

<[https://viscomi.sites.oasis.unc.edu/viscomi/coursepack/words-worth/Wordsworth-1800\\_LB\\_Preface.pdf](https://viscomi.sites.oasis.unc.edu/viscomi/coursepack/words-worth/Wordsworth-1800_LB_Preface.pdf)>

Žižek, Slavoj. “From Western Marxism to Western Buddhism: The Taoist Ethic and the Spirit of Global Capitalism.” *Cabinet*. Iss. 2 (2001).

< <https://www.cabinetmagazine.org/issues/2/zizek.php>>

\_\_\_\_\_. “Interview: Slavoj Žižek and Ben Woodland.” *The Speculative Turn: Continental Materialism and Realism*. Eds. Levi R. Bryant et al. Melbourne: re.press, 2011. 406–414.

■ Abstract

## The Materiality of Objects in Poetry and Science:

### William Wordsworth at a Crossroads, a Cross-Cultural Study

Sohn, Hyun

(Sungkyul Univ.)

This essay explores the interplay between poetry and science, focusing on the materiality of objects by comparing the works of William Wordsworth and Eastern literary figures such as Li Bai and Wonhyo. In doing so, this study underscores unique Wordsworthian distinctions. The analysis begins by discussing the lyrical turn in Romantic literature, where the mind acknowledges its separation from matter and embarks on its own path of spiritual exploration. Using Wordsworth's "Simplon Pass" episode from *The Prelude* as a case study, the paper illustrates his transition from youthful naivety to mature subjectivity, rooted in an awareness of material reality. The paper contrasts this episode with Li Bai's "Drinking Alone Under the Moon" tetralogy and Wonhyo's "Tomb Anecdote," highlighting the cultural differences in their engagement with materiality and imagination. Through this analysis, this essay demonstrates three important points. First, through the lyrical turn, objects' materiality is internalized in Romantic poetry; second, that Wordsworth's uniquely employs imagination to transform nature's materiality not directly into

symbolic meaning but rather into a phase of potentiality for symbolism, thereby bridging the gap between the particular knowledge of science and the universal human experience. Finally, the analysis reveals that imagination needs to be reevaluated by literary critics for a renewed collaboration between science and poetry.

### ■ Key words

Materiality, William Wordsworth, Li Bai, Wonhyo, Imagination

### ■ 논문게재일

○투고일: 2024년 7월 31일 ○심사일: 2024년 8월 9일 ○게재일: 2024년 8월 13일

# 해롤드 핀터의 *The Lover*에 나타나는 억압과 통합에 관한 연구 : 프로이트 이론을 중심으로\*

신희원\*\*

## I. 서론

해롤드 핀터(Harold Pinter, 1930~2008)의 『연인』(*The Lover*, 1962)은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단조로운 일부일처제의 삶에 권태를 느낀 부부가 합법적인 선에서 결혼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서로가 불륜 상대로서의 새로운 자아를 형성하여 간통의 형식으로 활력과 긴장감을 유발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극의 전개 상황과 인물들의 행위에 ‘왜?’라는 개연성이나 행동 동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 존 러셀 테일러(John Russell Taylor)가 지적하고 있듯이,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남는다(351).

본 극에 대한 다양한 접근들 중에서도, 동일 인물들이 부부가 되기도 하고 연인이 되기도 하는 상황에서 한 인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속성에 초점을 두는 해석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표적으로 월터 커(Walter Kerr)나 테일러처럼 인간 존재의 불가지 혹은, 비고정성에 대해 논하며 인간은 고정된 범주가 아니라 유동적인 존재라는 실존주의적 비평들이 있다. 여성은 본질적으로 아내이거나 창녀 둘 중 하나가 아니라, 잠재적으로

\* 이 논문은 장안대학교 2024학년도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장안대학교 조교수, koshka@jangan.ac.kr

둘 중 하나이거나 동시에 둘 다이고, 남편 리처드(Richard) 역시 두 개의 개별적인 정체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된 논지이다.

‘실존은 본질을 앞선다’는 실존주의 철학의 핵심으로 이 극에 접근하며 두 인물이 본질을 규정해 가는 양상으로 이 극을 읽어내는 것도 설득력을 얻을 수는 있으나, 필자는 부부와 연인이라는 관계 속 인물들의 양상 이면에 사회적 억압의 힘이 작동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따라서, 억압에 주목하는 정신분석을 분석틀로 활용하여 이 극에 천착하고자 한다. 대표적인 정신분석적 선행 연구들에는 부부가 자신들의 갈망을 충족하기 위해 환상을 실현하는 꿈으로 접근하는 루시나 파켓 개바드(Lucina Paquet Gabbard)의 분석이 있으며, 자신의 어두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회의 고정적 틀로부터 환상이라는 지하 세계로 도망치는 인간을 다룬다는 압둘라지즈 알랍둘라(Abdulaziz H. Alabdullah)의 해석이 있다. 핀터 비평의 대가인 마틴 에슬린(Martin Esslin)은 부부의 에로틱한 환상이 부부의 현실 속 삶을 장악한다는 분석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위 연구들과는 차별적으로 정신분석의 창시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의 이론을 중심으로 억압 기제로서의 문명과 그로 인한 인물들의 신경증적 증상들, 그들의 오후 밀회의 정신분석적 의미, 그리고 결말에서 도출되는 통합적 존재에 관해 중점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이 분석을 통해 난해한 핀터 극에 대한 이해의 지평이 확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II. 부부 VS 연인

극은 십 년 차 부부의 일상적인 아침으로 시작한다. 고상하면서도 편안하게 꾸며진 거실에서 산뜻하고 얌전한 드레스를 입은 아내 사라(Sarah)가 재떨이를 비우고 집안의 먼지를 털고 있다. 가정적이고 정숙한 이미지



이다. 출근하면서 아내에게 다정하게 키스하는 남편 리처드 역시 단정한 정장 차림에 증산모를 쓰고 서류 가방을 든 점잖은 신사의 모습이다. 그런데, 이 의젓하고 고상한 부부가 아내의 정부에 대해 아무 거리낌도 없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한다.

리처드: (*상냥하게*) 당신 애인 오늘 오나?

사라: 음.

리처드: 몇 시에?

사라: 3시.

리처드: 나갈 거야... 아니면 집에 있을 거야?

사라: 음... 여기 있을 것 같아.

...

리처드: 즐거운 시간 보내.

Richard: (*amiably*.) Is your lover coming today?

Sarah: Mmmn.

Richard: What time?

Sarah: Three.

Richard: Will you be going out ... or staying in?

Sarah: Oh ... I think we'll stay in.

...

Richard: Have a pleasant afternoon, (149)<sup>1)</sup>

아내의 정부에 대해 ‘상냥하게’ 묻고 그와 ‘즐거운 시간 보내’라고 축복하는 남편에게도 내연녀가 있어 부부가 상호 용인된 외도를 하고 있음이 드러나는데, 충격적인 부분은 두 사람의 연인이 다름 아닌 당사자들이라는 것이다. 두 사람은 서로의 배우자이면서 동시에 ‘연인’이 되어 불륜을 저지르는 이중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합법적인 부부가 굳이 연인으로 가장해 간통의 형태로 애정 관계를 맺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이 커플

---

1) 본 논문에서 본문 인용은 Pinter, Harold. *Harold Pinter: Plays Two*. London: Faber and Faber, 1996.에 의하며, 이후 괄호 안에 면수만 기재함.

이 부부일 때와 연인일 때의 양상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이 커플은 리처드의 출근 전과 퇴근 후인 아침과 저녁에는 부부로서 생활하고, 오후 시간에는 연인 관계가 된다. 부부일 때는 앞서 묘사한 대로 태도와 차림새가 점잖고 고상하며 서로에게 다정하지만 부부로서의 격식을 유지하며 일정 선을 지키고 있는 느낌이다. 두 사람은 잠자리에 들 때에도 잠옷을 입고 책을 읽는 정적인 밤을 보낸다. 반면에, 연인의 시간이 되면 두 사람의 모습과 태도는 완전히 돌변한다. 아내의 얌전한 드레스는 관능적이고 노출이 심한 드레스로 바뀌고, 점잖은 정장 차림이었던 남편도 넥타이를 매지 않은 세무가죽 재킷 차림이다. 품위 있고 고상했던 그녀는 연인을 기다리는 설렘과 생기로 가득해지며 연인의 허벅지를 더듬는 과감한 유혹자가 되고, 남편 리처드는 그녀의 연인 맥스(Max)가 되어 그녀에게 추파를 던지기도 하고 강제로 추행하는 등 서로 적극적으로 애정 행각을 벌인다. 차이점은 명백해 보인다. 부부일 때는 서로가 품위와 격식을 차리면서 섹스리스(sexless)이지만, 연인일 때는 친밀하고 열정적인 관계가 되어 서로를 에로틱하게 탐닉하고 있는 것이다. 동일인이 부부와 연인이라는 관계 설정 구도에 따라 이토록 달라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 Ⅲ. 억압 기제로서의 문명

정신분석은 인간의 성본능과 억압에 주목한다. 정신분석의 아버지 프로이트는 인간의 성본능이 유아기부터 시작된다고 주장하며 유아기의 도 착적이고 강렬한 성본능이 부모의 교육과 사회의 요구에 의해 억압되는 것으로 인간의 사회화가 시작된다고 설명한다. 문제는 이러한 문명화 교육에 의해 인간의 성본능이 제거되는 것으로 보여도 이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무의식의 심층으로 밀려나는 “실패한 억제”라는 것이다(『문명』 20). 소멸되지 않은 무의식이 위장된 형태로 되돌아오는 것이 “정신 신경증”이

기에(20), 정신분석은 억압을 신경증의 근본적인 기제로 규정한다.

부부 관계일 때와 연인 관계일 때,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는 이 커플이 부부일 때 점잖게 격식을 차리는 모습에서 부부라는 관계가 두 사람에게 강한 억압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동일한 인물들이 부부가 아닌 연인 관계가 되면 부부로서의 격식이나 품위를 모두 벗어던지고 자유로운, 특히 성적으로 자유롭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 그렇다면, 핵심은 부부일 때는 억압이 작동하여 서로 성적 욕망을 표출하지 못하지만, 부부 관계라는 억압적 요소가 사라지면 서로 성적 욕망을 자유롭게 드러내며 쾌락을 탐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부라는 관계에 억압이 작동하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문명에 관한 프로이트의 설명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는 인간의 문화<sup>2)</sup>가 “충동의 억제”에 기반하고 있음<sup>3)</sup>을 전제하며(Gutjahr 재인용 16), 특히 성과 관련해서는 문명이 일부일처제와 합법성을 강요하면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확고한 유대를 바탕으로 한 성관계만을 허용한다고 주장한다(『문명』 293-94). 문명은 성행위 자체가 쾌락의 원천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지금까지는 인류의 번식 수단으로 성행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행위를 용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294). 그래서 결혼이 부부 양쪽에게 성적 쾌락을 단념하고 욕망을 자제하도록 강요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점을 지적한다(32).

문명사회의 성에 대한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태도는 인류의 자연스러운 성본능을 감추고 억눌러야 하는 야만스럽고 동물적인 면으로 치부해 합법적으로 성관계를 승인받은 부부 사이일지라도 성생활을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커플은 자신들의 동물적인 성본능을 충족시키기 위해 부부라는 법적·제도적 구속력이 제거된 자유롭고 흥가분한 관계

2) 프로이트는 문화(Kultur)와 문명이라는 용어를 구분하지 않는다(『문명』 174).

3) 프로이트는 인간의 문화가 “자연력의 지배”와 “인간의 충동 억제”라는 두 개의 버팀목에 의존하고 있다고 본다(Gutjahr 재인용 16).

가 필요했을 것이다. 다만, “품위는 내 결혼에 있어”(The dignity is in my marriage. 157)라는 리처드의 말이 시사하고 있듯이, 두 사람은 상징계가 요구하는 품위 있는 부부로서의 사회적 자아를 지켜내는 것도 중요하기에 연인 관계라는 대안책을 마련한 것이다.

그런데, 두 사람이 연인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 억압은 필연적으로 부작용을 수반하기 마련이다. 인류가 문명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사회화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도착적인 욕망들과 본능들은 무의식의 영역으로 묻히게 되지만, 억압된 것은 회귀하는 정신분석의 원리에 따라 그 무의식과 관련된 자극에 노출될 때마다 증상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합법적인 배우자를 굳이 제도적 구속력이 없는 연인으로 설정해 위법한 불륜의 형태로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것도 억압에서 기인하는 신경증적 증상으로 접근할 수 있다. 두 인물의 내면 심층에 자리한 증상의 무의식적 소인을 분석해 보자.

#### IV. 리처드의 불능

문명사회에서 최우선적으로 터부시되는 성본능은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강력한 근친상간의 욕망이다. 유아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곁에서 젖과 사랑을 주는 어머니의 무한한 애정으로 인해 그녀에 대한 강한 애착심을 갖게 되면서 어머니와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이자관계를 기대하지만, 사회와 규범을 상징하는 ‘아버지’의 개입으로 인해 오이디푸스 갈등을 겪게 되고 결국 아이는 아버지와의 동일시를 선택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근친상간적 욕망을 포기하게 된다. 하지만, 작품 곳곳에서<sup>4)</sup> 여전히 구강

4) 리처드가 퇴근해 와서 바로 “저녁식사”(dinner, 175, 176)를 요구하고, “배가 고프다”(I’m hungry. 176), “거한 점심식사”(heavy lunch, 155) 등과 같이 지속적으로 식사와 “위스키”(whisky, 150, 154), “코코아”(cocoa, 155), “차”(tea, 159) 등을 언급하는 것은 그가 여전히 구강기에 매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기에 매몰되어 있는 것으로 암시되는 리처드는 어머니에게 밀착된 전(前) 오이디푸스적(pre-oedipal) 단계에 머물고 있을 가능성이 제시된다.

우리는 여성을 이분화시키는 그의 여성관을 아래 인용문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여성에 대한 그의 확고한 이분법적인 가치관은 그의 어머니에 대한 고착을 방증한다. 다음과 같이 리처드는 아내 사라를 과도하게 이상화한다.

리처드: 그래, 내 눈에 당신은 매우 아름다워. 당신과 함께 있는 모습을 누가 보면 대단한 긍지를 느껴. 우리가 저녁 먹으러 나갔을 때, 아니면 극장에 갔을 때.

...

대단한 긍지를 느끼지. 내 팔짱을 낀 당신을 내 아내로서 함께 걸을 때. 당신이 미소 짓고, 웃고, 걷고, 말하고, 허리를 굽히고, 가만히 있는 것을 볼 때에. 당신이 일상적인 구절들을 멋지게 구사하고, 최신 관용구를 섬세하게 사용하고, 미묘하게 활용하는 것을 들을 때, 그렇지. 다른 자들의 선망을, 그들이 당신의 환심을 사려고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할 때, 당신이 근엄한 우아함으로 그들을 당황스럽게 할 때. 그리고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인지할 때. 그것은 나에게 심오한 만족감을 주지.

Richard: Yes, I find you very beautiful. I have great pride in being seen with you. When we are out to dinner, or at the theatre.

...

Great pride, to walk with you as my wife on my arm. To see you smile, laugh, walk, talk, bend, be still. To hear your command of contemporary phraseology, your delicate use of the very latest idiomatic expression, so subtly employed. Yes. To feel the envy of others, their attempts to gain favour with you, by fair means of foul, your austere grace confounding them. And to know you are my wife. It's a source of a profound satisfaction to me. (175)

그에게 아내는 아름다워야 하고, 다른 남성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어 대외적으로 자신에게 자긍심을 갖게 해줄 수 있어야 한다. 그녀는 “재치”(wit, 156)와 “감성”(taste, 156)을 갖추고 “여성이 지니고 있어야 하는 우아하고 세련된 감성들을 잘 알고 있는”(You care so much for grace and elegance in women. 156) 취향을 갖고 있어 자신이 “존경할 수 있는 여성”(woman I could respect, 157)이어야 한다.

문제는 자신의 존경과 찬양을 받아야 하는 아내는 결코 자신의 동물적 욕망을 해소하는 성적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아내와의 성관계에서 그의 쾌락은 상실된다. 그의 정욕과 성적 쾌락은 ‘각종 숨씨를 부려 욕정을 표현하고 유발시키는’ “기능”(functionary, 156)을 하는 저속한 창녀를 통해 해소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리처드: ... 당신처럼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여성을 찾는 건 아니지, 당신에게 하듯 존경하고 사랑할 상대를. 안 그래? 내가 원했던 건... 어떻게 얘기해야 할까 ... 각종 숨씨를 부려 욕정을 표현하고 유발시키는 그런 거지. 그게 전부야.

Richard: ... I wasn't looking for a woman I could respect, as you, whom I could admire and love, as I do you. Was I? All I wanted was ... how shall I put it ... someone who could express and engender lust with all lust's cunning. Nothing more. (157)

사랑은 고귀한 영적 차원으로, 성(sex)은 저속한 동물적 차원으로 선명하게 대비시키는 리처드에게 여성은 품위 있는 아내와 품위가 떨어지는 성적 파트너로 구분되어야 하며, 두 영역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 그래서, 품격 있는 결혼생활에는 점잖은 사랑만이 존재해야 하고, 성생활은 그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는 것이다(Gale 131).

여성을 아내와 창녀로 이분화시키며 자신의 성적 욕망은 창녀에게만 발동하는 리처드의 증상은 신경증 중에서 “심인성(心因性) 발기부전”(프

로이트, 『성욕』 221)으로 분류되는데, 그 심리적 근원은 유아기에 고착된 어머니에 대한 강한 애정의 감정에서 비롯한다(220-30). 처녀성이 여성의 높은 가치가 되는 사회에서, 리처드는 정숙하고 명성에 흠잡을 데 없는 여성에게서는 전혀 성적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성적으로 나쁜 소문이 떠돌거나, 매춘부나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들에게서만 성적 자극과 만족을 느끼는 유형<sup>5)</sup>인 것이다(207). 이런 유형들은 사랑하면 욕망하지 않고, 욕망하면 사랑할 수 없어서 그들은 자신의 성욕을 그들이 사랑하는 대상으로부터 멀리하기 위해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는 대상을 찾는다(226).

사라: 창녀?

리처드: (*올리브 하나를 집으며*) 그래. 그냥 흔해 빠진, 공원에 널린 창녀 말  
이야. 말할 가치도 없는. 기차 기다리는 틈에 한탕하는, 그게 전부야.

사라: 당신은 기차를 타지 않아요. 자동차로 다니잖아요.

리처드: 그렇지. 휘발유와 물을 확인하는 동안 빠르게 들이키는 코코아 한 잔  
같은 거지.

Sarah: A whore?

Richard: (*taking an olive*) Yes. Just common or garden slut. Not worth  
talking about. Handy between trains, nothing more.

Sarah: You don't travel by train. You travel by car.

Richard: Quite. A quick cup of cocoa while they're checking the oil and  
water. (155)

애정적 성향 즉, 사랑하는 마음과 육욕적 성향 즉, 성적 욕망의 분열 속  
에 놓인 이러한 남성들은 자신의 장애에 대한 주요 방어 수단으로 성적 상  
대에 대해서는 심리적으로 평가절하하고, 근친상간 대상과 그것을 재현  
해 주는 대상에 대해서는 과대평가를 하게 된다(226). 평가절하의 조건이

---

5) 프로이트는 신경증자들 중에는 대상-선택 시 “사랑의 필요조건들”이 작용하는  
특이한 유형들을 제시하는데(『성욕』 206-07), 리처드는 이러한 요소가 없으면  
성관계 시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매춘부에 대한 사랑”의 유형에 속한다(207).

만족되면 그 즉시 욕욕은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으며, 중요한 성적 능력과 쾌락지수가 증가될 수 있다(226). 리처드가 아내 사라를 이상화시키면서 그녀와는 성관계를 하지 못하고, 그녀가 매춘부 돌로레스(Dolores)나 메리(Mary)가 되었을 때 비로소 성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그의 ‘심인성 발기부전 증상’에서 비롯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 V. 사라의 불감증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배우자를 굳이 법적·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연인으로 설정해 불륜의 형태로 그와 밀회를 즐기면서 성적 쾌감을 느끼는 사라의 증상은 정신분석적으로 ‘불감증’에 해당된다. 프로이트는 문명적 교육이 여성의 성욕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하게 억제해 “신경증적 억제”(『성욕』 254) 중 하나인 불감증을 초래(『문명』 29)한다고 설명한다.

교육은 미혼 여성의 성교를 금지하고 처녀성을 지키도록 강력히 권장할 뿐 아니라, 성장하는 동안 어떤 유혹도 받지 않도록 성교에서 여성이 맡는 역할에 대해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으며, 결혼으로 이어질 수 없는 사랑의 감정을 품는 것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그 결과 남자와 사랑에 빠지는 것을 부모가 갑자기 허락해도 그녀는 사랑이라는 정신적 성취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에 확신하지 못한 채 결혼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사랑의 기능을 이처럼 인위적으로 지연시킨 결과, 그녀는 미래의 아내를 위해 모든 욕망을 축적해 둔 남편에게 실망밖에는 안겨주지 못한다. 그녀는 정신적 감정에서는 여전히 자신의 성욕을 억제한 권위 있는 부모와 결부되어 있고, 육체적 행동에서는 불감증을 보인다. . . . 일찍이 부모의 가르침에 고분고분 순종했던 대가로 그녀는 성적인 욕구 불만이나 불륜, 신경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28-29)

합법적으로 허락된 성행위에서 발현되는 불감증은 결혼 전에 과도하게 오랜 기간 강력한 억압적 기제로 작동한 ‘금제’와 관련한다. 긴 시간동안



성욕과 성 활동을 억제한 결과, ‘육욕적 활동과 억제 사이의 관계를 파기하지 못하여’ 합법적인 성관계에서는 불감증에 빠지고, 오히려 금제가 작동하는 불법적이고 은밀한 관계를 통해서만이 성적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다.

여성들이 자신의 성욕을 긴 기간 억제하고 관능적 욕구를 환상에만 머무르게 하는 경우, 그것이 그들에게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들은 종종 육욕적 활동과 억제 사이의 관계를 파기하지 못하며, 최소한 그러한 활동이 허용될 때에도 그들은 심리적으로 성교 불능의 상태, 즉 불감증에 빠지고 만다. 이것이 바로 많은 여성들이 합법적인 성관계조차도 한동안 비밀에 붙이려는 노력의 근본 원인이다. 은밀한 사랑의 행각에 의해 억제의 조건이 다시 만들어지자마자 정상적인 관능의 욕구를 느끼게 되는 여성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런 여성들은 남편에게는 충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의 애인에게는 제2의 성적 충실성을 내보이는 것이다. (『성욕』 230-31)

우리는 최초의 성교에서 경험하는 실망감의 또 다른 이유를, 적어도 계몽된 여성들의 경우 기대에 부응할 정도의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이전에는 성교가 최대한 강력한 방식으로 금제(禁制)와 연관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합법적으로 허락된 성행위는 동일한 것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성교와 금제의 연관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 것인가는, 조금은 우스운 얘기지만, 결혼을 앞둔 많은 처녀들이 그들의 새로운 사랑 관계를 외부인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심지어 숨길 필요도 없고 또 그런 관계를 반대하지도 않을 자신들의 부모에게조차 그 사실을 숨기려고 애쓴다는 사실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런 처녀들이 공공연히 하는 말은, 그들이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면 그만큼 사랑의 가치가 상실된다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 이런 감정이 지배적이 될 수 있으며, 결국엔 그것이 결혼생활에서 사랑의 감정이 진전되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할 수도 있다. 그런 여성은 자신이 비밀로 해두어야 하는, 그리고 그녀 자신의 의지가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불법적 관계에서만 애정에 대한 민감성을 회복할 것이다. (252-53)

이러한 연유로 그녀는 남편 리처드와는 불감증이지만, 정부인 맥스와는 불감증이 사라지는 것이다. 처녀 시절에 요조숙녀 교육을 받아왔을 사라<sup>6)</sup>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상 성에 대해 커다란 호기심을 느꼈을 것

이지만, 부모와 사회의 강제로 성적 호기심을 음탕한 것으로 인식하며 성에 대한 관심을 억눌러 왔을 것이다(『문명』 29). 결혼해서도 그녀는 품격 있는 정숙한 아내를 표방하며 성적 관심을 표출하는 것을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남편 리처드가 자신을 이상화시키는 상황에서 그녀는 더더욱 자신의 성적 욕구를 드러낼 수는 없었을 것이다.

프로이트의 꿈 상징을 대입해서 해석하면, 그녀에게 내재된 강렬한 성적 욕망을 읽어낼 수 있다. 예를 들어, 거실에 있는 “긴 벨벳 식탁보가 덮인 테이블”(A table with a long velvet cover, 149)에서 ‘테이블’은 여성을 상징하고(『꿈』 422), 그 위에 덮여있는 벨벳은 이끼와 연관되면서 음모를 상징한다(Gabbard 162). 해석하면, 거실에 그녀의 성기가 노출되어 있는 것이고, 이는 그녀가 강한 성적 열망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맥스와의 애정행각이 주로 이 테이블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도 이를 뒷받침해 주며, 이는 무성(sexless)의 부부 침실과 대조된다. 또한, 그녀가 연인 맥스를 기다리면서 여성의 성기를 상징하는 꽃(『강의』 215)을 만지작거리는 것도 그녀가 성에 관심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문명사회가 요구하는 정숙한 여성이라는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자기 억제가 일어나면서 결국 신경증이 유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녀 또한 문명교육이라는 억압 기제로 인해 불감증이 생길 수밖에 없었으며, 장시간 작용한 금제로 인해 합법적인 존재인 남편이 아닌 불법적이고 비밀스러운 존재인 연인을 통해서만이 성적 욕망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다.

사라와 리처드는 각자의 억압적 요인에 의해 신경증을 겪고 있고, 자신들의 결혼생활을 안전하게 유지하면서도 불감증과 불능을 해결하기 위해 오후의 밀회를 즐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리처드는 ‘아내’라는 사라의 법

6) 사라가 맥스를 기다릴 때, 가슴이 깊게 파인 도발적인 드레스를 입고 있으면서도 지속적으로 드레스의 힙 부분을 내린다든지(162), 치마 밑으로 스타킹을 바로 잡고(163), 드레스를 아래로 잡아당기는 행위(163)들은 요조숙녀에게 요구되는 몸가짐에 대한 교육이 그녀에게 내면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적 위치를 매춘부로 격하시켜 자신의 성적 대상으로 충족시켰으며, 사라  
는 ‘남편’이라는 자신의 법적 배우자를 정부로 전환해 불륜관계를 통해 불  
감증을 해결한다. 아내로서의 자신을 이상화시키는 남편으로 인해 욕망  
을 드러낼 수 없었던 사라는 자신이 창녀가 되는 오후 시간에는 중압감에  
서 탈피해 성적으로 과감해질 수 있고, 아내에게는 불능이지만 창녀에게  
는 성적 능력을 회복하는 리처드가 맥스가 되는 순간, 사라는 성적 쾌감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다.

## VI. 연인 ‘놀이’

다음으로는 이 밀회가 갖는 정신분석적인 의미를 살펴보자. 점잖은 부  
부 리처드와 사라가 각각 연인 맥스와 창녀 돌로레스나 메리로 역할을 바  
꾸며 즐기는 이 밀회는 사라와 리처드가 규정하고 있듯이, 일종의 “게  
임”(game, 171)으로 볼 수 있다. 이 ‘게임’에 대해 윤봉이는 본능적인 성욕  
을 표출할 수 있는 “판타지 역할 놀이”(249)로, 엘리자베스 사켈라리도우  
(Elizabeth Sakellaridou)는 인물들이 본래의 정체성으로 살아야 하는 압  
박감에서 탈출할 수 있는 현실 도피성 “환상 게임”(fantasy game, 60)으  
로 정의한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적 관점으로는 이 게임은 어린 아이들의 ‘놀이’와  
상통한다. 그는 아이들이 욕망이 충족되지 못하는 불만족스러운 현실에  
서 소망의 자극을 받아 놀이를 한다고 설명한다(Gay 570).

어쩌면 우리는 놀고 있는 아이야말로 자기만의 세계를 창조하고 있다는 면에  
서, 혹은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 세계의 사물들을 새로운 질서에 맞추어 자  
신의 취향에 따라 배치하고 있다는 면에서 마치 한 사람의 시인처럼 행동한다  
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 . 놀이의 반대편에 있는 것은 진지함이 아니라 오  
히려 현실일 것이다. (프로이트, 『예술』 150)

이때, 현실에서는 수동적 상황에 놓여있는 자신이 놀이를 할 때에는 상황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인데(프로이트, 『개념』 282), 만족스럽지 못한 현실 속 무력한 자신이 놀이에서는 능동성을 획득해 현실을 보정하고 교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프로이트, 『예술』 154-55). 게다가, 프로이트는 ‘불륜’을 결혼생활에서 생겨난 신경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어(『문명』 26), 이 커플은 ‘불륜’놀이를 통해서 배우자로부터는 충족할 수 없는 불만족스러운 현실을 능동적으로 ‘교정’하면서 자신들만의 ‘세계를 창조’하고, ‘신경병을 치료’하며, 궁극적으로는 “욕망의 완성”(『예술』 157)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두 사람이 놀이를 시작할 때 “봉고 드럼”(bongo drum, 163, 180)을 두드리는 “의식”(ritual, Esslin, *Study* 134)에서 버크만은 이 행위의 “원시성”(primitive, 106)에 주목하는데, 이는 두 사람의 놀이가 문명의 억압을 받기 전의 자유로운 상태, 본능이 억압받기 전의 원시시대로의 회귀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놀이에서 두 사람이 ‘기어다니는’ 행위도 인류의 직립보행 전의 야만적이고 동물적인 생활을 상징하며 문명 이전의 본능적인 삶을 재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sup>7)</sup> 본질적으로 이 커플은 놀이를 통해 사회적 자아에서 벗어나 문명 억압 이전의 자유로운 인류의 삶으로 즉, 본능적인 삶으로 퇴행하고 있는 것이다.<sup>8)</sup>

*그녀는 황급히 테이블 뒤로 가 벽에 등을 대고 그곳에서 있다. 그는 테이블 반대쪽 끝으로 가서 바지를 끌어올리고 허리를 굽혀 테이블 밑으로 가 그녀*

7) 프로이트는 “문명의 결정적인 변화는 인간이 직립보행 자세를 채택한 것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때부터 후각적 자극의 가치가 떨어지고 월경 중인 여자를 격리하는 시대를 거쳐 시각적 자극이 우세해지고 생식기가 눈에 띄게 되는 시대까지, 거기서 다시 성적 흥분이 지속되고 가족이 형성되는 시대를 거쳐 인간 문명의 문지방에 도달할 때까지 일련의 사건들이 진행되었을 것”이라는 이론적 가설을 세운다(『문명』 287).

8) 그래서, 프로이트는 본능에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은 원시인이 오늘날의 우리보다 훨씬 행복했다고 말한다(『문명』 306).

쪽으로 **기어간다**.

그는 벨벳 식탁보 아래로 들어가 보이지 않는다. 침묵. 그녀, 테이블 밑을 응시한다. 그녀의 다리는 보이지 않는다. 그의 손이 그녀의 다리에 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고, 찡그리고, 이를 악물고, 숨을 헐떡이다가 서서히 테이블 아래로 들어가 사라진다. 긴 침묵.

...  
그녀는 그를 쳐다보고, 허리를 굽히고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 그에게로 **기어가기** 시작한다.

*She moves swiftly behind the table and stands there with her back to the wall. He moves to the opposite end of the table, hitches his trousers, bends and begins to **crawl** under the table towards her.*

*He disappears under the velvet cloth, Silence. She stares down at the table. Her legs are hidden from view. His hand is on her leg. She looks about, grimaces, grits her teeth, gasps, gradually sinks under the table, and disappears. Long silence. (167)*

...  
*She looks at him, bends and begins to **crawl** under the table towards him. (183) (필자 강조)*

그래서 사라와 리처드는 부부라는 사회적 자아로서는 결코 할 수 없는 것도 이 놀이에서는 할 수 있다.

사라: ... 자기야. 우리가 하는 것들을 자기 아내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

Sarah: Darling. You don't really think you could have what we have with your wife, do you? ... (170)

이렇듯, 오후의 '놀이'에서 두 사람은 억압에서 벗어나 문명 이전의 원시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본능적 욕망을 충족시킨다. 사회적 인간에게 부

과되는 문명이라는 ‘의복’이 얼마나 버거운지에 관련해서는 본능의 향연이라 할 수 있는 ‘꿈’에 대해 프로이트가 “우리는 잠들 때마다 우리의 의복처럼 우리가 힘들게 획득한 윤리성을 -아침에 다시 그것을 입기 위하여- 벗어 던진다”(Lohmann 재인용 521)라고 언급한 데에서 실감할 수 있다.

욕망에 관해 정신분석은 욕망의 주체가 될 것을 주창한다. ‘프로이트로 돌아가라’를 기치로 세운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이자 철학자인 자크 라캉(Jacque Lacan)은 “유일한 죄는 자신의 욕망에 대해 양보하는 것”(양석원 606)이라고 언명하며 정신분석의 윤리를 분명하게 제시한다. 이처럼 정신분석은 자신의 욕망을 억압하고 타인의 욕망이라 할 수 있는 문명에 종속되는 삶은 죽어 있는 삶을 경고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프로이트의 저작 「문명 속의 불만」(*Das Unbehagen in der Kultur*, 1930)도 프로이트가 본래 제목을 “문화 속에서의 불행”(*Das Unglück in der Kultur*)으로 정하려 했다고 한다(Bayer and Krone-Bayer 500). 문화라는 억압은 필연적으로 인간의 불행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놀이는 이웃으로 상징되는 사회 공동체, 즉 문명사회의 감시로부터 철저히 가려진다. 리처드는 사라에게 소문나지 않게 조심할 것을 당부하고(160-61), 사라는 자신들의 집이 큰길에서 떨어진 한적한 곳에 있어서 다행이라고 여긴다(161). 문명인의 가면을 쓴 사회적 삶과 함께 “베네치아풍 블라인드”(Venetian blinds, 151) 뒤에서는 민낯의 본능적 삶을 영유하는 이들의 이중생활은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보인다.

## VII. 통합적 존재 - ‘사랑스러운 창녀’

금욕으로 절제된 결혼생활과 열정적인 성생활을 구분해 병행하고 있는 그들의 삶에도 이상기류가 포착된다. 사라가 남편의 저녁식사를 잘 챙기지 않아 그에게 식은 음식을 주는 횟수가 점차 늘어나고, 연인 놀이가 종

료된 시간에도 여전히 하이힐을 신고 있거나(154), 블라인드를 제대로 올리지 않는(151) 등 가정적이고 정숙한 아내로서의 철저함이 점차 느슨해지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대담한 성생활을 이웃으로부터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해 꼼꼼하게 닫아왔던 블라인드를 “내렸다가 올리고는 약간의 빛이 새어 들어오는 정도로 열어두고 다시 내린다”(162). 의도적으로 블라인드를 살짝 열어두는 과감함은 억압에서 벗어나려는 사라의 의지로 읽을 수 있으며, 리비도가 이끄는 본능적 삶에 그녀가 점차 몰입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사라에게 쾌락원리가 작동할수록 리처드에게는 현실원리가 작동하며 그는 억압을 강화한다. 사라와는 달리 직장이라는 사회망을 통해 질적·양적으로 억압에 더 노출되어 있는 리처드에게 초자아에 의한 죄의식이 가동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 놀이의 부도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그는 이 연인 놀이가 ‘위법한 욕정’이자 사회적 통념에서 어긋나는 ‘타락하고’, ‘방탕한’ 행위라고 비난한다. 또한, “나의 아이들. 내 아내의 아이들”(My children. My wife's children. 171)을 언급하며 아버지와 남편이라는 사회적 자아를 내세우면서 자기 자신은 물론 사라까지 다시 제도권 안으로 옹아매려 한다.

리처드: ... 나 결정을 내렸어.

사이.

사라: 오? 무슨?

리처드: 이제는 멈춰야만 해.

사라: 무엇을요?

리처드: 당신의 방탕함을.

사이.

리처드: 당신의 타락한 생활을. 당신의 위법한 욕정의 행로를.

사라: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요?

리처드: 그래. 나는 그 점에 대해 최종적인 결정을 내렸어.

Richard: . . . I came to a decision,

*Pause.*

Sarah: Oh? What?

Richard: That it has to stop.

Sarah: What?

Richard: Your debauchery.

*Pause.*

Richard: Your life of depravity. Your path of illegitimate lust.

Sarah: Really?

Richard: Yes, I've come to an irrevocable decision on that point. (177)

하지만, 사라는 타자의 욕망에 의해 억압된 삶에서 해방된 오후의 ‘놀이’가 두 사람의 경직되고 무미건조한 삶에 얼마나 ‘큰 의미’와 활력을 주었는지를 리처드에게 다시 일깨우면서<sup>9)</sup>, 더 나아가, 중요한 것은 사회가 규정한 반쪽짜리 자아인 ‘아내’와 ‘남편’이 아니라, 사라에게 사랑을 ‘속삭이듯’ 사회적 자아로서의 리처드와, 사라와 함께 오후에 ‘차를 마시는’ 본능적 자아로서의 맥스가 통합된 ‘당신’이라고 강조한다.

사라: . . . 내 말을 들어봐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내들이니, 남편들이니, 그런 것들 말이에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정말 어리석어요. 중요한 건 당신이예요. 지금 당신이, 여기에, 나와 함께 여기에, 우리가 함께 있다

---

9) 사라: ... 그리고 당신은 늘 인정해왔어요. ... 이 오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

Sarah: ... And you've always appreciated. ... how much these afternoons ... mean. (178)



는 거예요, 안 그래요? 당신은 나에게 속삭이고, 나와 함께 차를 마시고, 그렇게 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게 바로 우리예요. 그게 우리라고요. 나를 사랑해 줘요.

Sarah: . . . Listen. You mustn't worry about ... wives, husbands, thing like that. It's silly. It's really silly. It's you, you now, here, here with me, here together, that's what it is, isn't it? You whisper to me, you take tea with me, you do that, don't you, that's what we are, that's us, love me. (171-72)

리처드와 맥스가, 그리고 사라와 돌로레스(혹은 메리)가 하나로 통합되는 삶에 대한 사라의 통찰은 리처드의 돌발적인 변심을 회유하기 위해 그녀가 갑작스럽게 제기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 갈등이 생기기 전에 나는 다음 대화를 통해서 두 사람이 이미 오래전부터 바라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리처드] 창문을 활짝 열고 그 옆에 서서 밖을 내다본다.

리처드: 정말 평화롭군, 와서 봐봐.

그녀 [사라], 그와 함께 창 앞에 선다.  
둘은 말없이 서 있다.

만약 언젠가 내가 일찍 집에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

사이.

사라: 만약 내가 언젠가 당신 뒤를 쫓아간다면 어떻게 될까?

사이.

리처드: 어쩌면 우리 모두 다 같이 시내에서 차를 마실 수도 있겠지.

*He [Richard] opens the windows fully and stands by them, looking out.*

Richard: . . . What peace. Come and look,

*She [Sarah] joins him at the window.*

*They stand silently.*

What would happen if I came home early one day, I wonder?

*Pause.*

Sarah: What would happen if I followed you one day, I wonder?

*Pause.*

Richard: Perhaps **we could all meet for tea in the village.** (159) (필자 강조)

리처드는 사회적 자아로서의 리처드와 본능적 자아로서의 맥스가 마주 친다면 어떻게를 생각한다. 사라도 사회적 자아인 사라와 본능적 자아인 돌로레스 혹은 메리가 마주치는 경우를 생각한다. 리처드는 넷이 함께 차를 마시는 게 좋겠다고 말한다. 그것도 이웃 사람들 모두가 볼 수 있는 ‘시내’ 한복판에서 공개적으로 만나기를 희망한다. 네 사람이 함께 모인다는 것은 리처드와 사라가 각각 맥스와 돌로레스(혹은, 메리)와 통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본능적인 자아도 ‘나’이고 사회적 자아도 ‘나’임에도 한쪽 면만 인정받을 수 있고, 다른 한쪽은 억압하고 숨겨야만 하는 이중적인 삶을 청산하고 싶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본능적 자아의 원초적인 모습을 가려준 ‘베네치아풍 블라인드’를 활짝 걷어 올리고 창문 앞에 당당히 서서 온 세상을 향하여 본능적 자아의 모습 또한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은 것이다. 자연적으로 타고난 본능을 억누른 반쪽짜리의 왜곡되고 부자연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양쪽이 통합된 온전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프로이트는 문명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적 규범은 “1차 억압 요구와 금지”로 족하다고 설명하면서, 강압적으로 작용하는 도덕규범들이 세인들에게 과도한 죄책감을 유발하여 개인의 창조적 자율성과 삶을 향유하는 능력을 심하게 위축시킬 것이라 우려한다(이창재 345).<sup>10)</sup> 따라서, 그는 사회적 현실에 합리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자기 성찰적”이고 “유연한” 도덕 관점을 강조하며 완전하고 절대적인 도덕이 아니라 온전한 도덕의 가치를 부각시킨다(345).

아이가 냉정한 현실 세계에 유연하게 적응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처럼, 현대인은 전통 도덕규범과 대면하여 굴종도 거부도 아닌 다각도의 유연한 태도를 견지할 수 있어야 한다. . . . 온전성이란 의식과 무의식이 분열적 대립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화롭게 ‘통합’을 이루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초자아와 자아, 자아와 이드, 자아와 외부 현실 사이에 균형과 조화를 이룬 상태를 지칭한다. (345-46)

극의 대단원에서 리처드는 사라를 “사랑스러운 창녀야”(You lovely whore. 184)라고 부른다. ‘창녀’라는 단어 때문에 피상적 차원에서 두 사람이 결국 연인 관계로 정착한다는 해석들<sup>11)</sup>에 설득력이 실리기도 하지

---

10) 프로이트는 ‘사회적 인간’을 사회 내 타자들이 요구하는 도덕에 의해 본능욕동이 길들고 억압된 존재라고 정의한다(이창재 344-45). 사회를 지배하는 전통적인 윤리관은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도덕 법칙 내지 도덕적 정언 명령을 강조하는데, 성인이 도덕 명령의 절대성에 고착된 경우에는 유아적 거세불안으로 인간이 원초적 만족의 희생을 감수하고, 혹독한 초자아에 자아가 노예처럼 지배받는 신경증적 증상을 보이게 된다고 우려한다(345). 프로이트는 “도덕의 두 얼굴”을 절감하며, 도덕이 초자아로서 자아 이상과 더불어 가장 고귀한 상징인 동시에 파괴적인 죽음 본능으로서 가장 위험하고 무시무시한 상징일 수 있다고 본다(346). 그는 인류가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전쟁과 살생, 부도덕한 만행을 저지르는 것을 목도하였기에 도덕이 인간을 거세시키는 파괴적인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346).

11) 결말에서 연인 관계를 선택하는 부부의 모습을 보며 사켈라리도우는 여성적 성향에 맞추는 리처드의 노력으로 부부가 타협을 본 것이라고 해석한다(86). 예술 린과 테일러, 스티븐 게일(Steven H. Gale)은 놀이가 현실을 장악한 것으로 본

만, 우리는 ‘사랑스러운’과 ‘창녀’라는 조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리처드에게 ‘창녀’는 자신이 사랑하지 않고 오로지 욕정 해소용으로만 필요한 존재이다. 그리고, ‘사랑스러운’이라는 형용사는 자신이 사랑하지만 어머니와의 고착 관계로 인해 자신이 과도하게 이상화시키게 되어 성관계를 할 수 없는 아내에게 사용하는 수식어이다. 이전에는 아내에게는 사랑과 품격, 정숙함의 속성들만을 인정했다면, 이제는 그녀에게 섹정적인 욕망도 있음을 인정해 양립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상반된 두 속성이 통합되어 사랑하는 아내 사라와 욕정적인 창녀 돌로레스(혹은, 메리)는 통합적 존재로서의 사라로 ‘온전성’을 획득하게 된다. 결국 두 사람은 프로이트가 강조하고 있듯이, ‘전통 도덕규범과 대면하여 굴종도 거부도 아닌 다각도의 유연한 태도’로 이중적인 삶을 청산하고 ‘조화’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 VIII. 결론

프로이트 정신분석은 문명과 개인의 자유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피력한다.

문명의 발달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정의는 모든 사람이 그 제한에 복종할 것을 요구한다. 인간의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자유에 대한 욕망은... 문명과 공존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다. ... 인류는 앞으로도 영원히 집단의 의지

---

다. 예술린은 자아가 양쪽으로 분열된 채 유지되는 것이 불가능해 결국 환상 속 인물들이 현실을 장악한다는 논지이고(*Absurd* 254-55), 테일러는 맥스가 오후 시간뿐만 아니라 저녁 시간에도 사라를 방문할 수 있게 되었으며, 존재하는지 여부도 알 수 없는 “본질”(essence, 350) 대신에 무한한 “상들”(reflections, 350)을 선택한 것으로 읽어낸다(350). 게일은 두 사람이 품위있는 결혼생활과 성적인 삶 모두를 필요로 하지만, 이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없음을 깨닫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욕구 충족을 선택하는 일종의 심리극으로 분석한다(136).

에 맞서서 개인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옹호할 것이 분명하다. 인류의 노력 가운데 상당 부분은 개인의 이런 요구와 집단의 문화적 요구를 합리적으로 조정 한 타협안 - 즉 행복을 가져오는 타협안-을 찾아내는 한 가지 일에 집중되어 있다. (『문명』 283-84)

정리하면, ‘문명의 발달’과 ‘개인의 자유’가 함께 병존하고 ‘공존’할 수 있는 합리적인 ‘타협안’을 찾는 것이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사라와 리처드가 내리고 있는 ‘최종적인 결정’도 문명이라는 가혹하고 냉정한 초자아로 본능욕동을 억압하는 것도 아니고, 본능욕동만을 추구 하는 것도 아닌 ‘유연한’ 도덕적 가치를 추구하는 ‘통합’으로 귀결된다.

사라와 리처드는 자신들의 욕망을 죽인 채 타자의 욕망이라 할 수 있는 삶에만 가치를 두거나 자신들의 본능에만 충실한 삶을 거부하고, 양쪽이 통합되고 “아름답게 균형 잡힌”(things are beautifully balanced, 161) 삶이라는 ‘타협안’을 마련해 ‘행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두 사람이 그토록 바라왔던 리처드와 맥스, 사라와 돌로레스(혹은, 메리) 네 사람이 시내 한 가운데에서 차를 마시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장안대학교)

## ■ 주제어

정신분석, 문명, 억압, 본능, 신경증, 통합

## ■ 인용문헌

- 게이, 피터. 『프로이트 I』. 정영목 옮김. 서울: 교양인, 2021.
- 군자르, 오르투르드. 「문화개념」. 원당희 옮김. 『프로이트 연구 II-정신분석의 영향과 수용』. 로만, 한스 마르틴 & 파이퍼 요하임 엮음. 서울: 세창출판사, 2016. 15-32.
- 로만, 한스 마르틴. 「전쟁과 죽음의 주제에 대한 글들」. 원당희 옮김. 『프로이트 연구 I-정신분석의 성립과 발전 과정』. 로만, 한스 마르틴 & 파이퍼 요하임 엮음. 서울: 세창출판사, 2016. 519-529.
- 베이어, 로타르., 커스틴 크론-베이어. 「「문화 속의 불쾌감」」. 원당희 옮김. 『프로이트 연구 I-정신분석의 성립과 발전 과정』. 로만, 한스 마르틴 & 파이퍼 요하임 엮음. 서울: 세창출판사, 2016. 491-501.
- 스타이너, 리카르도. 『무의식적 환상』. 이천영 옮김. 서울: 현대정신분석 연구소, 2022.
- 양석원. 『욕망의 윤리: 라캉 정신분석과 예술, 정치, 철학』. 경기: 한길사, 2018.
- 윤봉이. 「‘역할 지정하기’ 측면에서 본 『애인』의 사라」. 『영어영문학 연구』 57. 2 (2015): 247-66.
- 이창재. 『프로이트와의 대화』. 서울: 학지사, 2019.
- 프로이트, 지그문트. 『문명 속의 불만』. 김석희 옮김. 경기: 열린책들, 2023.
- \_\_\_\_\_.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 김정일 옮김. 경기: 열린책들, 2010.
- \_\_\_\_\_. 『예술, 문학, 정신분석』. 정장진 옮김. 경기: 열린책들, 2017.
- \_\_\_\_\_. 『정신분석 강의』. 임홍빈, 홍혜경 옮김. 경기: 열린책들, 2011.
- \_\_\_\_\_. 『꿈의 해석』. 김인순 옮김. 경기: 열린책들, 2011.
- Alabdullah, Abdulaziz H.. “Home as a Battlefield: Power and Gender

in Harold Pinter's *The Collection, The Lover and Old Times*.”  
*Global Journal of Art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4.3  
(2016): 29–38.

Burkman, Katherine H., *The Dramatic World of Harold Pinter*. Ohio:  
Ohio State UP, 1971.

Esslin, Martin. *Pinter: A Study of His Plays*. London: Eyre Methuen,  
1973.

\_\_\_\_\_. *The Theatre of the Absurd*. New York: Vintage Books,  
2001.

Gabbard, Lucina Paquet. *The Dream Structure of Pinter's Plays: A  
Psychoanalytic Approach*. New Jersey: Associated UP, 1976.

Gale, Steven H., *Butter's Going Up*. North Carolina: Duke UP, 1977.

Harold, Pinter. *Harold Pinter: Plays Two*. London: Faber and Faber,  
1996.

Kerr, Walter. *Harold Pinter*. New York: Columbia UP, 1967.

Sakellaridou, Elizabeth. *Pinter's Female Portraits*. London: Macmillan  
P, 1988.

Taylor, John Russell. *Anger and After: A Guide to the New British  
Drama*. London: Methuen Drama, 1988.

■ Abstract

**A Study on Repression and Integration in  
Harold Pinter's *The Lover*:  
Focusing on Freudian Theory**

Shin, Hui Won  
(Jangan University)

Harold Pinter's *The Lover* appears to be a story of a couple who want to overcome the ennui in married life through their false adultery in the afternoon. However, when approaching the play from a psychoanalytic perspective, we can see the issues of repression and neurosis faced by the couple, and their afternoon adultery turns out to be a 'play' that helps them fulfill their sexual desires. Experiencing repression, the couple tries to maintain dignity in their married life by separating their sexual life from it. Since civilized society restricts sexual expression, they hide behind the blinds and change their identities(name, clothes, roles) during their 'play'. At the end of the play, the couple, living separate lives as a social ego (as husband and wife) and instinctual ego (as lovers), seems to choose the latter. However, this study will argue for the integration of the instinctual ego and the social ego. Since Freudian theory asserts that civilization requires the renunciation of instinct, we will focus on acknowledging one's instincts by freeing oneself from repression and striving to become an integrated being.



• 헤롤드 핀터의 *The Lover*에 나타나는 억압과 통합에 관한 연구 | 신희원

## ■ Key words

Psychoanalysis, civilization, repression, instinct, neurosis, integration

## ■ 논문게재일

○투고일: 2024년 7월 31일 ○심사일: 2024년 8월 12일 ○게재일: 2024년 8월 13일



# 추락하지만 완전히 좌절하지는 않는 : *A Good Fall*에서 하진이 재현하는 이민자들의 초국적 정체성의 특징

이유혁\*

## I. 서론: 하진 문학 연구에서 『좋은 추락』에 관한 연구의 의의

이 논문은 중국계 미국인 작가 하진(Ha Jin)이 그의 단편소설 모음집 『좋은 추락』(*A Good Fall*)에서 이민자들의 삶에 관해 재현하는 양상에 주목하고 그 특징을 살펴본다. 특히 필자가 주목하는 바는 이 작품이 시기적으로 진의 문학 여정에서 ‘초국적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출판된 작품이라는 점과 내용상으로 ‘자유’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작품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시기에 출판된 그의 장편소설 『자유로운 삶』(*A Free Life*)과 비교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진의 문학 연구에서 『좋은 추락』의 위치를 이해하고 이 작품에 관한 연구의 의의를 정리해 볼 수 있다.

『좋은 추락』과 『자유로운 삶』은 시기적으로 비슷한 시기에—전자는 2009년에 후자는 2007년에—출판되었고 진의 문학적 여정의 초국적 전환을 드러내는 처음 두 작품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장르적인 측면에서 전자는 단편 소설집이고 후자는 장편소설이라는 차이점이 있지만, ‘초

---

\* 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교수, hyeok25@pusan.ac.kr

국적인 이동'과 '자유'라는 주제를 각각 나름의 방식대로 다룬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필자는 『자유로운 삶』을 1부라고 명명한다면 『좋은 추락』을 2부로 명명하고 싶다. 이 둘은 비록 차이점도 확인하지만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함께 그 시기의 진의 문학적 여정의 주요한 특징인 초국적 전환을 확실히 드러낸다. 진의 문학적 여정에서 초국적 전환이란 용어를 통해 필자가 의미하는 바는 그가 문학 작품에서 중국 본토의 중국인들의 삶을 다루는 것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이민자들의 삶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위의 두 작품에서 연속해서 그런 특징을 분명히 보여줌으로써 미국에서 활동하는 '중국인' 작가에서 '중국계 미국인' 작가로의 전환을 시도한다.<sup>1)</sup> 또한 위의 두 작품과 비슷한 시기인 2008년에 출판된 『이주자로서의 작가』(*The Writer as Migrant*)라는 에세이집에서 그의 초국적 전환에 관한 이론적인 설명을 제시하기도 한다.

흥미로운 점은 진의 초국적 이동은 그가 박사 공부를 위해 미국으로 이주한 1985년에 이미 이루어졌다. 이때 몸은 미국으로 이동하였지만 진의 원래 계획은 박사 학위를 받고 중국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Varsava 8; Jin, "Exiled to English"). 나중에 진이 미국에 남아 작가의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하고 상당수의 좋은 작품들을 출판하지만,<sup>2)</sup> 『좋은 추락』과 『자유로운 삶』에서야 비로소 그는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이민자들의 삶을 다루

1) 이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국내 연구로 이유혁의 논문("Diasporic Selves")이 있다. 진의 문학적 여정에서 이러한 전환은 급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오랜 준비과정을 거친다. 이민자 세대 작가로서 그가 미국 사회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그것을 문학적으로 승화시키는 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Garner). 그의 초국적 전환을 명백히 드러낸 첫 작품인 『자유로운 삶』의 창작 과정이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데 이에 대해 진은 한 인터뷰에서 자세히 밝힌다(Varsava 20).

2) 그가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1989년의 천안문 학살 사건이다. 이에 대해서 진은 여러 인터뷰에서 언급한다. 특히 천안문 학살 사건 20주기에 뉴욕 타임즈에 기고한 글에서 그는 이에 대한 자신의 소회를 압축적으로 드러낸다 (Jin, "Exiled to English").

기 시작한다. 이는 그의 초국적 이동의 두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그의 초국적 이동이 비로소 정신적인 측면에서까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sup>3)</sup> 비록 최종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진은 작가적 삶의 추구의 한 단락을 매듭짓고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을 확실히 보여준다.

두 작품이 모두 자유라는 주제를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본다. 『자유로운 삶』은 한 중국인 유학생 가정이 예기치 않게 미국에 정착하기로 결심을 하고 밀바닥에서부터 시작하여 여러 고생 끝에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이루어가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소설의 주인공인 중국인 이민자는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루어 낸 뒤에 시인으로 사는 삶에 더욱 충실하기 위해 물질적으로 안정된 직업을 뒤로 하고 밤에만 파트타임으로 호텔 프런트에서 일한다. 작품 내내 주인공은 풀타임으로 일을 하며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시인의 삶에 대한 꿈을 저버리지 않는다. 특히 이민자 1세대가 그러한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 이 작품을 기존의 이민자 소설들과 구별 짓는 지점이다. 이렇게 이 작품이 주로 다루는 자유라는 주제는 창작의 자유를 향한 불굴의 여정이다.<sup>4)</sup> 한 인터뷰에서 진은 이를 이민자의 삶의 “형이상학적인 차원”(metaphysical dimension)의 추구로 표현한다(Varsava 20).

『자유로운 삶』이 보여주는 중국인 이민자의 삶을 형이상학적 가치를 추구하는 이민자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좋은 추락』은 그와 정반대로 형이하학적인(physical) 가치에 매몰되어 있는 이민자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전자에 의해서 진이 의미하는 바는 이민자의 삶에서 존재

3) 이런 측면에서 진의 『자유로운 삶』이 왜 상당히 자전적인 특징을 나타내는지를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다(Franklin: Varsava 3, 20; 이유희, 「언어, 미학, 창조력」 372-373, 373쪽의 주석 4번). 이와 관련하여 또한 청젠 첸(Chung-jen Chen) (67-72)을 참고하기를 바란다.

4) 이 작품에는 자유라는 키워드와 연관된 또 다른 주요한 주제로서 국가 혹은 공동체와 개인 사이의 관계 문제가 다루어진다.

론적 의미 추구에 관한 것이며, 후자에 의해서 그가 의미하는 바는 생계유지와 같은 삶의 물질적인 양상에 관한 것이다(Varsava 8). 이민자의 삶의 추구에서 이와 같은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진은 한 인터뷰에서 자세히 밝힌다(Varsava 8, 20-21). 그런데 실상은 이민자의 삶은 이렇게 이분법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들이 서로 얽혀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진이 인터뷰에서 의도하는 바도 이와 다르지는 않다. 이 논문에서 『자유로운 삶』과 『좋은 추락』을 이렇게 구분을 짓고자 하는 것은 각각의 작품의 특징을 두드러지게 드러내는 차원일 뿐이다. 또한 그렇기에 이 두 작품을 함께 연관해서 살펴봄으로써 진이 재현하는 이민자의 삶의 다층적인 양상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강조하려는 것이기도 하다.

12편의 단편들의 모음집인 『좋은 추락』에는 계층, 직업, 법적 지위에 따라 아주 다양한 중국인 이민자들의 삶이 그려지고 있다. 미등록 이민자에서 등록 이민자까지, 성매매 여성 혹은 착취 공장(sweatshop)에서 일하는 노동자에서부터 유학생과 대학교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민자들이 등장한다. 이처럼 다양한 이민자들이 뒤섞여 살고 있으며, 그들 대부분은 이민의 초기 단계이고, 미국 사회의 밑바닥 혹은 가장자리에서 생존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안간힘을 쓰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 인정받는 영문학 전공 교수가 미국에 방문단의 일원으로 와서 한참 젊은 미국인 교수 앞에서 비굴하게 행동하는 모습과 부인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결국 미등록 이민자의 길을 택하는 모습, 이민을 통해 과거 중국에서의 신분을 감추려 하거나 심지어는 성형수술을 통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려는 하는 모습, 먼저 온 이민자가 나중에 온 이민자를 착취하는 모습 등이 그려지고 있다. 진이 보여주는 그들의 삶의 모습은 보기 좋은 바람직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오히려 대부분은 감추고 싶은 이민자들의 삶의 치부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들의 초국적 이주자 삶의 실상—혹은 이민자들의 삶의 미시적인 양상들—에 대해서 홀리 마틴(Holly E. Martin)은 “트랜스내셔널리즘의 아

래쪽 (the downside of transnationalism)” 혹은 “트랜스내셔널리즘의 하복부 (the underbelly of transnationalism)”(1)라고 묘사한다. 여기서 아래쪽 혹은 하복부는 숨겨진 혹은 잘 드러나지 않은 곳이라는 의미와 함께 약점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이민자들의 삶의 초국가적 공간적 이동의 특징에 관한 이런 방식의 묘사는 진이 『좋은 추락』에서 재현하는 이민자들의 삶에 관한 특징에 대해서 필자가 앞에서 형이하학적이라는 단어를 통해 언급한 내용과도 맞닿아 있다. 진의 단편집의 제목이 또한 나타내듯이, 마틴의 비유적 표현은 다양한 방식의 위에서 아래로 ‘추락한—혹은 어떤 의미에서 ‘타락한’—이민자의 삶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다. 『좋은 추락』의 ‘추락’은 영어로 fall의 번역인데, 이것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수직적인 이동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종교적인 혹은 도덕적인 측면에서 ‘타락’을 의미하기도 한다. 진은 이처럼 복수적인 함의로 이 단어를 사용한다.

비록 그들의 삶이 이민자 사회의 밑바닥 혹은 주변부에 있지만, 초국적 이민자들에게 자유로운 삶을 향한 여정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다. 『좋은 추락』에 등장하는 대부분 이민자에게 물질적인 성공을 통한 자유로운 삶은 그들의 초국적 이주의 주요한 동기이며, 그들이 정착한 곳에서 이를 성취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그럼에도 이러한 물질적인 성취만이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은 아니다. 그들에게도 정신적인 측면의 자유 특히 국경을 넘어 이주하였지만, 여전히 그들을 속박하는 국가나 가족 혹은 과거의 전통과 규범 등의 영향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개인을 위한 삶을 추구하려는 욕망 또한 물질적인 성취를 통한 자유에 대한 욕망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그들의 현재의 힘든 삶을 견인하는 힘이 된다. 단편집의 제목처럼 이민자들의 삶은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한 자들의 삶과 같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들에게 희망과 구원의 가능성이 남아있음을 진은 보여준다. 특히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을 유머와 아이러니를 통해 보여준다는 점이 이러한 진의 글쓰기의 두드러진 문체적 특징이기도 하다.

필자가 보기에는 『좋은 추락』에서 ‘좋다’라는 단어를 통해 진이 어떤 도덕적 혹은 윤리적인 판단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자유로운 삶』이 보여주는 이민자의 삶이 더 가치 있고 더 바람직하고, 그에 반해 『좋은 추락』에서 묘사된 지극히 현실적이며 사회의 밑바닥에서 때 묻고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이민자들의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이분법적인 가치판단을 제시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또한 이민자들이 떠나온 ‘저쪽’(중국)과 정착하려는 ‘이쪽’(미국)에—혹은 이와 관련하여 시간적으로 저쪽과 관련된 ‘과거’와 이쪽과 관련된 ‘현재’—대해서도 이분법적인 가치판단이라는 단순하고 피상적인 논리에만 얽매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Klein). 왜냐하면 그들이 정착하려는 이곳에서 그들이 경험하는 것은 천국의 단맛이 아니라 고통과 실패와 좌절과 착취의 매우 쓴 맛일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생존을 위해 견뎌내고 노력한다. 이 과정에서 그들의 초국적 이주자 정체성의 특징이 형성되고 드러난다. 이 점이 다음 절에서 자세하게 다루어질 것이다.

## II. 추락하지만 완전히 좌절하지는 않는: 『좋은 추락』에서 재현된 초국적 이주자들의 삶과 정체성

『좋은 추락』에서 진이 보여주는 중국인 이민자들의 ‘추락한’ (혹은 ‘타락한’) 삶의 모습이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비판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sup>5)</sup> 미국 내에서 아시아계 이민

5) 비평가들은 진의 중국인들의 삶에 대한 묘사를 오리엔탈리즘의 관점에서 비판하기도 하였고, 특히 그의 소설 『기다림』(*Waiting*)에 관한 논쟁은 널리 알려진 것이기도 하다(이수미; Eckholm: Li, “Home and Identity” 207). 그런데 진은 이에 대해 “많은 이들이 나의 책들이 현실에 관한 왜곡이라고 하는데 나는 내가 보는 방식대로 세상을 묘사한다고”라고 말하며 오히려 자기 작품의 리얼리즘적 특징을 강조한다(Ibáñez 81). 진의 소설의 리얼리즘적 특징에 관해서는 「하 진의



자들에 대한 고정관념은 한편으로 그들을 완전히 낮게 취급하여 동화될 수 없는 집단으로 취급하거나 다른 한편으로 ‘모범적 소수자’(model minority)로 주류에 잘 동화될 수 있는 모범적 집단으로 치켜세우는 것으로 종종 드러난다. 진의 이야기들에 등장하는 아시아계(중국계) 이민자들의 모습은 첫 번째 고정관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식의 묘사로 판단될 수도 있다. 그들 대부분은 차이나타운이라는 그들만의 공간에 고립되어 영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미국 사회의 주변부와 밑바닥에서 착취당하기도 하고 생존을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줄리아 클라인(Julia M. Klein)은 이들이 머무는 지역인 뉴욕의 플러싱(Flushing)을 “위험으로 둘러싸인 피난처, 이민자의 연옥”(an immigrant purgatory, a refuge bounded by danger)으로 묘사한다.<sup>6)</sup> 이는 중국인 이민자들의 삶이 마치 깊은 수렁에 추락하여 헤어 나오기조차 쉽지 않은 상태와 같음을 나타낸다. 평론가들은 이런 그들의 상태를 마치 뗏목에 걸린 것에 비유하기도 한다(Guo 18; Toibin).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미국 주류 사회에 동화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초국적 이주자로서 그들의 삶은 자유로운 삶과는 동떨어진 채 오히려 물질적·정신적으로 속박된 상태에 있다. 그들의 초국적 이주를 통한 자유로운 삶의 추구라는 과감한 비상은 안타깝게도 이렇게 날개가 꺾여 추락한 모습으로 그려진다.

진이 그러한 중국인들의 추락한 (혹은 타락한) 삶의 다양한 모습을 ‘나쁜’ 추락이 아니라 ‘좋은’ 추락으로 묶어 낸다는 점에 주목한다. 보통 부정적인 어감을 지닌 추락이라는 단어에 그와는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중

---

단편소설과 단순성의 미학」에서 왕은철의 논의를 참고할 만하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이 왜 맨해튼의 더 잘 알려진 차이나타운이 아닌 이곳을 자기 작품의 배경으로 삼는지를 설명하면서 그는 이곳의 역동성을 강조한다(Bolonik; Boston University; Lyden; Parascandola and Punjabi 45). 진의 『좋은 추락』에 재현된 뉴욕 플러싱의 차이나타운의 장소성에 관한 연구를 위해 참고할 만한 논문들로는 다음과 같다(Li, “Remapping”; Parascandola; 고혜림; 이유혁, “Inventing”; 이유혁, “On the Production”).

다'라는 형용사를 붙인다는 점이 필자의 시선을 끈다. 이민자들의 '모범적인' 삶의 이야기를 보여주기보다는 그와는 반대되는 오히려 숨기고 싶은 영광스럽지 못한—예를 들면, 밀입국과 미등록 체류의 문제, 이민자 사회 내부의 착취 문제와 속임수, 도덕과 전통의 몰락, 돈의 유혹에 쉽게 무너지는 것 등에 관한—이야기들의 모음집을 '좋은' 추락으로 명명한다.<sup>7)</sup> 이민자들의 초국적 삶이 추락한 자들의 삶과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완전히 가라앉거나 주저앉지는 않는다. 진은 어려운 현실을 꺾듯이 견뎌내는 모습으로 그들의 삶을 재현한다. 클라인은 이를 "회복력 (resilience)" 이라는 단어로 설명하며, 이것의 의미를 "불행을 받아들이고, 길을 나서며, 더 밝은 미래를 향해 계속 나아가는 용기"(the courage to embrace calamity, hit the pavement and keep walking toward a brighter future) 라고 설명한다.<sup>8)</sup> '추락'과 '리질리언스'는 『좋은 추락』에서 진이 재현하는 자유로운 삶을 향한 이민자들의 초국적 삶의 여정의 특징을 이해하는 키워드가 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런 특징을 드러내는 이민자들의 초국적 이주의 삶의 재현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이때 그들의 초국적 정체성의 형성 과정이 어떤 양상으로 드러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단편집 『좋은 추락』의 첫 번째와 마지막 이야기와 그 사이에 있는 2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작품 분석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를 통해 '추락'에서 '리질리언스'에 이르는 초국적 이민자들의 분투하는 정착 과정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때 필자가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리질리언스의 의미는 원래의 상태로의 회복이라는 고정된 결과를 나타내기보다는 끊임없이 억압하여 한계 안에 가두려는 억

7) 왕은철은 진의 *A Good Fall*을 『멋진 추락』으로 번역한다. '멋지다'는 것과 '좋다'라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단어가 함축하는 아이러니와 유머를 고려해야 하지만—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논할 것임—결국 이 둘은 모두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8) 이는 진의 이전 소설들의 묘사 특징이 종종 "삭막하고, 가혹하고, 희망의 여지가 거의 없는"(Ibáñez 80)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대비되는 특징이다.

누르는 힘에 대항하는 역동적인 저항의 움직임이 나타난다. 특히 초국적 이민자들의 새로운 정체성이 이러한 과정에서 형성되어 가는 것에 주목한다.

### i. 「인터넷의 해악」(“The Bane of the Internet”)

『좋은 추락』에 수록된 첫 번째 단편 「인터넷의 해악」은 짧지만 의미심장한 이야기이다. 이 작품은 초국적 이주가 어떻게 절망적인 추락과 속박으로 귀결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 이야기에는 두 자매가 등장하는데 동생은 중국에 언니는 미국에 거주한다. 편지를 통한 소통을 하다가 이제 이메일로 소통을 하는데 이것이 가져다주는 속도감과 편리함이 너무 좋다. 하지만 시도 때도 없이 날아드는 이메일로 인해 골치가 아플 지경이다. 어느 날 동생이 자동차를 사기 위해 언니에게 상당한 거액을 빌려 달라고 요구한다. 몇 번을 거절하다가 웹사이트에 장기를 팔아 돈을 마련하려는 동생의 어처구니없는 계획이 공고된 것을 알고서야 마지못해 1만 달러라는 거금을 빌려준다. 중국에 남아 늙으신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유일한 동생에게 혹시라도 위급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철없는 동생은 언니가 하루에 열 시간씩, 일주일 내내 식당에서 일하며, 밤 10시에 통통 부은 다리로 퇴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GF 5).<sup>9)</sup> 미국적인 삶이 가져다줄 물질적 풍요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일 것이다. 동생뿐만 아니라 언니도 이곳의 고달픈 삶을 몸소 체험하기 전까지는 그런 꿈에 사로잡혔을 것이다. 언니는 결국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나는 미국에 오면 사람들이 언제나 고향 사람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하여 자기 방식대로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인터넷[과 이메일]

9) 앞으로 『좋은 추락』(A Good Fall)에 수록된 단편소설을 인용할 때는 GF로 표기하며 쪽수를 덧붙인다. 또한 이 논문에서 진의 『좋은 추락』의 본문 인용은 모두 그의 영어판 작품에서 한 것이고, 따로 표기하지 않으면 한국어 번역은 모두 필자의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망쳐 버려서 가족들이 언제든지 나를 붙잡아 둘 수 있다. 그들이 가까이에서 사는 거나 마찬가지다. ... 몇 주만이라도 그 애를 내 인생에서 차단할 수만 있다면 좋을텐데. 얼마간의 평화와 안식을 위해 어딘가로 떠날 수 있다면 좋을 텐데”(GF 5-6, 7). 몸은 태평양을 건너와 미국에서 홀로 살지만, 주인공은 물질적·정신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 저 멀리 떨어진 가족이 그녀의 삶을 엿어낸다. 그런데 이렇게 주인공을 엿어내는 주된 원인은 바로 인터넷과 이메일이다. 진의 이야기는 인터넷과 이메일을 통해 긴밀히 빠른 속도로 연결된다는 것이 지구화와 트랜스내셔널리즘의 중요한 특징이고 장점으로 평가되는데, 이것이 사람들의 자유를 증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더욱 속박하는 도구가 되는 실상을 꼬집는다.

비록 작품의 내용이 고달픈 이민자 삶의 현실을 드러내지만, 진은 이를 유머와 아이러니로 묘사한다. 장기를 팔려는 동생의 시도가 언급되는 지점에서 진의 유머가 드러난다. 자동차 문화의 열풍에 사로잡혀 저렇게까지 하는 그 시대 어떤 중국인들의 허세를 비꼰다. 그런 동생에게 거금을 빌려주는 언니는 자동차도 없이 매일 통근한다. 인터넷과 이메일이 초국적 연결의 도구인데, 긴밀하게 연결됨으로써 오히려 지속해서 속박되는 것으로 귀결되는 삶에서 진이 보여주하고자 하는 아이러니가 드러난다. 인터넷과 이메일이 없던 시절에 이민은 저곳과 저곳에서의 삶의 모든 것과의 거의 완전한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였다. 국제 우편이나 유선전화를 통한 연결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었다. 1990년대를 지나면서 인터넷과 이메일이 일반화되면서 이민자의 삶은 저곳과 저곳에서의 삶의 모든 관계와 새롭게 긴밀히 연결될 수밖에 없게 된다. 『좋은 추락』은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대략 추정하면, 198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걸쳐—중국인 이민자들의 미국으로의 초국적 이주의 양상을 재현한다. 첸에 의하면, 이 단편집은 “민족지적으로(ethnographically) 하나의 도덕적 역사를 말하면서 한 시대를 묘사한다”(71). 다시 말해, 진이 중국인 이민자들의 초국적 삶의 부정적인 측면을 적나라하게 풍자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그 시

기의 중국인들—더 나아가 아시아인들—의 미국으로의 이민의 열풍에 관해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한다.<sup>10)</sup>

진은 「인터넷의 해악」으로 단편집을 시작함으로써 전체 단편집의 내용적 특징을 제시한다. 『좋은 추락』에서 재현된 대부분의 중국인 이민자들의 초국적 이주의 삶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그들은 초국적 이주를 통해 저곳이라는 장소와 과거라는 시간과의 단절을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것의 영향력이 끊임없이 그들을 따라다닌다. 첸은 이를 “유령처럼 따라다니는 그림자(haunting shadow)”라고 표현한다(69). 국경을 넘어선 이주, 단절, 재연결. 이것이 그들의 삶의 사이클이다. 초국적 이주를 통해 저곳과 과거와 단절을 하고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바라지만 여전히 저곳과 과거가 그들을 다시금 얽어맨다. 잉지안 구오(Yingjian Guo)는 이를 다음과 같이 압축적으로 잘 표현한다. “모국에 남아있는 [다양한 관계의] ‘연줄’에서 벗어난 이민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또 다른 연줄, 즉 국제화된 연결망에 빠져든다”(17-18).

초국적 이주를 통한 저곳과 과거와 단절을 추구하려는 그들의 모습을 진은 추락 (혹은 타락)이라는 키워드로 묘사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추락한 (혹은 타락한) 삶은 ‘고립’과 ‘속박’의 모습으로 드러나면서 또한 여러 가지 ‘일탈’의 모습으로도 드러나기 때문이다. 첸은 이러한 초국적 이주, 단절, 재연결이라는 사이클로 특징지어지는 그들의 삶에서 저곳과 과거의 끊임없는 영향력 그 자체—예를 들면, 고국의 기억, 가족에 대한 의무, 또는 고국에서 가족을 함께 묶어 주는 옛적의 윤리와 규범들의 영향력—에서 그들이 피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능동적으로 각자의 방식대로 그것에 대처해 나가는 점에 주목한다(62). 그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그들이 주체적인 행위자로 드러나게 된다는 점을

10) 『좋은 추락』에서 진이 재현하는 이민자들의 삶에 관한 이야기들은 중국인들에게만 해당하지 않고 아시아인들 혹은 더 나아가 보편적인 이민자들의 이야기로 쉽게 확장되는 힘이 있다. 이것이 『좋은 추락』과 관련하여 필자가 발견한 진의 이민자 서사의 또 다른 특징이고 장점이다.

첸은 또한 강조한다(67). 즉 진의 단편집에 등장하는 중국인 이민자들은 초국적 이주에 따른 힘든 삶의 피해자로 남기보다는 어떤 식으로든지 그들 삶의 능동적인 주체가 되고자 노력을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초국적 이민자의 정체성의 특징이기도 하다. 본질적으로 그들은 둘 사이에 끼어 있어 그들의 입장은 종종 모호하거나 양면적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견디고 나아간다.

## ii. 「미인」(“The Beauty”)

「미인」은 표면적으로 삼각관계에 관한 이야기이다. 지나 리우(Gina Liu)와 댄 펑(Dan Feng)은 부부 사이이고, 푸밍 유(Fooming Yu)는 이들 부부 사이를 이간질하는 트러블메이커로 등장한다. 댄은 아내가 중국에서 같은 고향 출신이라고 말하며 푸밍과 종종 함께 지내는 것이 늘 못마땅하다. 딸 재스민(Jasmine)이 태어난 후부터 댄은 아내와 푸밍 사이에 불륜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그 주된 이유는 아내는 차이나타운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미인이고 댄의 외모도 잘생긴 편인데, 그들 사이에 태어난 딸의 외모는 전혀 그렇지 않아 보였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는 딸의 외모가 푸밍의 못생긴 외모와 닮은 것으로 판단하기까지 한다. 외모나 재력으로 보나 푸밍보다 훨씬 더 나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푸밍에게 일종의 열등감과 함께 부러움을 갖는다. 왜냐하면 지나가 푸밍과 가깝게 지내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 때문이다. 둘 사이에 숨겨둔 무언가가 있다고 확신하는 그는 사설탐정을 고용하여 둘의 과거를 뒷조사한다.

그런데 사설탐정은 푸밍의 과거에 관해 자세히 알아내면서도 지나의 과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한다. 그녀처럼 미인이면 여기저기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소문이 나기 마련인데 기록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결국 지나 리우라는 그녀의 현재 이름이 본명이 아닐 수도 있다는 추정에 이르게 된다. 예전에 지나가 댄에게 가족이라는 짐이 없는 자기 같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그가 행운이라고도 말했지만, 중국과 미국에 친척이 하나도 없는 그녀의 과거가 오히려 더욱 의심스러울 뿐이다. 푸밍의 뒤를 캐고 다니는 것으로 인해 어느 날 댄은 푸밍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폭력배들에 의해 차가 부서지고 심한 폭행을 당하여 응급실에 실려 가게 된다. 결국 댄은 지나에게 그녀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알려 주라고, 자기는 낯선 사람 같은 부인과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자기 집이 오히려 고문실이 되어 가고 있다고, 토로한다. 그제야 지나는 지금까지 봉투 안에 꼭꼭 숨겨둔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을 보여준다. 그 사진의 여자는 얼굴은 둥글고, 눈썹은 초승달 같이 구부러져 있고, 눈은 작은 데다, 주먹코에, 널찍하고 두툼한 입술을 가진, 추한 모습이었다. 그것이 원래 자기 아내의 얼굴이라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어 그저 놀랄 뿐인 댄에게 지나는 미국에 와서 여러 번의 성형수술 끝에 지금의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그녀의 진짜 이름이 라이 수(Lai Hsu)라는 것도 밝힌다.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시카고에서 지낼 때 벌어진 일인데 푸밍도 거기 함께 있어서 그녀의 변모해가는 모습을 모두 목격한 것이다. 이런 그녀의 비밀을 알고 있던 푸밍은 그것으로 지나를 쫓아다니며 괴롭히고 있었다. 새로운 외모와 새로운 이름으로 뉴욕의 플러싱으로 이주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지만, 자기의 추한 과거의 원래 모습이 혹시라도 드러날까 봐 지나는 어쩔 수 없이 푸밍과의 관계를 모질게 끊을 수 없었다.

이 이야기에서도 진의 유머가 잘 드러난다. 댄은 지나의 성형수술과 개명을 통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당신은 남들을 계속 속일 수는 없어, 실상은 당신은 스스로를 속인 것이야”라고 다그쳐 말한다(GF 45). 이에 대해 지나는 “아니, 나는 나의 아름다움을 사랑해, 이는 미국이 내게 줄 수 있는 최상의 것이야, 비로소 나는 나의 외모와 피부에 어울리는 얼굴을 가지게 된 것이야”라고 받아친다(GF 45). 댄이 머리로는 “그건 아름다움이 아니고, 사기!”라고 생각하면서도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한다(GF 45). 지나의 태도가 너무 진지하였기 때문이다. 지나에게

성형수술을 통한 외모의 변화는 그녀가 미국으로 이주를 통해 얻게 된 가장 소중한 것이었고, 이를 통해 그녀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으며,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했다”(GF 46). 성형수술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 외모를 바꿈으로써 과거와 저곳과 단절을 하고 현재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서사가 독자들을 웃음 짓게 한다. 또한 이런 식으로 진은 외모지상주의라는 그 시대의 문제를 비판한다.

아이러니가 극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댄이 이 사태를 해결해나가는 지점에서이다. 실상을 파악한 댄은 사진을 전부 압수하면서도 이혼을 하지는 않고 결혼생활을 유지하기로 한다. 마치 자기가 너그러운 남편인 양 행세한다. 남편이 이제 비밀을 알게 되어 지나는 그에게 고분고분할 수밖에 없다. 그에게 착한 아내가 되어 그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그런 삶을 살 것이라고까지 다짐한다. 그것만이 자신의 감추고 싶은 비밀을 유지하며 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댄은 푸밍을 만나 실상을 다 알지만 자신은 아내를 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 무엇보다 사설탐정을 통해 알게 된 푸밍의 숨겨둔 과거, 즉 그가 공산당원이었다는 것을 가지고 그를 옥죄는다. 공산당원이라는 숨겨둔 사실이 발각되면 미국에서 영주권을 얻는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에 푸밍은 댄의 압박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또한 그가 그렇게 하게 되는 결정적 이유는 여전히 중국에 사는 가족들의 안전 때문에 공산당원 자격을 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으로 댄은 지나와 푸밍을 자기 손아귀에 넣는다. 그들은 미국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었는데 저곳과 과거에 숨겨둔 비밀이 드러남으로 인해 오히려 다시금 속박 아래 놓이게 된다. 이렇게 푸밍은 더 이상 지나를 괴롭히지 않게 되고 댄과 지나의 삶은 안정이 된다.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는데 댄이 목욕탕에 종종 들러서 예쁜 여자 안마사와 은밀한 시간을 보내며, 때로는 집에 들어가기를 꺼리며 일부로 사무실에 늦게 남아있는 것으로 이 단편은 끝을 맺는다. 마지막 장면에서 진은 그의 유머와 아이러니를 다시금 보여준다. 지나와 푸밍의 친밀한 관계 때문에 가장 고통하던 댄이 이제는 자기만이 알



게 된 그들의 숨겨둔 과거를 가지고 그들을 힘들게 하고 통제하게 된다. 이렇게 진은 이 이야기에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아이러니와 유머를 한껏 발휘한다.

지나의 남편 댄은 『좋은 추락』의 12편의 이야기에 나오는 여러 등장인물 중에 가장 물질적으로 성공한 중국인 이민자로 그려진다.<sup>11)</sup> 푸밍과 지나와는 달리 댄은 상당히 안정적인 삶을 누려왔다. 37세밖에 안 된 그는 이미 자신의 부동산 회사를 소유하고 있다(GF 29). 그런데 지나와 결혼 후 딸 재스민이 태어나면서 그의 삶에 그림자가 드리우게 된다(GF 28). 이에 대해서 마틴은 “댄에게 재스민이 인종적 그림자(racial shadow)”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평한다(7). 즉 전혀 예상치도 않게, 딸의 존재—특히 그녀의 외모—로 인해 그는 지나에 관한 비밀을 파헤치는 계기가 되고, 이는 결국 직면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초국적 정체성—중국계 미국인의 정체성—을 다시 직면하게 한다. “그의 부인과 딸이 ... 자신이 지우고 싶은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때문이다”(Martin 8). 단편의 마지막 장면에서 댄이 집에 들어가기려 꺼리는 것에 대해서 마틴은 댄이 자신의 중국인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가족과 거리두기를 하려는 것으로 해석한다(8). 이런 그의 행동에는 미국 주류에 동화되기를 바라는 그의 욕망이 투영되어 있으며 그것이 강박증적 증상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푸밍과 지나의 문제는 그의 교묘한 술수로 해결하였지만, 그녀의 딸의 아름답지 않은 외모는 당장 그가 쉽게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심지어 지나의 외모를 바꾸고 이름도 바꾸었지만, 여전히 그의 숨겨진 과거는 드러나고 만다. 딸의 외모가 지나의 원래의 중국인 정체성을 드러

---

11) 이 논문에서 다루지는 않지만, 또 한 명의 상당히 성공한 중국인 이민자로 그려지는 등장인물은 「영문학 교수」(“An English Professor”)에서 주인공 역할을 하는 영문학과 교수인 루성 탕(Rusheng Tang)이다. 그는 북경대와 하버드 대학의 학위를 가졌고 현재는 미국 대학의 영문학과 교수로 테뉴어 심사를 받고 있다. 이민자로서 댄은 물질적인 성공을, 루성은 그것과는 다른 차원의 성공을 이룬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낸다. 이는 또한 댄과 지나도 억압하고 숨기고 싶은 것이다. 그들에게 중국과 중국인 정체성은 단절하고 싶고 완전히 지우고 싶은 것이다. 댄은 자신의 물질적인 성공과 누구나 부러워하는 미인과의 결혼이 그를 다른 중국인 이민자들보다 훨씬 더 미국 사회의 주류에 가깝게 한다고 생각했겠지만, 딸 재스민의 존재와 그녀의 외모는 그에게 여전히 어떤 것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실감하게 한다. 재스민을 통해 드러나는 댄과 지나의 초국적 이민자의 정체성—중국계 미국인의 정체성—은 바로 이런 특징을 보여준다. 이는 수술을 통해 외모를 바꾸거나 화려한 물질적 성공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쉽게 지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마음 아프지만 받아들이고 살아내야 하는 것이다.

### iii. 「일시적인 사랑」(“Temporary Love”)

「일시적인 사랑」은 리나(Lina)와 판빈(Panbin)이라는 “계약 커플(a wartime couple)”(*GF* 175)에 관한 이야기이다.<sup>12)</sup> 계약 커플은 “자신들의 배우자를 미국으로 데리고 오지 못해 서로를 위로하고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서 잠시 함께 사는 남녀들을 지칭하는 말이다”(*GF* 175). 리나의 남편인 주밍(Zuming)이 곧 미국에 올 예정이어서 1년 정도 된 이들의 계약 커플의 삶도 끝날 것이다. 그가 오면 그녀는 다시금 정숙한 아내가 되어야 할 것이다(*GF* 177). 그런데 서로에게 이미 마음을 많이 빼앗겨버린 둘은 다가올 헤어짐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고민이다. 한편으로 서로에게 마음이 강하게 끌리지만, 어느 쪽도 이혼을 감행하지 않으려 한다. 그 이유는 리나는 남편이 오면 그에게 좋은 아내가 되려 노력할 것이고, 판빈은 아이 때문에 이혼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GF* 179). 이러한 태도를 위선적이라고 쉽게 판단해 버릴 수 없는 것은 이들의 고뇌가 상당히 진지하기 때문이다. 리나는 남편을 만난 뒤 고향의 가족과 시부모와 친정 부모에 대

12) ‘계약 커플’이라는 표현은 왕은철의 번역서에서 온 것이다(『멋진 추락』 273).

한 이런저런 소식을 듣는다. 모두가 심각한 내용이어서 오히려 그녀를 우울하게 만들었다. “그 이유는 대양과 대륙이라는 거리에도 불구하고 두 가족의 무게가 갑자기 그녀에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녀는 여전히 젊지만, 자기 가족을 생각할 때 노인처럼 나이가 든 것처럼 느꼈다”(GF183). 그녀의 남편은 그녀가 판빈과의 불륜을 저지른 것을 이미 모두 알고 있음을 밝힌다. 그러면서 그녀가 저축해 둔 4만 불을 자신의 경영대학원 공부에 보태라고 요구한다. 남편이 중국에 있을 때 양가의 부모를 공양한 것으로 인해, 또한 자신의 불륜으로 인해 그녀의 부모를 치욕스럽게 하지 않기 위해, 그녀는 남편의 요구대로 할 수밖에 없다. 판빈의 경우에도 중국에 있는 부인이 그의 불륜 사실을 다 알고서는 이혼을 요구하였고 아이의 양육권마저 빼앗길 처지에 놓인다. 이처럼 이 둘을 옥죄는 것은 과거에 그들이 중국에서 맺은 부부의 인연과 그곳에 두고 온 가족과의 관계이다.

그런데 그들이 부부와 가족이라는 이런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은 것이다(GF 188). 중국인 이민자들인 그들에게 비록 그들이 미국으로 이주하였을지라도 부부와 가족의 전통과 도덕규범은 여전히 그들의 현재 이곳의 삶에 압도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 중국인 이민자들의 삶을 속박하는 것이기도 하다. 판빈은 결국에 이혼을 당하고 양육권도 빼김으로 자신이 원치 않는 방식으로 모든 과거의 관계와 단절되어 이제 새로운 관계를 맺으려 한다. 그때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리나가 그를 찾아오는데, 그녀에게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제부터 나는 중국 여자와는 다시는 연애를 하지 않을 것이다. 질려버렸다. 중국 여자는 모두 내가 나눠서 지기에는 너무 무거운 과거의 짐을 많이 가진다. 나는 과거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두려움 없이 살고 싶다”(GF 193). 그러자 리나가 묻는다. “과거 없이 우리가 어떻게 현재를 이해할 수 있죠?” 판빈이 답한다. “나는 살아남기 위해서 과거를 제거해야 한다고 믿게 됐어요. 과거를 버리고, 그게 마치 존재하지도 않은 것처럼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죠”(GF 193). 판빈은 이것이 바로 자기가 살

고 싶은 유일한 방식이라고 강조한다. 그래서 그는 이제 우크라이나 여자를 사귀려고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리나가 말하듯이, 아이러니하게도 우크라이나 여자도 또한 그녀만의 과거의 관계—그녀의 가족관계 등—로 인해 발생하는 짐에서 자유롭지는 않다(GF193).

판빈의 극단적인 방식의 관계 단절과 관계 맺기에 기반한 삶의 행로는 쓸쓸하면서도 우리를 웃게 만든다. 그 행보가 너무 예상을 벗어나는 것이어서 과연 그가 말한 모든 것이 어디까지가 진심인지조차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동시에 잠시의 자유분방한 계약커플의 삶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를 생각할 때 그의 그런 행동이 충분히 납득되기도 한다. 리나의 경우는 판빈과는 대조된다. 판빈은 어쨌든 자유로운 삶을 찾아 새로운 길을 추구하려 하지만, 리나의 경우는 오히려 남편에게 완전히 속박된 삶으로 전략하고 만다. 거기에서 빠져나올 구멍조차 찾기 쉽지 않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 둘이 처음에 잠시 계약커플로 자유분방한 삶을 누렸지만 이로 인해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점이다. 판빈은 중국이라는 과거의 굴레를 자기 삶에서 제거하고 또 다른 형태의 초국적 이주를 시도함으로써 탈출구를 찾으려 하지만 리나는 여전히 중국이라는 과거의 시간에 갇혀 있다. 그런데 판빈이 시도하려는 초국적 이민자의 정체성이 어떻게 가능할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과거를 버리고 과거가 존재하지도 않은 것처럼 여기는 것이 그렇게 쉽게 가능한 일일까? 싫든 좋든 과거는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고 그것에 기초하여 현재를 살고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판빈의 시도는 상당히 무모하게 보이기도 하다. 또한 남편의 속박 하에 놓여 있는 리나의 처지는 안타깝다.

「일시적인 사랑」은 이렇게 과거라는 굴레로 인해 딜레마에 빠진 남녀의 처지를 보여준다. 판빈은 기존의 틀을 완전히 벗어난 다른 선택을 하고자 한다. 반면에 리나는 여전히 기존의 틀 안에 갇혀 있다. 여기에서 진은 이것은 맞고 저것은 그렇지 않은 이분법적 선택을 제시하려는 것은 아니

며, 또한 이를 통해 어떤 윤리적인 판단 혹은 교훈을 제시하려는 것은 아닌 듯하다. 둘 중의 어느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하는 단순한 해결책을 말하려는 것 같지는 않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두 가지 어렵고 딜레마적 선택의 상황을 우리에게 제시할 뿐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또한 저곳과 과거가 중국인 이민자들에게 미치는 어려운—딜레마적인—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도록 한다. 계약커플로 잠시 누리던 자유가 그들을 오히려 더욱 속박하는 상황으로 귀결되는 이러한 이야기의 전개를 통해 진의 아이러니가 잘 드러난다.

리나와 판빈의 초국적 이민자의 정체성의 특징은 ‘딜레마’라는 단어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저곳과 과거의 영향에서 어떤 이들은 판빈과 같이 과감하게 벗어나려 시도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이들은 여전히 그 속박 안에 갇혀서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맬 수도 있다. 판빈과 같은 새로운 장소로의 이동과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 반드시 그러한 상황에서 그를 자유롭게 해 줄 수 있다고 장담할 수도 없다. 리나와 같은 상황이 오히려 더 많은 이민자의 상황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진이 보여주는 중국인 이민자들의 상황도 이것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일시적인 사랑」에서 진은 “초국적 정체성이 ... 지구화된 세계에서 ...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Martin 11). 즉 그것은 쉽게 경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일시적’이고 ‘딜레마적’인 특징을 나타낸다. 이는 비유적으로 초국적 이민자의 내적 상태를 나타내기도 하면서도 그의 삶의 외적 조건과 상태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면 진은 이러한 딜레마적인 상황의 탈출구를 어떻게 보여주는가? 『좋은 추락』의 마지막 이야기에서 이에 대해 좀 더 명확히 제시한다.

#### iv. 「좋은 추락」(“A Good Fall”)

이 작품은 단편집 『좋은 추락』의 제일 마지막에 수록된 표제작으로서 이전의 11편의 이야기에서는 추락이 비유적인 의미로 제시되어 있다고 한

다면 이 이야기에서 비로소 주인공의 몸이 높은 곳에서 아래로 추락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무엇보다 이 단편에서 필자는 진이 절망적인 추락(혹은 타락)으로 드러난 초국적 이주의 이야기를 극적인 서사 전개를 통해 긍정적으로 전환해 가는 것에 주목한다. 다시 말해, 진은 이민자들의 삶이 ‘추락’ (혹은 ‘타락’)과 같은 상태에서 어떻게 다시금 ‘비상’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물론 다른 몇몇 이야기들에서도 이런 가능성에 대한 서사가 전혀 없지는 않다. 예를 들면, 「치욕」(“Shame”), 「연금제도」(“A Pension Plan”), 「늘어진 벚나무 뒤의 집」(“The House Behind a Weeping Cherry”)의 후반부에서 이런 특징이 짧게 암시적으로 언급된다. 그러나 「좋은 추락」에서는 그 점이 가장 명확하고 극적으로 흥미롭게 제시되고 있으며, 이때 진의 유머와 아이러니가 두드러진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된 인물은 문화교류의 일환으로 미국에 쿵후를 가르치러 온 불교 승려 간친(Ganchin)과 플러싱에 있는 가올린이라는 불교 사원의 주지 스님 종(Zong)과 미국에서 태어난 중국계 미국인 여성 씬디(Cindy)이다. 여기에서 추락이라는 주제는 도덕적 측면과 실제적인 몸의 추락이라는 측면에서 다루어진다. 먼저 추락의 도덕적 측면에서 이 단편은 ‘착취’와 종교인의 ‘타락’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한다. 특히 착취는 미국에 먼저 이민을 와서 자리를 잡은 중국인 이민자가 나중에 온 중국인 이민자를 착취하는 양상으로 드러난다. 이런 동족 간의 착취가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바로 불교 사원에서 일어난다는 점이다. 간친은 미국에서 3년 동안 쿵후를 가르쳐 목돈을 번 뒤 중국으로 돌아가려 했다. 미국에 오기 위해 진 큰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기를 초청한 종 주지는 그에게 한 푼도 주지 않고 오히려 그를 강제로 중국으로 돌려보내려 한다. 비자가 만료되어 이미 미등록 체류자 신분이 되어 버린 그는 여권조차 종 주지에게 뺏긴 상태여서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런데 이런 착취는 이전에도 있었던 일이다(*GF* 229). 더군다나 종 주지의 추락 혹은 타락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진에 의하면, 그는 BMW

자동차를 몰고 다니고 있고, 출가한 스님임에도 몰래 여자와 동거하며, 로어맨해튼에 타운하우스가 있는데도 최근에 롱아일랜드에 또 다른 집을 샀으며, 그곳에서 자신의 숨겨둔 여자와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와 함께 살고 있다(GF 222-223). 종 주지의 타락한 삶에 대해서 간친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사람들은 사원이 같등이나 근심이나 탐욕이 없는 곳이라고 말하죠. 그건 맞는 말이 아니에요. 종 주지는 기업 사장처럼 살아요. 내 추측으로 그는 생활비로만 한 달에 1만 불 이상을 쓰는 것 같아요”(GF 224-225).<sup>13)</sup>

실제적인 몸의 추락과 관련해서 진은 간친의 자살 시도를 자세히 묘사한다. 종 주지가 원하는 대로 간친이 순순히 따르지 않자 그는 심지어 그를 납치해서 강제로 중국으로 보내려 시도한다. 간친은 납치를 당하고 공항까지 끌려가 강제로 출국당하기 직전에 간신히 도망하게 된다. 플러싱 차이나타운으로 몰래 돌아온 그는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살하기로 결심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모님이 갇아야 할 빛을 조금이라도 탕감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는 기대한다. 한적한 곳에 있는 5층짜리 건물에 올라가 자살을 시도한다. 그런데 생의 마지막 순간에 오랫동안 무술로 단련된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을 하여, 그는 치명상을 피하는 낙법의 형태로 바닥에 떨어지게 된다. 비록 다리는 부러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기 위해 뛰어내리는데 극적으로 살아나게 된다. 결국 이 상황은 그의 예상과는 완전히 다르게 전개되어 오히려 그가 미국에 남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추락하였지만 다시 비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와 같은 이야기의 전개에서 드러난 유머와 아이러니는 12편의 이야기 중에 가장 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주목할 부분은 그의 이야기가 마스크를 타게 되어 그는 유명해지

---

13) 진은 이런저런 착취와 도덕적 결함 등의 문제를 『좋은 추락』의 다른 여러 이야기에서도 묘사한다. 특히 이민자들이 착취의 구조하에서 고군분투하는 것에 대해서 진은 「연금제도」와 「늘어진 벚나무 뒤의 집」에서 자세히 다룬다.

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여러 모양의 도움의 제안을 받기도 한다는 점이다. 미국 사회의 주변부와 밑바닥에서 아무 관심조차 받지 못한 채 사라져버릴 수도 있었던 그가 이제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는 대상이 되었고 그들은 심지어 그를 도우려 안달이 나서 야단일 정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극적인 반전이 그를 마냥 행복하게 하거나 안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어리둥절하고 혼란스럽게 하였다”(GF 240). 이에 대해서 마틴은 “미국 사회의 위선”을 지적한다(11). 왜냐하면 미국 사회가 “착취당하던 이민자의 곤경을 처음에는 무시하다가, 나중에서야 그 이민자의 이야기로 이익을 얻으려 하며, 그것을 돈이 되는 상품으로 팔고자 하기” 때문이다(Martin 11). 더 나아가 마틴은 이 이야기에서 종 주지는 악당으로 묘사되며, 간친은 길들여 받아들여질 수 있는 식으로 묘사되는 것과 관련하여 중국인에 대한 전형적인 오리엔탈리즘적 묘사라고 지적한다(11). 이런 이분법적인 구조—이는 이 절의 초반부에서 언급한 미국에서 아시아계 이민자들에 대한 주류 사회의 이중적인 고정관념과 유사하다—는 오히려 중국인 이민자들이 빠져들 수밖에 없는 착취의 중층적 구조를 드러낸다. 한편으로 종 주지와 같은 동족에게 착취당하거나, 다른 한편으로 미국 주류 사회에 의해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착취를 당하게 되는 구조이다.

진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진은 간친이 앞에서 언급한 착취의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의 가능성을 씬디를 통해 제시한다. 갑작스러운 호의와 주목으로 인해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해하는 그에게 씬디가 추방당하지 않기 위해 정치적인 망명을 신청할 수도 있고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을 할 수도 있다고 제안한다. 그렇지만 간친은 이제 자신이 더 이상 승려가 아닌 것 같으며 어떤 사원에서든 자기를 받아 주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로 인해 걱정을 내비친다. 왜냐하면 승려의 삶 이외의 어떤 삶도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씬디는 그러한 그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그가 “자유롭게 여자와 데이트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알려 준다(GF 240). 이에 대해 간친은



의외로 그녀를 응시하며 미소를 지으며, “내가 그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대답하며(*GF* 240) 이야기는 끝이 난다.

이러한 이야기의 결말은 썬디와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 간친이 미국에 남아 착취의 구조를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Guo* 17). 이는 스님이 속세로 돌아가는 또 다른 추락(혹은 타락)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추락”(falling)을 또한 “새로운 곳에 다시 정착하는 ... 재정착”(rerooting)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 필자는 주목한다(*Li*, “Remapping” 127). 이에 덧붙여 필자가 좀 더 논의하고자 하는 점은 진이 썬디를 통해 제시하는 길의 특징과 그것의 가능성에 대해서이다. 이에 관한 논의를 통해 이 단편에서 간친을 통해 진이 제시하는 이민자의 초국적 정체성의 특징을 좀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또한 이때 진이 글쓰기를 통해 보여주는 유머와 아이러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썬디는 “미국에서 태어난 중국인으로서 중국어를 할 줄 알았다”(GF 223). 25세의 젊은 여성으로 비행기 승무원으로 일한다(GF 224). 간친과 알게 된 계기는 그녀가 텐진시에 왔을 때 그로부터 무술을 배우면서이다(GF 223). 이러한 썬디를 통해 간친이 미국 땅에 정착하게 되는 가능성이 앞에서 언급한 중국인 이민자를 길들임으로써 동화되도록 하는 그런 교묘한 방식의 착취 구조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썬디의 제안에 대한 간친의 긍정적인 응답을 과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결국 이는 “백인 남성이 유색인 남성에게서 유색인 여성을 구조한다”(White men are saving brown women from brown men)는 식민주의적 서사 구조의 변형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sup>14)</sup> 다시 말해, 썬디의 역할이 백인 남성의 역할과 비슷한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판이 일정 정도 유효한 이유는 「좋은 추

---

14) 이 표현은 가야트리 스피박(Gayatri Spivak)이 「서벌턴은 말할 수 있는가?」 (“Can the Subaltern Speak?”)라는 글에서 처음 사용한 것이다 (92-93, 101).

락」에서 썬디는 한편으로 어려움에 놓인 간친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가 미국 땅에서 조금씩 추락 (혹은 타락)의 길로 빠져들게도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그녀는 그가 승려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지역의 술집에서 그를 은밀히 만나 함께 지내기도 하고, 은근히 그를 유혹하기도 한다. 그녀가 일 때문에 집이 종종 비어 있으니 머물 데가 없으면 자기 집에 머물 수 있다는 제안도 한다. 또한 그가 미등록 체류자의 신분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을 때 심지어 미등록 체류자로 미국에 남는 것도 그렇게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말하며 구체적인 조언을 하기도 한다. 최악의 상황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썬디의 역할이 종 주지의 역할과는 확연히 구별된다. 최소한 그녀는 그를 직접적으로 착취를 하지는 않고 오히려 미국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제안하기 때문이다. 또한 초국적 정체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종 주지는 자신의 초국적인 네트워크를 착취의 수단으로 이용하여 미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이를 이용하여 착취를 일삼는다(*GF* 225). 그러나 썬디는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는 식으로 활용한다는 점이 확연히 다르다. 간친은 이 둘에게서 영향을 받지만, 최종적으로 썬디를 통해 착취의 구조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비록 간친이 택하는 이 길이 일정 정도 길들여짐과 동화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맞지만, 여기서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간친이 이러한 상황에서 수동적으로 끌려가는가, 혹은 능동적으로 대처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것이 결국 상당히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종 주지의 착취의 초국적 네트워크 혹은 정체성은 간친이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몰아붙이는 결과를 낳지만, 썬디의 초국적 정체성은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가 다시 살아가도록 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결국 간친은 썬디가 제안한 미국식 방식의 삶에 대해 배우기를 희망한다고 자기 생각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그의 능동적인 자세를 드러낸다. 간

친은 비로소 “자기를 파는 법을 배우고 ...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스스로 변해야만 하는”(learn how to sell [him]self ... and must change [him]self to live a new life) 미국식 성공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GF* 232). 이렇게 간친은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능동적으로 자기가 갈 수 있는 길을 택한다. 이것이 간친의 생존방식이다. 또한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그의 초국적 이민자로서의 정체성이 이런 방식으로 형성된다는 점이다. 간친의 이야기는 중국계 미국인이라는 초국적 정체성이 고정되고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열려 있고, 유동적이고, 혼합적이고, 때가 묻어 있는 특징을 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간친에게만 해당하지 않고 종 주지와 썬디에게도 해당한다. 이들은 각자가 비슷하면서도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중국계 미국인이라는 정체성을 형성해 간다. 이렇게 진은 플러싱에 거주하는 중국인 이민자들의 초국적 삶과 정체성에 대해 사실적이면서도 비판적으로 재현한다. 초국적 이주자에게 미국에서의 삶은 그저 새롭기만 하거나 이상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자아를 다시 만들어 적응해야 하며 이 과정에 추락(혹은 타락)이 수반됨을 보여준다. 또한 이 과정은 어떤 고정된 하나의 틀을 따라서 나가는 길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고 그렇기에 다양한 모습으로 이주자의 초국적 정체성이 형성되어 간다.

「좋은 추락」에서 진은 또한 자신만의 유머와 아이러니를 한껏 발휘하여 복잡한 서사를 재현한다. 그래서 상당히 우울하고 진지한 이야기가 좀 더 가볍게 다가온다. 가장 두드러진 예는 간친이 죽기 위해 빌딩에서 뛰어 내리려고 하는 그 긴장된 순간에 얼마 전 식당에서 먹은 중국 음식이 목으로 다시 넘어와 그 맛을 다시 음미하는 것과 진지하게 뛰어내렸는데 무술로 단련된 몸이 본능적으로 낙법으로 반응하여 그가 살아남게 되는 장면이다(*GF* 238-239). 또한 승려인 간친과 썬디 사이에 전개되는 미묘한 연애의 감정의 발전도 그러하다. 3년간의 노동의 댓가를 전혀 받지 못한 채 미등록 체류자의 신분이 되어 중국으로 쫓겨날 위기에 상황에서 그들 사

이에서 이러한 로맨스적인 관계가 진행된다. 또한 간친은 중국으로 쫓겨 날 위기의 상황에서 승려로서 채식을 하던 데서 일종의 생존 전략으로 고기와 생선을 적극적으로 먹게 되고(GF 227), 나중에는 채식보다는 육식이 더 입에 맞게 된다(GF 230). 또한 플러싱 차이나타운에 돌아와서 죽기 위한 장소를 찾다가 어느 중국 식당에서 최후의 만찬을 대접받는데 절망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간친은 이 마지막 식사를 맘껏 즐긴다(GF 236-237).

그러나 이런 식의 묘사는 진이 이야기의 주제를 가볍게 취급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만의 방식으로 간친이 처한 복잡하고 힘든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현실, 진퇴양난과 같은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또한 진의 유머 있고 아이러니한 글쓰기는 너무 근엄하지도 않다. 왜냐하면 그의 의도는 어떤 진지한 도덕적 가르침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간친의 추락이 ‘나쁜’ 추락이 아니라 ‘좋은’(혹은 ‘멋진’) 추락으로 귀결된다. 이렇게 진은 이 단편 이야기에서 때 묻고 소박한 어찌면 문제투성이기도 한 초국적 이주자의 생존 이야기를 보여준다. 또한 그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형성되어 가는 중국계 미국인 이민자들의 초국적 이주자 정체성의 특징을 보여준다.

### III. 결론: 중국인에서 중국계 미국인으로

이 논문에서 필자는 진의 단편 모음집 『좋은 추락』에 수록된 12편의 이야기 중에 4편을 선택하여 자세히 분석하였다. 가장 첫 번째와 마지막에 수록된 이야기와 함께 그 사이에 있는 두 편의 이야기를 선택하였다. 이를 통해 필자는 단편집에 수록된 이야기들의 전체적인 구조적 특징을 추락과 비상 그리고 그 사이에서 노력하는 과정들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런

방식으로 진이 단편 모음집의 여러 이야기를 통해 초국적 이주와 정착의 과정에서 초국적 이주자들이 보여주는 리질리언스를 어떻게 재현하는지에 주목하였다. 『좋은 추락』에 등장하는 초국적 이주자들은 그들의 이주와 정착을 통해 저곳과 과거와의 단절을 바라며, 현재 이곳의 삶에 적응하고 정착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좋은 추락』에 등장하는 중국인 이민자들은 이 둘 사이에서 끊임없이 힘든 싸움을 한다. 외적으로 새로운 땅에서 정착하는 과정 중에 경험하는 여러 어려움이 있다. 또한 동시에 저곳과 과거는 끊임없이 그들의 현재 이곳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진이 『좋은 추락』에서 보여주는 중국인 이민자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완전히 주저앉지 않고 견뎌내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인다. 이들의 초국적 이주자의 정체성은 이렇게 형성된다. 이렇게 이들은 중국인에서 중국계 미국인으로 만들어져 간다. 이 둘 사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타협을 하면서 그들의 초국적 이주자 정체성이 형성되어 간다.

진의 단편집 『좋은 추락』을 초국적 이주자가 새롭게 이주한 지역에 적응하고 정착해가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때때로 몹시 거칠기도 하지만 항상 유동적인 문화적응 (혹은 문화변용)의 과정”(the sometimes turbulent but always fluid process of acculturation)이다(Parascandola 43). 여기서 ‘문화적응’ (혹은 ‘문화변용’)의 원래 단어는 acculturation이다. 이렇게 번역한 이유는 초국적 이주자가 수동적으로 새로운 문화에 동화되기보다는 제한적이지만 나름대로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적응하며 일정 정도 자기 원래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개입된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함이다.<sup>15)</sup> 이러한 문화적응 (혹은 문화변용) 현상은 “모든 이민자가 직면하는 지속적인 ... 과정”이기도 하다(Parascandola 58). 다시 말해, 진이 중국인 이민자들의 초국적 이주의 삶에 대해서 재현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이는 특정 이민자 집단에만 해당하는 것이라기보다는

---

15) 이러한 acculturation의 복잡한 과정과 함의에 관해서는 셋 슈왈츠(Seth J. Schwartz)의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이야기로 혹은 더 나아가 보편적인 이민자의 이야기로 확대하여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진의 『좋은 추락』에 수록된 단편들은 미국적 삶을 배우려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어떤 도덕적으로 우월한 삶에 대한 배움이라기보다는 추락하여 생존의 고된 현장에서 때가 묻고 분투하며 살아남는 삶을 통해 새로운 땅에 정착해가는 삶을 배우는 것이다. 그렇기에 간친의 말 “내가 그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란다”(Well, I hope that's something I can learn)(GF 240)—이 말로 단편집이 끝을 맺는다—에서 기꺼이 드러내는 미국적 삶을 배우려는 그의 자세는 의미심장하다. 이 말의 의미를 그와 씬디와의 관계에서만 아니라 단편집 『좋은 추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헤아려 볼 때 그것은 앞에서 설명한 acculturation의 의미를 함축한다.

끝으로 무엇보다 진의 『좋은 추락』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시선을 끄는 지점은 그가 이민자들의 어려운 이주와 정착이라는 진지한 내용을 비극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만의 유머와 아이러니를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의 효과는 독자들이 서사의 표면적 의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것의 이면적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도록 한다는 점이다. 이런 방식의 서사적 특징으로 인해 필자는 진의 『좋은 추락』을 ‘리질리언스의 서사’로 요약하고자 하며, 바로 이 점이 진의 단편집을 더욱 매력적인 이민자들의 이야기로 만든다고 할 수 있다.

(부산대학교)

## ■ 주제어

하진, 『좋은 추락』, 추락, 리질리언스, 초국적 정체성, 문화적응/문화변용

## ■ 인용문헌

- 고혜림. 「상상된 중국과 장소 그리고 정체성 — 哈金の 단편소설집 『멋진 추락』을 중심으로.」 『중국학』 72 (2020): 281-96.
- 왕은철, 번역. 『멋진 추락』. 서울: 시공사, 2011.
- \_\_\_\_\_. 「하진의 단편소설과 단순성의 미학.」 『영미문학교육』 10.2 (2006): 107-27.
- 이수미. 「하진의 중국재현과 오리엔탈리즘 논쟁.」 『비교문화연구』 38 (2015): 191-214.
- 이유혁. 「언어, 미학, 창조력: 하 진의 『자유로운 삶』에 나타난 문학적 트랜스링구얼리즘에 대한 연구.」 『영어영문학 연구』 57.3 (2015): 371-96.
- \_\_\_\_\_. “Diasporic Selves in between the National and the Transnational: A Study on Ha Jin's Emergence and Growth as a Diasporic Writer.” *The Jungang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65.3 (2023): 101-24.
- \_\_\_\_\_. “Inventing a Chinese Community: Reimagining Ethnic Minorities' Lives in the United States and Demystifying the American Dream.”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8.3 (2017): 857-76.
- \_\_\_\_\_. “On the Production of Localities in/near Metropolises in the United States: Transnationalism from Below/Margin and the Literary Representation of Minorities' Lives.” *The Jungang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59.2 (2017): 113-36.
- Bolonik, Kera. “Next Stop, Main Street.” *New York Magazine*, 25 Nov. 2009. [nymag.com/arts/books/features/62357/](http://nymag.com/arts/books/features/62357/). Accessed 28 April

2024.

- Boston University. "A Good Fall by Ha Jin." 1 December 2009. [www.youtube.com/watch?v=3Xu1CE37yaA](http://www.youtube.com/watch?v=3Xu1CE37yaA). Accessed 6 May 2024.
- Chen, Chung-jen. "The Best Thing America Gave Me": Diasporic Memory and Creative Nostalgia in *A Good Fall*." *Studies in Modern Fiction* 21.1 (2014): 53-78.
- Eckholm, Eric. "After an Attack, Chinese Won't Print Expatriate's Novel." *New York Times*, 24 June 2000. [www.nytimes.com/2000/06/24/books/after-an-attack-chinese-won-t-print-expatriate-s-novel.html](http://www.nytimes.com/2000/06/24/books/after-an-attack-chinese-won-t-print-expatriate-s-novel.html). Accessed 19 May 2024.
- Franklin, Ruth. "Portrait of the Artist as an Immigrant: Ha Jin's Quintessentially Chinese-American Novel." *Slate*, 19 Nov. 2007. [slate.com/culture/2007/11/ha-jin-s-a-free-life.html](http://slate.com/culture/2007/11/ha-jin-s-a-free-life.html). Accessed 20 April 2024.
- Garner, Dwight. "Ha Jin's Cultural Revolution." *The New York Times Magazine*, 6 Feb. 2000. [www.nytimes.com/2000/02/06/magazine/ha-jin-s-cultural-revolution.html](http://www.nytimes.com/2000/02/06/magazine/ha-jin-s-cultural-revolution.html). Accessed 12 August 2024.
- Guo, Yingjian. "A Good Fall: Surviving in an Internationalized Net." *Amerasia Journal* 38:2 (2012): 13-18.
- Ibáñez, Jose Ramón Ibáñez. "Writing Short Fiction from Exile. An Interview with Ha Jin." *Odisea* 15 (2014): 73-88.
- Jin, Ha. "Exiled to English." *The New York Times*, 30 May 2009. [www.nytimes.com/2009/05/31/opinion/31hajin.html](http://www.nytimes.com/2009/05/31/opinion/31hajin.html). Accessed 19 Jan. 2024.
- \_\_\_\_\_. *A Free Life*. New York: Vintage, 2007.



- \_\_\_\_\_. *A Good Fall*. New York: Pantheon, 2009.
- \_\_\_\_\_. *Waiting*. 1999. New York: Pantheon, 2000.
- \_\_\_\_\_. *The Writer as Migrant*. Chicago and London: The U of Chicago P, 2008.
- Klein, Julia M. "A Good Fall' by Ha Jin." *Los Angeles Times*, 22 Nov. 2009.  
[www.latimes.com/entertainment/la-ca-ha-jin22-2009nov22-story.html](http://www.latimes.com/entertainment/la-ca-ha-jin22-2009nov22-story.html), Accessed 28 April 2024.
- Li, Melody Yunzi. "Home and Identity En Route in Chinese Diaspora—Reading Ha Jin's A Free Life." *Pacific Coast Philology* 49.2 (2014): 203–20.
- \_\_\_\_\_. "Remapping New York's Chinatowns in the Works of Eric Liu and Ha Jin." *Affective Geographies and Narratives of Chinese Diaspora*. Ed. Melody Yunzi Li and Robert T. Tally Jr. Cham, Switzerland: Palgrave Macmillan, 2022. 115–33.
- Lyden, Jacki. "Chinese Author Pens 'A Good Fall'." *NPR*, 21 December 21 2009.  
[www.npr.org/2009/12/21/121714697/chinese-author-pens-a-good-fall](http://www.npr.org/2009/12/21/121714697/chinese-author-pens-a-good-fall), Accessed 6 May 2024.
- Martin, Holly E. "Falling into America: The Downside of Transnational Identities in Ha Jin's *A Good Fall*." *Transnational Literature* 4.1 (2011): 1–11.
- Parascandola, Louis J. and Punjabi, Rajul. "Language, Otherness, and Acculturation among Chinese Immigrants in the Short Stories of Ha Jin." *Asian American Literature: Discourses and Pedagogies* 8 (2017): 43–61.
- Spivak, Gayatri Chakravorty. "Can the Subaltern Speak?" *Colonial*

*Discourse and Post-Colonial Theory: A Reader*. Edited and introduced by Patrick Williams and Laura Chrisman. New York: Columbia UP, 1994. 66-111.

Schwartz, Seth J., Jennifer B. Unger, Byron L. Zamboanga, and José Szapocznik. "Rethinking the Concept of Acculturation: Implications for Theory and Research." *Am Psychol* 65(4) (2010): 237-51.

Toibin, Colm. "Exiles From Themselves." *The New York Times*, 31 Dec. 2009.  
[www.nytimes.com/2010/01/03/books/review/Toibin-t.html](http://www.nytimes.com/2010/01/03/books/review/Toibin-t.html).  
Accessed 27 April 2024.

Varsava, Jerry A. "An Interview with Ha Jin." *Contemporary Literature* 51.1 (2010): 1-26.

■ Abstract

**Fallen Yet Resilient:  
The Characteristics of Ha Jin's Representation of  
Immigrants' Transnational Identities in *A Good Fall***

Lee, Yoo-Hyeok  
(Pusan National Univ.)

This paper examines Chinese American writer Ha Jin's representation of Chinese immigrants' lives in *A Good Fall*—a collection of 12 short stories—giving particular attention to the ways in which the formation of immigrants' transnational identities is characterized. Jin describes diverse aspects of 'fallen' lives of Chinese people in the United States ethically, figuratively, and literally. We can hardly find heroic lives of great achievements in *A Good Fall*. Instead, most of the Chinese immigrants in *A Good Fall* undergo lives of struggle at the bottom and margin of the society where they want to settle down. The challenges they face are not only difficulties in their new land but also burdens from their old land. Despite these unfavorable and hostile conditions in their new land of hope, they try hard to keep their boats of lives floating instead of being completely sunken. This is how they show their spirit of resilience. This is also how a place of fall turns into a place of resilience. They become active subjects rather than passive objects in their lives of transnational migration. In this process of reshaping their lives here and now dealing with all burdens from over

there and in the past, their transnational identities are being formed and they gradually become Chinese Americans. Jin depicts the sometimes turbulent but always fluid and ongoing process of acculturation in *A Good Fall*. This is an (un)learning process of becoming Chinese American.

### ■ Key words

Ha Jin, *A Good Fall*, Fall, Resilience, Transnational identities, Acculturation

### ■ 논문게재일

○투고일: 2024년 7월 31일 ○심사일: 2024년 8월 12일 ○게재일: 2024년 8월 13일

# 브라이도티, 이시구로 그리고 윈터슨의 ‘인간 너머’의 세상들

: *Never Let Me Go*와 *Frankissstein*을 중심으로\*

임태연\*\*

## I. 서론

지난 수 세기 의학과 과학의 진보는 인류에게 상당한 변화를 일으켰고 생물학적 유전기술을 이용하여 인류를 더 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트랜스휴머니즘에 대한 논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1998년 닉 보스트롬(Nick Bostrom)과 데이비드 피어스(David Pearce)는 국제 비정부조직 세계 트랜스휴머니스트 협회(World Transhumanist Association)를 설립하고 인류 강화기술을 지지해 왔다. 이 협회는 2002년 “트랜스휴머니스트 선언문”에서 트랜스휴머니즘에 대한 두 가지 형식적 정의를 내리는데 첫째는 이성을 통해 인간의 조건을 개선시키고 그 행위를 긍정하는 것 둘째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게 만드는 기술의 세분화와 이에 수반된 윤리적 문제에 대한 연구를 지향하는 행위라고 말했다(이혜영 외 35). 지넷 윈터슨(Jeanette Winterson)의 소설 『프랑키스슈타인』(*Frankissstein*)의 주인공 라이 셸리(Ry Shelly)가 언급하듯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은 “스마트 삽입물,

\* 이 논문은 2024학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홍익대학교 부교수, tylim27@hongik.ac.kr

유전자 조작 ... 심지어는 두뇌복사를 통해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145)를 제공하는 21세기의 “생명의 백기사”이다. 그러나 동시에 생명무한연장이나 지상낙원을 꿈꾸는 등 극단적 이상주의자로 비유되기도 한다. 또 한 가지 유념할 점은 생명연장, 마인드 업로딩, 인간강화, 성별의 가변성, 유전자 업그레이드 등 트랜스휴머니즘 내에서 논의되는 주제들은 문자 그대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상태를 의미하는 ‘포스트-휴먼’(poshuman)이라는 사상적 주류와 종종 혼동되어 사용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해영이 말하듯 포스트휴먼이라는 용어는 인간강화를 통해 인간의 지적,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상과 운동을 뜻하는 트랜스휴머니즘뿐만 아니라 신사물주의, 에코페미니즘, 메타휴머니즘 그리고 안티휴머니즘 등 다양한 사상과 학파를 포함하는 광의의 범주로 이해되어야 한다(112). 다시 말해서 포스트휴머니즘은 인간의 본성이 합리적이며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들의 정점이라는 인간중심주의 자체를 비판하며 보다 복합적 방식으로 이질적인 종들 사이를 횡단하는 새로운 연합능력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트랜스휴머니즘보다 넓은 의미를 지닌다. 포스트휴머니즘이라는 거대한 사상적 주류를 어떠한 갈래로 분류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이해영은 기술개입을 통해 인간속성을 무한히 증대시키고자하며 인간의 본질적 자질들에 대해 강한 믿음을 보이는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의 인간 예외주의를 경계한다는 점 그리고 인간이 이미 다양한 생명의 종과 함께 진화해 왔으며 그것들에 의해 구성되고 그들을 동시에 구성하는 혼종적 집합체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 캐서린 헤일즈(Katherine Hayles), 도너 해러웨이(Donna Haraway) 그리고 로지 브라이도티(Rosi Braidotti)를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이라는 범주로 묶는다. 이동신은 작금의 포스트휴머니즘에 과학기술 발달에 방점을 두고 초인간을 추구하는 트랜스휴머니즘 외에도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난 새로운 인간개념을 계기로 삼는 사상과 동식물과 환경에 인간이 미친 영향을 재고하면서 비인간 존재의 역할의 중요성

을 탐색하고 인간개념을 재고하는 사상 그리고 이에 더해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자의적 구분으로 국한되었던 포스트 휴먼적 교류 가능성을 인간과 사물 사이로 확장하는 신사물론을 포함시킨다(183-89).

본 논문은 이러한 포스트휴머니즘의 논쟁적 범주들 가운데에서 생물학의 계보학적 범주나 개념들을 해체하고 전통적 친족체계를 다시 쓸 수 있는 트랜스-종, 성, 그리고 인종 범주들과 교차적 연대 가능성에 대해 연구하는 브라이도티의 이론에 초점을 맞추어 21세기 생명자본주의 시대의 “조애와 테크노 사이의 이행의 흐름 속에 존재”(브라이도티 282)하는 다양한 포스트휴먼 존재들의 가치와 현실이라는 양면을 살피고자 한다. 브라이도티는 엔지니어링을 거친 자궁 내 태어나 자궁 밖에서 인공 수정된 태아 등 여성의 몸이 더 이상 생명자본 시장에서 재생산의 유일한 터전이 아님을 강조하며 이렇게 재생산된 몸들이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횡단하며 즐기세포나 게놈 데이터뱅크 그리고 재생의학 등의 지식체계와 범주를 확장시키고 물질인 생명을 자본화하는 거대한 초국가 시장을 만들어냈음을 주지시킨다(281-82). 더 나아가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이나 재생산 테크놀로지들이 신자유주의 경제시장에 유입되었을 때 근본적인 인간 해방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커녕 새로운 재생산 테크놀로지에 종속되고 착취당하는 또 다른 성애화되고 인종화된 몸들을 만들어내고 더욱 착취하게되는 사회구조를 비판적으로 바라본다(282). 브라이도티 외에도 본 논문은 종 사이를 횡단하는 새로운 주체와 권력의 구도 그리고 연대를 만드는 일이 모든 종과 유기체들을 하나의 기표 아래에 두고 밋밋한 등가물로 치환시키는 무차별적 체계를 만드는 일이 되어서는 안됨을 주장하는 토마스 램케(Thomas Lemke)나 인간의 종 강화를 통한 수명연장 프로젝트나 행복산업 등을 추구하는 국가의 생명정치가 신자유주의 시대의 이윤 중심주의와 만났을 때 생기는 다양한 형태의 소외에 대해 논한 폴 나르쿠나스(Paul J. Narkunas) 등과 함께 가즈오 이시구로(Kazuo Ishiguro)의 『네버렛미고』와 윈터슨의 『프랑키스슈타인』을 읽는다. 다시 말해서 본

논문은 두 편의 SF 소설을 통해 작금의 트랜스휴머니즘 담론이 지지는 혁신이나 해방의 가능성 신화가 어떤 이데올로기를 함유하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사유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나르쿠나스는 화폐가 인간의 쾌락과 고통 등 내면성을 측정하는 마법의 잣대 역할을 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 인간형태를 과학기술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트랜스휴머니즘의 열망이 오히려 인간의 정신을 몸과 분리시키고 후자를 전자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왔던 자유주의 휴머니즘의 전통의 연장선 상에 놓이게 되는 현상을 비판적으로 사유한다. 이 이론가들은 동시에 자율적인 인간의 개념을 탈중심화시키는 포스트휴머니즘이라는 사상적 주류 내에 거하면서도 인간을 다른 생명의 형태보다 우월하게 설정하고자 하는 문화의 재현 방식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도 공통분모를 지닌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 두 번째 장에서는 『네버렛미고』를 통해서 생명유전기술의 발전이 선진자본주의 내에서 가속화되는 이윤 중심화나 자본의 전지구적 차이의 문제와 공모하며 어떻게 클론과 같은 소모성 생물학적 기계-물건들을 양산하는지 이것이 포스트휴먼 시대를 살아가는 독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논한다. 헤일샴(Hailsham)의 클론은 내면성이나 영혼까지도 자본주의 시장의 예측할 수 없는 여론이나 투기적 자본에 철저히 복속되어 있는 값싼 상품으로 그려진다. 이 작품은 1990년대 후반 영국을 배경으로 하며 헤일샴이라는 복제인간 양성학교 출신인 캐시 H.(Kathy H.)의 시점에서 서술된다. 그녀는 다른 클론들처럼 성(姓)이 없는데 이는 70년대 후반 영국의 복지제도의 그림자 속에서 그녀가 잉태되었으며 정부로부터 어떤 법적보호를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법적 보호는 물론이고 자연스러운 인간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정치적 가능성 자체가 이들에게는 고려되지 않는다. 평생 기증시스템이라고 하는 굴레를 벗어날 수 없고 살아있는 한 그들의 생물학적 기계-물건인 몸은 선진 자본시장에서 순환하는 싸구려 상품으로 다루어지다 완료된다. 특히 작품의 마지막에서는 클론들의 예술작품이 “교환회”(the Exchange)에 출품



되며 그 중 몇 작품들이 마담의 갤러리로 보내지던 이유가 밝혀진다. 클론들은 그들의 영혼조차 에밀리와 마담의 인본주의 프로젝트를 위한 거래적 가치를 지닌 상품으로 취급되었으며 그들 몸의 각 부분들이 선물처럼 '자연스럽게 태어난' 인간들에게 기증되었을 때에만 그들의 주체성을 획득할 수 있었음이 밝혀진 것이다. 작품에서는 분명히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헤일삼 역시 당대 영국의 거센 신자유주의 시장정책에 타격을 입은 인본주의 비영리기관으로 암시된다. 오늘날 NGO와 같은 비영리 비정부기관들이 상품시장의 원리를 따라 운영되는 것처럼 헤일삼 역시 글렌모르간, 손더스 트러스트와 같은 단체들과 경쟁하며 자금난을 극복하고자 했고 이를 위해 클론들의 영혼을 입증할만한 상품으로서의 예술품이 필요했음을 작가는 암시한다. 이런 별거벗은 삶들을 통해 작가는 인간을 전적으로 다른 몸들로 만들 수 있고 인간 주체의 안팎을 자유롭게 재조직할 수 있을 것이란 생명유전기술의 미래와 열망이 지극히 일방적인 관점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오늘날 생명유전기술의 발전으로 수많은 유전정보와 알고리즘이 데이터뱅크에 축적되며 생명을 포함하는 물질들은 점차 초국가 시장에서 탈자연화 혹은 상업화되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시구로와 윈터슨은 인간을 더 강한 종으로 만들고자 하는 보철기술나 생명공학 그리고 인지과학 등의 발전이 대처리즘 이후 생명을 관리해 온 후기 자본주의 시장의 거센 물결과 합세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정신 만능주의를 경계한다. 브라이도티 역시 인간의 정신이 몸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의 탈물질화 경향이 전지구적으로 착취되는 특정 인구의 노동조건을 재물질화와 짝을 이루며 나아가는 현상을 비판적으로 사유한다(106). 지식은 매개되고 과학기술은 점차 경험적 인간의 실제성을 탈물질화시키지만 생명 그 자체에서 이득을 취하는 생명자본주의는 전지구적으로 재생산노동자의 새로운 하위범주를 양산하면서 경제적 불평등으로 짓밟힌 인간들의 몸을 노동조건으로 재물질화시키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브라이도티는

그 과정에서 가치있고 쓸모있는 시장형 인간과 그렇지 못한 소모형 시장형 인간 사이의 거대한 위계가 형성됨을 지적한다. 다음 장에서는 『네버렛미고』에 나타나는 소모성 생물학적 기계-물건들의 존재가 오늘날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속에서 몸으로 기여하는 성애화되고 유색인종화된 타자들—예를 들면 저임금을 받고 돌봄이나 육아의 책무를 지는 제 1세계의 비백인 이주민 여성 등—의 소외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살핀다.<sup>1)</sup>

본 논문 세 번째 장에서는 윈터슨의 『프랑키스슈타인』의 주인공 빅터스타인(Victor Stein)을 통해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이 추구하는 하이퍼 테크노 개인주의나 몸의 탈물질화 경향성이 간과하는 지점들을 살핀다. 작가는 빅터를 통해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거액의 재산을 모은 초국가적 기업가들이 어떻게 기술을 사용할지 여부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음을 주지시킨다. 더 나아가 인공 삽입물로 자연과 몸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트랜스휴머니즘 사상들이 론 로드의 섹스봇처럼 백인 남성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의 오랜 계몽주의 틀이나 남성/문화/지배 대 여성/자연/종속이라는 유럽중심적 휴머니즘의 모델과 손쉽게 재영합할 수 있음을 비판적으로 사유한다. 브라이도티가 말하듯 트랜스휴먼 기술은 규범적으로는 휴머니즘의 윤리적 가치를 여전히 답습하고 있고 정치적으로

---

1) 바이오-엔지니어링, 인지기술의 발전 등이 인간의 기억과 창의적 산물을 전지구적으로 디지털화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기술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는 글로벌 플랫폼이나 기업들은 전통적인 노동자 고용의 형태를 완전히 변모시켰다. 예를 들어, 우버(Uber)나 에어비앤비(AirBnB)와 같은 초국가 기업들은 디지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모든 참여자들이 생산에 참여할 수 있고 세금을 내지 않고도 자산을 형성시킬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나르쿠나스가 지적하듯 실리콘 벨리(Silicon Valley)의 하이테크 기업들은 세금법이나 초청노동자 법안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기간제 시장형 인간들을 양산하거나 퇴직금이 필요 없는 프리랜서들을 다수 채용하는 “긱 이코노미”(Gig Economy)는 더욱 보편화되는 실정이다(Narkunas 57). 본 논문은 결국 이러한 사회 속에서 사회구성원 대다수가 어떻게 자본에 의해 조직되는 다양한 가치들에 자신을 연루시키는 데에 실패한 수많은 소모형 시장형 인간들로 전락하게되며 사회적 불균형은 심화될 수밖에 없는지 함께 살핀다.

는 신자유주의와 연동되며 인간진화의 모델로서의 원형을 수반한다. 문제는 이러한 원형이 여러 양태의 차별, 배제, 자격 박탈, 및 비선별을 영속화하고 심지어 악화시킨다는 데에 있다(브라이도터 155-56). 3장에서는 『프랑키슈타인』을 통해 신자유주의적 자본과 생명유전학 기술이 융합되는 시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간 그 이후'의 사상들이 어떻게 휴머니즘 전통을 역사의 무대에 손쉽게 재소환시키는지 더 나아가 '인간/남자'를 중심으로하는 인종과 계급 그리고 성차의 권력관계를 재생산할 수 있는지 살핀다.

또한 메리 셸리(Mary Shelly)의 더블로 등장하는 21세기 라이 셸리(Ry Shelly)의 양성적 몸을 통해 '포스트' 자연의 방식으로 인간을 개조한 뛰어난 몸이 지니는 미래적 가치와 무자비한 현실을 살펴본다. 메리와 라이는 빅터가 지향하는 정신 만능주의와는 달리 인간 몸이 지니는 생리학적 특징들을 중요하게 여긴다. 자신의 몸이 사회 속에서 '잘못 위치지어진' 존재임을 알고 있지만 자신이 선택한 양성적 몸이 주는 정동의 느낌을 사랑하고 그것을 자신과 가장 가까운 진실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과 같은 성 소수자의 몸이 지니는 한계와 일상 속 폭력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냄으로써 과학기술의 합리성이 마치 공정한 시장원리처럼 모두를 사회 내에서 공평하게 발전시킬 것이라는 낙관론에 일타를 가한다.

인공지능은 아직 범용단계에 있지 않으며 피부색이나 성은 없지만 아마존의 인공지능(AI) 채용 시스템이 여성 지원자를 차별한 사례에서 드러나듯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인종적, 성적 위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윈터슨 또한 뇌와 컴퓨터 인터페이스 장착을 시도하는 일론 머스크와 같은 기업가들이 꿈꾸는 가짜 유토피아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이 극우성향을 띤 신자유주의의 흐름과 만날 때 생겨날 수 있는 상황을 우려섞인 시선으로 바라본다. 그녀는 “과학기술은 중립적으로 태어나지만 중립적으로 키워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 멋진 신세계의 접근권을 가질 수 있는 자들은 극소수이며 누가 혜택을 받고 못 받느냐는 철저히 정치적 문제라

고 말한다(『12바이트』 327). 브라이도티 역시 빅터와 같은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이 범하는 오류는 그들이 말하는 트랜스휴먼의 가능성이 실제로는 “구체적 맥락 속에 뿌리내린, [그리고] 체현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부정, 그리고 억압된 사람들이 더욱 취약한 형태로 체현된다는 사실에 대한 부정”(114)을 영속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한다. 물론 그녀는 즐기세포로 키운 대체장기나 우리의 몸을 빠르게 향상시켜줄 신경 인플란트 등이 우리를 인터넷과 연결시킬 때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비관적으로만 보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빠른 테크놀로지와 포스트휴먼이라는 사상적 합류가 여전히 제 1세계 백인 남성이라는 전통적인 인류학적인 지식모델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타자와 관계 맺음을 이어나가고 있음을 지적한다.

## II. 『네버렛미고』에 나타나는 생물학적 기계-물건들

1960년대 케인스식 보건복지법은 1979년 마가렛 대처(Margaret Thatcher) 정권이 들어서며 사라지고 영국은 본격적으로 신자유주의의 거센 물결에 동참한다. 윌리엄 베버리지(William Beveridge)가 내세운 모든 이에게 요람에서 무덤까지 돌봄을 지원한다는 사회복지 모델은 점차 물러나고 가정이나 공공영역에서 이행되어 오던 사회적 약자의 돌봄문제는 위기에 봉착한다. 인간은 더 이상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권력이 관여하는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자유주의는 국민을 정치적 주체의 형식으로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책임지고 자기돌봄을 실행해야 하는 포스트정치 시민으로 만들었다. 신자유주의란 광범위하게 현대복지국가의 권력개입에 대해 경제적 자유방임주의라는 원리를 도입시킨 사상 전반을 지칭하지만 전통적인 자유주의가 국가의 개입 자체를 반대했다면 신자유주의는 정부를 배후로 시장경쟁 질서를 더욱 권력적으로 확장하는 경향성을 보

인다. 예를 들어, 신자유주의자들은 다수의 이익을 넘어설 수 있는 강인한 국가와 결정주의를 옹호하는데 피에르 다르도(Pierre Dardot)는 그 때문에 우매한 대중들로 인해 민주주의가 위협에 빠졌을 때 “개인의 사적권리와 시장질서를 존중하도록 만드는” 정부의 과감한 행보가 [신자유주의자들에게] 정당한 것으로 비춰진다고 말한다(89). 이희구와 이관수 역시 더 이상 정치주체가 아닌 자신을 책임져야 하는 소극적 개념의 시민과 이를 부추기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정치를 포스트정치로 명명하며 이시구로의 작품을 분석한다. 또한 이 시대는 “인간에 대한 모든 거대서사들을 경제적 효율성과 관리의 관점으로 환원시켜 정치를 경제의 시스템 속으로 복속 시키”며 이 때의 국가 역할은 인간해방이 아닌 주어진 자본주의 시스템 내에서 인간을 가두고 관리하는 경찰의 그것이라고 설명한다(263). 더 나아가 이러한 포스트정치와 재난 자본주의 그리고 브렉시트의 역사적 상황 등이 이시구로의 『네버렛미고』나 『클라라와 태양』(*Klara and the Sun*) 등의 인공지능 텍스트의 배경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제 신자유주의 시대의 자본주의와 정치적 자유주의의 교차로에서 탄생하는 새로운 시장형 인간들은 근대적 민족-국가-시민의 동맹관계가 만들어내던 과거의 협동적 주체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투자의 수단으로 보는 시장 행위자로 축소되며 오로지 자본의 연결고리와 연루됨으로써만 존재하게 된다. 위험성 높고 정부규제가 약한 헤지펀드, 독점 판매권과 같은 무형자본, 여론 등 빅데이터를 통해 시시각각 급변하는 금융자본의 흐름 속에서 이제 다국적 기업이나 비국가 인본주의 단체들은 전통적 인간 주체의 개념을 시장자본의 단위로 잘게 쪼개어 축소시킨 지 오래이다. 더 나아가 자본의 전기구적 확대와 급속도로 발전한 생명공학기술은 근대적 인간이나 유기적 몸의 온전함이라는 관념을 앗아가고 대신 파편화된 신체성이 갖는 독자적 생명성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조각난 신체가 독립적 상품으로 자본시장에 등장하는 사건을 근대적 휴머니즘의 통념으로는 더 이상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경제적인 인간만 존재하는 신자유주

의 합리성 내에서는 도덕이나 자유의 개념마저 자본손실을 최소화하는 위기관리의 매커니즘 안에서 사유되고 있다.

『네버렛미고』는 클론들의 장기적출과 이식으로 인간수명을 연장시키 고자 하는 1990년대 후반 영국정부의 트랜스휴먼 프로젝트를 배경으로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배경에서 복제인간들을 그들의 노동을 마치 선물처럼 기부해 온 그리고 대처리즘 이후의 신자유주의 시장의 돌봄 윤리학에 자신을 희생해온 사회적 약자로 비유한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시대적 배경은 김부성이 말하듯 대처 내각이 “모든 종류의 돌봄이란 어디까지나 개인 차원의 문제”라는 믿음을 강요하는 가운데 자기관리를 잘하는 선량하고 책임감 있는 시민에 대한 기만적 정의를 정착시킨 시대이기도 하다(29). 그러나 작품의 시대적 배경은 이타주의적 대체성 (fungibility)이라는 명목하에 대리임신이나 장기이식, 세포교환과 기증판 매와 같은 시장행위를 자유롭게 이어나가는 오늘날의 선진 자본주의 시장의 모습과 흡사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장기적출로 인해 자연스럽게 태어난 인간들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이시구로의 클론은 사회 내에 존재하는 별거벗은 신체들로 볼 수 있다. 감정이나 배움 그리고 공감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내에서 비인간적 타자라는 위치를 점유하고 있으며 그들의 존재는 교환가치를 지닌 살점 단위들의 총합이자 물화된 생물학적 기계-물건들의 연결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또한 그들의 주체성은 몸을 구성하는 유기체의 각 부분들을 모두 빼앗겨 그 사명을 완료하였을 때에만 취득된다. 그들도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몸을 타자들에 의해 가치 매겨진 장기들의 총합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자본시장에서 크게 유용하지 않은 영혼이나 내면성을 나타내는 예술작품들은 교환회에서 얻은 토큰으로 사람들이 쓰다 버린 골동품 정도를 맞교환할 정도의 값어치만을 지닌다.

이 대목에서 헤일섬에서 개최되던 교환회에 대해 설명해야겠다. 1년에 네 차

레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는 석 달 동안 만든 모든 것을 모아 대규모 전시회 겸 판매회를 열었다. 유화, 소묘, 도예품, 그리고 당시 흔히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든 각종 '조각품,' 깡통을 두르려 찢거나 판지 위에 병뚜껑을 붙여 만든 것 등이 나왔다. 작품을 내놓으면 그 대가로 교환용 토큰을 받았고(각 작품작의 가치는 교사들이 평가했다.) 교환회 날 그 토큰으로 마음에 드는 물건을 '구입' 할 수 있었다. 같은 학년 학생들의 작품만 사야한다는 규칙이 있긴 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석 달 동안 꽤 많은 작품을 만들었으므로 선택의 폭은 꽤 넓었다. (35)

I should explain a bit here about the Exchange we had at Hailsham. Four times a year—spring, summer, autumn, winter—we had a kind of big exhibition-sale of all the things we'd been creating in the three months since the last Exchange. Paintings, drawings, pottery; all sorts of "sculptures" made from whatever was the craze of the day—bashed up cans, maybe, or bottle tops stuck onto cardboard. For each thing you put in, you were paid in Exchange Tokens—the guardian decided how many your particular masterpiece merited—and then on the day of the Exchange you went along with your tokens and "bought" the stuff you liked. The rule was you could only buy work done by students in your own year but that still gave us plenty to choose from, since most of us could get pretty prolific over a three-month period. (16-17)

위 문단에서처럼 작가는 클론들의 예술품을 에밀리와 마담의 갤러리에 재능기부의 형식으로 제출하게 함으로써 그것들을 선물과 유사한 형태로 만든다. 다시 말해서 헤일삼이 추구하는 '인본주의 교육'(humanizing education)은 그것이 선물인지 혹은 교환회의 예에서처럼 판매되는 상품인지 사이의 경계를 교묘하게 흐리면서 클론들의 재능뿐 아니라 장기 또한 선물처럼 사회에 기증하도록 한다. 당시 헤일삼은 신자유주의 시장에 큰 타격을 입은 후 글렌모르간, 손더스 트러스트와 경쟁하며 자금을 모아야 했던 비영리 비정부 기관으로 작중 암시된다. 이들은 클론들의 존재를 입증할 도구로서 그들의 예술품을 이용하여 자금을 모아왔다. 특히 토미와 캐씨가 마담과 에밀리에게 유예를 얻으려 찾아가는 장면에서는 사실

상 그들의 예술품이 1970년대 후반에 인기를 끌었던 클론들도 윤리적으로 대하자는 이타적인 모금 운동을 고무시키는 데에 쓰였음이 드러난다. 자신들의 영혼을 증명하면 사랑이 허용되고 몇 년간의 유예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토미의 가설은 결국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고 ‘자연적으로 타고난’(natural born) 인간들이 클론의 존재를 영혼 없는 물건으로 치부한다는 사실에 크나큰 충격을 받는다.

우리는 가장 잘된 작품들을 선별해 특별 전시회를 열었지. 우리의 영향력이 최고조에 달했던 1970년대 후반에 우리는 전국 규모의 대형 이벤트를 조직했어. 장관, 주교, 온갖 분야의 유명 인사들이 찾아왔지. 그들은 연설을 했고, 연설에 이어 막대한 기금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지.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었어. ‘여깁니다, 보세요! 이 작품 좀 보시라고요! 이런 아이들을 두고 어떻게 인간 이하의 열등한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그래. 우리는 당시 시류를 타서 많은 지원을 받았단다. . . . 사람들은 너희 학생들에 대해, 너희가 어떤 상황에서 성장하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 다른 말로 하자면 애들이, 너희가 어둠 속에 머물러 있기를 바란 거야. 마리 클로드나 나 같은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 너희가 처해 있던 그런 어둠 속에서 말이다. (446-51)

We selected the best of it and put on special exhibitions. In the late seventies, at the height of our influence, we were organizing large events all around the country. There'd be cabinet ministers, bishops, all sorts of famous people coming to attend. There were speeches, large funds pledged. "There, look!" we could say. "Look at this art! How dare you claim these children are anything less than fully human?" Oh yes, there was a lot of support for our movement back then, the tide was with us." . . . [But] they didn't want to think about you students, or about the conditions you were brought up in. In other words, my dears, they wanted you back in the shadows. Back in the shadows where you'd been before the likes of Marie-Calude and myself ever came along. (263-64)



삶의 목적이 장기기증인 인간들을 만들어낸 '자연적으로 타고난' 인간들의 양심의 가책을 덜고 기증 과정에 놓인 이들에게 작게나마 공리적 행복을 선사하는 것이 헤일삼의 교육 목표였다. 모닝데일 사건 전까지 의회 각료나 교황 그리고 유명 인사들은 자신들의 도덕적 이미지를 쇄신하고자 헤일삼에 투자해 왔지만 헤일삼의 이타주의는 기증제도 자체를 없애기 위함은 아니었음이 밝혀진다. 생명유전공학 시대에 도래한 이타적 문명화 전략을 위해 클론들의 삶이 완료되기 전까지만 어느 정도의 자주성을 허용하지는 소극적 시도에 불과했던 것이다. 여기서 모닝데일(Morningdale)은 메리 셸리의 빅터 프랑켄슈타인(Victor Frankenstein) 박사를 떠올리게 하는 인물로 생명공학기술을 통해 기존의 인간보다 더 뛰어난 아기 모델을 만들어내는 데에 성공한다. 그러나 이 기술은 전통적 인간의 생명윤리를 넘어선다는 이유로 비판적인 여론이 일고 헤일삼 등의 인본주의적 비영리기관들은 큰 타격을 입는다.

정부는 또한 클론들의 완료과정을 보상이라도 하듯 그들이 적출당하기 직전 코티지(Cottage)에서 달콤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허용한다. 이 시기에 그들은 마르셀 프루스트(Marcel Proust)나 프란츠 카프카(Franz Kafka) 등을 읽으며 존재에 대한 철학적 사색을 하거나 자신의 근원자(possible)를 찾으려 시도한다. 그러나 작가는 헤일삼의 클론을 통해 가치있는 시장형 인간만을 위하는 이타주의적 경제구조가 오직 장기들의 저장고로서만 인지되는 생물학적 기계-물건들을 어떻게 양산해내며 그들의 인권을 철저히 박탈하는지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헤일삼의 위기는 이민자나 다문화 혐오 등 영국 내 불평등을 가속화시키는 포스트-브렉시트 시대의 기업들이나 비국가적 인본주의 단체들이 맞이한 위기와 흡사하다. 세계적 시민사회와 NGO 등의 비국가적 인도주의 단체들은 국가와 국가 간 위계의 빈틈을 메우려 노력하지만 결국 재정 기부와 자선 시스템 등 시장의 인본주의를 시전하며 재정난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 그들은 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제1세계 국가에 로비를 하거나 자신들의 통치기능을

그들에게 일부 넘겨줌으로써 자유시장의 논리를 강화시키거나 특정지역의 가난과 억압을 연장시키는 등의 역효과를 낳기도 한다. 결국 이들 또한 공리주의적 인본주의(utilitarian humanism)를 시전하며 인권개념을 미국이나 서유럽국가의 국민처럼 가치있는 시장형 인간에 국한하여 사용하고 이를 값싼 시장형 인간으로부터 분리시킴을 알 수 있다(Narkunas 95).

주지할 만한 점은 헤일삼 클론들의 성장과 완료과정 역시 철저히 공리주의적 목적 아래 이뤄진다는 점이다. 이에 관하여 폴 나르쿠나스(Paul Narkunas)는 자본시장의 논리를 통해서만 자신을 정의할 수 있게 된 시장형 인간이 공리주의적 인본주의와 만났을 때 사회적 불평등이 어떻게 가속화되는지를 분석한다(95). 더 나아가 서유럽과 미국 등 강력한 국가들이 보편적 인권이라는 용어를 앞세워 특정인구의 보호받을 권리나 법적 인지력만을 복원하고자 나서며 자연스러운 인권/인본주의 개념과 통치성 사이의 밀접한 연결고리를 통해 새로운 식민주의를 어떻게 전지구적으로 확장시키는지 설명한다. 나르쿠나스에 따르면 결국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 내에서 이뤄지는 인본주의적 간섭은 국가권력과 결합하여 인간중심적 군사동맹 마저 강화시킨다(136). 트럼프 정권에서 제안된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장벽의 예에서처럼 신자유주의 시대의 인본주의는 전쟁과 국제법의 관계를 제 1세계 중심으로 규정짓거나 더 많은 인구를 비인간 객체로 만들어내며 인간을 통치한다. 그 과정에서 웬디 브라운(Wendy Brown)이 “통치권의 연극성”(theatricality of sovereignty, qtd. in Narkunas 135)이라고 명명한 새로운 형식의 국가권력과 결정주의가 부활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작품에서 영국의 건강복지 시스템의 일환으로 거둬진 복제인간들의 장기들은 신자유주의 자본시장에서 실제로 이뤄지는 장기매매의 실정과 크게 다를 바 없다. 나르쿠나스에 따르면 제 1세계의 시민 복지정책이나 기증제도는 1970년 신자유주의 체제로 돌입하면서 주 정부보다는 전 지구적 자본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기대고 있다. 익명성의

원칙에 의거하여 국제법이 명확히 적용되지 않는 암흑지대에서 거둬드린 범죄자나 탈옥수 그리고 난민의 몸을 기증제도에 활용하는 국제기증단체 (UNOS)가 그 예이다(Narkunas 242-43). 인권단체 “올건 와치”(Organ Watch) 역시 매해 약 이만여 개의 장기가 암시장에서 불법적으로 거래되며 그 중 대부분은 동유럽이나 필리핀, 인도 등 가난한 계층이나 무단이탈 병사들의 사살된 몸이라고 주장한다(Narkunas 239). 이렇게 수집된 장기들은 이스라엘, 러시아와 이탈리아 등의 브로커들에 의해 제 1세계로 수입되고 그 과정에서 인간의 피부, 장기, 난자 등 유기체의 각 부분들은 자본의 순환구도 속에서 철저히 물화된다. 또한 초국가적 시장의 힘은 장기기증이 지나치게 고가이거나 불법인 국가의 시민들에게 기증 투어를 부추겨 외국에서 수술을 받을 시 이를 건강보험에서 뒷받침하는 제도들을 발빠르게 마련하고 있다.<sup>2)</sup> 더 나아가, 면역억제제 등의 생명기술과학의 발전은 몸이라고 하는 유기체를 더 작은 단위로 쪼개고 재접합이 가능하게 만들어 이를 한 인간의 정체성으로부터 분리시키고 다른 인간의 그것에 덧붙이는 등 인간 주체의 안팎을 자유롭게 재조직하기에 이르렀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전 세계의 노동분화와 임금의 차가 더욱 극명해진다는 점이다. 작금의 상업적 대리모 시스템에서 볼 수 있듯 북한군 중산층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뛰어들으로써 그만두는 돌봄이나 양육 그리고 재생산의 영역은 이제 값싼 시장형 인간인 비백인 이주민 여성의 몫으로 넘어가고 있다. 앞서 우리는 클론들의 몸과 영혼이 어떻게 신자유주의 시장의 무자비한 투기적 자본의 힘에 복속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드러내 줄 예술품조차 선물원칙에 기대어 에밀리와 마담의 인본주의 실험에 도구로 사용되었는지를 살폈다.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 시장의 장기기증자들은

---

2) 일례로 미국의 건강보험 회사들은 인도나 파키스탄 등의 제 3세계 정부와 손잡고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외국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기증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예를 들어 라호르의 병원에서 익명으로 아홉소싱된 장기를 기증받는 이러한 방식은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논리와 완벽하게 맞물린다는 것이다 (Narkunas 241-42).

이시구로의 클론처럼 이타주의적 자본시장에서 삶을 연장하기 위해 혈액 공급과 장기기증 등으로 자신의 주체성을 기꺼이 완료시키고자 한다. 이에 더하여 국제 기증단체들은 마케팅전략으로 장기매매나 기증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한 감정을 인간의 소중한 목숨을 살리고 있다는 이타주의로 완화시키고 있다. 다시 말해서 생명자본주의 시장의 장기기증 제도는 여전히 인간의 의지나 타인에 대한 공감이라는 인본주의 원칙에 기대 매매시장을 활성화시키며 이타주의는 오히려 경제적 부조리와 힘의 불균형의 문제를 교묘하게 가리는 도구로 작동한다. 이처럼 신자유주의 시장에서 강조하는 인본주의나 희생하는 몸의 판타지가 제 1세계의 가치 있는 시장형 인간들이 제 3세계의 소비가능한 인간물질을 착취하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포장하는 실태를 나르쿠나스는 아이러니하게도 “이타주의 시장의 풍요”(market's cornucopia of altruism, 242)라고 표현한다.

결국 이시구로는 클론들의 낯선 언어를 통해 거대한 자본시장의 부스러기나 쓰다버린 물건들로부터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고 주체성을 구성하는 클론들의 삶이 ‘자연스럽게 타고난’ 인간들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하고자 한다. 클론들이 구성하는 일시적 주체성은 그들이 끊임없이 마주하는 소셜들의 구절이나 포르노 잡지나 TV같은 대중매체의 이미지 등을 통해 구성되고 그들의 내면성 역시 감각신경을 어지럽히는 수많은 정동적 느낌이나 제스처어들로부터 만들어진다. 클론 또한 자신들의 유전적 원본자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는데 일레로 루쓰(Ruth)는 자신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친구들을 향해 그들도 원본자를 찾고싶거든 쓰레기통이나 하수구를 뒤지는 편이 나올 것이라며 울부짖는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타고난’ 인간들 역시 가상세계에 순환하는 수 많은 이미지들과 소비하고 버려지는 상품들, 교환가능한 지식의 단편들로 주체성을 구성한다. 일레로 생명공학자들은 인간을 구성하는 유전자들 가운데 단백질 합성하는 중요한 DNA는 몸 전체의 1.5%뿐이며 유기체의 나머지 부분들은 끊임없이 재활용되는 물질성 그 자체라고 말한다. 즉, 자연스러운

인간의 몸도 존재론적으로 쓰이고 버려지는 살점의 총체에 불과하며 우리가 몸담은 자본주의 시장 역시 낡은 것을 끊임없이 새로운 소비로 대체해야 하는 소모품 마케팅 전략에 기대고 있다. 이시구로는 결국 인간의 존재론적 근거가 자본주의 시장에서 순환하는 그리고 화폐로 제정된 자본들의 총합이며 영혼조차도 상상적 산물에 불과함을 암시함으로써 생명자본주의 시대를 여전히 지탱하는 자연스러운 인간이라는 판타지와 인본주의에 어떻게 저항할 것인지에 대해 묻는다.

작품의 말미에서 캐씨는 자신이 아끼던 주디 브리짓워터(Judy Bridgewater)의 카세트 테이프를 노퍽(Norfolk)에서 되찾게 된 일화를 떠올린다. 그녀는 특히 세 번째 트랙 “네버 렛 미 고”를 특히 좋아했는데 종종 기숙사에 혼자 남아 가사를 흥얼거리며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성이 기적적으로 아이를 갖게되는 상상을 하곤 했다. 하루는 베개를 아기처럼 흔들며 가사를 흥얼거리다가 우연히 복도 끝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마담을 목격한다. 그 일이 있던 지 두 달 후, 그녀는 소중히 여기던 테이프를 잃어버리게 되고 상심한 캐씨에게 루씨는 “스무 개의 고전 무용곡”(Twenty Classic Dance Tunes)을 선물한다. 이 일화는 화자에게 일련의 다른 기억들을 소환시키는데 일례로 그녀가 토미와 함께 노퍽을 방문했다가 울워쓰(Woolworth) 상점에서 기적처럼 브리짓워터의 “송스 애프터 다크”(Songs After Dark)를 다시 찾게 된다. 이는 수업 시간 달력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영국의 각 주를 설명하곤 했던 루씨(Lucy) 선생님을 떠올리게 했다. 그러나 거기엔 영국의 “잃어버린 구석”(a lost corner)라고 불리는 노퍽의 사진은 없었다. 루머이긴 했으나 헤일삼의 분실물 보관소 역시 “잃어버린 구석”(lost corner)라고 불렸기에 학생들은 잃어버린 것들은 모두 노퍽에 모여있을 것이란 상상을 하곤 했다. 더 나아가 노퍽에서의 일화는 작품의 말미에서 상실된 자들의 죽음을 기억하는 캐씨의 애도로 연결된다. 토미가 완료된 후 캐씨는 노퍽의 들판에 서서 철사망으로 둘러쳐진 들판 너머로 토미가 손을 흔들며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상

상을 한다.

나뭇가지에도 깨진 플라스틱 판과 낡은 가방 조각들이 걸려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거기에 서서 그 기묘한 잡동사니들을 바라보며, 텅 빈 들판에 바람이 지나가는 것을 느끼며 나는 환상에 가까운 상상을 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요컨대 그 곳은 노력이었고 토미를 잃은 지 겨우 두어 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머릿속에서는 그 잡동사니들, 나뭇가지에 걸린 플라스틱 조각, 해안선 같은 철망을 따라 걸려 있는 기묘한 물건들이 떠돌고 있었다. 나는 반쯤 눈을 감고 상상했다. 어린 시절 이후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이곳에 모여 있다고, 이 앞에 이렇게 서서 가만히 기다리면 들판을 지나 저 멀리 지평선에서 하나의 얼굴이 조그맣게 떠올라 점점 커져서 이윽고 그것이 토미의 얼굴이라는 것을 알아보게 되리라고, 이윽고 토미가 손을 흔들고, 어쩌면 나를 소리쳐 부를지도 모른다고. 이 환상은 그 이상으로 진전되지는 않았다. 그 이상 진전시킬 수가 없었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나는 흐느끼지도, 자제력을 잃지도 않았다. (490-91)

Up in the branches of the trees, too, I could see, flapping about, torn plastic sheeting and bits of old carrier bags. That was the only time, as I stood there, looking at that strange rubbish, feeling the wind coming across those empty fields, that I started to imagine just a little fantasy thing, because this was Norfolk after all, and it was only a couple of weeks since I'd lost him. I was thinking about the rubbish, the flapping plastic in the branches, the shore-line of odd stuff caught along the fencing, and I half-closed my eyes and imagined this was the spot where everything I'd ever lost since my childhood had washed up, and I was now standing here in front of it, and if I waited long enough, a tiny figure would appear on the horizon across the field, and gradually get larger until I'd see it was Tommy, and he'd wave, maybe even call. The fantasy never got beyond that—I didn't let it—and though the tears rolled down my face, I wasn't sobbing or out of control.

이미 “완료”된 클론들의 삶은 펜스에 걸려 훑날리는 “깨진 플라스틱 판과 낡은 가방 조각”(490) 등 골동품이나 쓰레기 등으로 묘사되지만 캐씨의

기억을 통해 노퍽으로 재소환된다. 질병 없는 삶을 추구하는 당대 정부의 행복산업은 국가 이데올로기 기관들과 함께 작동하며 “인간성”(humanity)이라는 개념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고정시키는 반면 특정인구를 인지 가능한 법적 범주 밖으로 퇴출시켰다. 그 과정에서 클론의 삶의 각 부분들은 값싼 생물학적 기계-물건이 되어 생명자본주의 시장에서 유통되다 버림받게되고 그 일련의 과정은 국가의 인본주의적 수익의 물결을 만들어낸다. “믿을 수 없는 화자”(unreliable narrator)로 시작했던 캐씨의 서사는 그러나 말미에서 죽은 친구들의 죽음을 애도하고 기억함으로써 사회 내에서 잘못 위치지어진 자신과 같은 몸에게 그 어떠한 법적 보호권마저 갖아가는 생명자본주의 시장과 국가권력의 무자비함에 질문을 던진다. 다음 장에서는 『프랑키스슈타인』을 통해 빅터와 같은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이 추구하는 정신만능주의나 탈물질화 경향성이 생명을 관리하는 선진 자본주의 시장에 유입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또 다른 소외의 문제를 살피고자 한다. 특히 남성도 여성도 아닌 라이의 혼종적 몸을 통해 생명공학이나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이 여전히 압도적으로 남성, 백인, 중산층 그리고 유럽중심적 지식모델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사회의 지배 서사를 구성함을 살핀다. 또한 선진 테크놀로지와 포스트휴머니즘의 만남이 새로운 재생산 테크놀로지에 종속된 또 다른 성애화되고 인종화된 몸들을 더 착취하는 경제구도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그리고 종들의 교차적 범주와 계급들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연대의 가능성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III. 『프랑키스슈타인』에 예고되는 잿빛 신세계

윈터슨의 『프랑키스슈타인』은 메리 셸리의 원작과는 달리 과거와 현재, 환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다이내믹한 서사구조를 통해 새로운 독법을 제공

한다. 로란 러스크(Lauran Lusk)도 이 소설이 19세기와 21세기라는 두 시간대와 스토리 플롯을 오가는 이중 서사를 지닐 뿐만 아니라 퍼시 비시 셸리(Percy Bysshe Shelly)의 「코올리지」(“Coleridge”)나 오비드(Ovid)의 『변신』(*Metamorphoses*) 등 다양한 텍스트를 인용하는 상호텍스트성, 패로디 그리고 파편화 등으로 점철된 포스트모던 메타픽션이라고 정의한다(107). 김경희 역시 『프랑키스슈타인』을 트랜스-텍스트로 설명하는데 이는 윈터슨의 소설이 1816년과 포스트 브렉시트 시대의 영국 등 과거와 현재 더 나아가 미래의 시간성을 교차시키며 전통적인 시간 순서를 뒤엎었을뿐만 아니라 셸리, 빅터 스타인 그리고 프랑켄슈타인 박사 등 다른 시간대의 인물들을 서로 동일시하는 등 인물 간의 자유로운 횡단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말한다(12-13). 실제로 작품의 한 축을 담당하는 메리 셸리의 시대는 산업혁명과 수학, 물리학 등 과학의 비약적 발전으로 생산관계에 큰 변혁이 일어나고 노동자들이 공장의 기계들을 부수던 러다이트 운동(1811-1817)이 한창이었다. 이는 인공지능의 비약적 발전과 더불어 인체의 개조와 복제까지 탐구되는 오늘날의 시대와 여러모로 닮아있다.

본 논문은 시대를 가로질러 메리 셸리의 이야기를 뒤잇는 의학 박사이자 21세기 화자인 라이 셸리 그리고 트랜스휴먼 옹호자이자 AI 개발자 빅터 스타인 박사에 초점을 맞춘다. 빅터는 옵티멀(Optimal)이라는 회사 오너이자 라이가 가져다주는 사체의 부분들을 인간의 의식과 결합시켜 인간이 본격적으로 “트랜스 휴먼으로 강화”(123)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과학자인데 예를 들어 라이가 “푸른 수염의 방”(351)으로 비유하는 그의 연구실에는 “원통형 토대에 달린 바퀴로 돌아다니고 그 위에는 팔과 머리가 달린 몸통이 있는” “꼭두각시와 로봇쯤 돼 보이는 것”(351)들이 가득하다. 메리 셸리의 괴물이 19세기 유럽의 독자들을 경악시켰던 것처럼 체외 수정을 통해 탄생한 이시구로의 클론이나 머리뿐인 빅터의 21세기형 사이보그는 미래형 괴물인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 인간이란 그저 지구상의 야생동물 종과 자연을 파괴시



키고 민주주의를 독재로 변질시킨 가망 없는 종에 불과하다. 반면 새롭게 도래할 인공지능의 세계는 인간의 “몸의 육체적 한계가 무의미한”(104) 심지어는 “의식마저도 더 이상 육체에 종속되지 않는” 유토피아로 그려진다. 그는 데이터화된 의식이 우리의 “몸에서 빠져나오면 어떤 [몸의] 형태든 고를 수 있을 테고 얼마든지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브라이도터에 따르면 이러한 빅터의 면모는 전형적인 트랜스휴머니스트의 그것인데 이는 그들이 인간의 신경중추가 컴퓨터와 접속을 통해 확장될 때 합리적 인간의 역량이 무한히 진화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110).<sup>3)</sup> 그러나 윈터슨은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의 정신우월주의나 몸의 탈물질화 경향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우려한다. 예를 들어, 빅터는 인간의 신체적 체험을 뇌의 신경작용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몸의 특정 부분들은 인간의 존재에 있어서 더 이상 필수조건이 되지 않음을 강조한다. 인간의 뇌는 1억 개 가량의 뉴런이 다른 뉴런들과 전기 자극의 연쇄를 이루며 활성화되고 지식의 패턴을 만드는 일종의 기계이기 때문이다(354). 그래서 그들은 뇌의 기억을 업데이트하기만 하면 몸이 망가져도 새로운 몸의 부분들을 끊임없이 교체하면서 이전에 누렸던 인간으로서의 독립성을 여전히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다시 말해 인간의 “정신이 고기로 이뤄진 기질(奇疾)에 구애되지 않으리라고 믿는다”(53-54).

조립식 인간. 가능한 일이지. 빅터가 냉장실에서 팔다리, 반만 남은 다리, 반만 남은 팔 등을 꺼내며 말했다. 라이, 인간을 팔다리와 장기들의 조합이라고 본다면 인간이란 대체 뭘까? 머리만 붙어 있다면 나머지 것들은 거의 다 없어

3) 트랜스휴먼은 FM-2030에 따르면 휴먼과 포스트휴먼의 중간단계의 형태로 모든 측면에서 인간과 유사하나 향상된 지성, 의식, 체력, 내구력 등 인간의 기준을 넘어서는 힘과 능력을 지닌 존재이다 (이혜영 외 19). 어빙 존 굿, 존 폰 노이만, 레이 커즈와일 등의 1세대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은 대체 가능한 유전자, 불멸, 계몽된 트랜스휴머니티, 성별의 가변성 등의 열쇳말을 중심으로 도래할 새로운 인간을 정의하였고(28), 이는 1990년대에 오면 맥스 모어 등이 주창하는 생명 무한 확장론 등으로 진보하게 된다.

저도 상관없지, 안 그래? 그런데도 나는 육체에 얽매이지 않은 지능이라는 개념을 싫어하잖아, 그건 비합리적이야. 우리는 우리의 육체란 말이야, 내가 말했다. 그 생각엔 모든 종교가 반대하는데. 물론 계몽주의 이후로 과학은 종교와 의견을 달리했지.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인간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 더 깊은 통찰로 돌아가고 있어. . . . 나는 우리가 트랜스휴먼으로 가는 단계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거야. (199-200)

Flatpack humans. It's a possibility, said Victor, unpacking legs and arms, half legs, half arms, from the cold storage. Really, Ry, when you consider the human as a collection of limbs and organs, then what is human? As long as your head is on, pretty much everything else can go, can't it? And yet you dislike the idea of intelligence not bound to a body. That is irrational of you. We are our bodies, I said. Every religion disagrees with you. Certainly, since the Enlightenment, science has disagreed with religion, . . . I mean it is a stage on the way to being transhuman. (148)

그러나 빅터가 추구하는 인간과 테크놀로지의 융합은 브라이도티가 지적한대로 육체-정신의 이분법적 분리라는 데카르트적 환영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확장시킬 가능성이 다분하다(115). 예를 들어 그는 인공두뇌와 생물학적 유기체 간의 결합에서 기억이나 정보의 패턴 등 정신의 영역을 물질적 구현이나 가치보다 더 우위에 놓는데 이러한 행위는 그가 감정을 비롯한 생물학적 물질을 우연한 것으로 혹은 근원적인 것이 아니기에 자유롭게 조작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함을 뜻한다. 그러나 브라이도티가 주장하듯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이 강조하는 새로운 뇌의 지식패턴이나 데이터들도 체현된 결과물이며 대문자 인간이 지배하는 상징세계에 의해 코드화되기를 기다리는 날것 그대로의 물질이란 존재할 수 없다. 모든 자연적 기호들은 이들이 관계하는 새로운 종들을 횡단하며 물질화와 탈물질화라는 왕복운동 속에서 체현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정보를 실어나르기 때문이다(브라이도티 195).

빅터와 같은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이 간과하는 또 다른 지점은 이들이

말하는 진보가 과학적 이성을 지닌 인간을 완성하고자 하는 오랜 자유주의 휴머니즘의 전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작가는 줄기세포로 키운 대체장기나 몸을 향상시켜 줄 보철장치 혹은 신경 인플란트가 우리를 인터넷망과 연결시킬 때 만들어낼 수 있는 긍정적 기능까지 부정하진 않는다. 그러나 두뇌와 생물학 그리고 테크놀로지의 융합이 인간 ‘그 너머’를 뜻하는 포스트휴머니즘이라는 거대한 사상적 주류로 편입될 때 야기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다. 더 빠른 테크놀로지와 포스트휴머니즘의 만남으로 인해 단일한 인류 종이자 대문자 “남자/인간”(Man)의 개념은 탈중심화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스트휴먼 연구는 압도적으로 남성, 백인, 중산층 그리고 유럽 중심적 지식모형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는 론 로드의 섹스봇(xx-bot)이 있다. 라이는 글로벌 테크 엑스포(Global Tec-Po)에서 론의 섹스봇을 접한다. 신자유주의시대의 자본은 섹스봇마저 고객에 입맛에 맞춰 머리색, 키, 가슴 사이즈 등을 다양화시키고 맞춤형 대여 서비스마저 진행시키고 있었다. 론의 섹스봇은 서구의 과학 전통이 자연과 여성을 문화 생산을 위한 자산으로 착취해온 오랜 인류학적 역사의 연장선 위에 있다. 물론 그는 섹스봇의 발명이 오랜 기간 결핍에 고통받던 타자화된 남성들의 욕구를 채워줌으로써 성범죄 등의 사회악을 근절시킬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자 “끝없는 [영혼의] 삶”(47)을 꿈꾸는 클레어 역시 론과 함께 성직자들에게 섹스봇을 판매하는 일에 동참한다. 그러나 론의 섹스봇은 여전히 남성들의 전유물로 그려지며 이는 과학적 발명이 남성중심 자본주의 시장에서 어떻게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을 답습하거나 심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김경희가 주장하듯 인공지능은 체화된 여성이나 성별의 이분법 사이에 존재하는 중간자적 존재를 인지하기보다는 “성 노동자들의 대안이나 여자와의 관계에 대한 대안, 나중에는 여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며 추상적 젠더의 이미지만을 강화시킬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17).

그렇기에 라이는 섹스봇이 시간이 남아도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모두의 욕망을 고르게 충족시켜 줄 것이라고 말하는 빅터에게 “여자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라며 응수한다(93). 집요한 잡지사 기자 폴리 D 역시 “진짜 인공지능을 창조하기 위한 경주는 감성지수가 낮고 남학생 기숙사에서나 통하는 사교기술 밖에는 없는 자폐 스펙트럼 백인남성 젊은이들에 의해 굴러간다”(108)고 비판하며 이러한 세계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일 수 있는지를 비판한다. 실제로 바이너리, 즉, 0과 1로 이루어진 컴퓨터의 언어로 세상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이라는 젠더 사이에 존재하는 라이와 같은 중간자적 존재들은 보이지 않는 타자로 전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아마존에서 기계학습된 인공지능이 성, 인종 차별적으로 추려낸 이력서에서도 알 수 있듯 다가올 신세계는 성적 그리고 인종적으로 중립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브라이도터 역시 선진화된 생명자본주의 시장에서 LGBTQ+, 유색인종, 미등록 이주민, 망명 신청자, 그리고 빈곤에 내몰린 고용되지 않은 이들은 신세계의 새로운 프롤레타리아트가 되어 포스트휴먼으로 가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박탈의 대상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103).

빅터가 기술과학의 관행을 우리가 살아가는 실생활 속 몸이나 물질과 무관한 것처럼 제시하는 반면 라이는 인간의 몸이 지니는 신경생리학적 고찰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녀는 여성의 성기를 지녔으며 남성 호르몬을 투입시켜 “매끈하고 관판”(125)한 가슴과 골반을 지니게 된 이중성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다. 트랜스젠더 의사인 그/녀는 또한 자신이 트랜스젠더 의료전문가단체에 소속되어 있고 단체의 일부는 열성적인 트랜스휴먼 지지자임을 인정한다(145). 빅터 역시 이렇게 남성도 여성도 아닌 라이의 몸을 “지금 여기에 있으면서 미래의 전조”(a harbinger of the future 103)이기도 하다며 경이로워한다. 그러나 필자는 라이에 대한 빅터의 칭송이 생명과학적 “융합이 투영된 새로운 데이터로서의 그/녀의 몸”이라고 주장

하는 김경희에 동의한다(17). 빅터에게 모든 종의 알고리즘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공장이라는 점에서 동급으로 취급되는데 일례로 그에게 “개구리, 감자, 인간은 생물학적 데이터 처리 공장”(110-11)이라는 점에서 컴퓨터와 같은 비생물학적 데이터 처리 공장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 소수자 라이의 현실은 제 3세계 여성, 피식민자 등 여타의 타자들과 마찬가지로 신체라는 굴레에서 쉽게 자유로워질 수 없다. 이중성을 지닌 그/녀의 몸은 현실 속에서 성적위계라는 취약성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이의 몸은 여성의 성기와 남성 호르몬이 접합된 일종의 ‘괴물’이기에 두 성별로만 구분되는 공용 화장실과 같은 공간은 여전히 그/녀에게 안전하지 않다. 실제로 작품 속에서 라이는 남자 화장실을 이용하다 강간을 당하지만 트랜스젠더 피해자들이 사법기관에서 으레 겪는 부차적 폭력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 그 고통을 “내가 나로 존재하기 위한 대가”(326)라고 말하며 눈물을 삼킨다. 김지현이 말한대로 라이와 같은 혼종적 몸들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에 내재하는 폭력과 불평등을 고스란히 감내할 수밖에 없다(윈터슨 『프랑키스슈타인』, 459).

뿐만 아니라 작가는 메리 셸리의 회고록을 라이의 서사와 병치시키면서 그녀가 남편과 맺는 관계나 당대 사회 내에서 느끼는 좌절감이나 몸의 정동 문제를 재환기시킨다. 더블이자 과거와 현재를 횡단하며 동일시되는 메리와 라이에게 몸은 현실 그 자체이다. 1816년 영국의 메리는 친구들과 함께 제네바의 레만호로 떠나 『프랑켄슈타인』을 집필하게 된다. 또한 퍼시 셸리, 메리 셸리, 바이런(Byron), 폴리도리(Polidori), 그리고 바이런의 정부 클레어 클레어몬트(Claire Clairmont)는 별장에 함께 모여 종종 영혼의 존재와 시의 불멸성에 대해서 논한다. 메리 셸리에게 삶이란 플라톤의 동굴 속 어둠처럼 수 많은 그림자들로 이뤄져 있다. 그녀는 자신을 구성하는 삶의 실체를 “우리가 볼 수도, 만질 수도, 들을 수도 없는”(12) 어수선한 그림자들로 가득한 무엇에 비유하며 동시에 그 세상은 “악몽같고

열에 들뜨고 땀에 젖”은 몸이 주는 느낌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한다. 또한 그녀는 “정신도 몸처럼 운동이 필요한 법”(14)이라고 말하며 낭만주의 시인이 강조하던 시적 불멸성을 몸의 문제와 동떨어져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의사인 폴리도리는 여성의 몸의 일부인 “자궁 안에 지각이 어디 있겠어”라고 비꼬며 아이의 영혼을 어머니의 몸으로부터 철저히 탈물질화시킨다. 바이런 역시 시의 불멸과 영웅적인 죽음을 꿈꾸며 지극히 사소한 것들이 세상에 빛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혁명과 진보를 꿈꾸지만 “어떤 인간도 기계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하며 러다이트들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인다(187). 이에 더하여 그는 남자아이들은 여자아이들보다 더 일찍 영혼의 문이 열리며 이는 “남성의 본성이 여성의 본성보다 더 완성이 되어 있고 활발”(16-17)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sup>4)</sup> 결국 논의의 쟁점은 영혼과 “생명의 불똥”은 인간/남성의 전유물이라는 결론으로 향한다(23). 그러나 메리는 몸이 영혼의 주인일 수 없으며 “우리의 용기, 영웅적 면모. . . 심지어 증오까지 이 세상을 형성하는 우리의 모든 행동”(26)을 전적으로 영혼의 소임으로 치부하는 퍼시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갈바니즘이든 그 외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어떤 수단을 통해서든 인간이 시체를 움직이는 데에 성공한다면 영혼이 돌아올까? 그러진 않을 것 같아. 셸리가 말했다. 몸은 고장나고 쓰러지지. 하지만 몸은 우리의 본질이 아니야. 영혼은 망가져 버린 집에 돌아오지 않을 거야. . . 그는 긴 팔로 나를 감싸안고 눕눕한 침대 위에서 나를 부드럽게 흔들며 말했다. 내 몸이 고장나면 내 정신을 바꿔나 개울이나 구름에 깃들게 하고 싶어. 내 정신은 불멸하니까. 난 그걸 느낄 수 있어. (26-27)

4) 바이런은 자신의 딸 에이더 러브레이스를 두고 딸 아이는 “유순하고 수동적”(17)이라고 못 박는다. 그러나 실제로 그는 에이더가 태어난지 한달 후 부인과 딸을 친정으로 쫓아내었을 뿐만 아니라 에이더의 양육권을 가졌으며 한번도 행사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에이더는 타고난 이학적 재능을 바탕으로 후에 영국의 수학자이자 세계 최초의 프로그래머가 되고 베비지가 고안한 초기 컴퓨터 해석기 관을 위한 알고리즘을 만들게 된다.

I considered this and replied, If a human being ever succeeded in reanimating a body, by galvanism or some method yet undiscovered, would the spirit return? I do not believe so, said Shelley. The body fails and falls. But the body is not the truth of what we are. The spirit will not return to a ruined house. . . . He wrapped his long arms around me and rocked me in our damp bed. He said, I would, if I could, when my body fails, cast my mind into a rock or a stream or a cloud. My mind is immortal — I feel it to be. (15-16)

“죽음은 모조품”(84)에 불과하기에 죽음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퍼시와 달리 메리에게 삶이란 몸이 주는 고통과 죽음의 문제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신의 피와 살로 이뤄진 자궁에서 열 달을 품어 출산한 아이들을 차례로 죽음의 세계로 떠나보낸 그녀에게 글쓰기란 정동의 원천이자 사회의 굴레인 여성의 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메리와 유사하게 자신의 의식을 추상화된 내용으로 보며 이를 고기로 이뤄지지 않은 물질들에 자유롭게 업로드하기를 꿈꾸는 빅터와 달리 라이는 “내용은 맥락”이며 “당신의 경험, 당신이 처한 상황, 당신이 사는 시대. 의식은 자유롭게 떠다니는 게 아닌] . . . 맥락에 얽혀 있”(152)음을 강조한다. 인간의 삶을 스캔과 복사가 가능한 정보의 패턴이나 내용으로 보는 트랜스휴머니스트들에게는 인공지능의 신세계에서는 전통적 인간 주체들이 자신들을 옹아냈던 국가나 젠더 그리고 계급에서 훨씬 자유로운 디아스포라적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지만 라이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회색할 배타적 민족주의를 더욱 경계한다(152).

라이와 메리가 그러했듯 사회 내에서 소외된 다양한 몸들이 처한 사회적 구조와 맥락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일이 중요한 까닭은 이러한 사유가 이데올로기 중립적인 과학기술에 대한 맹종이나 시대적 단절로서만 인간 그 이후를 사고하는 포스트휴머니즘 사상에 경종을 울리기 때문이다. 램케에 따르면 포스트휴머니즘을 인간 그 이후 혹은 너머로 생각하는 사상적 주류는 종종 ‘인간’을 하나의 개념으로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그 때문에 인간사회를 불균형한 힘의 구도로 파악하지 못하게 된다고 비판한다(156). 그는 또한 포스트휴머니즘을 휴머니즘과 대조된 사상으로 손쉽게 치환하는 행위들이 휴머니즘 안에 존재했던 다양한 분석적 자원들을 하나의 개념으로 추상화시키고 그동안 대문자 ‘인간’을 모든 사고의 중앙에 놓고자 했던 시도들—예를 들어, 식민주의, 가부장제, 자본주의 등—에 대해 저항하던 비평적 틀들을 도외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한다(156).<sup>5)</sup> 이는 정신 우월주의나 종 초월주의를 하나의 역사적 단절로 보는 포스트휴머니즘의 경향성이 현재 인간이 다른 종들에게 가하는 행성적 권력이나 특권의 문제 역시 무화시켜버릴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램케는 작금의 포스트휴머니즘이라는 사상적 주류에서 중요한 것은 인본주의를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파괴적이고 불균형적인 인간의 억압적인 힘을 인지하게 해주는 ‘전략적’ 인본주의라고 말한다(157). 인간의 존재를 과거로 치부하고 초월할 것이 아니라 대문자 ‘인간’이 전지구적 생명체들에게 행하고 있는 만행과 특정인구가 다수의 타 인구에게 행하는 부정의에 대해서 설명해줄 수 있는 비판적 사유를 강조하는 것이다.

#### IV. 결론

지금까지 『네버렛미고』와 『프랑키스슈타인』을 통해 대처리즘 이후 끊

---

5) 램케는 포스트휴머니즘에 대한 오늘날의 열광은 인간을 한 때 존재했던 것으로 치부하고 우리가 그것을 초월했다고 말함으로써 여전히 대문자 “인간” 개념 안에 현재를 연루시키고자 한다고 비판한다(155). 다시 말해서, 포스트휴머니즘이라고 불리는 개념들이 인간과 비인간, 자연과 문화라는 이항대립을 부지불식간에 인지하게 함으로써 인간을 다시 안정적인 개념으로 재정착시킬뿐만 아니라 휴머니즘과 포스트휴머니즘이 그같은 이유로 여전히 같은 분석적 지평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154-55).



임없이 생명을 관리해 온 후기자본주의 시장에서 작동하는 인간 예외주의와 다양한 소외의 형태들을 살폈다. 특히 대처 내각 이후의 선진 자본시장과 포스트-브렉시트라는 영국 사회 내에서 각기 잘못 위치지어진 주인공들의 몸이 처한 현실을 통해 빅터와 론의 트랜스휴먼으로의 도약이 대문자 남자/인간이라는 전통적인 인류중심적 이상을 얼마나 손쉽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또한 탈영토화되었던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관계들이 현실 속에서는 기존의 인간적 이해로 손쉽게 재영토화될 수 있는지를 살폈다. 더 나아가 트랜스휴머니즘에서 강조하는 테크놀로지가 인간 종의 다양성을 축소, 보편화시키며 이러한 특정성을 제외한 이질적인 가능성들을 끊임없이 소외시키는 이데올로기로 작동해움을 살폈다.

퍼시가 지적하듯 메리 셸리의 소설은 결국 “괴물 안의 프랑켄슈타인, 프랑켄슈타인 안의 괴물”(178) 이렇게 “두 존재가 서로의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이다. 이제 우리는 이질적 신체의 경험을 도외시하는 트랜스휴머니즘과 생명을 관리하는 시장의 논리와 무자비함 앞에서 다층적이고 잘못 위치지어진 채로 ‘인간’이나 ‘여성’ 등의 문제적 범주에 여전히 거하고 있는 타자들을 어떻게 지칭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21세기 생명자본주의 시대에 우후죽순 등장하는 새로운 물질적 존재들을 우리는 어떻게 지칭할 것이며 새롭게 매개된 재현체계를 어떻게 구축해 낼 것인가? 캐씨나 라이의 경우에서처럼, 이들을 지칭함에 있어 위급한 시정이 필요하고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범주를 생성하기 위해 기존의 사회관계의 패턴을 비판적으로 살피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론이나 클레어가 암시하는 서구적, 기독교적, 자본주의적 문명의 매트릭스에서 가려졌던 타자들의 모습을 가시화시키고 인간-비인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대안 양식으로서의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브라이도티는 이러한 환경을 서로 다른 상황에 놓인 지식-실천들을 가로지르는 협력의 사슬로 표현한다. 즉, 브라이도티가 주장하는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의 핵심은 생태적, 사회적, 기술적 영역을 가로

지르는 정동의 사슬을 만들어내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는 인간과 비인간 타자의 이질적인 중재자들을 구성해 내는 일이 시급하다(177). 그리고 이때의 중재자란 ‘우리’와 ‘그들’ 사이에서 자신이 속한 위치를 날카롭게 인지한 상태에서 현실을 유의미하게 재창조할 수 있는 이들을 지칭할 것이다.

이러한 중재자들에게 몸과 마음의 복잡다단한 관계성은 우리가 직면한 과제에 새로운 단초를 제공해줄 수 있다. 몸에 대한 새로운 접근권과 구획 짓기 프로젝트 등, 몸에 대한 인식은 이제 하나의 물질성 그 자체라기보다는 과학기술이 가져온 새로운 권력망들의 결과로 접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여성의 주체의식이 향상되면서 자궁이나 가슴 등 여성의 몸의 각 부분들에 대해 우리가 지닐 수 있는 관계성이나 의미망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해러웨이는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경계의 언어를 만들어내고 난잡한 의미를 기입해내야 함을 사이보그 주체성을 통해 강조한 바 있다. 포스트휴머니즘이라는 개념을 대하는 브라이도티와의 미묘한 입장 차에도 불구하고 해러웨이의 사이보그적 몸과 글쓰기가 지니는 시의성에 대해 언급하는 이유는 그것이 브라이도티의 중재자나 정동의 사슬을 만드는 행위의 중요성과 어느 정도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sup>6)</sup> 해러웨이는 잘 알려진

6) 예를 들어, 브라이도티에게서처럼 해러웨이에게도 종 사이를 횡단하며 새로운 주체와 권력의 구도를 만드는 일은 모든 종과 유기체들을 하나의 기표 아래에 두고 밋밋한 등가물로 치환시키는 무차별적 체계를 만드는 일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브라이도티 191). 물론, 『종과 종이 만날 때』(When Species Meet)에서 이러한 인간-비인간 사이의 새로운 관계가 성차별주의나 인종주의가 저지른 유사한 방식의 대상화나 억압관계를 내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하는 경향성과 맞선다며 포스트휴머니즘 내에서의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분명히 한다(96-97) 또한 인간 이외의 무수한 불균질한 생명들과 함께 지구에서 공동서식하고자 하는 자신의 사이보그 이론을 맑스주의 페미니즘으로부터 분류해내며 후자가 노동의 카테고리를 인간, 여성만을 위해 비축해 두며 여전히 사회, 문화, 휴머니티와 같은 인류학적 범주들에 너무 편안히 안주하고 있다며 비판하기도 한다(96).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러웨이는 자신이 맑스주의 페미니즘으로부터 자양분을 받고 자랐음을 인정하며 타자와의 관계를 새롭게 체험하기 위해 분류학적 서열로

대로 국가, 젠더, 계급적 요소들 뿐만 아니라, 생태계의 “그물망에 연결된 실존들, 관계성 속의 복수의 존재들, .. 산업과 경제들, 자연과 문화를 끌 없이 관련짓는”(『종과 종이 만날 때』 94) 새로운 종 간의 연대를 강조한다.<sup>7)</sup> 같은 맥락에서 많은 이론가들은 라이의 혼종적 몸을 해러웨이식 사이보그 정체성으로 지칭하며 그 몸이 처한 비참한 현실보다는 남성과 여성, 물질과 정신 그리고 인간과 동물 등 이분법 사이를 다채롭게 횡단하는 그리고 백인남성 중심의 오랜 계몽주의를 허물 수 있는 가능성으로 재평가하기도 한다. 특히 해러웨이는 새롭게 도래할 사이보그 글쓰기에 대해 정의하며 이를 태초의 인간의 타락에 관한 글쓰기가 아닌 오히려 대문자 인간/남성의 탄생 이전에 존재했을 법한 그 ‘옛날 옛적’의 온전함을 새롭게 상상하는 글쓰기라고 말한 바 있다. 태초의 순수함의 기반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을 타자로 표시하는 세상을 재표식하는 도구들을 움켜 쥐는 그 힘에 기반한 “살아남고자 하는 힘”에 대한 글쓰기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것이다(*Simians* 311). 해러웨이의 사이보그적 글쓰기의 힘은 윈터슨의 작품들 예를 들어『육체에 새겨지다』(*Written on the Body* 1992)나 『처녀딱지 떼기』(*Sexing the Cherry* 1989) 등에서도 변주된다. 『육체에 새겨지다』에서 이름 없는 주인공과 루이자의 몸은 그들이 체험하는 사랑의 행위와 순간적인 정동의 느낌에 의해 끊임없이 의미가 수정되고 덧입혀지는 의미 기입과정이다. 『처녀딱지 떼기』의 등장인물들 역

---

무게가 더해진 위험-이익 비교와 같은 도구적 관계를 재고하고 새롭게 인식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한다(96).

- 7) 해러웨이가 말하는 대표적인 사이보그 정체성을 지닌 존재로는 제 3세계 고향에서 이주해 미국 땅에서 새로운 기술노동을 하게 된 유색인종 여성들이 있다. 특히, 실리콘 벨리와 같은 제 1세계 도시의 초국가 기업들이 노동력을 국제적으로 아웃소싱하는 방식이 이들의 주체성을 활성화시키고 남성수입에 기대지 않는 새로운 가족 형태를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로부터 야기된 세계적 비고용 구조가 어떻게 섹슈얼리티, 가족, 그리고 주체 개념을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의 경제구조와 얽히게 하고 사적, 공적 영역의 이분법에 의해 구조화되었던 백인 중산계층의 이데올로기를 “집-직장”(home-work)이라는 새로운 경제구조로 대체시켰는지를 강조한다(*Simians* 305-8).

시 습관적 언어의 의미망에서 벗어나 현존하는 성적 담론의 이성애적 정상성에 교란을 가한다. 엄청난 사이즈의 “도그 우먼”(Dog Woman)의 외양은 전형적으로 기대되는 여성의 범주에 어긋나며 역사책에 등장하는 영웅이 되길 꿈꾸지만 여성의 옷으로 자신을 드래그하는 조던(Jordan) 역시 성적 범주의 정상성에서 한참 벗어난다. 남성성기를 상징하는 바나나를 도구우먼의 서사를 나타내는 이미지로 여성의 성기를 나타내는 파인애플을 조던의 서사 앞에 각각 위치시킴으로써 언어기표를 일종의 대안 형식들로 만들거나 여성들이 남편들을 속이기 위해 기존의 언어에 다른 의미를 집어넣어 비밀기호 체계를 만든 에피소드 역시 여성의 몸의 욕망이 대안적 상상계를 만들어낼 수 있고 상징계가 하나의 상상계로 고정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한 주디스 버틀러의 “레즈비언 팰러스” 이론을 떠올리게 한다.

윈터슨이 『12바이트』(12 Bytes 2021)에서 이야기한대로 인간은 이야기를 끊임없이 바꿀 수 있는 동물이다. 『프랑키스슈타인』에서 메리 셸리가 지적하듯 우리는 “나날이 살아가는 현실이면서도 우리가 하는 이야기에 따라 나날이 철회되기도 하는 시간”(190)을 살고 있다. 트랜스휴먼 기술이 도구라면 윈스턴의 말대로 우리 사회의 지배 서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과학기술과 AI는 디스토피아의 재앙으로 쉽사리 바뀔 수 있다(『12 바이트』 293). 다시 말해 작가는 우리사회의 지배서사를 구성하는 바이너리를 깨뜨리고 난잡한 의미를 집어넣는 일의 긴박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듯하다. 즉, 다양한 젠더와 피부색을 지닌 사람들의 일상화된 언어를 통해 미래의 과학기술의 민영화와 디스토피아적 미래를 막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기를 우리는 살고 있다. 살피본 바대로 이시구로의 클론은 오직 자신의 삶이 “완료”되었을 때에만 주체성을 획득할 수 있었다. 그 까닭은 국가의 지배권력이 언어를 고정시키고 그것의 일시적 비결정성을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권한을 순환시키고 언어가 다른 방식으로 읽힐 가능성을 제거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이시구로의 작품 내에서 강력하게 작동하는 자연

스러운 인간이라는 판타지는 포르노 잡지나 TV 드라마와 같은 대중매체의 언어소통 과정에서 더욱 강화되었으며 또 다른 존재론적 구성으로서의 인간이 지니는 비결정성이나 모호함은 인식되지 못했다.

『네버렛미고』나 『클라라와 태양』에 나타나는 이시구로의 괴물들과 디스토피아의 미래는 알렉산더 와인스타인(Alexander Weinstein)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코고나다 감독의 영화 <애프터 양>(After Yang 2022)에서도 변주된다. 제이크는 “형제자매회사”에서 인증 개조된 안드로이드 인간을 구입한다. 그러나 양이 작동을 멈추자 그를 불법적으로 수리하는 과정에서 그의 메모리뱅크를 훔쳐보게 된다. 놀랍게도 중국에서 입양한 딸에게 뿌리를 알려주기 위해 구입한 양의 기억은 진짜 인간의 그것만큼 자연스러웠다. 그의 메모리뱅크에는 전 세대 클론 에이다와의 만남을 포함하여 제이크를 만나기 전 사귀었던 사람들과의 기억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또한 과거에 제이크에게 어떻게 차(茶)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양이 문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정동의 감정이 차에 담겨있다는 대답을 듣고 자신 역시 지식이 아닌 말로서 형용할 수 없는 감정들을 표현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러나 양의 기억과 경험은 현실에서는 형제자매회사에서 지정한 정확한 명령어값 없이는 재생될 수 없다. 코고나다 감독은 안드로이드와 클론이 ‘자연스럽게 태어난’ 인간들과 어울리며 혈육이나 인종 그리고 국가의 경계를 뛰어넘어 구성할 미래형 가족의 가능성을 타진하지만 전지구적으로 아시아계 아이들이 부유한 국가로 상품처럼 입양되는 현실이나 클론이나 테크노가 저임금 돌봄 노동자를 대체하는 설정을 통해 1980년대 이후 유럽과 미국이 처한 국가의 돌봄위기 상황이나 금전만 지불하면 손쉽게 아시아나 제3세계에서 아이를 입양할 수 있는 신자유주의 자본시장의 민낯을 폭로한다. 코고나다 감독은 또한 메모리뱅크에서 제이크가 양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형제자매회사에서 사전에 입력한 명령어들을 큰 소리로 반복하며 입력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기억하는 양의 기억들을 유사하게 겹치게 함으로써 안드로이드와 진짜 인간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가리던 자연스러운 인간이라는 환상을 낫설게 한다.

‘인간 그 너머’를 논하는 작금의 사상적 주류들은 현재 인간의 특혜에 질문을 가하면서 동시에 이를 해체할 수 있는 이중의 짐을 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새로운 언어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며 새로운 몸에 대한 책임에 대해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그리고 물질적 상황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인간 행위에 대해 사고하는 일은 그러나 앞서 말한 대로 인간 존재가 그간 다른 몸들과 비인간 타자들에게 고통과 쇠락 그리고 지배를 이행해왔음을 인정하는 일이기도 할 것이다. 램케가 주장하듯 작금의 ‘인간 그 너머’를 바라보는 행위는 이제 새로운 종류의 비판적 성찰이 가능한 형식들—그것이 새롭게 정의될 정의, 자연 혹은 인간이든 간에—을 만들어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158). 이는 다시 말해서 인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함께 살아가기를 자처하는 일일 것이고 동시에 그 문제들을 새롭게 명명할 새로운 언어의 필요성에 대해서 사유하는 일이 될 것이다.

(홍익대학교)

## ■ 주제어

포스트휴머니즘, 트랜스휴머니즘, 로지 브라이도티, 가즈오 이시구로, 지넷 윈터슨

## ■ 인용문헌

- 강우성 외. 『포스트휴머니즘의 쟁점들』. 서울:갈무리, 2021.
- 김경희. 「트랜스-텍스트: 자넷 윈터슨의 『프랑키스슈타인』」. 『새한영어영문학』 66.2 (2024): 1-25.
- 김부성. 「어느 돌봄 노동자의 고백」. 『영미연구』, 53 (2021): 21-43.
- 다르도, 피에르 외. 『내전, 대중 혐오, 법치: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지배하는가』. 정기현, 장석준 옮김. 서울: 원더박스, 2024.
- 브라이도티, 로지. 『포스트휴먼 페미니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변혁의 힘』. 윤조원, 이현재, 박미선 옮김. 파주: 아카넷, 2024.
- 윈터슨, 자넷. 『프랑키스슈타인』. 김지현 옮김. 서울:민음사, 2023.
- \_\_\_\_\_. 『12 바이트』. 김선형 옮김. 서울: 뮤진트리, 2022.
- 이시구로, 가즈오. 『네버렛미고』. 김남주 옮김. 서울:민음사, 2021.
- 이혜영 외, 『트랜스휴머니즘과 포스트휴머니즘』. 파주: 한국학술정보, 2018.
- 이희구 외, 「인공지능 서사 속 브렉시트 징후 읽기」. 『동서비교문학저널』 66 (2023): 261-88.
- 해러웨이, 도나. 『종과 종이 만날 때』. 최유미 옮김. 서울: 갈무리, 2022.
- Haraway, Donna. *Simians, Cyborgs, and Women: The Reinvention of Nature*. New York: Routledge, 1991.
- Ishiguro, Kazuo. *Never Let Me Go*. New York: Vintage Books, 2006.
- Narkunas, J. Paul. *Reified Life: Speculative Capital and the Ahuman Condition*. New York: Fordham UP, 2018.
- Remke, Thomas. *The Government of Things: Foucault and the New Materialisms*. New York: New York UP, 2021.
- Rusk, Lauren. *The Life Writing of Otherness: Woolf, Baldwin*.

*Kingston and Winterson*. New York: Routledge, 2022.

Winterson, Jeanette, *Frankissstein*. New York: Grove P, 2019.



■ Abstract

**Braidotti, Ishiguro and Winterson's  
'Post-human' Worlds:  
On *Never Let Me Go* and *Frankissstein***

Lim, Tae Yun  
(Hongik University)

Kazuo Ishiguro's *Never Let Me Go* and Jeanette Winterson's *Frankissstein* depict post-human bodies that radically deviate from those of natural-born human as alienated and monstrous in the era of human genetic modification and enhancement. But these novels, at the same time, through the clones' ability to fit into the privileged and normative human world as in Morningdale scandal in *Never Let Me Go* and Ry Shelly's hybrid and self-made body that Dr. Victor Stein admires in *Frankissstein*, examine post-human possibilities that can further generate a counter-narrative to the conventional imaginary designed by natural-born human subjects. Nevertheless, while there are some spaces considered as *anti-topoi* within which these monstrous bodies claim a voice,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se spaces of otherness and human and non-human relationships can be easily remapped into traditional dynamics of competition, or regenerate Cartesian body/mind dualism (and hierarchy) that defines the latter as superior to the former. In other words, this paper criticizes that the ideas such as technological innovations and the

myth of human liberation that many of trans-human (or even critical post-human) discourses implicate nowadays might function as traditional ideologies. Mostly, through the images of false utopia *Never Let Me Go* and *Frankissstein* depict, this paper attempts to warn the possible risks that can be made worse when the first world's right-wing extremism is enforced by the desires of neoliberal capital market in the current global environment.

### ■ Key words

Posthumanism, Transhumanism, Rosi Braidotti, Kazuo Ishiguro, Jeanette Winterson

### ■ 논문게재일

○투고일: 2024년 7월 9일 ○심사일: 2024년 8월 9일 ○게재일: 2024년 8월 13일

# 재번역 가설은 게임 번역에도 유효한가?: <DIABLO II> 시리즈 영한 번역 사례 연구\*

장대철\*\*, 이지민\*\*\*

## I. 머리말

1950년대에 최초로 등장한 비디오 게임은 전자기기 및 컴퓨터의 발달에 따라 꾸준히 발전했고, 게임 시장과 게임 산업 또한 함께 성장해왔다. 2020년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전세계 경제가 침체하는 와중에도 게임 시장은 그 성장세를 유지했으며, 특정 장르와 플랫폼은 오히려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기도 했다(Unity 2020: 7-8). 세계 게임 시장 규모는 2023년 기준 약 1,940억 달러(258조 원)에 이르렀고, 이 중 한국의 점유율은 5.21%로 미국 32.68%, 중국 30.99%, 일본 13.45%에 이어 4위다.

국내 게임 시장은 해외 수입 게임과 국산 게임이 혼재하는 양상인데,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년간 PC방 점유 현황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1위부터 20위까지의 게임 중 국산 게임은 <FC>1, <서든어택>, <리니지>, <리니지 2>, <메이플 스토리>, <LostArk>, <PUBG:Player Unknown's Battlegrounds>, <던전 앤 파이터>, <아이온>, <사이퍼즈>, <Eternal

\* 이 연구는 2023년도 계명대학교 비사연구기금으로 이루어졌음.  
\*\* 주저자 장대철 계명대학교 대학원 통·번역학과 석사, titan02@naver.com  
\*\*\* 교신저자 이지민 계명대학교 대학원 통·번역학과 부교수, ke9836@hanmail.net  
1) 개발사의 저작권 사유로 <피파온라인 4>에서 명칭 변경

Return: 영원회귀>이고, <League of Legends>, <VALLOREANT>, <OVERWATCH>, <Starcraft>, <DIABLO IV>, <World of Warcraft>, <Warcraft III>, <DIABLO II>가 해외 제작되어 국내로 수입되고 있다 (Gametrics 2024.01.02.).

이처럼 국내외 게임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국산과 수입 게임이 혼재하는 상황에서, 게임 콘텐츠 번역 시에 ‘원작의 모습과 느낌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대상 게이머들(target players)에게 원작의 게임 경험(gameplay experience)을 그대로 전달하는 현지화 작업’(Mangiron & O’Hagan 2006; 이상빈 2013: 112 재인용)은 필수적이다. 번역 시 게임 경험을 그대로 전달한다는 것은 원작 게이머들이 게임을 플레이하여 얻는 경험과 효과를 번역된 게임을 플레이하는 게이머들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게임 수입 및 수출 시 게임 콘텐츠와 구성 요소 등의 번역은 단순 번역을 넘어서 대상 국가의 정서와 문화 이해도를 고려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성장하는 게임 시장의 가치와 게임 번역의 중요성을 고려해 보면 게임 번역에 관한 연구 또한 충분히 수행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게임 번역에 관한 연구와 논의는 비교적 최근에 이르러서야 시작되었다.

한편,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게이머들의 게임과 문화에 대한 이해도 변화하고 있다. 이는 게임 내 콘텐츠의 재번역 필요성과 이에 따르는 재번역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번역학 내에서는 최초 번역과 비교해 재번역이 이루어질수록 원본에 가까워진다는 재번역 가설(Retranslation Hypothesis)이 수립된 바 있다(Berman 1990; Chesterman 2000; Gambier 1994; Venuti 2004). 그러나 이 가설은 소설을 포함한 문학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게임이라는 특수 장르에도 적용이 가능한지는 확인된 바가 없다. 따라서 재번역 가설을 게임 번역을 대상으로 검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게임 번역 시 특히 고려되는 사항은 상기한 ‘원작의 게임 경험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게임에서 도착어 문화

권 게이머들이 출발어 문화권 게이머들과 동일한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번역자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수적인 것이다. 원문의 정신을 유지하면서 번역자가 과감하게 개입해 텍스트를 수정, 생략, 추가하는 것을 ‘트랜스크리에이션’(trancreation)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게임 번역에서 최초 번역과 재번역 간 트랜스크리에이션 양상을 비교해 재번역의 특징을 확인하는 것도 번역학에서 의미 있는 기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까지는 이러한 연구가 수행된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게임의 재번역을 대상으로 최초 번역과 재번역이 트랜스크리에이션 관점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기존의 재번역 가설이 번역에도 적용되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DIABLO II>의 2000년 출시 한국어 버전과 2021년 버전을 대상으로 번역 전략의 변화를 통시적으로 양적·질적 분석하여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재번역 가설이 게임에도 유효한지를 파악했다.

## II. 문헌 연구

### 2.1 재번역

번역 텍스트는 시간이 지나면 재번역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재번역의 일반적인 정의는 ‘완역 또는 부분역되어 있는 텍스트를 동일한 도착어로 새롭게 번역하는 것’(Gambier 1994: 임순정 2010 재인용)이다. 동일한 원문에 대해 처음이 아닌 두 번째, 혹은 그 이후의 번역 텍스트를 지칭하는 재번역(Paloposki & Koskinen 2010)은 상당한 시간이 지나 새로운 번역이 필요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베르만(Berman 1990)은 재번역은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발생하는 것이라 설명하였으며, 펑(Feng 2014: 70)도 일반적인 재번역은 다른 시대, 다른 번역가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시대가 바뀌면서 재번역이 발생한다는 이론들과 달리, 비교적 동시대의 재번역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졌는데, 이는 ‘능동적 재번역’(active retranslation)과 ‘수동적 재번역’(passive retranslation)에 관한 Pym(1998)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Pym은 시대적 흐름에 따른 재번역을 수동적 재번역으로 분류하고, 비교적 동시대이면서 동일 문화권의 재번역을 능동적 재번역으로 분류했다.

재번역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해지며 ‘재번역 가설’(Retranslation Hypothesis)도 등장했는데, 재번역 가설이란 최초의 번역과 비교하여 번역의 횟수가 더해질수록(이후의 재번역일수록) 원본에 가까워진다는 이론이다(Berman 1990; Chesterman 2000; Gambier 1994; Venuti 2004). 즉, 최초 번역본의 ‘노후화’(aging)는 재번역의 필요성을 추구하고(Berman 1990), 문화 번역 규범이 완화된 목표 문화권에서의 재번역은 이전의 번역본에 비하여 원본에 더욱 가까워져 원본 지향적이 된다는 것이다(Chesterman 2000). 이는 어휘 다양도, 문장 길이 등 스타일이 원본과 유사해지고 번역 방식도 의역보다는 직역, 자국화보다는 이국화 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번역 가설은 여러 연구를 통하여 꾸준히 검증되었는데, 먼저 소설 『오만과 편견』(Pride and Prejudice)의 페르시아어 번역본을 대상으로 재번역 가설을 검증한 연구(Dastjerdi & Mohammadi 2013)에서는 세 가지 분석 방법을 통하여 가설을 검증하고 있다. 첫째, 어휘 다양도를 의미하는 TTR(Type-Token Ratio) 분석으로 단어 수 대비 어휘 종류의 비율을 원문과 최초 번역본, 재번역본 간 비교해 유사도를 검증했다. 각각의 TTR은 원문이 54.7%, 최초 번역본이 55.8%, 재번역본이 54.9%로 나타나 재번역이 최초 번역본보다 TTR이 ST에 가까운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둘째, 단어 수 기준으로 평균 문장 길이를 계산하여 유사도를 파악했는데, 원문은 문장 당 20.01개, 최초 번역본은 18.09개, 재번역본은 20.69개의 단어가 사

용된 것으로 계산되어 최초 번역에 비해 재번역본의 값이 원본과 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방법은 발화 표현(Speech Representation, SR) 비율 비교인데, 전지적 화법(Narrator's Representation of Speech), 직접 화법(Direct Speech), 자유 직접 화법(Free Direct Speech), 간접 화법(Indirect Speech), 자유 간접 화법(Free Indirect Speech)의 다섯 가지 문장 표현 형태의 비율을 비교했다. 이를 통해 각 표현의 비율도 재번역본이 원본과 더 유사한 값을 보인다는 점을 밝혔다. 이러한 세 가지 검증을 통해 재번역이 원문에 더 가까워진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일본 고전 문학의 한국어 번역본을 대상으로 재번역 가설을 검증한 연구(박미정 2018)에서는 자국화와 이국화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수행했는데, 3개의 문화소, 의미 명시화, 통사구조 변화, 문체의 네 가지 분류를 통시적으로 분석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재번역이 이루어질수록 이국화 현상이 두드러지며 특정 재번역은 가장 이상적인 번역으로 꼽히는 문자 그대로의 번역이 수행되는 것으로 나타나 재번역이 원문에 더욱 가까워진 것을 확인했다.

기존의 재번역 가설은 주로 소설을 포함한 문학을 대상으로 검증된 것으로 파악되며, 문화 민감도가 높고 번역자의 개입이 활발한 것으로 알려진 광고나 게임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지속적인 창의성 유지가 필요한 광고의 경우 동일한 자료를 시간적 간격을 두고 번역한 통시적 자료 자체가 희소하기 때문이고, 게임의 경우 게임 산업 자체가 역사가 일천해 통시적이라 볼만한 시간적 간격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게임 번역은 최초 출시 이후 추가적인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번역이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출시되는 시점부터 점진적으로 수정되어 재번역이라 볼릴 만큼의 대대적인 변경이 수행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존재하는데, 이도 연구 부재의 한 이유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DIABLO II>가 전면적 재번역을 수행해 20여 년 만에 게임을 재출시하였으므로 비로소 통시적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 2.2 게임 번역과 트랜스크리에이션

게임 번역에 관한 연구는 2002년 해외 온라인 학술지에 최초 게재된 이래 2006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Mangiron 2017: 11). 초기의 게임은 번역할 요소가 많지 않았지만, 현재의 게임은 복잡한 기능을 아우르는 언어적·문화적 요소의 집합체이므로 많은 부분에서 번역을 필요로 한다(Mangiron & O'Hagan 2006).

게임 번역 전략을 다룬 해외 연구는 매우 드문 편이다. 투리(Toury)의 규범(norms)이론을 적용하여 이란의 비디오 게임 <Garshasp: Temple of the Dragon>의 번역 전략 분석을 수행한 연구(Sharifi 2016)에서는 번역이 원문을 빠짐없이 번역하는 충분성(adequacy)이 아닌 사용자 수용성(acceptability)에 더 무게를 두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게임 번역에 있어서 경험에 대한 충실성, 즉 효과의 등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페르난데즈(Fernandez 2012)는 게임 번역 전략을 개념적으로 분류했는데, 자국화와 이국화(domestication vs foreignization), 무번역(no translation), 트랜스크리에이션(transcreation), 직역(literal translation), 충실성(loyalty), 의미 상실과 이에 따른 보상(loss of meaning and compensation strategies), 검열(censorship)로 나누었다. 자국화와 이국화는 베누티(Venuti 1995)의 정의에 기반하며, 번역 텍스트가 목표 문화권의 기준과 대비해 이국적 향기(foreign flavour)를 유지하는 정도를 가리킨다. 무번역은 일반적으로 원문을 그대로 음차한 경우를 의미하며, 대체로 고유명사나 캐릭터의 이름을 옮기는 경우에 많이 발견된다. 트랜스크리에이션은 ‘번역자에게 주어지는 백지 위임장’으로서 게임 내 이미지, 텍스트, 사운드와 음성 등의 여러 요소들을 목표 문화권에 맞추어 변형함으로써 번역된 게임의 게이머들도 원작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을 의미한다. 충실성은 트랜스크리에이션과 연관된 전략으로, 게임의 원작 -



영화, 만화, 문학 - 을 고려하여 원작에 충실한 번역과 트랜스크리에이션 간의 비율을 조절하여 번역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미 상실과 이에 따른 보상은 문화 특수성으로 인해 생략되는 의미를 기능 등가 협상을 통해 보상하는 번역을 일컫는다. 다시 말해, 농담, 말장난, 격언, 속담 등의 문화 특수성이 두드러지는 텍스트의 경우 번역 과정에서 의미의 부분적 또는 전체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렇게 불가피하게 손실된 텍스트에 대하여 유사한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텍스트를 새로 작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검열은 목표 문화권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번역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문화적 수용성이나 법적 요건에 관한 전략이다.

일본에서 제작된 게임들의 영어 번역본을 대상으로 번역 전략과 그 접근법을 분석한 연구(Heemsbergen, 2016: 36-38)에서는 게임 번역 전략을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는 ‘직역’(literal translation)으로 단어 대 단어의 등가로 번역을 수행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제목을 포함하여 고유 명사를 변경하는 전략인 ‘트랜스크리에이션’(transcreation)이다. 다음으로 목표 문화와 그 사용자에 맞추어 게임 내러티브를 새로쓰기하는 전략으로 ‘블렌딩’(blending)을 제시한다. 이는 언어 텍스트뿐 아니라 시각 기호나 캐릭터, 스토리 요소, 기타 내러티브 요소 등을 모두 변경하는 전략이다. 마지막으로 원문을 그대로 두는 ‘무번역’(non-translation)을 제시했다. 이 연구는 특히 트랜스크리에이션을 세분화하고 블렌딩을 추가하였다는 점에서 페르난데즈(2012)의 연구와 차별점을 갖는다. 상술한 두 연구는 모두 게임 번역에 있어서 경험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원문과 다소 달라지더라도 효과의 전달, 경험의 등가를 중심으로 번역이 수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번역자의 개입을 트랜스크리에이션과 블렌딩이라는 명칭을 활용해 설명하고 있다.

국내의 게임 번역 연구는 김홍균(2019, 2021), 이지민과 장대철(2023), 유일범과 마승혜(2023)가 있는데, 먼저 김홍균(2019)은 게임의 영한 번역 전략 연구를 수행하였다. 게임 <Hearthstone> 텍스트 중 게임 요소에 관

한 추가 정보와 배경을 제공하는 ‘플레이버 텍스트’(flavor text)를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는 정보나 유머의 명시화, 언어 차이로 인한 번역문의 모호함 해소 등을 목적으로 원문에 없는 어휘가 추가되거나, 번역 시 불필요한 요소이거나 공간적 제약이 있는 경우 텍스트 길이가 축소되었으며, 텍스트의 일부나 전체가 변경되는 현상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모두 게이머의 경험이나 문화적 차이 등을 이유로 발생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마지막으로 게이머들이 번역된 텍스트의 내용을 이해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직역이 수행되었다.

게임 <League of Legends>의 게임 속 캐릭터의 대사, 능력에 관한 설명, 그리고 장비 아이템 명칭의 총 세 가지 텍스트를 대상으로 명사화의 관점에서도 연구가 수행되었다(김홍균 2021). 이 연구에서는, 세 텍스트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게이머의 문화적 정보나 간접적 배경보다 게임 이용과 조작, 플레이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우선해 번역하는 경향을 발견했다.

게임의 또 다른 구성 요소인 음성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지민·장대철 2023)는 게임 <OVERWATCH>의 캐릭터 음성 대사 번역 전략을 살펴보았다. 앞선 김홍균(2019)의 연구를 바탕으로 직역, 수정, 대체, 첨가, 생략 및 압축의 다섯 가지 분류들을 사용하여 각 대사를 분석했다. 주어나 서법, 표현 등의 변경을 통해 대사의 효과를 강화하는 수정 전략에 이어, 영화 대사나 명언의 활용, 감탄사의 자국화를 포함한 대체 전략, 배경 및 내용 정보와 감탄사와 담화표지를 더하는 추가 전략, 대명사의 생략과 문장 구조의 축소를 통한 압축 전략이 관찰되었다. 모두 이전의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게이머의 몰입과 감정이입을 강화하고 재미를 배가시켜 원본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경험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이전에는 다루지 않은 음성 대사 번역을 대상으로 했고, 영상번역과는 달리 오히려 감탄사와 담화표지 등을 추가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게임 번역의 특이점을 파악했다는 의의가 있다.

앞서 게임 번역 전략에서도 트랜스크리에이션이란 용어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보았듯이, 트랜스크리에이션은 통일된 단일 개념이 있지는 않으며, 연구 분야나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게임과 같이 다중모드(multimode) 매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광고 번역에 관한 선행연구(한승희 2017)에서는 트랜스크리에이션을 ‘원문을 과감하게 변경하고 삭제하여 내용을 편집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또, ‘원본 텍스트에 대하여 편집과 조정을 통해 다른 언어로 재창조하는 과정’(Oittinene 2020), ‘번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시각적 효과를 언어로 재창조하고 번역 텍스트의 수용성을 높이는 전략’(이지혜 2023)이라고 정의하고 있기도 하다. 또 ‘원천 텍스트와 번역 텍스트 간의 비언어적 요소와 언어적 요소 간의 전환’(정나영 2017)을 트랜스크리에이션으로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이상빈(2016)은 번역학자와 번역 실무자, 번역 교육 세 방면으로 트랜스크리에이션에 대하여 논하는데, 원문에 대하여 기존의 번역보다 자유롭고 유연하지만, 원문의 정신을 어떠한 형태로든 남겨두는 것이 트랜스크리에이션의 특징이자 개념이라고 정의했다.

선영화(2022)는 유사 개념인 현지화, 번안, 각색 등과 비교해 트랜스크리에이션의 개념을 논하는데, 트랜스크리에이션은 원문과 큰 차이점이 발생한다는 점과 비언어 기호와 언어 기호 간의 상호변환이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았다. 이를 통해 목표 문화권 사용자들에게 특정한 정서적 반응을 유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번역 텍스트의 소구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게임 번역을 트랜스크리에이션 관점에서 다룬 연구를 살펴보면, 만지론(Mangiron 2012)은 원본 텍스트에서 드러나지 않던 억양, 방언, 말투 등의 요소들이 창조적으로 추가된 것이 트랜스크리에이션의 특징이라고 언급한다. 상기한 페르난데즈(Fernandez 2012)는 트랜스크리에이션이 원문과 전혀 다르거나 없던 텍스트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 경험의 유지를 위해 번역가가 적절한 대안을 자유로이 찾는 것임을 의미한다고

포괄적으로 설명한다. 또한 아이아이아(Iaia 2016)는 원본 텍스트에서 보이지 않던 방언을 번역 텍스트에 추가한 것이 트랜스크리에이션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해당 캐릭터에게서 특정한 느낌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끔 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종합하면 트랜스크리에이션이란 ‘원본의 게임 경험과 동일한 경험을 번역본 게이머도 느낄 수 있도록 번역자가 개입하는 것으로서 언어 기호와 비언어 기호 간 상호작용을 활용하면서 원문을 과감하게 조정, 추가, 삭제하되 원문의 정신을 잃지 않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 Ⅲ. 분석 대상 및 방법

#### 3.1 분석 대상

게임 <DIABLO> 시리즈는 미국 소재 기업 블리자드(BLIZZARD)사가 서비스하는 게임으로, 1996년 첫 번째 시리즈 발매 이후 RPG(Roll-Playing Game)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액션 RPG라는 장르의 시초격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매 시리즈가 발매될 때마다 큰 인기를 끌어 높은 판매고를 올렸다. 특히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인 두 번째 시리즈 <DIABLO II>는 2000년에 출시되어 IAA(Interactive Achievement Awards) 올해의 게임상(Game of the Year)과 컴퓨터 게임 및 RPG 게임 부문 올해의 게임상을 모두 수상하였으며, 각종 해외 게임 통계 사이트에서 최고의 게임 Top 10에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선정되기도 하였다. 또한 2000년에 가장 빠르게 팔린 컴퓨터 게임이라는 기네스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1년에 출시된 확장팩은 종전의 기록을 갈아치우며 ‘올해 최고의 게임’(Game of the Year; GOTY)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국내 또한 마찬가지로 2001년 가장 많이 팔린 게임 1위에 올랐고(이승연 2001.07.02.),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서론에 상기한 바와 같이 PC방 점유율 20위 내에 올라 있다.

2000년 출시된 <DIABLO II>는 출시 이후 재번역이 수행되지 않아 원본과 번역본이 유지되고 있으며, 2021년에 리마스터 버전으로 출시된 버전은 원본 텍스트는 2000년 출시 버전과 동일하나 재번역이 수행되어 수정된 번역본을 갖는다. 리마스터란 기존의 아날로그 형식이었던 게임을 게임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 시대에 맞는 그래픽으로 바꾼 것을 의미하는데, 부분적인 수정이 이뤄지는 ‘리메이크’나 처음부터 끝까지 새롭게 돌아온 ‘리부트’와는 다른 개념이다.

따라서 게임 <DIABLO II>는 게이머들의 인기를 유지하면서 20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한국어 번역과 재번역이 수행되었으므로 의미있는 통시적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게임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DIABLO II>의 NPC(Non-Playable Character) 대사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다. NPC 대사는 게임 이용자가 조종하지 않는 고정 캐릭터가 뱉는 대사를 가리킨다. 이용자에게 게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각종 임무를 제시하고 임무와 관련된 정보나 배경을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 농담 등을 통해 다소 경직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는 역할도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게이머들에게 상황이나 배경,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각 NPC별로 게이머 캐릭터와의 관계나 거리를 드러내기도 하며, NPC 자체의 성격이나 개성을 드러내는 장치로도 작용한다. 해당 대사는 <그림 1>에서와 같이 각 NPC(붉은색 상자 내)를 클릭하면 등장하는 대화 탭을 눌러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는 원본 텍스트로, 클릭한 NPC 머리 위에 말풍선의 형태로 자막이 재생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동일한 자막이 번역본에서는 <그림 3>과 같이 번역되었다.

원문(이하 ‘ST’)은 1,700개 문장, 18,008개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비교 대상 번역본은 2000년 최초 출시 버전 번역본(TT1)과 2021년 재번역본(TT2)인데, TT1은 총 1,746 문장에 13,227 단어, TT2는 1,710개 문장에

11,424 단어이다.



<그림 1> NPC 클릭(\*붉은 상자는 저자의 것)



<그림 2> 원문 말풍선



<그림 3> 번역본 말풍선

### 3.2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양적 및 질적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적 부분은 ST, TT1, TT2에 대해 선행연구(Dastjerdi & Mohammadi 2013)에서 활용한 어휘 다양도(TTR)와 문장 길이(문장당 단어 수)를 비교하고, ‘번역자가 원본의 게임 경험과 동일한 경험을 번역본 게이머도 느낄 수 있도록 원문의 정신을 살리면서 원문을 변경, 조정, 삭제하는 것’이라는 트랜스크리에이션 정의에 따라 ST에 대비해 TT1과 TT2에서 번역자가 사용한 전략을 추가, 변경, 생략으로 분류하고 빈도를 세었다. 여기서 ‘추가’는 ST에서 존재하지 않는 어휘나 표현이 TT에서 발견되는 경우로, ST에는 없는 새로운 정보(의미), 문장부호, 감탄사, 호칭 등이 번역 과정에서 더해진 경우이다. ‘변경’은 ST에 존재하는 어휘나 표현이 TT에서 달리 번역된 경우를 의미한다. 단어 수준에서는 호칭이나 이름, 고유명사의 변경을 포함했고, 문장

수준에서는 서법 변화 등을 포함했다. ‘생략’은 ST에 존재하는 어휘나 문장이 번역 과정에서 압축되거나 사라진 경우인데, NPC의 이름이나 호칭, 정보, 내용의 생략, 표현의 간결화 등을 포함하였다. 다만, TT1과 TT2 모두에서 발견되는 주어의 생략은 영어에서 한국어로의 번역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에서 언어의 내재적인 특징으로 보아 고려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반대로, TT1과 TT2 중 하나에서만 생략된 주어의 경우는 포함하여 수를 세었다. 동일한 문장 내에 두 가지 이상의 전략이 동시에 적용된 경우에는 각각의 항목에 모두 포함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양적 분석을 보완하기 위해 TT1과 TT2 간 번역 전략의 변화를 질적으로 분석했다.

TTR과 문장 길이는 Wordsmith 8.0을 사용해 계산했고, 전략 분석의 경우 분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 연구자가 분류한 내용을 다른 연구자가 교차 확인했으며, TT1과 TT2의 전략 유형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카이제곱 검정)을 수행했다.

## IV. 분석 결과

### 4.1 양적 분석

#### 4.1.1 문장 길이와 어휘 다양도(TTR)

N	text file	file size	tokens in text	keys used or word list	sum of entries	types distinct	type/token ratio (TTR)	standardised TTR	STR std.dev.	STR basis	mean word length (in characters)	word length std.dev.	sentences
	Overall	349,910	42,659	42,652	11,708	27.45%	60.35%	48.31	1,000	3.51	1.79	5,156	
1	C:\Users\DC\Desktop\ST.txt	101,125	18,008	18,007	2,788	15.48%	42.58%	52.14	1,000	4.33	2.15	1,700	
2	C:\Users\DC\Desktop\TT1.txt	132,959	13,227	13,225	5,959	45.06%	71.81%	25.06	1,000	2.91	1.15	1,746	
3	C:\Users\DC\Desktop\TT2.txt	115,826	11,424	11,420	5,697	49.89%	75.89%	20.40	1,000	2.92	1.18	1,710	

<그림 4> Wordsmith 통계

Wordsmith 8.0에 ST와 TT1, TT2의 전체 텍스트를 입력해 <그림 4>와



같은 통계 결과를 얻었다. 붉은 상자로 표시한 부분이 왼쪽부터 총 단어 수(tokens), TTR 값, 그리고 문장 수(sentences)다.

아래는 문장 길이 분석 결과다.

<표 1> 문장 길이 분석

	문장 수	단어 수	평균 단어 수
ST	1,700	18,008	10.59
TT1	1,746	13,227	7.58
TT2	1,710	11,424	6.68

TT2가 TT1과 비교해 문장 수, 단어 수, 문장 당 단어 수 세 항목 모두가 더 적었다. 특히 문장 길이를 나타내는 문장당 평균 단어 수도 TT2가 6.68개로 7.58개인 TT1에 비교해 ST(10.59개)와 거리가 더 있었다. 아래 <표 2>는 ST, TT1, TT2 간 type, token, TTR을 비교한 표다.

<표 2> TTR 분석

	Type	Token	TTR(%)
ST	2,788	18,008	15.48
TT1	5,959	13,227	45.06
TT2	5,697	11,424	49.89

ST의 TTR은 15.48%인데 반해 TT1은 45.06%, TT2는 49.89%로 TT2가 ST보다 더 먼 값을 보였다.

#### 4.1.2 번역 전략별 빈도

아래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TT1은 총 871건의 번역자 개입이 발견되

었다. 변경, 생략, 추가의 순서대로 빈도가 높았으며, 각각 430건, 184건, 153건이었다. 반면 TT2는 1,247건의 번역자 개입이 관찰되었으며, 변경, 생략, 추가가 각각 598건, 466건, 170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TT 전략양적 분석

	추가	변경	생략	합계
TT1	153	430	184	871
TT2	170	598	466	1,247

분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다른 연구자에게 ST 기준 총 1,700 문장의 약 10%에 해당하는 180개 대사에 대한 번역을 분류할 것을 요청했고, 이를 표본으로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신뢰수준 95%에서 6.9%의 표본오차를 가지며, 해당 검증 결과 87.43%의 일치율을 보여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아울러 TT1과 TT2 간 전략 유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카이제곱 검증)을 실시한 결과  $\chi^2$  값은 159.758, p 값은 0.00으로 나타나 TT1과 TT2 간에는 번역 전략 유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T1과 TT2는 공통적으로 변경 전략을 가장 활발하게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TT1에 비해 TT2에서 변경은 약 170여 건, 즉 39% 증가했고, 생략은 2.5배 이상 정도 증가했음을 발견했다. 추가 또한 17건이 늘어나 11% 가량 증가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아래는 개별 전략의 질적 분석 내용이다. TT1와 TT2 간 전략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 4.2 질적 분석

### 4.2.1 추가

TT2에서는 주로 ST와 TT1에서는 없는 정보를 추가하여 원문의 의미와

발화의 의도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수행되었다.

[예 1]

ST: You're an inspiration!

TT1: 당신은 정말 대단하오!

TT2: 당신은 귀감이 되는 영웅이야!

[예 2]

ST: I'm doing some more research now.

TT1: 나는 지금 연구를 더 하고 있네.

TT2: 이 괴물을 더 연구하는 중이라네.

[예 1]에서는 ‘영웅이야’를 추가하여 게이머를 칭찬하고자 하는 대사의 의도를 강조하였고, [예 2]에서는 연구 대상인 ‘괴물’을 추가하여 발화의 의도를 명시화하고 있다.

[예 3]

ST: I'm sure you'll meet most of them. Just look around...

TT1: 아마 그들 중 대부분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यो. 잘 찾아 보기 바라오.

TT2: 오가며 대부분 만날 수 있을테니 주변을 잘 둘러보시오.

위 [예 3]의 경우 ‘오가며’라는 구체적인 행위를 추가하여 게이머로 하여금 주변에 위치한 다른 NPC를 확인할 것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같이 논리 관계나 긴박감을 나타내는 부사, 접속사와 같은 품사를 추가하는 전략도 관찰되었다. 아래 [예 4]를 보자.

[예 4]

ST: When Zakarum came to power in this land, it took over the Temple City without paying any heed to what was locked within the Tower.

TT1: 자카룸이 이 지역을 장악했을 때, 그들은 타워에 무엇이 갇혀있는지 전혀 주의하지 않고 트라빈칼을 점거했소...

TT2: 하지만 이내 자카룸이 들어섰고, 이들은 탑에 무엇이 갇혀있는지 전혀 신경쓰지 않고 트라빈칼을 점거했지...

위의 [예 4]와 같이 ‘하지만’을 추가해 선행하는 대사와의 연결을 강화하고 맥락을 강조해 게이머의 상황 이해도를 높이려는 노력을 가했다. [예 5]와 같이 의성어(‘호호호호’)를 추가해 맥락을 강화하는 효과도 발견되었다. 이는 선행연구(이지민·장대철 2023)에서 발견된 것과 유사한 현상이다.

[예 5]

ST: Ah, Cain is here...another customer,

TT1: 아, 케인이 이곳에 왔군.... 손님이 하나 더는 션인가.

TT2: 아, 케인이 오다니. 호호호호, 손님이 또 늘었군.

#### 4.2.2 변경

변경 전략은 가장 다양한 차이점을 보인 분류이다. 고유명사를 TT1에서는 음차로 직역한 반면 TT2에서는 의미역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예 6, 7]에서 볼 수 있듯이, ST의 ‘Den of Evil’과 ‘Iron Wolves’를 TT1에서는 각각 ‘덴 오브 이블’, ‘아이언 울프’라고 번역했으나 TT2에서는 ‘악의 소굴’, ‘강철늑대단’이라고 번역했다.

[예 6]

ST: You have cleansed the Den of Evil.

TT 1: 그대는 덴 오브 이블을 정화했소.

TT 2: 그대는 악의 소굴을 정화했소.

[예 7]

ST: My name's Asheara, and I lead the mercenary band of mages

- 재번역 가설은 게임 번역에도 유효한가? | 장대철·이지민

known as the Iron Wolves.

TT1: 내 이름은 아세라로 아이언 울프라는 마법사 용병단을 이끌고 있어요.

TT2: 전 아시아라입니다. 강철늑대단(Iron Wolves)이라는 마법사 용병단을 이끌고 있죠.

위 예와 같이 TT1의 고유명사 음차가 TT2에서 의미역으로 변화한 것은 해당 게임의 모든 텍스트에서 드러났으며, <DIABLO II>의 재번역에서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 차이점이다. 특히 [예 7]처럼 괄호 안에 원문을 병기하는 방식도 관찰되었다.

[예 8]에서 볼 수 있듯이 TT2에서는 ST나 TT1과는 달리 문장을 분할해 게이머의 가독성을 높이고 발화의 호흡을 조절하는 전략도 관찰되었다.

[예 8]

ST: Go and remember us fondly.

TT1: 우리에게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떠나도록 하게.

TT2: 가 보게. 우릴 잊지 말고.

또한 TT2에서는 ST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준비 관계를 구체화시켰다. TT1과 대비해 NPC 간의 관계나 NPC와 게이머 캐릭터 간의 관계가 더 다양해졌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예 9]

ST: Akara was worried about you.

TT1: 아카라가 당신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어요.

TT2: 아카라 님이 꽤 걱정하고 계시던 참이었어요.

위 [예 9]에서 볼 수 있듯이 TT2에서는 ‘님’이라는 호칭을 명시해 NPC 간의 관계에도 상하가 존재함을 드러냈다. 다른 예에서는 반대로 TT1의 ‘당신’이 TT2에서는 ‘너’, ‘네’로 바뀌고 하오체의 어머니가 하대하는 형식의

로 바뀌기도 했는데, 이를 통해 NPC와 게이머 캐릭터 간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NPC들에게 개성을 부여했다.

TT1 대비 TT2에서 내용을 압축하고 강도를 높이는 경향도 관찰되었다.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예 10]

ST: One who seeks that cave, seeks death.

TT1: 그 동굴에 가려는 건 죽음을 자청하는 일이오.

TT2: 그 동굴에 기다리는 건 죽음뿐이오.

[예 10]과 같이 ‘그 동굴에 가려는 건 죽음을 자청하는 일이오’를 ‘그 동굴에 기다리는 건 죽음뿐이오’로 압축했다. 그 외에도 ‘~말고는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소’를 ‘~에 대한 얘기만 하더군’으로 번역해 이중부정문을 단순화했다.

#### 4.2.3 생략

생략은 앞서 설명한 추가나 변경과는 반대로, 주어, 호칭이나 부연 설명을 생략하여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발생했다. 주어의 생략은 대부분의 문장에서 TT1과 TT2를 가리지 않고 모두 발견되어 양적 분석 기준에서 제외되었으나, 아래와 같이 TT1에서는 생략되지 않은 주어가 TT2에서는 생략된 경우가 다소 발견되었다.

[예 11]

ST: She seems to be the leader of this camp. Maybe she can tell you more.

TT1: 그녀는 이 캠프의 지도자인 것 같소. 그러라면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해줄 수 있을지도 모르오.

TT2: 이 야영지의 지도자이니, 뭔가 알려줄거요.

목적어나 소유격 등도 TT1과 대비해 TT2에서 자주 생략되었는데, 문맥으로 추론이 가능한 소유격이나 목적격의 생략을 통해 게이머들로 하여금 호흡이 끊기지 않게 하고, 텍스트 노출 공간의 절약을 꾀한 것으로 보인다.

[예 12]

ST: I would show him your figurine.

TT1: 그에게 자네가 지닌 동상을 보여주게.

TT2: 그 조각상을 한 번 보여주게나.

## V. 논의

재번역을 다룬 이전의 연구들은 소설과 같은 문학을 대상으로 했으며, 게임과 같은 다중모드 매체를 대상으로 한 재번역 연구는 찾아볼 수 없는데, 이는 게임이라는 매체의 특징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게임 텍스트는 게임이 서비스되는 기간 동안 꾸준히 그 내용이 수정되고, 지속적, 부분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재번역 양상을 연구하기 위한 텍스트 수집이 쉽지 않다. 이에 더해,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게임의 특성상 원본 텍스트마저 변화하므로 비교가 쉽지 않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게임의 최초 버전(2000년 출시)과 리마스터 버전(2021년 출시)이라는 경계가 명확한 두 개의 버전이 존재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재번역 양상을 연구할 수 있었다. 원본 텍스트는 리마스터 과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번역 텍스트만 변경되었기에 가능한 사항이기도 하다.

양적 분석에서는 ST, TT1, TT2를 대상으로 문장 길이(문장별 단어 수), 어휘 다양도(TTR), 개별 번역 전략 빈도를 파악해 비교했다. ST의 경우 문장 길이는 평균 10.31개 단어였고, TTR은 15.48%였다. TT1은 각각 7.46

개, 45.06%인 반면, TT2는 6.57개 단어, 49.89%로 나타났다. ST에 비해 TT에서 TTR이 크게 증가한 것은 한국어의 언어적 특성 때문인데, 영어와 달리 한국어에서는 어근에 ‘은’, ‘는’ 등의 조사가 결합해 격이 정해지거나, ‘들’, ‘끼리’ 등의 접미어가 추가되어 수와 관계를 표현하는데, 이들이 각각 이 다른 어휘로 계산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안의정 2017). ST와 비교해 TT1과 TT2 둘 다 큰 값을 보이지만 이들이 동일하게 한국어 텍스트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가설 검증은 가능해 보인다. TT1 대비 TT2가 ST와 문장 길이가 더 큰 차이가 있었다. 한편 TT2가 TTR은 오히려 더 높아져 상대적으로 더 적은 단어를 활용하되 다양한 어휘를 활용해 다양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울러 TT1은 총 871건, TT2는 총 1,247건의 트랜스크리에이션이 관찰되어 TT2가 TT1에 대비해 1.5배에 가까운 번역자 개입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로써 TT2가 TT1에 대비해 ST와 거리가 더 멀어졌다 할 수 있겠다.

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추가는 TT1이 153건, TT2가 170건이었고, 변경은 TT1이 430건, TT2가 598건, 생략은 TT1이 184건, TT2가 466건이었다. TT1과 대비해 TT2에서는 추가, 변경, 생략이 모두 늘었고, 특히 생략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했다. 먼저 추가 전략과 관련해서는 TT1 대비 TT2에서 등장인물의 정체를 명시화하거나(‘괴물’, ‘영웅’), 게이머들에게 행동 지침이 되는 내용을 추가했으며(‘오가며’), 접속사(‘하지만’) 등을 삽입해 앞뒤 말의 논리 관계를 명확하게 해서 게이머들이 상황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더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번역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감탄사 추가도 발견되었는데, 이는 극의 생동감과 게이머의 몰입감을 높이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변경 전략의 경우, 문장 분할, 의미역, 호칭과 어미 변경을 통한 준비 관계 변경, 압축이 TT2에서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장 분할을 통해 가독성을 높이거나 대화의 호흡을 조절하는 효과를 추구했다. 고유명사의 경우 TT1에서는 대체로 음차 번역했으나(‘덴 오브 이블’, ‘아이언



올프'), TT2에서는 모두 의미역한 것으로 나타났다('악의 소굴', '강철 늑대단'). 이는 이국화와 직역이 ST와 더 가까운 것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TT2가 ST와 거리가 더 멀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번역 전략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압축인데, 긴 표현을 한 단어로 압축하거나 이중부정문을 긍정문으로 번역하는 등의 전략을 사용해 자수를 줄임으로써 게이머의 가독성을 높였으며, 그 과정에서 내용 강도가 세어지고 조금 더 단정적이 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생략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목적어와 소유격 등의 생략, 보조용언 생략 등을 통해 문장을 간단하게 만들었다.

문장 길이, TTR, 트랜스크리에이션 전략 빈도와 내용 분석을 모두 종합하면 게임 번역에서는 재번역이 최초 번역보다 원문과 거리가 더 있는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 재번역이 이러한 방향으로 수행된 이유는 외국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번역 소비자인 게이머의 성향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외래어나 외국어를 한국어보다 상위 또는 고급 언어로 인식하였지만 점차 시간이 감에 따라 한국어 또한 동등한 위치의 언어라는 인식이 널리 퍼졌기 때문이다(국립국어원 2011). 아울러 최초 번역이 수행된 2000년에는 게임 번역에 있어 원문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번역의 고정관념이 우세했으나 이러한 경향은 2005년 <World of Warcraft>의 국내 출시를 기점으로 변화를 맞이했다(장인성, 2010.10.13.). 해당 게임에서 'fireball'이나 'Pyroblast'를 당시 유행하던 '파이어볼', '파이로블래스트' 대신 '화염구'나 '불덩이 작렬' 등으로 번역했는데, 이는 게이머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김승현, 2014.10.10.). 그 이후 현지화 차원에서 좀 더 창의적인 번역이 허용되기 시작했고, 2021년의 재번역에서 이것이 반영되었다 할 수 있다. 아울러 최근 번역이 문장 길이가 짧아진 것은 과거와 비교해 현재 세대가 인터넷 노출이 많아지면서 짧은 문장을 선호하게 된 특징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VI. 맺음말

본 연구는 기존의 재번역 가설이 게임 번역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최초 번역과 재번역 간에 번역 스타일과 트랜스크리에이션 관점에서 차이를 분석했다. 세계적 게임 회사인 블리자드사가 2000년 출시한 게임 <DIABLO II>의 NPC 대사를 대상으로 2000년 출시된 한국어 번역본과 2021년 재번역본에 대해 분석을 수행하였다.

양적 연구로 문장 길이와 어휘 다양도를 분석했고, 트랜스크리에이션 전략을 추가, 변경, 생략으로 분류하여 빈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재번역이 최초 번역에 비해 문장이 짧으며 어휘 원문과도 더 큰 차이가 있었으며 재번역의 어휘 다양도도 원문과 차이가 더 컸다. 아울러 번역자 개입을 나타내는 트랜스크리에이션 전략 빈도를 살펴보아도 최초 번역은 총 871건, 재번역은 1,247건으로 재번역이 최초 번역에 대비해 1.5배 이상 더 많은 번역자 개입이 있었다. 최초 번역과 비교해 재번역에서 추가, 변경, 생략 등이 훨씬 적극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도 확인했다. 이를 볼 때 재번역이 최초 번역과 비교해 원문과 더욱 거리가 멀어지는 방향으로 번역이 되었음을 확인했다.

질적 분석을 통해서도 이러한 방향성이 확인된다. 최초 번역과 비교해 재번역에서 호칭과 고유명사의 추가, 부연 설명, 감탄사 추가를 활발하게 적용해 캐릭터 정체성의 명시화, 행동 지침 제시, 극의 생동감 강화 효과를 노렸다. 최초 번역에서는 고유명사를 대부분 음차해 번역하였으나 재번역에서는 대부분 의미 중심 번역으로 변경되었다. 번역이 이국화에서 자국화 방향으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재번역 가설에서 지지하는 이국화 방향으로의 진행과는 역행하는 것이다. 원문에서 잘 드러나지 않은 NPC 간 또는 NPC와 게이머 캐릭터 간 관계도 재번역에서는 명시화했으며, 문장 분할, 문장 구조 변경, 직역투의 의역화, 지시대명사, 소유격, 목적격 등의 생략을 통해 맥락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러운 한국어

를 추구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재번역이 최초 번역에 비해 원본에서 더 멀어지는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으며, 이는 재번역 횟수가 늘어날수록 원본에 가까워진다는 재번역 가설에 반하는 결과이다. 즉, 게임 번역에 있어서는 재번역 가설이 성립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본 연구는 게임 재번역에 있어 재번역 가설을 검증하고 최초 번역에 대비한 재번역의 특징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문학이나 영상과는 달리 재번역 연구가 매우 드문 게임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여 재번역 가설을 확인하고, 최소한 영한 게임 번역에서는 사례 연구이기는 하나 양적 분석 및 질적 분석을 통해 재번역 가설이 성립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단일 게임에 한정된 사례 연구이며, 게임의 특성상 다양한 장르가 존재하며 이에 따라 다양한 전략을 활용한 번역을 모두 아우르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갖는다. 후속 연구에서는 세부 장르별 재번역 양상을 다루거나, 두 가지 이상의 게임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해 보편적 적용이 가능할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계명대학교)

## ■ 주제어

재번역, 게임 번역, 트랜스크리에이션, 통시적 연구, 재번역 가설

## ■ 인용문헌

- 김홍균. 「게임 플레이어 텍스트의 번역 양상 고찰 - 게임 ‘하스스톤’의 플레이어 텍스트를 사례로. 『T&I Review』 9 (2019): 73-101. Print.
- \_\_\_\_\_. 「영한 게임 번역에서의 명시화에 관한 고찰 -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를 중심으로.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21.3 (2021): 117-131. Print.
- 박미정. 「고전문학 재번역과 재번역가설. 『번역학연구』 19.1 (2018): 33-60. Print.
- 선영화. 「트랜스크리에이션의 개념 특유성에 대한 고찰 - 유사 개념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통역과 번역』 24.1 (2022): 137-162. Print.
- 안의정. 「한국어 텍스트의 어휘 다양도와 어휘 밀도 분석. 『언어사실과 관점』 41 (2017): 349-365. Print.
- 유일범 & 마승혜. 「문화권에 따라 차별화되는 게임 번역 전략. 『문화와 융합』 45.2 (2023): 87-98. Print.
- 이상빈. 「비디오 게임에서의 유머 번역과 수용. 『번역학연구』 14.1 (2013): 183-210.
- \_\_\_\_\_. 「트랜스크리에이션, 기계번역, 번역교육의 미래. 『통역과 번역』 18.2 (2016): 129-152. Print.
- \_\_\_\_\_. 「광고와 젠더 번역: 수입자동차 인쇄광고의 남성타깃 번역 전략. 『통번역학연구』 21.2 (2017): 85-108. Print.
- 이지민 & 장대철. 「게임 속 캐릭터 음성 대사의 번역 양상 고찰 - <오버워치 2> 사례 연구. 『통번역학연구』 27. 2 (2023): 123-144. Print.
- 이지혜. 「중한 번역 그림책에서 멀티모달리티를 구현한 트랜스크리에이션 전략 고찰. 『통역과 번역』 25.1 (2023): 99-130. Print.
- 임순정. 「고전 문학 작품의 재번역 양상: 스타달의 『적과 흑』을 중심으로.」

- 『번역학연구』 11.2 (2010): 127-149. Print.
- 정나영. 「TV 뉴스 영한 트랜스크리에이션 전략: 첨가와 삭제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1.4 (2017): 97-131. Print.
- 한승희. 「기계번역·인간번역·트랜스크리에이션의 문체 비교: 광고 번역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1.2 (2017): 163-188. Print.
- Berman, A. “La Retraduction comme espace de la traduction. Palimpsestes.” *Revue de Traduction*, 4 (1990): 1-7. Print.
- Chesterman, Andrew. “A Causal Model for Translation Studies.” *Intercultural Faultlines: Research Models in Translation Studies I: Textual and Cognitive Aspects*, edited by Maeve Olohan, St. Jerome Publishing, 2000: 15-27. Print.
- Dastjerdi, H. & Mohammadi, A. “Revisiting “Retranslation Hypothesis”: A Comparative Analysis of Stylistic Features in the Persian Retranslations of *Pride and Prejudice*.” *Open Journal of Modern Linguistics* 3 (2013): 174-181. doi: 10.4236/ojml.2013. 33024.
- Feng, L. (2014). “Retranslation Hypotheses Revisited: A Case Study of Two English Translations of *Sanguo Yanyi* – the First Chinese Novel.” *Stellenbosch Papers in Linguistics Plus*, 43 (2014): 69-86. Print.
- Fernández Costales, A. (2012). “Exploring Translation Strategies in Video Game Localization.” *Monografías de Traducción e Interpretación* 4 (2012): 385-408. Print.
- Gambier, Y. “La Retraduction, Retour et Détour.” *Meta*, 39.3 (1994): 413-417. Print.
- Heemsbergen, D. ““Eat Your Hamburgers, Apollo”: A Survey of Japanese Video Game Localization Methods and Challenges.” *Arizona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Studies* 5 (2016): 31-46. Print.

- Iaia, P. L. "Creativity and Readability in Game Localisation. A Case Study on "Ni No Kuni"." *Lingue e Linguaggi* 17 (2016): 121-132. Print.
- Mangiron, C. "Localizing Final Fantasy—bringing Fantasy to Reality." *LISA Newsletter Global Insider* 13.1.3 (2004): 5. Print.
- \_\_\_\_\_. "The Localisation of Japanese Video Games: Striking the Right Balance." *The Journal of Internationalization and Localization* 2.1 (2012): 1-20. Print.
- \_\_\_\_\_. "Research in Game Localisation: An Overview." *The Journal of Internationalization and Localization* 4.2 (2017): 74-99. Print.
- Mangiron, C., & O'Hagan, M. "Game Localisation: Unleashing Imagination with 'Restricted' Translation." *The Journal of Specialised Translation* 6.1 (2006): 10-21. Print.
- Oittinen, R. "From Translation to Transcreation to Translation: Excerpts from a Translator's and Illustrator's Notebooks." *Negotiating Translation and Transcreation of Children's Literature: From Alice to the Moomins*, edited by Joanna Dybiec-Gajer, Riitta Oittinen, Małgorzata Kodura. Springer, 2020: 13-37. Print.
- Paloposki, O., & Koskinen, K. (2010). "Reprocessing Texts. The Fine Line Between Re translating and Revising." *Across Languages and Cultures* 11.1 (2010): 29-49. Print.
- Pym, A. *Method in Translation History*. (1st ed.) Routledge, 1998. Print.
- Sharifi, H. (2016). "Norms Governing the Localization of Video Games: A special Case of Garshasp." *The Journal of Internationalization and Localization*, 3.1 (2016): 61-73. Print.
- Venuti, L. *The Translator's Invisibility - A History of Translation*.

Routledge, 1995.

### <인터넷 자료>

- 김승현. 「우리 말이 아니라 우리 문화로 바꾼다, 블리자드 현지화 팀」. 『THIS IS GAME』 (2014.10.10.) Retrieved July 30, 2024 from <https://www.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5/?n=56551>.
- 국립국어원. 「외래어·외국어 사용 실태 조사」. 『국립국어원 20년사』 (2011.1.21.). Retrieved July 20, 2024 from [https://m.korean.go.kr/niklintro2/20years05\\_03\\_03.jsp](https://m.korean.go.kr/niklintro2/20years05_03_03.jsp).
- 디지털데일리. 「“악마가 돌아온다” ... ‘21주년’ 디아블로2, 리마스터로 재탄생」. 『디지털데일리』 (2021.9.20.). Retrieved August 13, 2024 from <https://m.ddaily.co.kr/page/view/2021091917051565737>.
- 이승연. 「2000, 2001년 최고의 판매타이틀은?」. 『GAMEMECA』 (2001.7.2.) Retrieved July 30, 2024 from <https://www.gamemeca.com/view.php?gid=3796>.
- 장인선. 「564번째 생일맞은 한글날! 온라인 게임의 한글,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 『INVEN』 (2010.10.13.). Retrieved on July 30, 2024 from <https://www.inven.co.kr/webzine/news/?news=31060>
- Unity. “COVID19's Impact on the Gaming Industry: 19 Takeaways.” Unity (2020) Retrieved July 30, 2024 from [https://images.response.unity3d.com/Web/Unity/%7B1d8bb073-24ca-45ae-9b26-4ec9ac2e3fb4%7D\\_Unity-Monetization-Covid-19-Insights-v3.7.pdf?elqTrackId=0cflb3ba3dd04d708e2731e75ddaa324&elqaid=2721&elqat=2](https://images.response.unity3d.com/Web/Unity/%7B1d8bb073-24ca-45ae-9b26-4ec9ac2e3fb4%7D_Unity-Monetization-Covid-19-Insights-v3.7.pdf?elqTrackId=0cflb3ba3dd04d708e2731e75ddaa324&elqaid=2721&elqat=2).

■ Abstract

## Does the Retranslation Hypothesis Hold True for Game Translation?: A Case Study of Korean Translations of <DIABLO II>

Jang, Dae Cheol (Keimyung University)

Lee, Jimin (Keimyung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verify the Retranslation Hypothesis and explore transcreation features by examining the Korean translation released in 2000 and the retranslation in 2021 of lines by Non-Playable Characters (NPCs) in the game <DIABLO II>. To achieve this, the Type-Token Ratio (TTR) and sentence length of the original text (ST) of the first translation (TT1) and the retranslation (TT2) are calculated and compared. Additionally, the transcreation strategies used for NPC lines are categorized into three groups: addition, modification, and deletion. Based on the analysis of TTR, sentence length, and the degree of transcreation, this study finds that the retranslation hypothesis does not hold true in game translation. TT2 exhibited a higher TTR and shorter sentence length compared to TT1 and, thus, showed greater divergence from the ST. Regarding transcreation strategies, TT1 and TT2 reveal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oth versions primarily utilized modification, followed by deletion and addition. However, in contrast to TT1, TT2 demonstrated more intense translator intervention, with higher levels in all translation



- 재번역 가설은 게임 번역에도 유효한가? | 장대철·이지민

strategy categories. This study is significant as it is the first attempt to verify the retranslation hypothesis in the field of game translation and sheds light on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ifferences in strategies between TT1 and TT2 over a span of more than 20 years.

### ■ Key words

Retranslation, game translation, transcreation, diachronic study,  
Retranslation Hypothesis

### ■ 논문게재일

○투고일: 2024년 7월 30일 ○심사일: 2024년 8월 12일 ○게재일: 2024년 8월 13일



# The Cycle of Trauma and Its Social and Psychological Impact in August Wilson's *Fences*

Jeong, Youn-Gil\*

## I . Introduction

August Wilson has been hailed as the greatest black playwright in the history of American literature. Wilson's works focus on the complexities of the African-American experience, particularly in relation to family, dreams, and racial discrimination. His works delve into themes of identity, legacy, and the socio-economic challenges faced by African-Americans in the 20<sup>th</sup> century (Elkins 72). *Fences* is part of Wilson's Pittsburgh Cycle, which is a powerful exploration of African-American life in the 1950s. Since its Broadway debut in 1986, *Fences* has been interpreted from a variety of perspectives. The play's protagonist, Troy Maxson, is a former Negro League baseball player whose dreams are thwarted by racial discrimination, leading to his deep-seated bitterness and sense of betrayal. Some prominent discussions around *Fences* revolve around the concept of the American Dream and its

---

\* Associate Professor, Dharma College, Dongguk University.  
eagleton@dongguk.edu

attainability for African-American, as well as the theme of fatherhood and socioeconomic responsibility. The former examines how the protagonist Troy's experience reflects a broader disillusionment with the American Dream among African-Americans (Intan 16-22), or explores how Wilson uses baseball as a metaphor to challenge the authenticity of the American Dream, placing Troy in the historical context of the Negro Leagues and highlighting the institutional barriers that prevented black players from reaching the major leagues (Hasan 3-10). The latter discusses how Troy's failure to provide a stable home and pass on positive values mirrors the generational challenges faced by African-American families (Long 119-22), and this approach is further expanded through psychoanalytic and Marxist lenses to understand the impact of socio-economic hardships on familial relationships and individual aspirations. The character of Rose Maxon also garners considerable scholarly attention. For instance, Elam suggests Rose exhibits a strong sense of self-awareness and agency, challenging traditional gender roles within the African-American community (Elam, "August Wilson" 625). Similarly, Hadi Ali Hasan explores Rose's dreams and aspirations, emphasizing her role in highlighting the struggles and resilience of African-American women.

*Fences* has been a rich text that offers multiple avenues for scholarly exploration, including the disillusionment with the American Dream, the complexities of fatherhood and socio-economic responsibilities, the nuanced portrayal of African-American women, and the broader cultural and historical significance of African-American identity. These discussions demonstrate the relevance of

- The Cycle of Trauma and Its Social and Psychological Impact  
in August Wilson's *Fences* | Jeong, Youn-Gil

studying Wilson's oeuvre to understanding the African-American experience and its impact on American society. Set in the 1950s, the play revolves around Troy, his family, and their struggles against societal and personal barriers. The intricate dynamics within the Maxson family provide a rich tapestry for examining how trauma is transmitted across generations. The play reveals the lasting impact of historical injustice and personal failure on family dynamics and the individual psyche. In particular, the life of the main character, Troy, provides an opportunity for reflection on intergenerational trauma in the African-American community. The analytical framework of intergenerational trauma allows for a deeper understanding of how cultural memory and historical experience shape the actions and interactions of the characters in the play and offers an alternative reading of the influence of African traditions and African-American aesthetics on Wilson's work.

In *Fences*, these intergenerational traumas play a key role in understanding the complexity of the characters and their interactions within the Maxon family, particularly through the father-son conflict. Throughout the play, each generation strives to create new hope and opportunity in their respective social milieu, but their ambitious pursuits are thwarted by the massive trauma of racism. It is well-known the African-Americans have suffered a lot historically, which makes them be haunted by these sufferings. The acquaintance of these terrible sufferings makes incursion into their awareness inadvertently for the reason of seeing some actual objects related to the sufferings and then their traumatic sufferings are evoked so that the symptoms are clearly presented around them. Therefore, it is

impossible to assimilate the traumatic sufferings immediately and completely. Instead, people continue to suffer from the traumatic experience. The suffering from the trauma gradually becomes “more than a single, intensified image, or even something more” (Caruth, *Trauma* 46). In this sense, it suggests “to be traumatized is precisely to be possessed by an image or event” (Caruth, *Unclaimed* 132).

Intergenerational trauma, also known as intergenerational phantom, shows that some hidden trauma in a family is passed on to descendants, causing their personality and psychological defects. In intergenerational trauma, “the dead did not return, but the unfinished things in their lives were passed on to the next generation in an unconscious form” (Abraham 167). This carries the family's secrets “repeated in the psychological space of the offspring, forming a split of the self-psychological of the offspring as an indirect recipient of trauma,” which in turn parasitizes their “psychological space of the next generation, leading to disorder or loss of self-identity” (173). The trauma inflicted by one generation on the next doesn't end there; it continues to affect generations. Even if the offspring have moved away from the events, time, and circumstances that caused trauma to their ancestors, the trauma still exists in their unconscious and affects their psychology. In this respect, it is a valid analysis to point out that Wilson's play uses African cultural and temporal signifiers such as Kójódá to incorporate the diasporic formation of indigenous African practices into the narrative (Elam, *The Past* 36).

As an extension of this discussion, this paper will analyze *Fences* as a theatrical representation of the transmission of racial trauma from older to younger generations by focusing on trauma as a factor

- The Cycle of Trauma and Its Social and Psychological Impact  
in August Wilson's *Fences* | Jeong, Youn-Gil

that has influenced African-American identity and individuality across generations. By examining the characters' struggles through these theoretical frameworks, this paper gives a deeper understanding of how personal and collective histories shape identities and relationships, offering a poignant commentary on the enduring impact of historical and personal traumas on individuals and their communities. As a result, this paper will argue that Wilson uses the motif of intergenerational trauma in *Fences* not only to illuminate the suffering of the African-American family, but also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addressing and healing past trauma in order to break the cycle of emotional and psychological suffering.

## II. Speaking about the Image: Trauma and Representation

The concept of trauma and its psychological impact has been extensively studied, particularly within the realm of psychoanalytic theory. Sigmund Freud's early work on trauma emphasized the idea of repression and the return of the repressed, suggesting that traumatic events, when not properly processed, can haunt an individual through unconscious mechanisms. Later, Cathy Caruth expanded on this by proposing that trauma is not just a wound inflicted upon the self but an event that is experienced too soon, too unexpectedly, to be fully known and therefore remains "outside the range of normal human experience and comprehension" (Caruth, *Trauma* 102). According to Caruth, trauma is an experience so overwhelming that it defies normal processing, often "leading to amnesia or fragmented recollections"

(Pederson 346). This unprocessed experience returns in the form of “flashbacks, nightmares, and other repetitive phenomena” (348) that haunt the individual and disrupt their sense of time and self. Caruth posits that trauma involves a paradoxical relationship to the past. Traumatic event is “forgotten or repressed, yet it returns involuntarily” (Caruth, *Unclaimed* 67), often manifesting as symptoms that are disconnected from their original context. This notion of the return of the repressed is central to understanding the characters in *Fences*, particularly Troy, whose life is governed by unresolved trauma.

Trauma interferes with normal psychological processing and has “the characteristic of remaining as fragments of memory and constantly returning” (Hasan 9). In *Fences*, Troy's life is dominated by images and events from his past, which are unresolved traumas, and they serve as a major factor limiting his present and future. His life is dominated by a series of traumatic events that he cannot fully integrate into his consciousness, leading to their perpetual haunting presence. His trauma stems primarily from racism and personal failure, which deeply affect his worldview and behavior. Troy's aspirations were crushed by the racial discrimination prevalent in professional sports during his prime. This experience of being denied an opportunity because of his race leaves a deep scar, shaping his worldview and his interactions with his family. Caruth's idea that trauma is “an unclaimed experience” (Connolly 615) that returns disruptively is evident in Troy's recurring references to his baseball past. He frequently recounts his glory days in the Negro Leagues, but these stories are tinged with bitterness and regret. The memory of racial exclusion is not merely a recollection for Troy; it is “a living, unresolved wound



- The Cycle of Trauma and Its Social and Psychological Impact  
in August Wilson's *Fences* | Jeong, Youn-Gil

that influences his actions and decisions” (Shannon 135), particularly in his relationship with his son, Cory. The aftermath of trauma is very complex and is influenced by one's experience, access to natural supports and healers, coping and life skills, the response of their immediate family, and the larger community in which they live, but not Troy.

Troy's assertion that Cory is “born with two strikes on you before you come to the plate” (Wilson 69) exemplifies his internalization of racial oppression and the subsequent transmission of this defeatist mentality to Cory. This metaphor captures not only his personal trauma, but also the collective experience of African-Americans in a racially segregated society. In this context, Kim Pereira's view which contextualizes Wilson's work within the broader context of the African-American odyssey of separation, migration, and reunion (Blumenthal 75) provides a valid rationale for how Troy's personal history can be seen as a microcosm of this larger historical trauma. The historical and cultural disruptions experienced by African-Americans, such as slavery and enforced migration, create a backdrop for individual narratives of trauma. Troy's personal history is “a microcosm of these larger historical forces” (Weber 657), and his inability to reconcile with his past perpetuates the trauma onto his family. His relentless obsession with the injustices of the past operates as a mechanism that prevents him from imagining a future free of these traumatic images. The image of ‘two strikes’ can be seen as a recurring symbol of his internalized defeat and bitterness, and his frustration is most fully expressed in his actions to prevent his son Cory from becoming a football player. While Troy's behavior can be

interpreted as an expression of his protective instincts stemming from his past experiences, it can also be seen as a projection of his trauma that serves to perpetuate a cycle of fear and failure (Maley 104). Troy's insistence that Cory will face "the same racial barriers as him is a projection of his own unresolved trauma" (Gantt 17), showing how past events continue to dominate and dictate his behavior in the present.

Troy becomes possessed by archetypal images, such as fences and Mr. Death, which unintentionally remind him of the trauma he has suffered and ultimately trigger memories of miserable pain. The image of the physical fence that Troy builds around his yard is a potent symbol of his psychological state and his attempts to manage his trauma, serving as "a multifaceted symbol of both division and protection" (Intan 24). Not only does the discussion of fence building run throughout the play, but the trajectory of Troy's life revolves around this act. In the words of Bono, "Some people build fences to keep people out.. .and other people build fences to keep people in" (Wilson 157), the fence in the play represents the desire to create a boundary to keep outside threats out in order to protect the family, but it also represents an emotional barrier that is erected to protect oneself from further pain. For Troy, who is aware of and wary of the vulnerability of his existence due to his past trauma, the fence is a physical manifestation of his psychological defense that prevents him from confronting his vulnerability and the barriers he has built around his emotions. Just as a fence sets boundaries and keeps the outside world out, Troy's psychological defenses create "barriers between his traumatic past and his present self" (Nadel 93). Caruth's concept of

- The Cycle of Trauma and Its Social and Psychological Impact  
in August Wilson's *Fences* | Jeong, Youn-Gil

trauma as an event that resists assimilation into narrative aligns with the symbolism of the fence. Just as the fence demarcates boundaries and keeps the outside world at bay, Troy's psychological defenses create a barrier between his traumatic past and his present self. However, these defenses are permeable, and the past continually intrudes upon his present, much like the unfinished fence that never fully encloses the yard. In this sense, the fence becomes a poignant symbol of Troy's inner and outer struggles, signifying his desire for control and the inevitable isolation that comes from not being able to connect with his loved ones.

Troy's unresolved trauma deeply affects his relationship with his family. Caruth's notion of trauma as an irrational experience that confuses time and identity is evident in the way Troy's past shapes his interactions and emotional responses. Rose represents stability and nurturing, qualities that starkly contrast with Troy's volatile nature. Despite her efforts to create a loving and supportive home, Troy's traumatic past erects emotional barriers that prevent him from fully engaging with her. His extramarital affair with Alberta, which he rationalizes as an escape from the pressures and disappointments of his life, further strains their relationship. The affair and Alberta's subsequent death add another layer of trauma for Troy, as he grapples with guilt and loss. Rose's response to the affair—her decision to raise Alberta's child, Raynell, as her own—highlights her resilience and compassion (Roberts 99–100). However, this act of forgiveness and strength is not enough to heal the emotional chasm created by Troy's traumas, illustrating the deep-seated nature of his wounds.

Troy's relationship with his eldest son, Lyons, is characterized by

a generational disconnect stemming from their different experiences and aspirations. Lyons' pursuit of a musical career is a far cry from the survival-centered mindset instilled in him by Troy's traumatic past. Troy's dismissive attitude toward Lyons' musical ambitions reflects his experience and his inability to support a path away from hardship. This disconnect represents the limitations of empathy and understanding caused by Troy's unresolved trauma. He views Lyons' musical pursuits as unrealistic and trivial, and fails to recognize them as a legitimate form of self-expression and fulfillment. This lack of support and recognition creates tension and distance between father and son, perpetuating "a vicious cycle of misunderstanding and alienation" (Elkins 72). The disconnect between the generations is manifested in the trauma of Lyons' previous relationship. Lyons' pursuit of a music career, which Troy considers unrealistic and frivolous, demonstrates Troy's inability to support a path away from his own harsh survival experiences. This lack of understanding and support is a direct result of Troy's unresolved trauma, which limits his ability to empathize.

Troy's relationship with his young son, Cory, is most affected by his traumatic past. The trauma of racism and unfulfilled dreams causes Troy to project his fears and disappointments onto Cory. When Troy forces Cory to give up his dream of playing football, it is a direct reflection of the racial barriers he has faced in sports. He fears that Cory will experience the same rejection and frustration, and in an attempt to protect him, he imposes his own disillusionment and bitterness on him. Caruth's notion of trauma as a destructive force that repeats and relives past experiences is evident through the way Troy's unresolved trauma shapes his fathering. His authoritarian and

- The Cycle of Trauma and Its Social and Psychological Impact  
in August Wilson's *Fences* | Jeong, Youn-Gil

controlling behavior stems from a desire to prevent Cory from experiencing the same pain he has suffered (Elam 614). However, this approach backfires and leads to a violent confrontation, which results in Cory's estrangement from his family. The physical confrontation between Troy and Cory is the culmination of years of pent-up frustration and unspoken pain, emphasizing the destructive power of unprocessed trauma. Cory carries the legacy of his father's trauma. Troy's insistence that Cory give up his dream of becoming a football player reflects the racism Troy experienced, projecting his own fears and disappointments onto his son. The scene where a physical altercation between Troy and Cory leads to Cory's alienation from his family illustrates "the destructive power of unprocessed trauma" (Hasan 9). As such, his trauma is affecting his beliefs about the future through a loss of hope, limited expectations for life, and the expectation that normal life events will not happen.

Thus, the fence in the play is a bond to maintain family relations, a barrier to distance as well. It is both a kind of protection and a kind of imprisonment which makes Troy suffer the familial trauma. Due to the shadows Troy's father left in his heart and the discrimination he suffered, he also creates an irreconcilable fence between his two sons. He disdains the eldest son's pursuit of the musical dream. In order to protect his younger son from the pain he suffered when he was young, he opposes his younger son to play football. Fence, from this aspect, becomes the image that triggers family members' familial trauma. The fence that Troy spares efforts to build echoes the title of the drama, which has a strong metaphorical connotation that not only shows the real-life situation of the protagonist and his family, but also

“reflects the life situation of the entire black race in white-dominated society” (Roudane 102). Although the United States in the 1950s legally recognized the equal rights and status of black people, racial discrimination and segregation policies are still ubiquitous, and blacks still are marginalized in societ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ntire black community, the fence also symbolizes the apartheid between blacks and whites.

In Troy's fantastic tale of wrestling with death and buying furniture from the devil, Death appears as an anthropomorphic figure. Mr. Death has appeared three times in Troy's lines: the first time he shows off his experience of fighting with the god of death for three days and three nights and finally defeating the god of death; the second time he learns that his lover Roberta dies and he makes a post-natal declaration to death; the third time is a mockery of death after a physical conflict between Troy and Cory. Factually, Troy's true encounter with death is resulted from his father. Being hit into serious coma in the physical attack by his father at the age of fourteen, Troy first experiences the feeling of near-death and since then he is “transformed especially in terms of his being forced to stand up to authority figures, by thrusting him into a malign and racism world” (Roudane 141). The world with racial discrimination is too horrible to live a good life. Thus, every moment in Troy's life becomes a struggle against death for survival.

Troy's stubborn masculinity and strength are largely derived from his relationship with death. Having survived and overcome all the obstacles thrown at him as a child, Troy boosts his self-esteem and sense of accomplishment by personifying death as a tangible

form that he has actively and successfully defeated. Furthermore, by personifying the forces of death or destruction as people (the Grim Reaper, the Devil), Troy gives concrete form to the unpredictability and mystery of death, giving the process of death a kind of rationality and identifiable motivation. Thus, for Troy, Death is a force that personally antagonizes him and seeks to destroy him; this personification gives Troy's past a reason for suffering that goes beyond being based on racism and the extreme poverty he lives in, which in reality boils down to a troubled childhood caused by a corrupt society and abusive, unloving parents, and gives it a greater purpose (Maley 67–70). “Mr. Death” is thus similar to a fence in that Troy invented a fence to help him keep out the harsh reality that had deceived him about his life.

According to Troy's description, “Death standing there staring at me...carrying that sickle in his hand.” and “Death stood up, throwed on his robe ... had him a white robe with a hood on it” (Wilson 114). The former feature of death is not in line with the traditional image of death in the West, dressed in black, but it is naturally associated with the notorious white supremacists, who get accustomed to declaring their authority and dominating the African-American race. Mr. Death is neither the superstition of Troy nor the product of fear of death. It is the shadow of apartheid and discrimination in black thoughts. Thinking about himself in Death's grasp, Troy always keeps his motto: “be ever vigilant” (Wilson 113) and tries to be the death-conqueror, which is “so ridiculous for he could never conquer death” (Intan 22). What Troy desires to do when he fights with Mr. Death is to take and build a fence belonging to his family around the yard and then force

Mr. Death to stay on the other side.

Thus, fence and Mr. Death are fully and commonly presenting the trauma haunting among two generations. Children learn by observing and imitating their parents, emphasizing how children form their own images through parental rearing behavior and daily performance. Through these images, the trauma is unconsciously deeply rooted in the younger generations' minds. Caruth's concept of trauma as an experience that transcends individual lives and becomes part of a collective history is relevant here. The traumas that Troy experienced are not just personal but also reflect broader historical and social injustices faced by African-Americans. The play suggests that acknowledging and addressing these collective traumas is essential for moving forward and creating a better future for the next generation.

### **III. The Syndromes and Social Surrogation in Those Exposed to Trauma**

For traumatic people, they always manifest some syndromes when they are tortured by the trauma. In the play *Fences*, because of the racial trauma and familial trauma they suffer, they feel “hyper-alerted and powerless to deal with the daily life” (Koprince 352). In this society where the belief that the whites are superior to African-Americans has long rooted in every one's mind, the African-Americans must keep cautious so that they can live relatively better. Thus, they demonstrate the syndrome of hyper-arousal that reflects



- The Cycle of Trauma and Its Social and Psychological Impact  
in August Wilson's *Fences* | Jeong, Youn-Gil

“persistent expectation of danger” (Herman 22). Main characters in *Fences* unconsciously manifest this kind of symptoms during their daily life with their surroundings. Troy, the one who directly experiences the trauma, keeps hyper-alerted in his job and his family. His hyper-alertness renders him to be a person of half lunatic, to whom, death becomes a personified troublesome and haunting presence in his life. Ever he depicts his confrontation with death, “Death was marching straight at me ... The army of death was marching straight at me” (Wilson 113). He stresses, “As long as I keep my strength ... I keep up my vigilance ... he's gonna have to fight to get me” (Wilson 114). As the master of the family, he has to keep highly hyper-alerted so that his family members would never experience the same defeat he has ever had. Therefore, when Troy knows his younger son Cory wants to participate in the football team, he feels excessively agitated and resolutely rejects Cory's thoughts in that “his trauma in the baseball team forces him to restrain his son” (Nadel 124). While most people who experience a traumatic event may have temporary difficulty adjusting and coping, and usually get better with time and good self-care, Troy's symptoms are persistent and interfere with his day-to-day judgment, so there is room to consider him having PTSD.

When people feel powerless, they would escape from the reality and “try to seek for another way to make themselves feel better” (Herman 46). In *Trauma and Recovery*, Judith Herman defines this kind of symptom as constriction. Constriction stresses that when someone has completely no power, and any kind of resistance is meaningless and useless, he or she perhaps goes into a state of

surrender (22–23). The helpless person escapes from his situation, alters his state of consciousness and seeks for estrangement, because they do not have power to change the situation (30–31). In *Fences*, Troy and Cory both choose to escape from the father generations and try to seek for the true growth. As Troy states in the drama, “[he] could see why the devil never come to get [his father] ... cause [his father] was the devil himself” (Wilson 149). The father's behaviors make him suffer a lot and the only thing he understands is that the proper time has come for him to leave his father's house. At that time, he holds the belief that leaving from his father would be better. Cory, to some degree, steps on the same path Troy has passed. Cory completely obeys his father firstly. However, as time passes by, conflicts between Troy and Cory accumulate little by little, which finally result in Cory's estrangement from his father and his family. At that moment, Cory strongly believes that getting rid of his father is the only approach to become independent and obtain his freedom.

Intergenerational trauma presents the manifested effect of trauma suffered by some family members of elder generations on other family members of the younger generations, regardless of whether the younger generations do straightly suffer the trauma or not. In *Fences*, although not all the three generations have suffered the trauma directly, all of them are tortured by the trauma. The elder generations are the direct victims to the racial trauma, while the younger generations may not directly witness the racial trauma, but this kind of trauma is transmitted to the younger generations unconsciously. For African-Americans who suffer racial trauma, the social background becomes the main reason. The white-dominated

- The Cycle of Trauma and Its Social and Psychological Impact  
in August Wilson's *Fences* | Jeong, Youn-Gil

society has brought African-Americans too much trauma. The familial environment where the younger generation grows up renders this trauma to continue among different generations, which in turn leads to subtle familial trauma, affecting the psychological growth and identity construction of younger generations. From what has been above-mentioned, it clearly demonstrates that the whole family's trauma has close relationship with the atrocity of racial discrimination and segregation that all generations have experienced successively. Simultaneously the transmission of this trauma pushes them further into "the abyss of trauma" (Pederson 348). Racial discrimination and persecution have also deeply hurt African-Americans finally resulting in their psychological shadow and trauma during several generations.

Troy's inability to provide a stable and nurturing environment for his family like his own father emphasizes the cyclical nature of trauma. Troy's interactions with his son Cory are characterized by his attempts to impose his unfulfilled dreams on his son, which Joseph Roach calls surrogation. Roach's surrogation refers to the process by which societies fill roles or replace figures to maintain social continuity, often in response to loss or absence (Roach, *Cities* 77-78). This concept is particularly relevant to Wilson's exploration of personal and collective histories within the African-American community. Surrogation is evident in *Fences* through the character of Troy Maxson, who embodies multiple layers of historical and cultural surrogation. Troy's life is deeply influenced by his experiences as a former Negro League baseball player, a role that carries the weight of racial discrimination and unfulfilled potential. Troy's insistence that Cory abandon his football dreams is rooted in his own experiences of

racial discrimination and unfulfilled potential. This form of surrogation not only stifles Cory's aspirations but also perpetuates a cycle of disillusionment and conflict. This dynamic reflects Roach's notion that surrogation often involves the imposition of one individual's experiences and fears onto another, thereby “perpetuating a cycle of trauma and unresolved conflict” (Roach 176).

Rose Maxson plays a crucial role in mediating the surrogation processes within the family. While Troy is consumed by his past and the limitations it imposes, Rose represents resilience and adaptability. She attempts to create a stable and nurturing environment for her family, even as she navigates the complexities of her husband's unresolved traumas. Rose's acceptance of Troy's illegitimate child further illustrates her capacity for surrogation, as she extends her nurturing role to encompass the consequences of Troy's actions (Weber 662). Wilson's use of myth and memory in *Fences* also aligns with Roach's concept of surrogation. The characters in the play are constantly “negotiating their identities and legacies” (Roach 170) within the larger context of African-American history and cultural memory. Troy's recollections of his past, infused with elements of myth and personal narrative, serve as a means of asserting his identity and making sense of his experiences (Koprince 351). However, these memories also become a source of conflict and tension, as they are surrogated onto other family members and influence their perceptions and actions.

Herman Judith, in her book *Trauma and Recovery*, states three necessary steps towards recovery from the traumatic event. The first step is “the establishment of the safety” (Herman 107), which means

establishing a safe psychological environment for the traumatized. The second step is “remembrance and mourning” (122). Its objective is to transform the traumatic memory which is wordless and static into normal memory that is actually “the action of telling a story”. The last step is “reconnection with ordinary life” (138) in order to develop a new self. After escaping from his devil father, Troy was quite depressed to realize that nothing turns out to be fine at the beginning. “You couldn't find no place to live. ... Living in shacks made of sticks and tar-paper” (Wilson 150). Leaving from his father's home, Troy only feels lonely and helpless, so he gets married with a girl quickly. In order to feed the family, he robbed and was imprisoned for fifteen years, which “cured him of that robbing stuff” (151). It was Rose who eventually makes him feel steady. Later, he buys a house and has a family with a wife and children, which makes Troy know that only a complete family can provide comfort and consolation. Similarly, although Cory successfully challenges his father and leaves from Troy's home, he finally comes back to his father's home to find out inner safety and comfort. Here, the establishment of safety comes from a stable home and a family. The central task of the first stage of recovery to establish the safety is finished.

Wilson has repeatedly stressed that people are the fathers' sons and finally will become their fathers when they grow up and reflect the same personality or temper. In Troy's eyes, his father is a responsible man even though his father does not treat him well. This kind of responsibility is something important that Troy inherits from his father. Although his father behaves terribly, “he felt a responsibility toward us. Maybe he ain't treated us the way I felt he should have...

but without that responsibility he could have walked off and left us... made his own way” (Wilson 147). Elam comments, “Wilson started *Fences* with the image of a man standing in his yard with a baby in his arms. Beginning with this picture, Wilson sought to subvert the dominant culture representations of African-American men as irresponsible, absentee fathers” (Elam, *The Past* 131). Wilson also uses Troy's oracular moments of retrospection to disclose the influence that Troy's prior relationship with his own father now exerts on his relationship with Cory. In the end of the drama, it is obvious that Cory has been subtly influenced by his father, just as Rose says, “You got him in you good” (Wilson 189). To some degree, Cory is on the way to understand his father. In the play, Wilson highlights the fathers' profound influence on his sons' character and behavior. Sons will subtly inherit certain characteristics of their father while rebelling and surpassing their father. Troy, after being driven out of the house, realizes that he finally inherits the characteristics of his father unconsciously, and meanwhile he feels that he is independent. Troy has eventually experienced his maturity and independence and found his spiritual father, who is the foundation and spiritual pillar on which he lives.

Besides, blues music is a musical style gradually formed by African-Americans “in the form of personal confession combined with free and sentimental folk songs” (Long 119). Blues music is a traditional African-American cultural symbol, which is reflected in many African-American literature. Wilson also emphasizes, “blues music is the source of my artistic creation and the most important source of my inspiration” (Savran 110). This cultural symbol is also the most

- The Cycle of Trauma and Its Social and Psychological Impact  
in August Wilson's *Fences* | Jeong, Youn-Gil

frequently used cultural element in Wilson's work. As an African-American dramatist, he demonstrates that blues music is the carrier of black culture, containing the joys and sorrows of black people and their history of inheritance. It is also the basis for blacks to get rid of the trauma of racism, to build self-confidence, and to resist assimilation. Every time when Troy fights with Mr. Death, he finds there is some strength inside his body and makes him feel powerful, but he cannot say where the strength comes from. Undoubtedly, it comes from the black culture, with the help of which African-Americans could successfully recover from the trauma of racism and develop themselves.

In *Fences*, blues music, as a vehicle for remembrance, is actually a good way for the traumatized characters to recover from what they have suffered. In Act One Scene Four, when Bono reveals the facts of Troy's extramarital affairs and Rose, showing dissatisfaction and resistance against himself, Troy deliberately sings the old blues song of Blue Dog, "That was my daddy's song/My daddy made up that song" (Wilson 141) to cover up his inner uneasiness. In Act Two Scene Four, when Troy asks his wife Rose to help raise the illegitimate daughter Raynell, Rose promises to Troy's request, saying, "From right now ... the child got a mother, but you a womanless man" (173). At this moment, Troy still sings the blues music for peace. The blues song seems to be his inner monologue. When singing blues, Troy feels not so desperate and that "music gives him the courage to step forward" (Gantt 17).

When Cory comes back from the army, it is the blues music and the family love that get him healed, just as Bono says, "You never

heard of nobody having the walking blues” (Wilson 148). As for African-Americans, to some extent, the blues can be a kind of medicine to assist them to relieve the trauma. The blues music is to some extent a way to lay the foundation for “the traumatized people’s mourning for the trauma” (Connolly 617). In fact, mourning is a process to gain new power and people mourn in order to begin a new life. This is the reason why people call August Wilson a blues singer born to mourn. Still, blues music can be a kind of spiritual support for African-Americans. Through blues music, characters in *Fences* slowly establish the sense of safety, remember and mourn the trauma, and try to reconnect with the ordinary life, gradually achieving the recovery of trauma. With the sudden completion of All Blue and his final challenge with death, Wilson ends Troy’s life as if it were nothing. However, Wilson makes no mention of how Troy died prior to the scene where the family gathers for Troy’s funeral; the only mention of his death prior to that scene is when Troy sings that “on Noah’s Ark, Blue planted the possum in the tree” (Wilson 84). At the end of Act II, before Cory and Raynell finish their song, Rose finally reveals how Troy died, which can be seen as a stepping stone to the realization that Troy knew about his final battle and chose to sing Blue’s death as his own as a sign of acceptance, but as always, Troy did not go down without a fight.

Cory and Raynell continue to sing together until the end of the play, eventually coming closer to finalizing their father’s legacy. Some of the songs they sing are among the only verses that Troy also sings, and coincidentally, they are in some ways the “point of no return” of the play because they are sung before his final battle with death. By



singing “Old Blue died and I dug his grave” (Wilson 99), Cory and Raynell come to terms with their father's death and understand why he was so hard on them, especially Cory. When they say, “I dug his grave with a silver shovel” (99), it shows Cory and Rainell turning away from the past. From a color psychology perspective, the use of silver suggests a time of reflection, which in turn shows that Cory and Raynell are reflecting on their father's life. Understanding this, we can translate this line into “I reflected as I dug my father's grave”. The final stanza that Raynell and Cory sing together is the final resting place of Troy, the good dog. The line “Blue's gone where the good dogs go,” (Wilson 100) helps the reader and characters realize that Troy has indeed gone to heaven, and that he was a good man and father, even though he was not portrayed in the play during his lifetime. Wilson puts the final nail in the coffin and ends Troy's suffering and the play by having one of Troy's daughters and son sing the scene of Troy entering the promised land. Cory finally accepts that although his father tried to stop him from playing the sport he loved for a living, he was actually trying to do what was best for his son; in fact, he was being a good father and steering him in the right direction. The stanza and the song as a whole can be seen as Cory forgiving his father for everything he did to him, from not letting him play soccer to kicking him out of the house. Forgiveness and repentance helped bring Troy and his old dog Blue to the promised land.

With Troy's story and the completion of his life behind him, Wilson's slightly modified version of All Blue is not a song about an old hound dog, but is actually about an old misunderstood father. The

song plays many roles throughout the play, from helping to boost Troy's confidence to helping the children come to terms with their father's death and forgive him for the way he treated them. Although Cory and Raynell will never sing this song again, it will still be there for them when they need it most, just as it was for their father. Wilson ends the play perfectly with All Blue, taking the reader back to the beginning of the play, when Troy was first introduced as a terrible father, unsupportive of his son and unfaithful to Rose. It is not until the end that the reader realizes how much Troy truly cared about his family and his son's future. The old dog is finally forgiven and laid to rest by the reader

#### IV. Conclusion

In analyzing August Wilson's *Fences* through the lenses of intergenerational trauma, the syndrome and surrogation in its recovery, we gain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how personal and collective histories shape the characters' identities and relationships. Both theoretical frameworks offer valuable insights into the complex dynamics of memory, identity, and cultural continuity within the African-American experience as depicted in the play. Caruth's concept of trauma, as defined by its overwhelming nature and the resultant fragmented memory, is vividly embodied in the character of Troy Maxson. Troy's traumatic experiences, particularly his thwarted dreams of playing Major League Baseball due to racial discrimination, haunt him throughout the play. These unprocessed traumas manifest

- The Cycle of Trauma and Its Social and Psychological Impact  
in August Wilson's *Fences* | Jeong, Youn-Gil

in his interactions with his family, especially his son Cory. Troy's repeated assertion that Cory is "born with two strikes on you before you come to the plate" exemplifies how his past traumas continue to influence his present actions and decisions. This aligns with Caruth's notion that trauma is a "missed encounter" that ruptures consciousness and manifests belatedly through intrusive symptoms such as flashbacks and repetitive behavior.

By examining *Fences* through the lens of Roach's concept of surrogation, we gain a deeper understanding of how August Wilson explores themes of identity, legacy, and cultural memory. The characters in the play navigate complex processes of surrogation, as they grapple with the weight of historical and personal traumas. Wilson's portrayal of these dynamics offers a poignant commentary on the challenges faced by African-Americans in their pursuit of the American Dream and their efforts to assert their identities within a context of systemic exclusion and discrimination. Through the interplay of myth, memory, and surrogation, *Fences* captures the enduring struggle for dignity, fulfillment, and continuity within the African-American experience.

The interplay between trauma and surrogation is also reflected in the broader socio-cultural context of the play. The Great Migration, which saw African-Americans move from the rural South to the urban North in search of better opportunities, serves as a backdrop for the characters' struggles. This historical context underscores the collective trauma of systemic racism and economic hardship faced by African-Americans, which is echoed in Troy's experiences and his attempts to navigate a racially segregated society. The play captures

the tension between the promise of the American Dream and the harsh realities of discrimination, with Troy's character symbolizing the disillusionment and bitterness that result from these unfulfilled promises.

In conclusion, *Fences* masterfully intertwines the concepts of trauma and surrogation to explore the complexities of identity, memory, and cultural continuity within the African-American experience. By examining the characters' struggles through these theoretical frameworks, we gain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enduring impact of historical and personal traumas on individuals and their relationships. Wilson's portrayal of these dynamics offers a poignant commentary on the challenges faced by African-Americans in their pursuit of the American Dream and their efforts to assert their identities within a context of systemic exclusion and discrimination. Through the interplay of trauma, surrogation, and cultural memory, *Fences* captures the enduring struggle for dignity, fulfillment, and continuity within the African-American community.

(Dongguk Univ.)

### ■ Key words

Intergenerational trauma, Trauma, Surrogation, African-American, Discrimination

- The Cycle of Trauma and Its Social and Psychological Impact  
in August Wilson's *Fences* | Jeong, Youn-Gil

## ■ Works Cited

- Abraham, Nicolas, and Maria Torok, *The Shell and The Kernell*. Chicago: UP of Chicago, 1994.
- Blumenthal, Anna S. "More Stories Than the Devil Got Sinners": Troy's Stories in August Wilson's "Fences." *American Drama* 9.2 (2000): 74–76.
- Caruth, Cathy. *Trauma, Explorations in Memory*. Baltimore: Johns Hopkins UP, 1995.
- \_\_\_\_\_. *Unclaimed experience: Trauma, narrative, and history*. JHU press, 2016.
- Connolly, Angela. "Healing the wounds of our fathers: Intergenerational trauma, memory, symbolization and narrative." *Journal of Analytical Psychology* 56.5 (2011): 607–26.
- Elam, Jr., Harry. "August Wilson, Doubling, Madness, and Modern African-American Drama." *Modern Drama* 43.4 (2000): 611–32.
- \_\_\_\_\_. *The Past as Present in the Drama of August Wilson*. Ann Arbor: UP of Michigan, 2004.
- Elkins, Marilyn. *August Wilson: a casebook*. Routledge, 2013.
- Gantt, Patricia M. "Putting black culture on stage: August Wilson's Pittsburgh Cycle." *College Literature* 36.2 (2009): 1–25.
- Hasan, Hadi Ali. "The Culture Heritage Protection: Suggestive Themes and Views of August Wilson's *Fences*." *Litinfinitive* 4 (2022): 1–12.
- Herman, Judith. *Trauma and Recovery*. New York: Basic Books, 1992.

- Intan Kurnia, Nandy. "August Wilson's Fences: The African-American Women's Pursuit of Dreams Seen from The Perspectives of Rose Maxson." *Journal of English and Education (JEE)* (2010): 15-28.
- Koprince, Susan. "Baseball as History and Myth in August Wilson's Fences." *African American Review* 40.2 (2016): 349-58.
- Long, K. Y. "Patrick Maley, After August: Blues, August Wilson, and American Drama." *Modern Drama* 64(2021); 119-22.
- Maley, Patrick. *After August: Blues, August Wilson, and American Drama*. UP of Virginia, 2019.
- Nadel, Alan. *May All Your Fences Have Gates: Essays on the Drama of August Wilson*. UP of Iowa, 1993.
- Pederson, Joshua. "Speak, trauma: Toward a revised understanding of literary trauma theory." *Narrative* 22.3 (2014): 333-53.
- Roach, Joseph R. *Cities of the Dead: Circum-Atlantic Performance*. Columbia UP, 2021.
- \_\_\_\_\_. "Slave spectacles and tragic Octoroons: A cultural genealogy of antebellum performance." *Theatre Survey* 33.2 (1992): 167-87
- Roberts, Elizabeth FS. "Examining Surrogacy Discourses: Between Feminine Power and Exploitation." *Small Wars: The Cultural Politics of Childhood* 1 (1998): 93-110.
- Roudane, Matthew C. *American Drama Since 1960: A Critical History*. New York: Twayne, 1996.
- Savran, David. *In Their Own Words: Contemporary American Playwrights*, New York: Theater Communication Group, 1988.
- Shannon, Sandra G. "The Good Christian's Come and Gone: The

- The Cycle of Trauma and Its Social and Psychological Impact  
in August Wilson's *Fences* | Jeong, Youn-Gil

Shifting Role of Christianity in August Wilson Plays.” *Melus*  
16.3 (1989): 127–42.

Weber, Myles. “Rescuing the Tragic Bully in August Wilson's *Fences*.”  
*Southern Review* 50.4 (2014): 648–74.

Wilson, August. *The Three Plays*. Pittsburgh: UP of Pittsburgh, 1991.

■ Abstract

## The Cycle of Trauma and Its Social and Psychological Impact in August Wilson's *Fences*

Jeong, Youn-Gil  
(Dongguk University)

This paper explores the theme of intergenerational trauma in August Wilson's play *Fences* through the theoretical lenses of Cathy. The paper begins by examining Troy's personal traumas, including his failed baseball career due to racial discrimination and his abusive childhood. These unprocessed traumas shape Troy's interactions with his family, particularly his sons. The paper argues that Troy's rigid, authoritarian demeanor and his attempts to impose his own failed dreams onto Cory reflect the disruptive force of unresolved trauma, as theorized by Caruth. This traumatic legacy disrupts the family dynamic, creating cycles of misunderstanding and conflict. Furthermore, Roach's concept of surrogation is employed to understand how Troy's trauma influences his attempts to control and shape the identities of his sons. Troy's efforts to mold Cory into a version of himself can be seen as an attempt to surrogate his lost opportunities and unfulfilled aspirations. This paper argues that the interplay between trauma and surrogation illustrates the cyclical nature of intergenerational trauma, where unresolved wounds of the past are inadvertently passed down and re-enacted in subsequent generations. Ultimately, this paper



- The Cycle of Trauma and Its Social and Psychological Impact  
in August Wilson's *Fences* | Jeong, Youn-Gil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acknowledging and addressing intergenerational trauma to break the cycles of pain and dysfunction it perpetuates. By integrating Caruth and Roach's theories, the paper provides a comprehensive analysis of how trauma and surrogation operate within *Fences*, offering deeper insights into the complexities of familial relationships and the enduring impact of historical and personal traumas.

### ■ Key words

Intergenerational trauma, Trauma, Surrogation, African-American, Discrimination

### ■ 논문게재일

○투고일: 2024년 7월 30일 ○심사일: 2024년 8월 12일 ○게재일: 2024년 8월 13일



# 선정소설 쓰기를 중심으로 본 *Little Women*

최하영\*

## I. 서론

루이자 메이 올컷(Louisa May Alcott 1832~1888)은 『작은 아씨들』(*Little Women*)(1868) 시리즈<sup>1)</sup>의 대대적 성공으로 인해 주로 소녀를 대상으로 하는 가정소설(Domestic Fiction)의 작가로 알려져 왔다. 이 작품은 가정적인 가치와 기독교적인 경건성을 통해 ‘진정한 여성성’(True Womanhood)을 중산층 독자들에게 가르친다는 점에서 감상주의 소설(Sentimental Fiction)의 전통에 놓여 있기도 하다. 그런데 올컷이 A.M. 바나드(A.M. Barnard) 라는 필명, 혹은 익명으로 쓴 고딕 소설, 스릴러, 그리고 선정소설(Sensation Fiction)이 20세기 중, 후반에 발굴됨으로써 그녀의 작품 세계 전체가 새로운 비평적 조명을 받게 되었다. 가정소설과 선정소설이라

\* 건국대 교육전임, ha0choi@konkuk.ac.kr

1) 마치(March) 가 네 자매의 10대 시절을 다룬 『작은 아씨들』 1부가 1868년에, 그녀들의 성인 시절과 결혼을 다룬 『작은 아씨들』 2부가 1869년에 출판되었고, 이후 한 권으로 통합되었다. 그 후 조(Jo)와 베어(Bhaer) 교수 부부, 그리고 그들이 설립한 플럼필드(Plumfield) 학교 학생들의 이야기를 담은 『작은 신사들』(*Little Men*)(1871)이 속편으로 나왔고, 그 학생들과 조 부부의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의 이야기인 『조의 아이들』(*Jo's Boys*)(1886)로 시리즈가 마무리되었다.

는 대조적인 장르를 거의 같은 시기에 번갈아 가며 창작한 그녀의 작가적 역량이 주목을 받는 동시에 그녀의 진심이 어디에 있었느냐가 비평의 중요한 초점이 되었다.

19세기 중반에 큰 인기를 끌었던 가정소설은 “종교적 신실함”(piety), “순결”(purity), “순종”(submissiveness), “가정성”(domesticity)이라는 미덕을 통해 “진정한 여성성”에 도달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였다(박연옥 2009, 9). 이에 반해 선정소설은 비슷한 시기, 특히 1860년대에 영국과 미국에서 인기를 끈 대중문학 장르로서 살인, 방화, 중혼 등의 범죄와 일탈 행위, 위장과 변장, 광기 등의 자극적 소재를 다루며 큰 인기를 끌었다.<sup>2)</sup> 이는 당시 이루어지고 있던 산업화와 자본주의로의 이행과 맞물려 도서, 출판 시장의 확대와 대중화에 기여하는 반면, 순수문학과 도덕의 옹호자들로부터는 비난과 폄하의 대상이 되었다. 흥미 위주의 가벼운 읽을거리는 1790년대 인기를 누렸던 고딕 소설이나 1830년대의 뉴게이트 소설(Newgate Novel)<sup>3)</sup> 등 이전에도 존재했으나, 이들 장르에서는 끔찍한 범죄나 기괴한 일들이 시간적, 혹은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중세나 이국의 성을 배경으로 일어나는 것과는 달리, 선정소설에서는 사건이 중산층 가정의 일상을 배경으로 일어난다는 차이가 있다. 이는 장정희가 지적 하듯, “건전한 중산계급의 안락한 성소”(2015, 138)로서의 ‘가정’ 개념이

2) 존 바튼(John Barton)과 제니퍼 페글리(Jennifer Phegley)는 『대서양을 횡단하는 선정소설』(*Transatlantic Sensations*)에서 대서양의 양안에서 영미의 작가들과 출판사들이 언어의 공통성을 기반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가운데 선정소설의 유행이 이루어졌으나, 각각 창작과 수용의 양상에는 차이가 있었던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영국 작가들이 더 많은 선정소설을 집필한 반면, 1891년까지는 국제 저작권법이 부재했기에 미국 출판사가 더 많은 작품을 출판하였다(Barton and Phegley 13-14).

3) 12세기에 지어져 1902년 문을 닫기까지 700년이 넘게 죄수를 수용한 런던 시내의 교정시설인 뉴게이트 감옥의 교도관이 1773년부터 발행한 사형수 목록인 ‘뉴게이트 달력’(*The Newgate Calendar*)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악명높은 흉악범들의 생애를 멜로드라마적으로 각색해 도덕적 교훈을 전달하고자 하였다(Barton and Phegley 2).

빅토리아 시대의 표면적 엄숙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해체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질서하게 팽창하며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가정도 이국의 성이나 중세의 지하 감옥만큼이나 “비밀과 폭력이 얽혀있는 범죄의 영역”(2015, 138)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선정소설의 근저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마사 비시누스(Martha Vicinus)가 지적하듯, 이제까지 변화로부터의 피난처 역할을 해온 ‘가정’이 선정소설에서는 ‘변화의 장소’(site of change)로 기능하고 있으며, ‘선과 악 사이’의 멜로드라마적인 추상적 도덕적 투쟁이 아니라, 그 범주들을 불안정하게 하는 투쟁의 장소이자 원인이 된다(Pykett 75에서 재인용). 그렇다면, 타니아 모듈스키(Tania Modleski)가 지적하듯, 선정소설은 가정소설과 대조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연장선상에 있는 장르로 볼 수 있다. 두 장르 모두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를 다루며, 그 안에서 강요되는 제약과 그것이 일으키는 편집증적 두려움을 마주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닮아있다(20).

당대의 비평가들은 이 장르가 ‘예술’이라기 보다는 대중문화의 ‘상품’으로서, 이름 그대로 독자에게 과잉된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시장에서 호소력을 갖는다고 보았다(Ascari 115).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으나 비평가와 대중은 선정소설을 주로 여성이 쓰고 여성이 읽는 장르로 인식했다.<sup>4)</sup> 그래서 선정소설은 경제적 동기를 가진 여성 작가와 자극을 원하는 여성 독자가 형성하는 저급하고 불건전한 장르로 인식되었다. 흥미롭게도 올컷은 『작은 아씨들』을 쓰기 1, 2년 전에 『가면 뒤에서』(*Behind a Mask*)(1866), 『수도원장의 유령』(*The Abbot's Ghost*)(1867) 등의 선정소

4) 윌키 콜린스(Wilkie Collins), 찰스 디킨스(Charles Dickens), 토마스 하디(Thomas Hardy) 등의 많은 남성 작가들이 선정소설, 혹은 선정적 요소가 포함된 작품을 썼으나, 비평가와 대중은 메리 엘리자베스 브래던(Mary Elizabeth Braddon)이나 엘렌 우드(Ellen Wood)와 같은 “사악한 여성들이 주로 선정소설을 집필했고 읽는 독자들도 소일거리 없는 여성들로서 사악함에 감염되기 쉽다”(장정희 2007. 19)라고 평가함으로써, 이 장르에 대한 도덕적 비난과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려 했다.

설을 연달아 집필, 출판했고, 『작은 아씨들』이 1, 2부로 나뉘어 출판되어 나오던 1868년, 1869년에도 『돈 박사의 복수』(*Doctor Dorn's Revenge*) (1868), 『아가씨, 여배우이자 여성』(*La Jeune; or Actress and Woman*) (1868), 『피라미드에서 길을 잃다』(*Lost in a Pyramid, or the Mummy's Curse*)(1869)를 잇따라 출판했다.<sup>5)</sup> 두 장르를 동시기에 집필했을 뿐 아니라, 『작은 아씨들』의 조 캐릭터를 통해 ‘선정소설’을 쓰는 작가로서의 자신을 묘사하였다. 가정소설 속의 여성 주인공이 ‘선정소설’ 작가라는 사실은 역설과 아이러니를 자아내며, 소설 속 화자의 규범적 훈계와 성장 서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 주디스 페털리(Judith Fetterly)는 『작은 아씨들』의 매력과 활기의 상당 부분이 올컷이 동시기에 선정소설을 쓰면서 느꼈던 “이러한 내적인 긴장”(29)에서 유래한다고 주장한다. 선정소설 집필을 그만둔 후에 나온 『활짝 핀 장미』(*Rose in Bloom*)(1876)나 『라일락 나무 아래에서』(*Under the Lilacs*)(1878)에는 그러한 긴장이 휘발되어, “지루한 감상성”이나 “변화 없는 단조로움”을 지닌 작품이 되었다고 지적한다(29).

앤 B. 머피(Ann B. Murphy), 엘리자베스 레녹스 카이저(Elizabeth Lennox Keyser) 등의 학자들은 『작은 아씨들』이 당시의 지배적인 가정성 이데올로기에 대해 지지와 저항을 동시에 표현하는 이중서술을 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머피는 『작은 아씨들』에서 어머니와 딸의 관계, 자매들 사이의 관계가 친밀하고 단단하게 결속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어머니 마미(Marmee)가 표면적으로는 가부장제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지만, 때로는 딸들이 그로부터 독립해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격려함으로써 강력한 여성 공동체를 구성한다고 주장한다(575). 카이저는 작가와 동일시될 수 있는 1인칭 화자의 서술이 가부장제의 가치를 옹호

5) 이후 올컷은 더는 선정소설을 집필하지 않는데, 이에 대해 매들레인 B. 스텐(Madeleine B. Stern)은 『작은 아씨들』의 성공 후 가명, 혹은 익명으로 선정소설을 집필할 경제적 필요가 사라지고 시간도 부족해 쓰지 않게 되었다고 설명한다(xxvii).

하는 듯하면서도 때로 그 폐해를 드러내고 있음에 주목한다(65-6). 이 글은 『작은 아씨들』 속 ‘가정소설’과 ‘선정소설’ 간의 장르적 긴장을 올컷이 구사하는 이중서술의 핵심적 장치로 읽고자 한다. ‘가정소설’이 ‘작은 아씨들’이라 불리는 규범적이고 이상적인 여성상을 형성하고자 할 때, ‘선정소설’은 ‘여성’이라는 범주에 의문을 제기하고 범주를 교란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모순되며 양립하기 어려운 충돌이 가정소설의 외피 아래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작은 아씨들』을 현대적인 관점에서 흥미롭고 풍부한 텍스트로 만든다.

## II. ‘선정소설’을 대하는 비평적 태도들

린 피켓(Lyn Pykett)은 『부적절한 여성스러움: 여성의 선정소설과 신여성의 글쓰기』(*The ‘Improper Feminine’: The women’s sensation novel and the New Woman writing*)에서 선정소설을 대하는 비평적 태도의 시대적 변천을 고찰한다. 피켓이 ‘선정적인 60년대’(sensational sixties)라고 명명한바, 선정소설이 쏟아져 나오던 1860년대에 이 장르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시대의 징후로서, 사고와 행동의 어떤 전환의 증거, 오래된 구속에 대한 참을 수 없음, 사회 작동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갈망”을 드러내는 것으로 인식되었다(Pykett 51에서 재인용). 당대의 가정소설 작가였던 마가렛 올리펀트(Margaret Oliphant 1828~1897)는 선정소설이 여성의 ‘성적 순결성’에 대한 이중적 잣대에 대한 저항의 성격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그것을 창작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결국 여성의 ‘본질적’ 성품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Pykett 48에서 재인용).

1970년대에 여성주의의 관점에서 선정소설을 재평가하고자 한 일레인 쇼왈터(Elaine Showalter)는 선정소설이 인기를 끈 것은 올리펀트가 비판하는 바 도덕적 방탕함이나 일상의 지루함을 잊게 해줄 자극적인 요소 때

문이 아니라, 당대의 독자들이 대담하게 목소리를 내는 여주인공에게서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Showalter 175). 피켓은 쇼왈터로 대표되는 이러한 여성주의적 재전유가 19세기의 젠더화된 비평 담론의 대척점에 존재하나 주류 이데올로기에 기반을 둔 기존의 비판만큼이나 문제가 있다고 비판한다. 이는 ‘여성적인 것’에 대한 본질주의적 개념을 재기입하고, ‘부적절한 여성스러움’을 긍정적이고 가치 있는 것으로 복제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피켓에 의하면 여성 작가들이 시대적 제약을 초월해 존재하기를 바라는 여성주의적 욕망으로 인해 쇼왈터는 선정소설이 19세기의 여성들이 처해있던 제약들의 모순들을 ‘재생산’하는 동시에 ‘개정’하고 ‘협상’하고 있음에 충분히 주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Pykett 50).

특기할 것은 쇼왈터가 선정소설을 여성주의 관점에서 재평가하면서도, 결론적으로는 여성 글쓰기의 세 번째 단계인 ‘여성주의적 국면’(feminist phase)에 놓지 않고, 그 전 단계인 ‘여성적 국면’(feminine phase)에 위치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여성주의적 국면”에 이르려면 급진적이고 전복적인 충동을 서사의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하는데, 선정소설 작가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음침하고, 부자연스러우며, 여성적이지 않아”(morbid, unnatural, and unfeminine) 보일까 하는 두려움으로 관습에 투항해, 문학적 관행과 장르의 제한에 갇혀 버렸다는 것이다(Showalter 180). 쇼왈터의 지적대로 선정소설은 대부분 가부장제에 담대하게 저항하던 여주인공들이 죽음을 맞거나 정신병원에 갇히는 등 그동안의 악행에 대해 벌을 받는 ‘도덕적’ 결말로 마무리된다. 예를 들어, 브래던의 『오들리 부인의 비밀』(*Lady Audley's Secret*)(1862)에서 주인공 오들리 부인(Lady Audley)은 모든 악행이 발각된 후 정신병원에 갇히고, 우드의 『이스트 린』(*East Lynne*)(1862)에서 이사벨 부인(Lady Isabel)은 함께 사랑의 도주를 했던 연인에게 버림받고, 철도 사고로 아이를 잃고, 자신도 크게 다치게 된다. 이에 대해 피켓은 쇼왈터가 선정소설의 복합적인 중간 부분이 아닌 도덕적인 결말 부분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은 장르에 대한 울



바른 이해가 아니라고 지적한다(50). 그런데 올컷이 집필한 선정소설은 매우 징후적이게도 여주인공의 계략이 성공을 거두어 목표하는 바를 이루는 결말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가면 뒤에서』의 주인공 진 뮤어(Jean Muir)는 나이와 신분을 속이고 코번트리(Coventry) 가에 가정교사로 들어가 계획대로 코번트리 경과 결혼해 안주인의 자리를 차지한다. 이에 대해 장정희는 가부장제에 대해 좀 더 비판적인 견해를 가졌던 올컷의 급진성이 반영된 것이고, 또한 미국이 영국과 비교해 계급 유동성에 좀 더 열려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한다(2015, 160).

피켓은 “선정소설을 어느 한 편—전복적이거나 일탈적, 혹은 억제되고 보수적인—으로 볼 것이 아니라 빅토리아 시대의 모순, 불안, 충돌하는 이데올로기가 수렴해서 작동하는 공간이며 젠더 고정관념, 섹슈얼리티, 계급, 가족, 결혼에 대한 심원한 문화적 불안들이 기입되고 협상되는 매개체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한다(50). 피켓은 선정소설에 대한 그간의 논의들은 ‘경계’를 정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었으나, 선정소설 그 자체는 경계를 흐트러트리거나 위반하는 모든 방식과 관련이 있었음을 지적하며, 논의의 초점도 그 방향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주장한다(53).<sup>6)</sup>

### III. 가정소설 내에서 분투하는 선정소설 작가

앞서 언급한바, 선정소설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대중에게 숨기기 위해

---

6) 최근 여성주의의 논의에서 150년 전 ‘선정소설’과 비슷한 양상의 논쟁을 불러일으킨 것이 남성들 간의 로맨스 혹은 성애를 다루는 ‘BL’(Boys' Love) 장르이다. 홍보람은 BL 장르에 대한 평가가 ‘다르게 보는’ 여성 주체의 탄생이라는 긍정적 평가의 관점에서 ‘여성 혐오의 정수’라는 정반대의 평가로 이행되는 과정을 설명한 후, BL 장르의 귀어함은 “규범적 여성범주의 불가능성을 자신의 조건으로 갖는”(72) 데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홍보람, 「가시성의 경제와 몸 이미지: BL은 어떻게 페미니즘의 ‘문제’가 되었는가」, 『여/성이론』 44호(2021): 42-73 참조.

A.M. 바나드라는 남성적 가명, 혹은 익명을 사용한 올컷이 『작은 아씨들』에서 자신을 투영한 인물인 ‘조’를 선정소설 작가로 그리고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 매우 담대하고도 아이러니한 설정으로 읽힌다. 작품 속 마치 가족은 실제 매사추세츠 주 콩코드(Concord)에 거주하며 부모님과 네 자매로 이루어진 올컷 가족을 모델로 하고 있기에 독자들이 둘째인 조를 작가인 올컷과 동일시하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작품이 선풍적 인기를 끌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설정을 했다고도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 『작은 아씨들』은 1868년에 1부가 발간된 후, 폭발적 인기에 힘입어, 1869년에 2부가 출판되었는데, 조가 선정소설을 쓰는 것은 2부에서 묘사되기 때문이다. 작품에 열광한 팬들이 ‘과수원 집’(Orchard House)이라 불리는 올컷의 자택을 불시에 방문하는 등 세간의 관심이 뜨거운 상황에서, 실제 삶에서는 숨기고 있는 사실을 자전적 소설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은 독자들과 밀고 당기는 어떤 게임을 하는 것으로까지 여겨진다.

『작은 아씨들』에서 올컷의 페르소나인 조는 글쓰기에 열정을 지닌 작가 지망생으로 주로 낭만적인 연애 소설을 써왔다.<sup>7)</sup> 조가 로맨스가 아닌 선정소설을 써 보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은 첫째 메그(Meg)가 결혼해 집을 떠난 후, 남은 가족, 특히 성홍열의 후유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베스(Beth)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느끼면서부터이다. 조는 강연장에서 옆자리 청년이 읽던 신문에서 눈에 띄는 자극적 삽화를 발견한다: “전투복을 완벽히 갖춘 인디언이 늑대에게 목을 물린 채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있고, 그 가까이에서 유난히 발이 작고 눈이 큰 청년 둘이 분노하며 서로를 찌르고 있고, 그 뒤에서는 형클어진 머리의 여자가 입을 크게 벌리고 도망치고 있었다”(266). 그녀는 “사랑과 미스터리, 살인”이 뒤섞인 그 이야기에 빠

7) 조가 처음으로 콩코드의 신문 「스프레드 이글」(Spread Eagle)에 발표한 「호적 수 화가들」(“The Rival Painters”)은 실제 올컷의 첫 출판작의 제목을 가져온 것인데, 비올라(Viola)와 안젤로(Angello)의 비극적인 사랑을 그린 로맨스 작품이다(154).

저들면서도, “열정이 난무하는 가벼운 문학에 속하는 이런 이야기는 작가의 창작력이 다하면 대재앙이 일어나 무대의 등장인물 절반은 없어지고, 남은 절반은 그들의 파멸을 보며 기뻐한다.”(266-7) 고 냉소적으로 평가한다. 조는 이 선정소설이 ‘쓰레기’(trash)에 가깝다고 생각하지만, 신문을 읽고 있던 청년은 “이 여잔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잘 알아요. 그리고 그걸 글로 써서 돈을 많이 버는 거고요”(267)라고 대답한다. 청년의 이러한 대답은 상업 소설이 테크놀로지와 대량소비의 가능성으로 인해 ‘집단 무의식’을 체화하는 예술 형식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 레슬리 피들러(Leslie Fiedler)의 주장을 연상시킨다(Showalter 159 재인용). 쇼왈터가 지적하듯, 선정소설의 거대한 상업적 성공은 독자들이 공유하는 열망을 작가가 능숙한 솜씨로 구체화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159).

올컷은 이 장면 속 선정소설의 작가를 “S.L.A.N.G 노스버리 부인”(Mrs. S.L.A.N.G. Northbury)(267)이라는 이름으로 설정했는데, 이는 실제 당시 미국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던 E.D.E.N. 사우스워스(E.D.E.N Southworth 1819~1899)의 이름을 우스꽝스럽게 변형한 것이다(*The Annotated Little Women*, 345 n. 5). 사우스워스는 1849년 「내셔널 이어러」(*The National Era*)라는 노예제 폐지 진영의 신문<sup>8)</sup>에 첫 연재를 시작해, 그 후 거의 50여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60편 이상의 소설을 발표하였다. 원래 교사로 일했으나, 남편이 가족을 버리고 브라질로金を 찾아 떠나자, 자신과 자녀들을 부양하기 위해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는 사우스워스의 개인사는 선정소설 작가들의 집필에 경제적 동기가 주요하게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당선작에 걸린 100달러의 상금을 타기 위해 이튿날부터 조는 “결투 장면을 연인들의 도피 행각 전에 넣을지 아니면 살인 사건 후에 넣을지를”(whether the duel should come before the elopement or after the

8) 1842년 미국을 여행했던 디킨스는, 선정소설이 노예제 폐지론자에서 노예 상인에 이르기까지 미국 전역에서 전염병처럼 창궐해있다고 비판적으로 지적하였다(Barton and Phegley 11 재인용).

murder)(267) 고민하며, 리스본의 대지진으로 막을 내리는 “절박감과 절망”으로 가득 찬 이야기를 창작한다. 이 부분은 선정소설의 여러 장르적 관습을 희극적 어조로 패러디하는 형식으로 서술된다. 올컷은 가명으로 선정소설을 집필하며 본명으로 쓴 작품에서는 선정소설의 관습을 패러디하는 흥미로운 이중적 상황에 자신을 위치시키고 있다.

조는 수상으로 획득한 상금으로 어머니와 베스를 바닷가에 휴양을 보낸 후, 자신의 글이 가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낀다. 올컷은 이 장면에서 실제 자신의 경험을 반영하여 원고료가 어떻게 가족을 부양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펜의 마법으로 ‘폐물’이 가족 모두의 위안으로 탈바꿈했기 때문이다. 「공작의 딸」은 고깃값을 치러주었고, 「유령의 손」은 카펫을 새로 깔아주었으며, 「코번트리 가의 저주」<sup>9)</sup>는 식료품과 옷으로 마치가 사람들에게 내린 축복을 입증해 보였다”(269). 올컷은 여기에서 선정소설을 ‘폐물’(rubbish)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일찍이 1부의 14장에서 조가 콩코드에 신문사에 처음으로 로맨스 소설을 투고했을 때, 로리가 그녀를 응원하며 했던 말과 겹치며 아이러니한 효과를 낸다. 로리는 “조, 너의 소설은 매일 출판되는 반쯤은 폐물과 같은 이야기에 비하면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견줄만해”(Jo, your stories are works of Shakespeare compared to half the rubbish that's published every day)(151)라고 격려한다. 이제 조는 그 자신이 “매일 출판되는 반쯤은 폐물과 같은 이야기”를 쓰고 있다. 그런데 올컷이 동시기에 선정소설을 집필하고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선정소설’을 ‘폐물’이라고 부르는 화자의 자조적 평가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망설여진다.<sup>10)</sup> 올컷의 선정소

9) 이 작품의 제목은 앞서 언급한바 여주인공 진 뮈어가 ‘코번트리 가’의 가정교사로 들어가 모두를 속이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가면 뒤에서』를 연상시킨다.

10) 같은 시기에 콩코드에 거주하며 에머슨(Ralph Waldo Emerson)이 이끌던 초월주의자 모임에 초대받기도 하고 올컷 가족이 살던 주택을 매입하는 등 올컷 가족과 교류가 있었던 나다니엘 호손(Nathaniel Hawthorne 1804~1864)이 1855년의 편지에서 당시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었던 여성 작가들을 “형편없는 작가”

설을 발굴해낸 스텐은 그녀의 작품이 “알맞은 속도의, 긴장감을 자아내며, 솜씨 좋게 진행되며, 피와 살을 지닌 입체적 인물들로 구성된”(well paced, suspenseful, skillfully executed, and peopled with characters of flesh and blood) 뛰어난 작품이라고 평가한다(vii-viii). 스텐은 올컷의 선정소설 쓰기에 경제적 동기가 분명 존재하지만, 올컷이 처해있던 가부장적 세계에서 페미니스트적 분노의 표출이기도 했다고 평가한다(xv). 그런데 올컷이 『작은 아씨들』에서 경제적인 목적만이 선정소설 집필의 거의 유일한 동기인 것처럼 묘사하는 것은 가정소설인 『작은 아씨들』의 독자층과 그것이 팔리는 시장의 요구를 읽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새로운 경험을 위해 콩코드를 떠나 뉴욕의 하숙집에 머물면서 조는 “선정 문학이라는 허황된 바다”(frothy sea of sensational literature)(348)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sup>11)</sup> 화자는 “허황된”이라는 형용사를 통해 짐짓 선정소설에 대해 도덕적 비판을 내리는 듯이 보이지만, 역설적이게도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조가 선정소설을 쓰기 위해 기울이는 진지한 노력에 대한 묘사이다.

전율이란 독자들의 영혼을 괴롭히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기에, 그 목적을 위해 역사와 로맨스, 물과 바다, 과학과 예술, 경찰 기록과 정신병원까지 살살이

---

(scribblers)라고 부르며, 그들의 작품을 “쓰레기”(304)라고 불렀던 것을 올컷이 『작은 아씨들』을 집필할 당시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진지한 순문학을 추구하는 남성 작가들이 여성 작가들이 쓰는 대중 소설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가지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주류적 의견이었기에 올컷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호손과 멜빌 등의 남성 작가들이 여성 작가들에 대해 가졌던 의견에 대해서는 박연옥, 「여성의 글쓰기에 대한 남성 작가들의 불안: 19세기 미국소설 연구」 『영미어문학』 75 (2005):61-84.를 참고할 것.

- 11) 이 부분에서 화자는 조가 “대시우드 씨의 지시와 노스베리 부인을 모델로 삼아”(Following Mr. Dashwood's directions, and making Mrs. Northbury her model)(348) 선정소설을 썼다고 쓰고 있는데 이는 선정소설 쓰기에 선배 선정소설 작가들이 확립한 장르적 관습과 출판사의 요구 사항이 영향력을 끼쳤음을 보여 준다.

뒤져야만 했다. 조는 곧 자신이 사회의 이면에 깔린 비극적 세계를 거의 알지 못하는 순진한 경험 밖에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직업적 관점에서 그 결핍을 특유의 에너지로 보충하고자 했다. 대가처럼 능숙하게 쓰지는 못하더라도, 이야기의 소재를 찾고, 독창적 플롯을 구성하기 위해, 신문에서 사건, 사고, 범죄 기사를 찾았다; 독극물에 관한 문헌을 요청해서 공공 도서관 사서들의 의심을 초래하기도 했다; 거리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관찰하거나, 자기 주변 사람을 좋은, 나쁜, 무관심한 인물로 분류하기도 했다. 그는 먼지 쌓인 고대까지 탐색해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발견한 너무나 오래 되어 오히려 새로운 사실이나 허구의 이야기들은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그녀에게 어리석음, 죄, 불행에 대해 알게 해주었다.

[A]s thrills could not be produced except by harrowing up the souls of the readers, history and romance, land and sea, science and art, police records and lunatic asylums, had to be ransacked for the purpose. Jo soon found that her innocent experience had given her but few glimpses of the tragic world which underlies society; so regarding it in a business light, she set about supplying her deficiencies with characteristic energy. Eager to find material for stories, and bent on making them original in plot, if not masterly in execution, she searched newspapers for accidents, incidents, and crimes; she excited the suspicions of public librarians by asking for works on poisons; she studied faces in the street, —and characters good, bad, and indifferent, all about her; she delved in the dust of ancient times, for facts or fictions so old that they were as good as new, and introduced herself to folly, sin, and misery, as well as her limited opportunities allowed. (349)

이 부분에서 묘사되는 조의 모습은 선정소설을 쓰는 올컷의 자화상적 기록이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야기의 소재를 신문에 실린 실제 사건, 사고, 범죄에서 찾는 설정은 당시 선정소설 작가들의 관행이었는데, 이는 피켓이 지적하듯, “결혼과 가정의 이상에 대해 변화하고 충돌하고 있던 관점들과 관련된 사회적, 법적, 경제적, 정서적, 성적 관계들의 접점들”(Pykett 54)을 보여준다. 안동현에 의하면 올컷은 표면적으로는 선정소설을 비판하고 있으나, 행간에서는 이것이 인간의 어두운 면을 탐구해야 하는 작가

로서 19세기 여성에게 부과되는 규범적 제한을 넘어 성숙해가는 과정임을 암시하고 있다(안동현 100). “자기 자신의 열망과 감정에 관해서 연구하고 들여다보는 것”(studying and speculating about her own [passions and feelings])은 사실 “병적인 취미”(a morbid amusement)나 “비행”(wrong-doing)이 아니라, 작가라면 꼭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Alcott 349-50). 조는 같은 하숙집에 머무르고 있는 독일 출신의 베어 교수에게 독일어를 배우며 지적, 정서적 영향을 받는다. 베어 교수는 자신의 서재에 있는 『셰익스피어 작품집』을 건네주며, 조에게 “이 책의 인물을 연구하면 현실의 인물을 연구하고, 그들을 당신의 펜으로 묘사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the study of character in this book will help you to read it in the world, and paint it with your pen)(343)라고 조언한다. 선정소설을 부도덕한 것으로 혐오하는 베어 교수가 선물한 『셰익스피어 작품집』이 조가 선정소설 속 인물을 깊이 있게 창조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설정은 아이러니하다(343). 이는 선정소설과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쓰레기 문학과 진정한 문학이라는 대립적 구도에 놓는 주류적 견해에 대한 작가 올컷의 은근한 반박으로 해석될 만하다.

베어 교수는 신문으로 만든 모자를 쓰고 있다가, 거기에 실린 선정소설의 삽화를 보고 “이런 것은 아이들이 봐서는 안 되고, 청소년들이 읽어서도 안 됩니다. 좋지 않아요. 이런 해로운 것을 퍼내는 사람들을 참을 수가 없어요.”(They are not for children to see, nor young people to read. It is not well; and I haf no patience with those who make this harm.) (354)라고 말한다. 조의 당황하는 모습을 보며 베어 교수는 조가 쓰고 있다는 소설이 자신이 비판하는 종류의 작품임을 짐작하지만,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는다. 다만 조가 스스로를 변호하며 선정소설에 대한 수요가 있으며, 그것을 집필해 “정직하게 생계를 꾸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하자 위스키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해서 그에 대한 공급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응수한다(355). 베어 교수는 대화가 끝난 후 신문을 난롯불에 태워버

리고, 조는 방으로 돌아와 자신의 원고를 읽어본 후, “돈 때문에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무턱대고 달려”(356) 왔음을 깨닫고 스스로 자신의 글을 불태워 버린다.

조의 원고가 태워지는 장면은 이것이 두 번째로, 첫 번째는 1부의 8장에서 묘사된 바 있다. 연극 관람에 데려가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은 막내 에이미(Amy)는 그에 대한 복수로 조가 몇 년 동안 다듬어서 완성한 원고를 불태워 버린다. 이에 조는 극도로 분노해 에이미와 절교를 선언하고, 다음 날 로리(Laurie)와 스케이트를 타러 갈 때도 데리고 가지 않는다. 혼자 스케이트를 타던 에이미가 호수에 빠져 죽을 뻔한 위기를 겪게 되자 조는 자신의 다혈질적인 성격과 지나친 분노를 뉘우치게 된다. 이 장의 제목인 “조, 마왕을 만나다”(Jo Meets Apollyon)는 6장 “베스, 미의 궁전을 발견하다,”(Beth Finds the Palace Beautiful), 7장 “에이미, 굴욕의 계곡에 떨어지다,”(Amy's Valley of Humiliation), 9장 “메그, 허영의 시장에 가다”(Meg Goes to Vanity Fair)와 더불어 존 번연(John Bunyan)의 『천로역정』(*Pilgrim's Progress*)(1678)에서 가져온 어구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부재중인 아버지가 편지를 통해 당부한 바 “마음속의 적과 용감히 싸워서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통제하는”(8) “작은 아씨”가 되어가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가정소설의 관습에 충실한 제목들이다. 1부 8장에서 타의에 의해 원고가 태워진 사건을 통해 조가 규범적 여성상에 다가갔다면, 2부의 34장 “친구”(Friend)에서는 한층 더 그 이데올로기가 내면화되어 유사 아버지(Father Figure)인 베어 교수<sup>12)</sup>가 먼저 신문을 태우고, 그에 설득된 조가 스스로 자신의 원고를 불태우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12) 이승은이 지적하듯, 베어 교수는 “마음이 따뜻하고 아이들에게 다정한 남자이며 지적이지만 허세를 부리지 않는,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얻는 사람”(69)이며 교육 개혁과 실질적인 박애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가 주체적으로 “낭만적 사랑보다는 박애를 실천하는 공동체적 삶을 선택”(69)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으나, 선정소설 쓰기와 관련하여 본다면 베어 교수는 주류 이데올로기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아버지 인물로 볼 수 있다.



이후 서사에서 조는 선정소설 쓰기를 중단하고, “서우드 부인과 에지워스 양, 해나 모어처럼 수필이나 설교문 같은 아주 교훈적인 이야기”(356)나 아이들을 위한 동화 쓰기에 도전하지만, 자신의 성향과 맞지 않아 실패하고 포기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글을 쓰지 않는 동안 조는 베어 교수에게 독일어 외에도 여러 과목을 배우며 지내는데, 이를 보면 언뜻 그녀가 베어 교수의 영향 아래 완전히 흡수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선정소설의 토대를 놓고 있었다”(laying a foundation for the sensation story of her own life)(357)라고 설명하는 화자의 서술은 또다시 이중적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이는 일차적으로 베어 교수에게 친구 이상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만, 나아가 올컷이 기대하는 바, 조의 삶이 가정소설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선정소설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으로 읽힘으로써 선정소설에 대한 표면적 비난과는 다른 해석의 여지를 남기게 된다.

베스의 병세가 악화되어 뉴욕에서 다시 콩코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베스는 조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긴다: “내가 죽으면 조 언니가 나를 대신해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돌보아드려 줘 [... ..] 그 일이 훌륭한 책을 쓰거나 세계를 다니는 것보다 더 행복을 줄 거야. 우리가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으니까”(You must take my place, Jo, and be everything to father and mother when I'm gone. [... ..] you'll be happier in doing that, than writing splendid books, or seeing all the world; for love is the only thing that we can carry with us when we go)(418). 작중 인물 중 자신의 욕망을 표현하거나 추구하는 것에 가장 소극적이고, 순종적이었던 베스가 죽음을 앞두고 조에게 자신을 이어 “집안의 천사”(domestic angel) 역할을 할 것을 거의 명령에 가까운 어조로 부탁하는 이 장면은 메타픽션적으로 본다면 “진정한 여성성”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인 가정소설이 “부적절한 여성스러움”을 드러내는 선정소설을 통제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조는 글쓰기를 제쳐 두고 딸로

서의 의무에 집중한다. 자신의 성정에 어긋나는 생활에 지쳐갈 무렵 어머니의 제안으로 가족들을 위한 “단순하고 작은 이야기”(a simple little story)(436)를 쓰고, 원고를 출판하지 않으려는 조를 대신해 아버지가 잡지사에 보낸 결과, 작품은 독자들의 호평을 받게 된다. 이 “단순하고 작은 이야기”는 선정소설과는 대척점에 놓이는 장르로, 메타픽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작은 아씨들』을 의미한다. 표면적으로는 조의 글쓰기가 선정소설에서 가정소설로 옮겨 간 것이 조의 작가로서, 또 여성으로서의 ‘성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서술되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안동현이 지적하듯, “이 ‘훌륭한’ 글은 조의 불타오르는 영감의 산물로 보이지 않”으며, 글쓰기의 과정도 이전에 선정소설을 쓸 소재를 찾아 신문을 살살이 뒤지고, 도서관에서 책을 탐독하고, 거리의 사람들을 관찰하던 열정적인 모습과 비교해 “매우 추상적이고 단순하게만”(안동현 106) 묘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올컷의 삶을 살펴보면, 올컷은 『작은 아씨들』을 쓸 마음이 없었으나 토마스 나일즈(Thomas Niles)라는 출판업자의 권유로 쓰게 되었고, 이후 이 작품이 상업적으로 성공하면서 『작은 아씨들』 2부, 『작은 신사들』, 『조의 아이들』이라는 속편까지 썼으나, 본인은 별로 내켜 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안동현 101 재인용). 방문객들에게 자신이 올컷임을 숨기고 하녀라고 말하고 자리를 피하기도 하였다(Reisen 242). 안동현은 올컷의 선정소설에 나오는 “육감적이고 강력한 여성 인물”과 『작은 아씨들』의 “무성적이고(sexless) 희생적인 자매들”을 생각하면, 『작은 아씨들』이 오히려 돈 때문에 썼던 작품이고, 글쓰기의 즐거움은 선정소설을 쓰면서 느꼈을 것으로 주장한다(101-2).

#### IV. 가정소설을 교란하는 선정소설

쇼왈터는 『그들만의 문학』(*A Literature of Their Own*)(1977)에서 브

래던의 대표적인 선정소설 작품인 『오들리 부인의 비밀』에 빗대어, 선정소설이 품고 있는 ‘비밀’은 일차적으로는 살인과 중혼 등 미스터리와 범죄에 대한 것이지만, 더 내밀한 비밀은 “여성들이 품고 있는 딸, 아내, 어머니로서의 자신들의 역할에 대한 반감”이었다고 설명한다. 선정소설이 출판되던 당대의 비판자들은 독자들이 선정소설을 읽는 이유를 섹슈얼리티에 대한 관심에서 찾았으나, 쇼왈터는 선정소설 작가와 독자들이 공유하고 있던 “결혼과 가족 내에서 자신들에게 부여된 역할의 부정의와 지루함으로부터의 독립과 자기 확신”에의 열망이야말로 인기의 핵심 비결이라고 분석한다(161). 예를 들어, 브래던의 또 다른 작품, 『의사의 아내』(*The Doctor's Wife*)(1864)에서 “멍청이 오빠가 격렬한 전투에 나서기 위해 세상 밖으로 던져질 때 수상 윌리엄 피트의 영혼을 가지고도 집에 앉아 베를린 울 자수로 장미를 만들어야 하는 똑똑하고 야심 찬 젊은 여성”이 겪는 곤경에 독자들이 공감했다는 것이다(Showalter 161-2에서 재인용).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조—나아가 올컷—의 선정소설에 대한 열정은 『작은 아씨들』에서 가정과 사회 내에서 부여된 여성의 역할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그녀의 모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소설의 첫 장에서 조는 자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어른이 되어 마치 양이라고 불리고, 긴 드레스를 입고, 과꽃처럼 새침하게 보아야 한다니 생각만 해도 싫어. 남자애들처럼 놀고, 일하고, 행동하는 게 좋은 내가 여자라니 너무해. 평소에도 남자가 아니라는 게 실망스럽지만, 아빠를 따라서 전쟁에 나가 싸우고 싶은 이때, 집에 앉아 굵똥 할머니처럼 뜨개질이 나 하고 있으려니 더욱 참을 수가 없어

I hate to think I've got to grow up and be Miss March, and wear long gowns, and look as prim as a Chinaster. It's bad enough to be a girl, any-way, when I like boy's games, and work, and manners. I can't get over my disappointment in not being a boy, and it's worse than ever now, for I'm dying to go and fight with papa, and I can only stay at home

and knit like a poky old woman, (3)

현재의 관점으로는 당혹스러울 정도로 조는 자신이 ‘여성임’에 실망감을 표하는데, 이는 ‘남성성’에 대한 선망이라기보다는 대학에 갈 수 없고, 전투에 참전할 수 없으며, 가정교사와 같은 제한된 직업만이 허용되며, 일상생활을 하기에 불편한 복식을 입어야 하고, 매력적이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매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서는 안 되는 여성적 품행을 수단으로 남성의 선택을 받아 결혼해 아내와 어머니가 될 것을 요구받는 19세기 여성의 역할에 대한 분노와 좌절의 표현이다.<sup>13)</sup> ‘여성됨’이 의미하는 모든 제약에서 벗어나 ‘남성’과 동등한 기회와 자유를 누리고 싶다는 욕망의 표현이기도 하다. 실제 올컷은 1848년 15세에 세네카 폴스 컨벤션(Seneca Falls Convention)에서 발표된 『소회 선언』(Declaration of Sentiments)<sup>14)</sup>을 읽

13) 한편, 올컷이 인터뷰에서 했다는 다음 발언은 남성과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을 넘어 올컷이 퀴어적 정체성을 경험했을 가능성을 남긴다: “나는 내가 자연의 변덕으로 여성의 몸에 깃들인 남성의 영혼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믿는다. 왜냐하면 나는 많은 예쁜 소녀들과 사랑에 빠졌지만 남성과는 한 번도 그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I am more than half-persuaded that I am a man's soul put by some freak of nature into a woman's body ... because I have fallen in love with so many pretty girls and never once the least bit with any man.)” 인터뷰어인 루이즈 챠들러 몰턴(Louise Chandler Moulton)은 이를 올컷이 영혼의 윤회를 언급하며 “전생에 말이었을 것 같다”고 말한 것과 묶어 거의 농담으로 여기며, 진지한 논평 없이 지나간다. Moulton, Louise Chandler. “Louisa May Alcott”. *Our Famous Women: An Authorized Record of the Lives and Deeds of Distinguished American Women of Our Times*. A. D. Worthington & Company, 1884. p.49.

14) 문서가 미국의 『독립선언서』(Declaration of Independence)를 비틀어 ‘man’이라는 단어가 쓰인 자리에 ‘man and woman’을 사용함으로써 『독립선언서』가 보편적 ‘인간’의 권리가 아니라 ‘남성’의 권리에 복무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통용되는 번역인 『감성 선언』, 혹은 『감정 선언』보다는 ‘의견, 의향, 생각’의 의미를 강조하는 『소회 선언』이나 원어 표현과는 거리가 있지만 『여성의 권리 선언』이 더 적합해 보인다. 『감성 선언』, 『감정 선언』과 같은 번역은 남성에게는 이성의 영역을, 여성에게는 감성의 영역을 할당해 온 기존의 이분법적 구도를 반복,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은 뒤 여성 참정권 지지자가 되었으며, 생애 내내 적극적으로 참정권 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작은 아씨들』에서는 여성이 처한 불평등한 현실에 대한 가장 실효적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여성 참정권에 대한 언급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sup>15)</sup> 『작은 아씨들』이 출간된 1868년은 『소회선언』이 나온 지 20년이 된 시점이지만, 여전히 여성 참정권은 매우 급진적인 주장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참정권에 대한 비언급은 이름을 밝히지 않고 선정소설을 쓴 것과 유사하게 중산층 여성 독자와 시장의 요구를 고려한 의도적인 생략이라고 볼 수 있다.

안동현은 『작은 아씨들』이 “지배문화의 바람직한 여성성에 맞추어 창조적 욕구를 희생한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애초에 어떤 창조적 욕구가 있었는지, 또한 그 욕구를 희생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독자에게 호소력을 지닌다고 평가한다(108). 작가 조가 현재의 관점에서는 한계가 있으나, 당대의 주어진 조건 속에서 창조성을 발휘하고자 했다는 안동현의 평에는 동의하지만, 당시 선정소설을 집필하고 있었던 울컷의 상황을 병치시켜 읽는다면, 『작은 아씨들』은 훨씬 더 복잡한 독해를 요구하며, 여성의 창조적 욕구를 말살하고자 하는 사회에 대한 은밀하고도 신랄한 풍자로 읽힌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처음 보았을 때부터 사랑해왔다는 로리의 열렬한 고백에 대한 조의 거절은 조금 다른 맥락에서 읽히게 된다. 조는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며 다음과 같이 예언한다.

---

15) 간접적으로나마 언급되는 부분은 10장 “피크윅 클럽과 우편함”(The P.C and P.O)에서 자매들이 발행하는 가족 신문 피크윅 포트폴리오(*Pickwick Portfolio*)에 실린 광고이다: “탁월하고도 강력한 강사 오런시 블러리지 양께서 다음 주 토요일 저녁 피크윅 홀에서 정기 공연이 끝난 후, “여성과 여성의 지위”에 대해 강연을 할 예정이다”(MISS ORANTHY BLUGGAGE, the accomplished Strong-Minded Lecturer, will deliver her famous Lecture on “Woman and Her Position,” at Pickwick Hall, next Saturday Evening, after the usual performance)(104).

좀 있으면 넌 상처를 이겨내고, 너를 숭배하고, 너의 멋진 집에 어울리는 안주인이 될 사랑스럽고, 세련된 여자를 만날 거야. 나는 못해. 나는 촌스럽고, 서투르고, 이상하고, 나이도 많아서 너는 나를 부끄러워하게 될 거고, 우린 싸우겠지만—심지어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 난 우아한 사교계를 싫어하지만 넌 좋아하고, 넌 나의 글쓰기를 싫어하게 되겠지만, 난 쓰지 않고는 살 수 없어, 우린 불행해져서 결혼을 후회하겠지. 모든 게 끔찍할 거야.

You'll get over this after a while, and find some lovely, accomplished girl, who will adore you, and make a fine mistress for your fine house. I shouldn't. I'm homely, and awkward, and odd, and old, and you'd be ashamed of me, and we should quarrel—we can't help it even now, you see,—and I shouldn't like elegant society and you would, and you'd hate my scribbling, and I couldn't get on without it, and we should be unhappy, and wish we hadn't done it,—and everything would be horrid!  
(364-5)

조는 단순히 자신과 기질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로리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로리와 로리의 가문이 요구하는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을 거부한다. 자신은 당시의 품행집(Conduct Book)이 이상적인 신붓감으로 상정한, 인내와 절제, 예절 바름의 미덕을 갖추고, 집안의 관리와 내조를 위한 여러 기술과 기예를 구사할 줄 알며, 사교계에서 적절히 처신할 수 있는 “사랑스럽고, 세련된 여자”가 될 능력도, 의지도 없음을 선언한 것이다. 대신 그녀가 선택하는 것은 “글 쓰는 여성”(scribbling woman)<sup>16)</sup>의 삶이며, “글쓰기” 없이는 살 수 없다고까지 이야기한다. 조는 로리가 자신의 글쓰기를 이제까지 막지 않았으며, 첫 소설을 투고했을 때에는 “칭송받는 미국의 여성 작가”(the celebrated American authoress)(151)가 될 것이라

16) “scribbler”는 ‘졸작을 쓰는 작가’라는 의미와 더불어 그러한 부정적 뉘앙스가 없이 유쾌한 맥락에서 ‘작가’라는 의미도 있는데, 올컷은 아마도 후자의 맥락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호손의 1855년 편지에 나오는, 여성 작가들에 대한 유명한 폄하의 표현인 “졸작을 쓰는 저주받은 여성의 무리”(Damned mob of scribbling women)(Hawthorne 304)를 여기에 겹쳐 놓으면, 환영받지 못하는 여성 작가라는 의미가 더욱 선명해진다.

고 응원까지 해주었지만, 자신의 삶에서 글쓰기가 가지는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듯하다. 조의 글쓰기에 대한 로리의 이해는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일’ 정도의 피상적이고 낭만적인 이해에 그치기 때문에 결혼 이후에 조가 일, 이주일 계속되는 ‘글쓰기 발작’(writing fit)의 시기에 들어가는 등 글쓰기를 위해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을 제쳐 둔다면, “나의 글쓰기를 싫어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다. 당시의 많은 독자들은 조가 로리가 아닌 베어 교수와 결혼하는 결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분노하기도 했으나, 올컷은 조가 결혼을 해야 한다면 선정소설을 도덕적으로 비난하더라도 조의 글쓰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또한 이민자로서 미국에 가족이 없는 베어 교수가 더 적합하다고 본 듯하다.

대부분의 영화 각색작에서 조가 가장 열정적으로 글쓰기를 하는 것으로 묘사되는 장면은 가족들을 위한 “단순하고 작은 이야기,” 즉 『작은 아씨들』을 쓸 때이다.<sup>17)</sup> 그러나 원작에서 조의 “글쓰기 발작”이 가장 인상적으로 묘사되는 부분은 조가 선정소설을 쓰기로 결심하는 27장 “문학 수업”(Literary Lessons)에서이다.

몇 주마다 한 번씩 그녀는 글쓰기 옷을 입고 방에 틀어박혀, 그녀의 표현대로라면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소설을 썼다. 글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 없었다. [... ...]

그녀는 결코 자신을 천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나 글쓰기 발작이 일어나면, 그것에 온전히 굴복하고 자신을 내맡겼다. 거의 현실의 친구만큼 소중한 진짜로 느껴지는 친구들로 가득한 상상의 세계에서, 부족함이나 근심, 굶은 날씨도 인식하지 않고, 안전하게 행복하게 지냈다. 잠도 자지 않았고, 밥도 먹지 않았다. 설령 결과가 좋지 못하다 하더라도 이럴 때에만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이런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행복감을 온전히 즐기기엔 밤도 낮도 너무 짧게 느껴졌다. 보통 그러한 천상의 영감은 일, 이주일 지속되다

17) 1994년 각색 작에서 조는 베스가 죽은 후 다락방에서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긴 상자를 발견한 후 집필을 시작하고, 2019년 각색 작에서는 “작고”, “지루”하더라도, “우리에 관한 이야기”를 써달라는 베스의 부탁으로 밤낮없이 『작은 아씨들』의 창작에 몰두하는 모습이 묘사된다.

가 그녀는 배고프고, 졸리고, 화가 나거나, 시무룩한 상태가 되어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왔다.

Every few weeks she would shut herself up in her room, put on her scribbling suit, and “fall into a vortex,” as she expressed it, writing away at her novel with all her heart and soul, for till that was finished she could find no peace. [... ...]

She did not think herself a genius by any means; but when the writing fit came on, she gave herself up to it with entire abandon, and led a blissful life, unconscious of want, care, or bad weather, while she sat safe and happy in an imaginary world, full of friends almost as real and dear to her as any in the flesh. Sleep forsook her eyes, meals stood untasted, day and night were all too short to enjoy the happiness which blessed her only at such times, and made these hours worth living, even if they bore no other fruit. The divine afflatus usually lasted a week or two, and then she emerged from her “vortex,” hungry, sleepy, cross, or despondent. (541)

영감에 휩싸여 일상의 일들을 잊고서 글쓰기에 몰두하는 조의 모습은 가정소설이 목표로 하는 규범적 여성상에 부합하지 않으며, 흔히 낭만주의 시대에 활약했던 천재적 남성 작가—바이런, 키츠, 셸리와 같은—들을 연상시킨다. 이 “글쓰기 발작”에서 막 회복된 후, 조는 크로커 할머니(Miss Crocker)와 동행해 시민 강좌에 가서 선정소설을 알게 되고, 집필할 결심을 하게 된다. 조는 선정소설이라는 “새로운 사상”(new idea)을 접하게 된 것이 크로커 할머니를 모시고 간 “선행”(virtue)에 대한 “보상”이라고 표현한다(266). 올컷은 노약자를 돌보는 전통적인 여성의 미덕이 선정소설의 집필이라는 역설적 결과로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여성성 자체가 가부장제가 규정하는 천사/악녀의 이분법으로 재단할 수 없는 복합적인 실체라는 선정소설의 메시지를 가정소설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

사라 해켄버그(Sara Hackenberg)는 『가면 뒤에서』를 메타픽션적으로 읽는다면 주인공 진을 ‘선정소설’에 대한 알레고리로 볼 수 있다고 분석한



다. 진이 신분을 위장하고 코번트리 가에 들어와 가족 구성원들을 속이고 유혹하며 자신의 계획을 실현하는 것을 선정소설이라는 장르가 영국과 미국의 가정에 침투하여 규범적 여성성을 교란하고, 새로운 감각을 선사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437). 테레사 A.고두(Teresa A. Goddu)는 『작은 아씨들』 시리즈와 선정소설의 관계를 여성 작가가 남성 중심의 출판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행한 위장술에 비유한다. 마치 『가면 뒤에 서』의 주인공 진이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정의 천사’로서의 가면을 썼던 것처럼 실명으로는 규범적 여성성에 복무하는 가정소설과 감상소설을 창작하고, 남성적 필명 혹은 가명으로는 규범적 여성성을 교란하는 선정소설을 썼다는 것이다(125). 그런데 『작은 아씨들』 내에서 선정소설을 쓰는 작가 조의 존재는 울컷의 가면 쓰기가 가정소설과 선정소설에서 각각 분리되어 행해진 것이 아니라 가정소설 내에서도 이루어졌다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즉 진이라는 인물이 코번트리 가에 잠입해 들어와서 하는 역할을 『작은 아씨들』이라는 가정소설에서는 조의 ‘선정소설 쓰기’가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V. 결론

지금까지 본고는 『작은 아씨들』이 여성의 ‘글쓰기’, 특히 ‘선정소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선정소설 장르에 대한 평가는 도덕적 비판에서 여성의 적극적 행위능력에 대한 찬양에 이르기까지 변화해 왔는데, 본고에서는 이 장르가 ‘여성’이라는 범주에 의문을 제기하고 경계를 흐트리고 있음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하였다. 범주를 교란하는 그의 방식이 흥미로운 것은 울컷이 『작은 아씨들』이라는 가정소설의 장르 내에서 선정소설의 글쓰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울컷은 실제의 삶에서는 가명과 익명을 통해 단단히 감추고 있는 선정소설 작가라는 정체

성을 자전적으로 여겨지는 소설에서 서사의 주요 장치로 사용하는 대담한 전략을 구사하였다. 선정소설의 장르적 관습을 유쾌하게 패러디해 보여주기도 한다. 예민한 독자라면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 비난 아래에 울컷이 선정소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이중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나아가 그가 『작은 아씨들』을 출판하던 동시기에 선정소설을 집필하고 있었음을 염두에 두고 읽게 되면, 선정소설에 대한 표면적 흔계의 의미는 완전히 역전되어, 당대의 주류적 비판에 대한 은밀한 조롱과 신랄한 풍자로 읽히게 된다.

가정소설 내에서 선정소설을 쓰는 작가 조는 실패가 예정된 존재이다. 장르의 규칙을 따라 결말에서 조는 결혼한 후 육아와 학교 운영으로 소설 쓰기를 중단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선정소설의 의의가 규범적 여성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여성이라는 범주를 교란하는 데 있다면, 조가 선정소설을 쓰기 위해 분투하는 중간 부분의 복합적인 서사에서 목표는 이미 성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작품 속의 조가 소설 쓰기를 중단하는 반면, 울컷이 그때에도 선정소설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 교란의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만든다. 울컷은 자신의 작가 이력에서 ‘선정소설’이 ‘가정소설’로 넘어가기 이전의 예비적 글쓰기이거나, 중요성이 떨어지는 부차적 글쓰기가 아님을 선정소설 장르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소설인 『작은 아씨들』에서도 역동적인 방식으로 흥미롭게 드러내고 있다.

(건국대학교)

## ■ 주제어

루이자 메이 울컷, 『작은 아씨들』, 가정소설, 선정소설, 여성의 글쓰기

## ■ 인용문헌

- 박연옥, 「여성의 글쓰기에 대한 남성 작가들의 불안: 19세기 미국소설 연구」. 『영미어문학』 75 (2005):61-84.
- \_\_\_\_\_. 「프론티어 여성의 현실과 가정소설: 캐롤라인 커클랜드의 『새집-누가 따를 것인가?』」. 『19세기 영어권문학』 3.2(2009):7-34.
- 안동현, 「루이자 메이 올콧의 『작은 아씨들』에 나타난 여성의 글쓰기」. 『영미문학교육』 25.3(2021):91-111.
- 이승은, 「가정성 이데올로기에 대한 이중 서술--루이자 메이 알콧의 『작은 아씨들』」. 『19세기 영어권 문학』 12.1 (2008):55-76.
- 장정희, 『선정소설과 여성』. 서울: L.I.E., 2007.
- \_\_\_\_\_. 「19세기 미국 선정소설과 여성성: 루이자 메이 앨코트의 『가면 뒤』」. 『신영어영문학』 62 (2015):137-162.
- 홍보람, 「가시성의 경제와 몸 이미지: BL은 어떻게 페미니즘의 ‘문제’가 되었는가」. 『여/성이론』 44 (2021):42-73.
- Alcott, Louisa May. *Little Women*. 1868, 1869. London: Penguin, 1989.
- \_\_\_\_\_. *The Annotated Little Women*. Notes by John Matteson. New York, NY: W.W. Norton & Company, 2016.
- Ascari, Maurizio. *A counter-history of crime fiction: supernatural, gothic, sensational*.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7.
- Barton, John Cyril and Jennifer Phegley. “Introduction: An Age of Sensation. Across the Atlantic.” *Transatlantic Sensations*. Eds. Jennifer Phegley, John Cyril Barton, and Kristin N. Huston. Surry: Ashgate, 2012. 1-22.
- Fetterly, Judith, “*Little Women*: Alcott's Civil War.” *Little Women and the Feminist Imagination: Criticism, Controversy, Personal*

- Essays*. Eds. Janice M. Alberghene and Beverly Lyon Clark. New York: Routledge, 2013. 27-42.
- Goddu, Teresa, A. "Masking the Marketplace: Louisa May Alcott's Gothic Tales." *Gothic America: Narrative, History, and Nation*. New York: Columbia UP, 1997. 117-30.
- Hackenberg, Sara. "Plots and Counterplots: The Defense of Sensational Fiction in Louisa May Alcott's "Behind a Mask." *American Transcendental Quarterly* 22.2 (2008):435-51.
- Hawthorne, Nathaniel. *The Letters, 1853-1856*. Eds. James A. Rubino et al. *Centenary Edition of the Works of Nathaniel Hawthorne*. Vol. XVII. Columbus: Ohio State UP, 1987.
- Keyser, Elizabeth Lennox. *Whispers in the Dark: The Fiction of Louisa May Alcott*. Knoxville: The U of Tennessee P, 1993.
- Little Women*. Dir. Gillian Armstrong. DiNovi Pictures, 1994.
- \_\_\_\_\_. Dir. Greta Gerwig. Columbia Pictures, 2019.
- Modleski, Tania. *Loving with a Vengeance: Mass Produced Fantasies for Women*. 2nd ed. New York, NY: Routledge, 2007.
- Moulton, Louise Chandler. "Louisa May Alcott." *Our Famous Women: An Authorized Record of the Lives and Deeds of Distinguished American Women of Our Times*. A. D. Worthington & Company, 1884. Retrieved. 25th July. 2024.  
<[https://www.google.co.kr/books/edition/Our\\_Famous\\_Women/eNUYAAAAMAAJ?hl=ko&gbpv=1&dq=Our+Famous+Wom en:+An+Authorized+Record+of+the+Lives&printsec=frontcover](https://www.google.co.kr/books/edition/Our_Famous_Women/eNUYAAAAMAAJ?hl=ko&gbpv=1&dq=Our+Famous+Wom en:+An+Authorized+Record+of+the+Lives&printsec=frontcover)>
- Murphy, Ann B. "The Borders of Ethical, Erotic, and Artistic Possibilities in *Little Women*." *Signs* 15.3(1990):562-85.

Pykett, Lyn. *The 'Improper Feminine': The women's sensation novel and the New Woman writing*. New York, NY: Routledge, 1992.

Reisen, Harriet. *Louisa May Alcott: The Woman Behind Little Women*. New York, NY: Henry Holt and Company, 2009.

Showalter, Elaine. *A Literature of Their Own: British Women Novelists from Bronte to Lessing*. Princeton, NJ: Princeton UP, 1977.

Stern, Madeleine B. "Introduction to Alcott, Louisa May." *Behind a Mask: The Unknown Thrillers of Louisa May Alcott*. New York: Morrow, 1975. vii-xxxiii.

■ Abstract

*Little Women* :  
Focusing on Writing of Sensation Fiction

Choi, Hayoung  
(Konkuk Univ.)

This paper explores how woman's writing, especially that of sensation fiction, is dealt with in Louisa May Alcott's *Little Women*. Sensation fiction was considered as a cheap, but morally harmful, entertainment with little literary quality in the 19th century. In the 1970s, feminist critics rediscovered sensation fiction, emphasizing woman's agency against the patriarchy. Then, Lyn Pykett criticizes such feminist reevaluation of sensation fiction in that it reinscribes essentialist concept of 'the feminine' and replicates the prejudice of the 19th century in a reversed way. Instead, she argues, the criticism of sensation fiction should be about unfixing and transgressing boundaries regarding gender stereotypes, sexuality, class, family, and marriage.

Drawing on Pykett's argument, this paper analyzes how the message of true womanhood that *Little Women* intends to convey as a domestic fiction is diverted and complicated by having Jo, Alcott's fictional persona, as a writer of sensation fiction, the identity Alcott hid in her real life. Proper femininity, which the domestic fiction posits as a norm, is once more disturbed when Jo quits writing

sensation fiction in the work while Alcott does not in her real life. Consequently, this paper insists that Alcott considered writing of sensation fiction as important as, or rather, more important than that of domestic fiction in her writing career, as a means of questioning and disturbing the category of womanhood itself.

### ■ Key words

Louisa May Alcott, *Little Women*, Sensation Fiction, Domestic Fiction, Woman's writing

### ■ 논문게재일

○투고일: 2024년 7월 31일 ○심사일: 2024년 8월 12일 ○게재일: 2024년 8월 13일





# 신식민적 환경 폭력과 가난한 사람들의 저항 : 임볼로 음웨의 *How Beautiful We Were*

하상복\*

## I. 들어가며

남반구 저개발국가에서 천연자원 개발로 야기된 생태 파괴와 원주민의 고통은 서구의 식민 지배 시기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파괴와 고통이 식민 지배자 혹은 지배 세력에 의해 은폐되거나 축소되어 전말이 본격적으로 드러난 것은 20세기 후반 무렵이다. 문학 영역에서도 이른바 환경 문학과 생태 비평 분야에서 논의되면서 석유 채굴과 같은 자원 개발이 초래한 환경 문제를 다룬 작품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 글에서 검토할 소설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How Beautiful We Were*)도 석유 채굴로 인한 환경 문제를 다룬 소설이다. 이 소설은 아프리카 카메룬(Cameroon) 출신의 미국 소설가 임볼로 음웨(Imbolo Mbue)의 두 번째 작품으로 석유 채굴이라는 소재와 관련하여 페트로픽션(petrofiction) 혹은 오일 픽션(oil fiction)으로 불리기도 한다.<sup>1)</sup> 음웨는

\* 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부교수, hasangbok@pusan.ac.kr

1) 페트로픽션은 아미타브 고쉬(Amitav Ghosh)가 고안한 용어이다. 이 용어는 그가 1992년 발표한 압델라흐만 무니프(Abdelrahman Munif)의 소설 『소금 도시』(*City of Salt*)를 다룬 글에서 언급된 후 석유 개발과 관련된 주제를 포함하고 있는 소설을 거론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오일 픽션은 페트로픽션의 이형

지금까지 두 편의 장편소설을 발표했음에도, 문단과 언론에서 유망한 신진 소설가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2016년 데뷔작 『꿈을 꾸는 사람들을 보라』(*Behold the Dreamers*)가 펜/포크너 소설 상(PEN/Faulkner Award for Fiction)을 받은 것에서 알 수 있다.<sup>2)</sup> 또한 2021년 출판된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도 『뉴욕 타임스』(*The New York Times*)의 ‘2021년 10대 베스트 북스’(the 10 Best Books of 2021)에 선정된 사실에서 미국 소설계에서 작가의 위치가 어떠한지를 알려준다.<sup>3)</sup>

음베티는 어린 시절부터 ‘석유의 정치학’(oil politics)이 아프리카 국가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깨닫고 오랜 시간 글로 쓸 고민을 했다고 한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다(Venugopal).<sup>4)</sup> 그러다가 20세 때 “석유와 독재자가 통치하는 국가”(oil and a country led by a dictator. Shea 38)에 관한 이야기를 쓰기로 하고, 장기간에 걸쳐 작업을 반복하다가 완성했다고 한다. 이런 많은 고민과 노력의 결과물이 아프리카 가상 국가의 마을 코사와(Kosawa)에서 벌어진 이야기인 소설 『우리가』이다. 소설은 독재 정부의 비호 아래 미국 석유회사 펙스턴(Pexton)의 유전 개발이 초래한 고통과 이에 대한 저항을 복수의 화자를 통해 전달한다. 복수의 화자는 주인공 틀

---

(variant)으로 거의 구분하지 않고 사용되는 용어이다(Gasztold 198; Xausa 201). 두 용어는 석유 채굴로 인한 생태 파괴와 폭력, 자원 분배의 불평등, 채굴을 둘러싼 정치적 문제 등의 주제를 포함한 소설을 지칭할 때 공식 용어처럼 사용된다.

2) 『꿈을 꾸는 사람들을 보라』는 미국 뉴욕을 배경으로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시기 서로 다른 계층에 속한 두 가족에 관한 이야기이다. 소설은 부자 승객을 위해 리무진을 운전하는 카메룬 출신 가족과 리먼 브러더스(Lehman Brothers)라는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미국 상위 1%에 속하는 가족을 대비시키며 이주민, 자본주의, 계급, 아메리칸 드림의 이면을 들추어낸다(Doll 48; Kline 37).

3) 소설 제목은 「아가서」(Song of Solomon) 1장 15절에 나오는 구절이다(Shea 41). 이후 본문에서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우리가』로 줄여 표기한다. 그리고 『우리가』의 내용을 인용할 경우, 본문에서 인용 쪽수를 괄호 안에 표시한다.

4) 아룬 베누고팔(Arun Venugopal)과 마르코 워만(Marco Werman)은 각각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음베티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용은 온라인 탑재한 내용에서 가져온 것이다. 따라서 인용할 때 쪽수를 표기하지 않는다.

라(Thula)와 가족인 할머니 야야(Yaya), 어머니 사헬(Sahel), 삼촌 봉고(Bongo), 동생 주바(Juba), 그리고 툴라의 동갑내기 친구들이다. 특히 친구들은 아이들(The Children)이라는 장 제목으로 11장 중 5장에서 화자로 등장한다. 각각의 화자는 식민 지배 시기부터 2020년대까지 4세대에 걸친 코사와의 비극과 저항을 자신이 기억하고 경험한 이야기로 들려준다.

『우리가』는 출판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학술 논문으로 발표한 연구 결과가 많지는 않다. 발표된 논문은 석유 채굴과 환경 파괴의 문제를 환경주의의 관점에서 논의한 연구(Gasztold; Ivry), 전지구적 식민성의 관점에서 소설의 환경 폭력을 분석한 연구(Karmakr et al; Nare et al), 그리고 환경 폭력의 종속 메커니즘과 저항을 다루며 소설을 분석한 연구(Ehanire; Biama et al; Xausa) 등으로 다양한 시각을 보여준다. 이 연구 중 몇몇은 이 글의 논의에서 참조할 롭 닉슨(Rob Nixon)의 시각을 반영하며 소설을 분석한 글도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참조하며 닉슨의 논의를 좀 더 본격적으로 다루고, 그리고 닉슨이 고민한 환경주의와 포스트식민주의(postcolonialism)의 논의를 결합하는 제안을 바탕으로 프란츠 파농(Frantz Fanon)의 관점을 통해 『우리가』가 그려낸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기존 환경주의가 단편적으로 접근하는 환경 폭력의 양상과 배경을 전지구적 차원에서 이해할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도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이 글은 2장에서 석유 채굴이 환경과 인간에 가해지는 느린 폭력과, 석유 개발을 둘러싼 정치 경제 체제와 관련된 느린 폭력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코사와에서 벌어지고 있는 환경 폭력의 심각성을 닉슨과 파농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다. 그리고 3장에서 제국주의와 식민화, 그리고 환경 폭력 간의 강력한 연관성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식민 지배 시기부터 시작된 남반구 저개발국가의 환경 폭력이 독립 이후에도 종식되지 못한 배경을 규명한다. 4장은 코사와 사람들이 신식민 세력에게 자신들을 동등한 인간으로 인정하고 환경 폭력으로 초래된 비극을 끝내라는 주체적 요구와 저항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탐색한다.

## II. 신식민적 환경 폭력이 초래한 불평등과 착취

『우리가』의 이해를 위해 닉슨과 파농의 관점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출발점은 닉슨이 던진 문제의식이다. 그는 미국 환경 문학 연구와 포스트식민 문학 연구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도 거리를 두는 경향을 문제점으로 파악한다. 두 경향 모두 사회 변혁을 위한 목소리를 강조함에도 서로의 주제에 침묵하는 것에 대해 닉슨은 이해할 수 없었다. 이런 문제의식에 따라 닉슨은 『느린 폭력과 가난한 사람들의 환경주의』(*Slow Violence and the Environmentalism of the Poor*)에서 환경주의와 포스트식민주의 관점을 결합할 가능성을 모색한다.<sup>5)</sup>

닉슨이 볼 때 환경 문학과 생태 비평의 문제는 한 국가 경계 내의 작가를 환경 작가 계보로만 인정함으로써 전지구적 차원에서 환경 문제를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 이런 경향에서는 고향 나이지리아 오고니(Ogoni) 지역의 환경 파괴와 학살에 항의하며 글을 쓴 켄 사로-위와(Ken Saro-Wiwa)와 같은 작가는 미국 환경 저자 계보에 포함될 수 없다. 분명 나이지리아의 석유 생산 50%를 구매하고, 미국에 기반을 둔 초국적 석유 기업 걸프 셰브론(Gulf Chevron)이 오고니 지역 환경 파괴의 주범임에도 사로-위와의 저작은 환경 문학에서 다루지 않는다. 관련 미국 연구자들은 사로-위와가 미국이 아닌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인이기 때문에 포스트식민 문학에서 다루어야 할 작가로 간주한다. 닉슨은 포스트식민 문학의 한 계도 지적한다. 그는 포스트식민 문학 진영도 환경 문학의 경향이 엘리트

5) 환경주의와 포스트식민주의의 상호 교차점을 모색하는 시도는 비슷한 시기인 2010년대 출판된 여러 저작을 통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롭슨 저작을 포함하여 엘리자베스 들러그리(Elizabeth DeLoughrey)와 조지 핸들리(George Handley)의 『포스트식민 생태』(*Postcolonial Ecologies*, 2011), 그레이엄 허건(Graham Huggan)과 헬렌 티핀(Helen Tiffin)의 『포스트식민 생태비평』(*Postcolonial Ecocriticism*, 2010), 파블로 무커지(Pablo Mukherjee)의 『포스트식민 환경』(*Postcolonial Environments*, 2010) 등이 대표적인 저서이다(Wenzel, "Reading" 185).

주의적인 것이며, 녹색 제국주의(green imperialism)에 의해 훼손된 분야로 깎아내리는 한계를 보인다고 주장한다(233-36).

이런 경향을 극복하기 위한 닉슨의 제안은 세 가지 관심사를 통해 환경 문제를 전지구적 차원에서 고민하는 탐색으로 이어진다. 세 가지 관심사는 ‘느린 폭력’, ‘가난한 사람들의 환경주의’와 ‘환경 작가-활동가(environmental writer-activist)의 역할’이다. 그는 이 관심사를 논의하면서 환경 문학과 포스트식민 문학이 느린 폭력, 가난한 사람들의 환경주의, 신식민주의 혹은 제국주의에 의한 사회환경 악화, 소수민의 환경 권리 등과 같은 쟁점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제니퍼 웬젤(Jennifer Wenzel)의 논의처럼, 닉슨이 제안한 느린 폭력과 가난한 사람들의 환경주의는 포스트식민주의 논의에서 중요한 사상가로 언급되는 파농의 견해와도 결합할 수 있다. 닉슨도 토지를 소유물이자 존엄성의 원천으로 보는 파농의 환경주의적 관점을 재조명할 가치가 있다고 언급한다(7). 그럼에도 닉슨은 파농,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 등의 반식민(anticolonial) 사상가들이 환경주의자들을 적대적으로 혹은 무관심하게 본 역사적 배경을 무시하지 않아야 하며, 또한 반식민 사상가들이 활동한 과거의 상황에 맞추어 현대 환경주의적 의미를 재조정하는 것도 위험하다고 본다(260-61). 이러한 닉슨의 주장은 타당하다. 하지만 환경주의와 포스트식민주의의 결합을 모색하고자 한 닉슨의 주장으로 돌아가자면, 파농 사상을 환경주의와 함께 검토하는 것은 의미 있는 시도가 될 수 있다. 웬젤이 파농 사상과 환경주의 관점을 함께 고려하고자 한 배경도 그러하다.

웬젤은 백인과 미국 중산층 혹은 유럽 식민주의자의 환경주의가 걸어온 역사와 계보학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환경주의가 배제됐다는 닉슨의 경고에 주목하며, 가난한 사람들의 환경주의를 이해하는 것이 파농을 다시 읽는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제안한다(“Reading” 187). 그리고 그녀는 파농의 『대지의 저주받은 사람들』(*The Wretched of the Earth*)에

서 가난한 사람들의 환경주의가 출현하는 하나의 시공간을 볼 수 있다고 단언한다. 웬질은 파농의 아프리카 민족해방투쟁의 분석과 가난한 사람들의 환경주의의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을 『대지의 저주받은 사람들』에서 발견한 것이다(“Turning” 166). 또한 알록 아마티아(Alok Amatya)와 애슐리 도슨(Ashley Dawson)의 견해에서도 파농은 등장한다. 이들은 「채굴 시대의 문학: 서문」(“Literature in an Age of Extraction: An Introduction”)에서 자원 소비의 불평등성과 남반구 저개발국가의 풍부한 자원 채굴 프로젝트에서 파악되는 신식민주의와 신자유주의를 경고하며, 저항의 관점에서 파농 사상을 거론한다. 이들은 오늘날 저항할 새로운 소수 주체의 생산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관점은 채굴 식민주의에서 완전한 해방의 필요성을 주장한 파농의 탈식민 철학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12). 이러한 여러 견해를 볼 때, 파농 사상과 환경주의 관점을 결합하는 접근은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를 이해하는 데 파농 사상을 참조하는 근거는 소설 내용에도 있다. 바로 톨라가 어린 시절 삼촌 방에서 찾아 읽은 책이자 미국 유학 시절 다시 접한 책이 바로 『대지의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 한 부분이다. 톨라는 친구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와 같은 상황에 부딪친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에 대해 이 분이 한 말”(What this man has to say about what people in our situation ought to do” 204)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하며, 파농 사상이 코사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파농의 저서가 등장한다는 점은 소설에 어떤 식으로든 그의 사상이 투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파농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음벤키가 언급한 어린 시절 이야기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 음벤키는 어린 시절 반체제 인사, 혁명가, 해방 투사에 관심을 가졌다고 회상한다. 이런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은 어린 시절에 경험하고 들은 카메룬을 포함한 아프리카 상황이다. 당시 카메룬은 1982년 권력을 차지한 폴 비야(Paul Biya) 대통령이 독재 체제를 공고히 한 시기였고, 음벤키는 고향 림베(Limbe)

에서 1990년대를 보내며 부정과 폭력을 목격한다. 또한 그녀는 독재 체제와 석유 개발 과정의 폭력과 부정에 저항한 사로-위와의 사형 소식을 접하며 동일한 혼란에 빠진 모국의 문제를 깨닫는다(Venugopal). 이 과정에서 그녀가 관심을 둔 이들이 파농과 같이 변화를 위해 저항하고 헌신한 인물들이다. 그녀가 관심을 둔 이들은 사로-위와, 콩고(Congo)의 초대 총리 파트리스 루뭄바(Patrice Lumumba), 부르키나파소(Burkina Faso)의 초대 대통령 토마 상카라(Thomas Sankara), 남아프리카공화국(Republic of South Africa)의 최초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Nelson Mandela) 등이다. 그리고 이들에 관한 관심이 톨라에 반영되었다고 말한다(Shea 39-40). 그래서 톨라가 파농을 거론한 것은 음뱌의 명확한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파농처럼 이들 모두 식민 지배 시기와 독립 이후 탈식민화를 위해 그리고 아프리카인의 진정한 해방을 위해 투신한 투사들이다. 이 점에서 『우리가』의 주제가 아프리카의 진정한 탈식민화를 염원하는 파농의 관점으로 성찰할 수 있는 측면을 포함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느린 폭력’의 의미를 토대로 코사와가 처한 상황을 살펴보는 것은 닉슨과 파농의 관점으로 『우리가』를 이해하는 시작이 된다. 닉슨의 정의를 따르면, 느린 폭력은 흔히 거론되는 폭력과 다르다. 느린 폭력은 보이지 않고 오랜 시간에 걸쳐 발생하는 폭력, 극적이고 즉각적이지도 않지만 계속 확대되고 축적되며 그 영향력이 장기간 시공간을 넘어 널리 확산하는 폭력이다(2). 느린 폭력은 환경 파괴와 자원 개발이 빚어내는 장기적이고 파괴적인 문제를 환기하기 위해 제안된 용어이다. 이러한 느린 폭력의 관점은 코사와에서 석유 채굴이 낳은 환경 파괴의 원인과 과정을 일차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이 된다. 그러나 환경주의와 포스트식민주의의 논의를 결합하기 위해 이것과 긴 기간에 걸쳐 밀접하게 연관된 추가적인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것은 석유 개발을 둘러싼 정치 경제 체제와 관련된 느린 폭력이다. 2장은 두 측면을 함께 검토하며 코사와에서 벌어지고 있는 환경 파괴의 문제를 검토한다.

첫 번째 측면인 석유 채굴로 인한 느린 폭력의 양상은 장기간 진행된 심각한 환경 파괴와 오염의 결과이다. 코사와도 이러한 결과로 고통받고 있다. 펙스톤의 불성실한 관리와 무책임한 대책으로 석유 유출과 유전 폭발이 낳은 오염의 폐해는 코사와를 “인간이 자연을 완전히 파괴한 전형”(the epitome of human devastation of nature. Gasztold 199)처럼 보이게 만든다. 음웨는 소설 첫 부분부터 느린 폭력이 코사와 사람들에게 치명적이지만 비가시적인 특성으로 오랜 시간 인지할 수 없는 공포였음을 알린다. “우리는 종말이 가까이 왔음을 알았어야 했다. 어떻게 그걸 몰랐을까”(We should have known the end was near. How could we not have known? 3)라는 첫 구절은 석유 채굴로 빚어진 환경 파괴가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소설이 그리고 있는 공포스럽고 고통스러운 현실은 아이들의 죽음에서도 알 수 있다. 아이는 부모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이다. 이들은 환경 오염에 노출될 경우, 치명적인 상태에 놓일 수 있는 매우 연약한 존재이기도 하다. 음웨는 이런 존재가 “이름도 없고 치료법도 없는 병”(diseases with neither name nor cures. 5)에 노출되어 기침, 고열, 각혈로 죽어가고 있다는 비극을 보여주며 느린 폭력이 낳은 참담한 실상을 고발한다. 아이들의 죽음은 코사와의 모든 것이 오염되어 발생한 것이다. 죽음은 “물속의 유독물질, 공기 중의 유독물질 그리고 펙스톤이 구멍을 뚫던 날부터 순수성을 잃어버린 땅에서 자란 오염된 음식물”(the poison in the water and the poison in the air and the poisoned food growing from the land that lost its purity the day Pexton came drilling. 5)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소설은 느린 폭력이 단기간에 진행된 것이 아니며,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we)라는 화자의 이야기를 통해 전달한다. 화자 우리는 1970년에 태어난 툴라의 동갑내기 친구들이다. 이들은 펙스톤이 코사와에 온 시기에 부모 중 몇몇은 태어나지도 않았다는 말로 석유 채굴이 오래전에 시작되었고, 자신들이 6살 때 부모들이 기름이 묻혀있는 땅에서



사는 것이 “엄청난 저주”(the fullness of the curse. 28)로 느꼈다는 기억으로 느린 폭력의 특성을 확인시켜 준다. 그리고 소설은 2020년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된 생존한 친구들의 한탄을 통해 몇 세대에 걸친 느린 폭력의 폐해를 기록한다.

2020년 친구들의 한탄은 느린 폭력의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우리 세계와 삶의 방식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our world and our ways will vanish in totality. 359)라는 친구들의 회한에서 이를 읽을 수 있다. 친구들은 조상의 장소를 잃어버린 자식 세대가 삶에 깃든 고유한 영령(spirit), 언어, 음악, 춤을 잊어버리고, 그것들을 그저 가치 없는 과거의 유산으로 경시하는 것을 보고 슬퍼한다. 심지어 조상 때부터 자신들까지 환경 폭력에 저항했던 사실조차 망각하는 자녀들의 태도에 실망한다. 이 한탄은 펙스톤의 환경 파괴와 정부의 폭력적 진압이 코사와를 생존할 수 없는 장소로 변모시킨 결과가 장소와 인간에 미치는 물리적 악영향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그와 더불어 환경 파괴로 인한 장소의 상실이 장소 속에서 이어지는 오랜 기간 축적된 전통, 역사, 세계관의 상실 또한 초래하고, 이 상실이 느린 폭력이 초래하는 또 다른 결과임을 드러낸다.

두 번째 측면인 석유 개발을 둘러싼 정치 경제 체제와 연관된 느린 폭력은 환경주의와 포스트식민주의가 만나는 접점을 이해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것은 생태 비평과 포스트식민주의를 함께 다루는 연구의 중심에 윤리적, 정치적 문제가 있다는 견해(Xausa 199), 환경주의를 분배 정의(justice)라는 전지구적 문제와 관련지어야 한다는 라마찬드라 구하(Ramachandre Guha)의 주장(Nixon xii), 사회적인 것과 생태적인 것을 구분할 수 없다는 인식(Wenzel, “Turning” 166) 등에서 던지는 시사점을 공유한다. 아울러 이 측면은 닉슨의 ‘가난한 사람들의 환경주의’와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 관심사이기도 하다. 가난한 사람들의 환경주의는 주류 환경주의의 관심사를 전지구적 차원으로 확장할 수 있게 하는 제안이다.

닉슨은 이 용어를 통해 느린 폭력의 주된 피해자가 가난한 사람들, 특히 남반구 저개발국가의 가난한 사람들임을 명확히 한다(4). 따라서 정치 경제 체제와 연관된 느린 폭력과 가난한 사람들의 환경주의라는 논의를 고려하면 기존의 환경주의는 더욱 넓고 다층적인 관심사와 결합할 수 있게 된다. 즉 일국 내에서 자원 개발과 관련하여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를 다룬다면, 계급 혹은 경제 불평등의 문제로 다룰 수 있다. 그리고 전지구적 차원에서 이를 논한다면, 제국과 식민지, 서구 강대국과 신식민 국가가 얽여 있는 제국주의, 식민주의, 신식민주의의 관점에서 자원 개발과 환경 문제를 검토할 수 있게 된다. 이 지점에서 파농의 논의가 개입할 수 있다. 파농의 관점은 환경 파괴와 결부된 정치 경제적 문제를 살펴보는 의미 있는 시각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측면으로 논의할 느린 폭력은 서구와 토착 지배 집단이 공모한 자원 독점과 강제적 운영이 환경과 인간에 끼친 결과에서 파악된다. 그것은 “생태 제국주의의 포스트식민적 판본”(a postcolonial version of ecological imperialism. Gasztold 197)에 관한 탐색이기도 하다. 대표적 예가 앞서 거론한 오고니에서 확인되는 느린 폭력이다. 사로-위와는 서구 석유기업이 오고니에서 300억 달러 가치의 석유를 채굴하면서 오고니 사람들에게 준 대가가 환경 파괴, 질병, 군사적 점령, 대학살, 자급자족한 농어업의 종식뿐임을 증언하면서 이를 초래한 정치 경제 체제를 규정한다 (Nixon 181). 그는 서구 석유기업과 사니 아바차(Sani Abacha) 독재 정부의 연합 세력이 오고니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음으로 몰아간 정치 경제 체제의 핵심임을 분명히 한다. 그리고 이 집단 각각을 “국제 식민주의자와 토착 식민주의자”(international and indigenous colonialist. Nixon 207)로 정의한다. 파농의 관점으로 본다면, 국제 식민주의자는 이전 식민 지배국이었던 서구 제국이며, 토착 식민주의자는 서구 제국과 결탁하고 신식민 체제를 구축한 타락한 지도자와 “쓸모없고 유해한 중산 계급”(useless and harmful middle class. *The Wretched* 175)을 다르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로-위와가 이들 국제 식민주의자와 토착 식민주의자의 일사불란한 자원 약탈과 폭력이 오고니의 비극의 야기했다는 증언은 『우리가』에서 국내외 집단이 야합한 약탈조직이 코사와의 비극을 양산했다는 화자들의 증언으로 반복한다. 소설에서 국제 식민주의자는 펙스톤으로 대표되는 미국 기업이고, 토착 식민주의자는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수도 베잠(Bézam)의 지배 집단이다. 이 두 집단의 결탁은 신식민 체제의 출현을 의미한다. 신식민 체제는 미완의 탈식민화와 아프리카 민족주의의 실패를 포함한다. 소설은 간명하게 “정부가 우리를 펙스톤에 넘겨주었다”(our government had given us to Pexton, 11)라는 말로 신식민 체제의 정체를 폭로한다.<sup>6)</sup>

펙스톤이 국제 식민주의자를 상징한다는 점은 유전 개발 논리가 과거 식민주의의 논리와 동일하다는 것에서 파악할 수 있다. 펙스톤은 코사와 사람들과의 첫 만남부터 강탈과 착취의 의도를 은폐한다. 그들은 “번영의 이야기”(the tales of prosperity, 229)로 반신반의하는 코사와 사람들을 현혹한다. 펙스톤과 정부 관계자들은 유전이 마을에 문명, 발전과 경제성장을 가져다줄 것이고 멋진 삶을 제공할 것이라는 말로 코사와 사람들의 우려를 잠재운다. 그러나 번영의 이야기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포, 종말, 죽음의 이야기로 돌아선다. 미국에서 온 펙스톤 사람들과 이전 유럽 지배자는 다르다는 정부 관계자의 속삭임은 거짓으로 판명 난다. 식민 지배 시기 문명과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자원과 노동을 착취하며 고통과 죽음을 강제한 유럽인의 음흉한 의도가 펙스톤에게서 다시 나타난다. 이 점에서 “자본주의는 다른 아바타로 변장한 식민주의일 뿐이다”(capitalism is just colonialism masquerading as a different avatar, Apte 20-21)라고 증언하는 소설로 『우리가』를 평가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다.

펙스톤의 석유 채굴을 통한 이윤 추구는 유전의 독점과 통제를 의미하

---

6) 음베도 가상 국가 사람들이 “신식민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Venugopal)라는 말로 소설 세계가 신식민 체제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는 공간의 식민화에 기반하여 추구된다. 공간의 식민화는 펙스턴이 코사와 사람들이 가져야 할 토지소유권을 부정하고, 정부와의 계약으로 유전을 독점하고 폭력적으로 통제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 상태는 과거 식민 지배 시기 유럽의 강압적 점령을 통한 부의 강탈과 유사하다. 다른 점은 단지 토착 식민주의자인 독재 정부와 대통령과의 공모를 통해 진행된다는 것뿐이다.

펙스턴은 정부와의 계약을 빌미로 우월적 위치에서 코사와 사람들에게 비인간적이고 불평등한 통제를 행사한다. 이들의 비인간적 행위는 불성실한 유전 관리로 발생한 환경과 사람의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복원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에 있다. 펙스턴은 미국 내 여론에 기대는 ‘코사와 복원 운동 단체’(Restoration Movement to Kosawa)의 압력에 의한 일시적인 식수 제공과 기약 없는 보상금 약속만을 반복한다. 이런 비인간적 행위와 기만을 보여주며, 펙스턴은 정부에 수익을 분배하는 조건으로 모든 책임을 면제받았다는 점을 악용한다. 환경 파괴에 대한 국제적 비판에도 펙스턴은 석유 생산을 통해 최대한 이익을 뽑아내는데 몰두한다. 독재 정부의 비호를 받으면서, 톨라가 제기한 미국 소송에서 미국은 다른 국가의 문제에 간섭할 수 없다는 판결을 끌어내며, 펙스턴은 완전한 공간의 식민화를 획책한다. 이 식민화는 코사와 사람들을 추방하거나 이주할 수밖에 없는 환경 조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정부 군인이 톨라와 친구들의 최후 저항을 진압하고, 대통령이 마을 전체를 불태워 없애버린 후 펙스턴은 코사와를 완전히 차지한다. 폐허가 된 코사와라는 공간은 이제 이윤 극대화를 위한 석유 채굴의 공간으로 변모한다.

이러한 펙스턴이 꾀한 공간의 식민화는 파농이 식민 지배자가 폭력을 통해 식민 세계의 질서와 공간을 지배하고 파괴하는 과정을 상기시킨다. 파농은 식민 세계의 파괴 과정을 명백히 한 지역의 폐기, 즉 지역을 땅속 깊이 매장하거나 국가에서 추방하는 것으로 설명한다(*The Wretched* 41). 이것은 식민화 과정이 원주민 세계와 공간의 완전한 폐기를 동반한 서구 주도의 새

로운 질서가 이식된 완전한 대체라는 것을 말해준다. 이 점에서 펙스틴의 코사와 공간의 식민화는 파농이 주장하는 식민 지배에 의한 식민 공간의 완전한 폐기와 추방이라는 맥락을 공유한다.

코사와에서 식민 세계의 질서를 상기시키는 요소는 공간의 분할에서도 보인다. 코사와의 분할된 공간은 파농이 말한 흑인과 백인의 공간이 분할된 식민 세계와 닮아있다. 다시 말해 파농이 식민 지배자와 피식민지인의 “경제적 현실, 불평등, 생활방식의 커다란 차이”(economic reality, inequality, and the immense difference of ways of life. *The Wretched* 40)를 보여주는 분할된 세계가 코사와 마을과 펙스틴 공장이라는 두 공간에서도 되풀이된다. 식민 지배자의 거주지는 풍요롭고 안락한 공간이지만, 피식민지의 거주지는 굶주림의 공간이라는 식민 세계의 불평등한 현실이 ‘정원’(Garden)이라는 이름의 펙스틴 공장과 코사와 마을의 대비에서 확인된다. 죽음, 질병과 궁핍이 만연하는 코사와 마을과 달리 ‘정원’은 깨끗한 물과 음식이 제공되고, 질병 치료도 가능한 곳이라는 묘사가 그것이다. 이러한 공간의 불평등은 펙스틴이 식민주의 논리와 다름없는 방식으로 자원을 강탈하고 석유 개발의 이득과 혜택을 독차지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러나 소설은 이러한 공간의 분할을 특정 지역인 코사와 마을과 그곳에 있는 미국 공장 간의 불평등과 자원 독점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으로만 보지 않는다. 석유가 송유관을 통해 멀리 떨어진 해변 도시로 이동한 후 배에 실려 미국으로 보내진다는 아버지의 설명에서, 석유가 낳는 이익이 최종적으로 미국으로 유입되고 있음을 알려준다. 소설은 송유관이 미국과 이어져 있다는 묘사로 석유 채굴이 낳은 이윤이 남반구 저개발국가에서 “서구 신식민주의자의 주머니”(the pockets of Western neocolonialists. *Ivry* 170)로 전달되는 신식민 체제의 착취가 코사와에서 행해지고 있음을 파헤친다. 여기서 파농이 말하는 불평등한 분할의 세계는 일국적 차원에서 전지구적 차원으로 확대된다. 즉 이전 식민 제국이었던 북반구 선진국의 풍요가 남반구 저개발국가의 자원 강탈에서 나온 것이라는 문제의식

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처음 코사와 사람들을 매혹한 번영의 이야기는 신식민 체제가 낳은 불평등과 착취의 이야기로 귀결된다.

이러한 신식민 체제의 사악한 목적을 은폐한 번영의 이야기는 가난한 사람들의 환경주의를 설명하는 자원 제국주의(resource imperialism)와 생태계 사람들(ecosystem people)이라는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닉슨의 설명을 따르면, 남반구 저개발국가에서 약탈한 자원을 사용하는 이들은 부유한 국가의 시민과 남반구 저개발국가에 거주하는 도시 중산층이다. 닉슨은 이들과 반대로 보잘것없는 자원 가용 지역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남반구의 가난한 사람들을 생태계 사람들로 정의한다. 가난한 사람들의 환경주의는 이들 집단 간의 차별적인 문제를 양산하는 자원 제국주의에 의해 발생한다(22-23). 『우리가』에서 생태계 사람들은 코사와 사람들이다. 코사와 사람들과 같은 남반구 저개발국가의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의 장소에서 개발한 자원이 가져다준 이득을 취할 수 없고 자원을 충분히 사용할 수도 없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단지 자원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의 악영향일 뿐이다. 따라서 남반구 저개발국가의 자원 개발과 환경 파괴는 전지구적 차원에서 검토해야만 단면적인 환경 문제에만 매달리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 『우리가』는 이러한 발전적 접근을 이야기로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음벤페는 소설에서 저개발국가에서 환경 폭력을 행사하는 주범이 북반구 선진국의 이윤 추구에만 집착하는 신식민 세력임을 폭로한다.

### Ⅲ. 자원 강탈의 역사성과 토착 식민주의자의 공모

음벤페는 문명, 발전, 경제성장이라는 미사여구를 동원하며 미혹시키는 번영의 이야기를 오늘날 국제 식민주의자 혹은 신식민주의자들만이 내뱉는 감언이설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녀는 자원을 둘러싼 강대국과 남반

구 국가 간의 자원 강탈과 불평등을 식민 지배부터 지속된 문제로 파악한다. 이는 야야의 이야기에서 자세히 드러난다. 음베티는 식민 지배 초기부터 서구 제국의 폭력을 목격한 야야의 이야기를 통해 제국주의와 식민화, 그리고 환경 위기 간의 강력한 연관성을 들추어낸다(Xausa 203).

야야는 “몇 세대에 걸쳐 다른 불길이 우리 삶의 방식을 불태우고 있다”(for generations, a different sort of fire had been burning down our way of life. 220)라며 석유 발견을 코사와를 찾아온 첫 재앙으로 말하는 젊은이들의 단견을 꼬집는다. 불길은 식민 지배 초기 서구 선교사가 원주민에게 거론한 비기독교인이 사후 가게 될 지옥의 벌을 의미하지만, 야야는 그것을 서구가 아프리카에 자행한 재앙을 지칭하는 것으로 표현한다. 그녀는 코사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불길은 서구인이 이득을 얻기 위해 벌인 노예무역과 고무 농장 운영으로 초래된 사람들의 납치와 강제 노역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야야의 이야기는 과거 노예무역부터 현재의 유전 개발까지 서구가 자행한 자원 강탈과 경제 착취를 아프리카의 비극적 역사임을 보여준다. 즉 음베티는 야야의 목소리를 통해 식민화와 생태 시스템의 착취적인 개입 간의 결합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알리고자 한다(Bartels et al 109).

환경주의 문제에서 파농을 논의할 수 있는 지점의 하나가 이러한 식민화와 생태 시스템의 착취적인 개입에 있다. 야야가 겪은 삶이 이를 보여준다. 야야가 전하는 노예무역과 고무 농장 이야기는 유럽 제국의 풍요가 노예의 피와 저개발 세계의 땅과 흙에서 나온 것이며, 자원 강탈과 노예 노동이 식민 착취의 대상이라는 파농의 주장을 상기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파농은 『대지의 저주받은 사람들』에서 유럽의 풍요, 제 3세계의 창조물로서 유럽을 언급하는 부분에서 자원 강탈을 거론한다. 이는 유럽의 부가 노예제와 “식민 국가의 금과 천연자원”(the gold and raw materials of the colonial countries. *The Wretched* 102)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그리고 수백 년 동안 라틴 아메리카, 중국, 아프리카 식민 국가의 “다이아몬

드와 석유, 비단과 면화, 목재와 이국적 생산물들”(diamonds and oil, silk and cotton, wood and exotic products. *The Wretched* 102)이 유럽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부가 축적되었다는 표현에서 포착된다. 물론 이러한 자원 강탈이 남긴 빛이 원주민의 가난이며, 고유한 환경의 상실이라는 점은 거론하지 않아도 명백한 사실이다. 이렇게 식민화 과정이 원주민의 자원 주권의 박탈과 자원 착취의 과정이기도 하다는 파농의 견해를 참조하면, 환경주의 측면에서 탈식민화는 일차적으로 자원 주권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다.<sup>7)</sup> 자원 강탈과 자원 주권은 웬젤이 가난한 사람들의 환경주의와 파농 논의를 결합할 수 있는 주제로 제시한 것 중 하나이기도 하다(“Turning” 168).

또한 독립 이후에도 진행된 자원 강탈에 대한 야야의 실망은 진정한 탈식민화를 이루지 못한 아프리카 독립 국가의 퇴보를 경고한 파농의 견해와 연결할 수 있다. 독립은 정치 경제적 주권뿐만 아니라 자원 주권도 되찾는 것이다(Wenzel, “Reading” 189). 자원 주권의 회복은 식민 지배 시기 자원 강탈이 가져다준 원주민의 가난과 고유한 환경의 폐기가 독립 후에 지속되지 않게 하기 위한 핵심적 과제이다. 그러나 파농은 대다수 국가가 이러한 주권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고 판단한다. 이 상황은 또 다른 종속인 이른바 신식민주의 체제를 의미한다. 파농은 내부의 역량 부족과 이전 식민 제국의 여전히 잔존한 압박에서 이런 체제가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한다. 특히 그는 내부 역량의 문제를 강하게 검토한다. 즉 “신식민주의의 가면”(the mask of neo-colonialism. *The Wretched* 152)을 쓰고 있는 독립 국가의 중산 계급과 지도자의 한계를 집중적으로 비판한다. 여기서 타락한 지도자와 중산 계급이 바로 사로-위와가 말하는 토착 식민주의자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자원 관리와 개발을 포함한 독립 국가에 필요한 대책을

---

7) 파농이 말하는 자원 주권은 오늘날 환경주의에서 주장하는 자연 자체의 주권이 아닌 인간이 자연을 처리하는 권리이다. 이를 현재 환경주의 관점에서 본다면, 파농의 주장은 분명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Wenzel, “Turning” 169).



독자적으로 모색할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 단지 그들은 이전 식민 제국이 만들어 놓은 방식을 답습하고 제국과 식민지의 연결 통로를 그대로 유지하는 데 매진한다. 이러한 선택의 목적은 명백하다. 그들의 이익과 권력을 획득하고 지속시키는 쉬운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파농의 검토는 야야와 같은 아프리카인의 좌절을 불러온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파농은 내부 식민주의자가 어떤 사고와 행위를 통해 신식민적 환경 폭력을 초래하는지를 파악하게 하는 시각을 제시한다.

『우리가』에서 펙스톤으로 대표되는 국제 식민주의자와 결탁한 토착 식민주의자의 전형으로 볼 수 있는 인물이 독재 권력을 휘두르는 대통령이다. 소설은 그가 유럽 지배자들에 의해 대통령이 된 후, 권력을 행사하며 국가 자원을 어떻게 남용하고 있는지를 야야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준다. 그녀는 대통령을 유럽 지배자들이 만든 우스운 국가가 붕괴하지 않도록 유지하는 임무를 맡은 “종”(the servant, 225)으로 묘사한다. 이 묘사는 독립 이후에도 식민 체제의 주종관계가 지속되고 있음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다. 대통령은 권력을 차지한 후 이전 식민 지배 세력의 방식대로 국가를 운영한다. 자신에게 반대하는 이들을 처형하거나 추방하고, 국가 자원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긴다. 그리고 그는 서구 기업과 공모하며 국민을 위해 자원 권리를 행세하지 않고 팔아버린다. 대통령의 이러한 악행은 파농이 말하는 잘못된 지도자의 상과 일치한다. 파농은 독립 후 민중을 배반한 지도자를 “수익을 차지하려고 안달하는 부당 이득자들의 회장”(the general president of that company of profiteers impatient for their returns, *The Wretched* 166)으로 비유하며, 사적 이익에 몰두할 뿐만 아니라 민중이 아닌 이전 식민 지배 세력과 기업의 이해관계를 철저히 대변하는 배신자로 규정한다. 그래서 펙스톤이 코사와의 유전을 차지한 이면은 명확하게 파농의 논의와 일치한다. 대통령은 코사와의 유전을 코사와 사람들과 국민을 위한 자원으로 보지 않는다. 그는 자신과 이전 식민 세력인 서구의 이익을 위해 펙스톤에게 석유가 발견된 땅을 넘겨버린 것이다. 틀라

가 비난한 것처럼, 대통령을 포함한 신식민 집단은 돈 때문에 아이들을 석유를 찾아다니는 외국인에게 팔아버린 것이다(38).

자국의 자원을 서구에 팔아넘기며 이득을 취하는 대통령의 악행은 전국에서 벌어진다. 벌목, 보석 채굴, 동물 보호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동원된 군인이 많은 지역의 사람들을 쫓아내거나 살해한다. 쫓겨난 원주민의 하소연과 항의는 코사와 사람들의 항의를 군인들의 총으로 진압한 것처럼, 폭력으로 억누른다. 이러한 재현은 자원의 저주(resource curse)라는 상황에 놓인 다수 아프리카 저개발국가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자원의 저주는 풍부한 자원이 있음에도 국민 다수가 가난에 고통받는 것을 가리킨다. 그 이유는 자원에서 나온 수익을 국민의 삶에 도움을 주는 정책에 투자하지 않고 독재자와 지배 세력이 차지하는 부패 때문이다. 이런 자원의 저주에 걸린 국가는 비민주적이고 군국주의적이며, 투명하거나 책임 있게 운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Nixon 69-70). 소설에서 이러한 자원 저주의 상황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은 유럽의 호화로운 집, 국민 백 명의 1년 소득보다 많은 돈으로 산 신발, 유럽 왕의 복장을 하고 그려진 초상화, 언제라도 발포할 만반의 태세를 갖춘 군인 등 대통령이 누리고 행사하는 무소불위의 힘에서 읽을 수 있다(226).

자원의 저주가 낳은 국가 내부의 불평등은 수도인 베잠 사람들의 무관심에서도 드러난다. 이들 다수는 대통령과 함께 신식민 체제를 고착시킨 지배 집단이며 한정된 국가 자원을 독점하며 부와 권력을 차지한 사람들이다. 이들의 무관심은 코사와 사람들이 벌인 첫 번째 저항에서 확인된다. 코사와 사람들은 베잠으로 가서 환경 오염의 실태를 알리기 위해 마을 회의에 온 펙스턴 회사 일행을 감금한다. 그러나 일행 중 운전사가 이런 시도는 실패할 것이라고 조롱한다. 그는 베잠 사람들은 코사와의 고통에 신경 쓰지도 않으며 비웃기만 할 것이라고 확언한다. 그는 베잠에 거주하는 “이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은 현재 상태를 좋아한다”(the people who own this country, they like it just the way it is. 96)는 말로 그 시도가 가지는

무의미함을 드러낸다. 운전사가 한 말을 미루어보면, 베잠 사람들은 독재 체제의 부정부패가 그들의 부와 권력을 보장하고, 그 부와 권력을 위해 코사와 사람들 같은 가난한 사람들이 가진 자원을 강탈하는데 공모한 자들임은 명확하다. 이들은 앞서 파농이 언급한 대로 대통령을 자신들의 회장으로 취임시킨 부당 이득자들이다. 즉 국가 개혁에는 관심 없고, 이전 식민 세력이 남긴 자리를 차지하고, 그들과의 결탁과 타협을 통해 이익을 챙기는 “장사꾼의 사고방식을 가진 게걸스럽고 욕심 많고 다소 탐욕스러운 계층으로 볼 수 있는 이들”(a sort of little greedy caste, avid and voracious, with the mind of a huckster. Fanon, *The Wretched* 175)에 불과하다.

이러한 베잠 사람들의 타락과 부패는 툴라의 동생으로 공무원이 된 주바(Juba)의 이야기에서도 되풀이된다. 코사와의 학살을 목격하고 누나의 신념에 동의하던 주바도 부패한 전형적인 공무원으로 변해간다. 처음에 그는 북부에서 보크사이트, 서부에서 석유, 동부에서 목재가 나는 나라의 국민이 가난한 이유를 찾고자 한다. 그러나 곧 주바는 조국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좌절한 주바도 국가의 미래보다 개인의 미래를 위해 부정부패를 자행하는 공무원의 일원으로 추락한다. “단지 우리 것만 챙기는 거야. 우리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어”(we're only taking what's ours; we have the right to do so. 337)라는 아내 누비아(Nubia)의 주장처럼, 타락한 주바와 동료 공무원들은 국가 자원의 착복과 청탁의 대가를 자신의 정당한 몫이자 권리로 간주한다. 이러한 양태를 보이는 이들은 파농이 말한 것처럼 중산 계급에 속하는 저개발국가의 공무원이다. 경제력과 지도력을 겸비하지 못한 중산 계급이 권력과 이득을 위해 차지한 것이 국가 운영에 참여하는 직위이다. 사적 목적으로 국가 직위를 차지한 중산 계급은 필연적으로 국민경제를 파괴하고 경제구조를 엉망으로 만들고 독재 체제를 옹호한다(Fanon, *The Wretched* 178-81). 그래서 운전수의 말처럼, 베잠에는 대통령을 포함해서 선한 사람이 없다.

국가와 국민의 미래가 아닌 자신의 풍요로운 현재와 미래에 집착하기 때문에, 석유가 가져다준 돈이 중요할 뿐이다. 이들에겐 죽어가는 코사와 아이들과 사람들의 목숨은 관심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음뵈는 소설에서 제국주의와 식민화, 서구 강대국과 신식민화, 그리고 이와 환경 폭력의 연관성을 명확하게 제시하며, 식민 지배 시기부터 코사와에 일어난 환경 폭력에 관심을 두고 있음을 드러낸다. 아울러 그녀는 국제 식민주의자와 결탁한 토착 식민주의자인 부패한 독재자와 중산 계급이 환경 폭력을 지속시키는 공범임을 명확히 한다.

#### IV. 가난한 사람들의 저항과 자기 해방

닉슨은 신식민 체제의 환경 폭력에 노출된 남반구 저개발국가의 가난한 사람들이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인간”(disposable people. 71)으로 취급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소설의 코사와 사람들도 그러하다. 독재 정부나 펙스틴에게 이들은 자원 채굴로 인한 오염으로 언제 죽어도 상관없는 존재이자, 자원 채굴을 중단시키고자 항의나 저항할 경우, 언제나 죽일 수 있는 하찮은 존재에 불과하다. 즉 이들은 자본이나 권력이 이윤 추구 과정에서 파멸시킬 수 있는 “처분 가능성”(disposability. Nare et al 357)을 가진 존재, 그리고 “국가 구조 내에서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집단이나 ‘잉여’”(disposable elements, the ‘surplus’ in the state structures. Karmakar and Chetty 131)와 같은 존재로 무시된다. 소설은 죽음에 쉽게 노출된 아이들, 항의하기 위해 베잠으로 갔다가 주검조차 확인되지 않는 아버지 말라보(Malabo) 일행, 정부와 펙스틴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학살당한 마을 사람들, 비정상적인 재판으로 사형당한 삼촌 봉고 일행, 그리고 군인들의 진압으로 실종된 툴라와 같은 존재에서 이를 확인시켜 준다.

독재 정부와 펙스틴이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인간’으로서 코사와사

람들을 경시하는 태도는 그들을 자신들과 같은 동등한 인간으로 보지 않고, 소모할 수 있는 대상이나 물건처럼 다루어도 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독재 정부와 펙스턴의 인식은 주변부 소수 종족 집단을 불평등하고 정의롭지 못한 환경에 방치해도 된다는 차별의식을 가리키는 “환경 인종주의”(environmental racism, Xausa 199)임이 명백하다. 더욱이 생태 제국주의와 관련하여 국제 식민주의자와 토착 식민주의자로 드러난 이들의 행태를 볼 때, 환경 인종주의는 식민 지배의 정당화를 위해 동원된 인종주의의 연장으로 봐도 무방하다.

그러나 이런 취급에도 다수의 코사와 사람들은 무기력과 자포자기의 심정만 토로한다. “우리는 죽어가고 있었다. 우리는 어쩔 수가 없었다. 우리는 두려웠다”(We were dying. We were helpless. We were afraid. 3)와 같이 사람들은 펙스턴의 환경 폭력에 맞서 싸우기보다 탄식만 늘어놓는다. 또한 대통령의 부당한 처사와 폭력에도 마찬가지이다. 패배 의식과 공포에 짓눌려 “아주 오래전에 패배했다”(we'd long ago been defeated. 11)고 단정하며 항의나 저항을 주저한다. 그래서 『우리가』를 신식민 체제에서 희생자가 된 사람들이 보이는 무력감을 묘사한 작품으로 평가하기도 한다(Ehanire 116).

하지만 음벤투는 무기력과 패배 의식에 휩싸인 코사와 사람들만 보여주지 않는다. 음벤투가 언급한 것처럼 소설은 독재 정부와 펙스턴이라는 골리앗과 코사와 사람들이라는 다비드(David)의 싸움이 아닌 “골리앗 대 골리앗 싸움”(Goliath versus Goliath, Shea 41)으로 변화시키는 행위도 보여준다. 그 저항이 연이은 아이들의 죽음을 베잡의 지배 집단에 알리려 한 아버지 말라보와 친구 아버지들의 항의로 전개된다. 비록 이 항의가 비극으로 종결되지만, 툴라를 포함한 아이들의 마음속에 저항의 불씨를 남긴다.

두 번째 저항은 광인인 콩가(Konga)의 갑작스러운 외침으로 시작한다.<sup>8)</sup> 삼촌 봉고와 환경 오염으로 아이를 잃은 루사카(Lusaka) 등이 펙스

턴 대표단의 차량 열쇠를 빼앗고 그들을 감금한다. 코사와의 비극을 알리려는 이 저항행위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변화를 위한 새로운 사고를 불러일으킨다. 펙스턴과 맞선다면 다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희망과 “우리도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자”(Let us show them we're people, too. 2)는 결의가 소란 중에 등장한다. 하지만 이 저항은 정부의 무자비한 학살로 종결된다. 학살은 코사와의 비극을 미국 언론에 알렸기 때문이다. 단지 대통령의 위상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국민에게 비정상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사헬의 말처럼 이러한 “정부는 살아있는 영혼과 심장을 지닌 사람들로 만들어지지 않았다”(the government is not made of people with souls and hearts of flesh, 162)는 것은 분명하다. 정부 사람들은 단지 “우리의 피를 오일 머니로 바꾸는 과정”(the process of swapping our blood for oil money, 230)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다.

대상이나 물건처럼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인간’에서 펙스턴과 독재 정부를 주도하는 사람들과 다른 동등한 존재로 자신들을 인정하는 코사와 사람들의 자각은 중요하다. 코사와 사람들을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인간 혹은 대상으로 만들고 환경 오염으로 인한 비인간적 상황으로 몰아간 이들은 신식민 세력이다. 신식민 세력이 코사와 사람들을 이와 같은 존재로 규정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자원 강탈과 환경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함이다. 그들이 동등한 권리와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코사와 사람들을 인정했다면, 인간에 대한 인간의 착취와 폭력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동등한 인간으로서 요청은 신식민적 환경 폭력이 만든 세계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우리도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자”(2)에서 ‘우리’라는 코사와 사람들의

---

8) 음베는 무언가에 미친 사람이나 미친 생각이 세상을 바꿀 수 있으므로, 광인 롱가를 중요한 변화를 불러온 인물로 언급한다(Venugopal). 그래서 그를 소설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인물로 간주하기도 한다(Mwaga et al 164).

발화 종착지는 대적인 신식민 세력, 즉 팩스톤과 독재 정부이다. 여기서 ‘우리도 사람’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회용 인간, 권리와 존엄이 박탈당한 존재가 아니라는 자기 인정의 선언이다. 그리고 ‘보여주자’는 신식민 세력에게 우리를 동등한 인간으로 인정하고 환경 폭력으로 초래된 비극을 끝내라는 주체적 요구와 저항하겠다는 결단을 표명한 것이다. 이러한 주체의 자기 해방을 향한 각성과 주체적인 해결을 위한 저항과 결단은 자식 세대인 툴라와 친구들의 저항에서 더욱 강화되고 계획적인 저항과 투쟁 행위로 이어진다. 팩스톤에게 코사와의 항의와 저항이 끝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유전 시설 파괴 행위와 독재 정부의 압제를 끝내기 위해 도모한 해방의 날(Liberation Day) 추진도 우리가 “존엄하고 존중받을 권리”(right to dignity and respect. 281)을 가진 존재라고 인정하는 자기 해방의 관점에서 추진된다.

이런 점에서 코사와 사람들이 요구하는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인정은 파농이 말하는 자기 인정과 자기 해방과 연결 가능하다. 파농은 식민 세계에서 인간과 휴머니즘(humanism)은 인종 편견으로 오염된 개념임을 비판하며 “유색인의 자신으로부터의 해방”(liberation of the man of color from himself. *White Masks* 2)을 촉구한다. 여기서 ‘유색인 자신’은 비존재(not-being), 짐승, 반인간(half-human being), 사물로 격하된 존재이자 유럽 휴머니즘이 정의한 보편적 인간에서 일탈한 존재를 가리킨다. 이렇게 유색인을 비인간화시키는 의도는 분명하다. 그것은 코사와 사람들을 일회용 인간 혹은 언제든 폐기 처분 가능한 잉여로 간주한 신식민 세력의 의도처럼, 백인의 식민 지배를 통한 착취와 약탈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음흉한 의도로 고착된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흑인을 포함한 유색인은 백인이 날조한 정체성을 부정하고 진정한 정체성의 회복을 지향하는 자기 인정과 자기 해방을 추구해야 한다.

그래서 환경 폭력에 처한 코사와 사람들과 같은 ‘가난한 사람들’의 자기 인정과 해방의 필요성은 ‘대지의 저주받은 사람들’의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이해는 앞서 2장에서 거론한 것처럼, 아마티아와 도슨이 파농 사상을 참조하며 환경 폭력에 저항하는 새로운 소수 주체의 출현을 모색하자는 제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된다(12). 또한 이 시도는 웬젤이 파농의 새로운 휴머니즘(new humanism)의 취지에 공감하며 “기난한 사람들의 환경주의는 또한 기난한 사람들의 휴머니즘이다”(the environmentalism of the poor is also a humanism of the poor. “Turning” 166)라고 주장한 의도에 다가가는 탐색이 된다.

파농을 통해 『우리가』의 환경 폭력에 대한 저항의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 가능성은 이뿐만 아니다. 파농의 탈식민화를 위한 실천과 투쟁의 의의는 환경 폭력과 이를 주도한 독재 정부에 대한 툴라와 친구들, 툴라와 민중이 조직하는 저항과 투쟁에서 되풀이된다. 파농은 유색인의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인정과 해방은 순진한 선언과 요청, 그리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실현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특히 식민 체제가 굳건하고 강력한 폭력을 통해 유지된다면 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파농은 르 로베르(Le Robert) 농장의 흑인 노예가 동등한 인간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은 “투쟁하는 것”(to fight. *Black Skins* 174)임을 강조한다. 이 말은 흑인이 진정한 인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리고 자유로운 존재,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신을 종속시키고 억압하는 체제와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억압적 체제가 더욱 폭력적인 수단으로 더 끔찍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을 봉쇄하는 탈식민화 과정이 된다.

툴라가 신식민 세력과의 투쟁에서 친구들에게 권고한 말이 이러한 파농의 투쟁과 실천을 통한 진정한 인간으로의 인정과 해방을 위한 주장과 유사하다. 툴라는 코사와 학살을 미국 언론에 알린 기자이자 남자 친구인 오스틴(Austin)과의 대화를 친구에게 이야기하며 투쟁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대화의 힘으로 상호 이해와 새로운 시각이 형성될 수 있다는 오스틴의 순진함을 비판하며, 엄청난 적인 펙스틴과 독재 정부와 대결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심이 아니야. 투쟁이야”(What we need isn't patience. What we need to do is fight. 276)라고 결론내린다.

실천과 투쟁의 결단은 코사와 사람들과 독재 체제의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가 신식민 세력이 아니라 바로 자신임을 보여주는 의지이기도 하다. 투쟁은 무기력하고 종속적인 존재였던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자신의 정치적, 윤리적 운명을 선택하게 만든다. 투쟁을 통한 이러한 새로운 주체의 출현이 바로 “탈식민화는 새로운 인간의 진정한 창조이다”(Decolonization is the veritable creation of new men. *The Wretched* 36)라는 파농 주장의 핵심이다. 새로운 인간의 창조는 툴라가 해방의 날 운동을 조직하고 반정부 투쟁의 핵심을 친구들에게 설명할 때도 확인된다. 툴라는 “민중은 스스로 자유로워질 수 있어. 우리가 그들이 자신의 힘에 눈을 뜨도록 할 필요가 있어”(Only the people can free themselves. We need to open their eyes to their power. 278)라며 새로운 인간으로서 민중의 출현을 도모한다. 새로운 인간으로서 민중은 해방의 날 집회에서 등장한다. 이들은 자신의 정치적, 윤리적 운명을 스스로 선택한 결의의 외침을 들려준다. “민중에게 힘을”(Power to the people. 312)이라는 외침은 새로운 국가를 염원하는 새로운 인간의 출현을 말해준다.

새로운 국가의 출현은 “이 나라가 그의 소유물이 되었다”(this country became his property. 226)는 독재자가 독점한 신식민 국가가 아니라 “이 땅은 우리 땅이다”(This land is our land. 315)라는 외침처럼 모든 국민이 주권을 가진 국가의 완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가』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국가의 건설을 위한 반정부 운동의 원인이 또 다른 종속을 말하는 신식민 체제라면, 현 국가는 진정한 포스트식민 국가가 될 수 없다. 이런 국가는 탈식민화를 완결시키지 못한 반쪽 독립 국가에 불과하다. 이 점은 독재자가 지배하는 베잠의 정부가 독립의 약속을 저버린 정부이자, 빈곤과 차별의 극복을 소망한 민중을 배반한 국가임을 말해준다. 이처럼 음궤는

소설의 아프리카 가상 국가가 파농이 목격하고 경계했던 백인 지배자를 대체한 검은 억압자들이 아귀다툼을 벌이는 신식민 국가의 전형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톨라가 코사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펙스톤과 맞설 뿐만 아니라 정부와도 맞서야 한다고 제안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의 궁극적인 적은 펙스톤이 아니라 정부야”(our ultimate enemy is not Pexnton, it's our government. 277)라는 말은 펙스톤에 저항하지 말자는 제안이 아니라, 환경 폭력과 같은 비정상적인 문제를 초래하는 주범이 정부라는 판단을 담고 있다. 나아가 이 말은 신식민 체제와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진정한 포스트식민 국가의 완성이 환경 폭력과 같은 문제를 극복하는 최우선 과제라는 확신을 드러낸 것이다. 이 측면에서 남반구 저개발국가들의 가난한 사람들의 환경 문제의 해결에서 파농 사상을 고려하는 노력은 의미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전 파농과 관련한 톨라의 언급 중 “우리와 같은 상황에 부딪친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what people in our situation ought to do. 240)이 무엇인지 이제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것은 환경 폭력에 노출된 가난한 사람들의 자기 인정과 자기 해방, 그리고 미완의 탈식민화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이다.

## V. 나가며: 끝나지 않은 저항의 이야기

『우리가』는 해피 엔딩(happy ending)으로 끝나지 않는다. 톨라가 선거를 통해 독재 정부를 종식하고자 한 계획은 독재자의 탄압, 종족주의와 남성성의 편견으로 실패한다. 통합을 하찮은 관념으로 비난하는 종족 집단의 이기주의로 톨라가 촉발한 민중의 저항 목소리마저 하나가 되지 못한다. 결국 신식민 세력과 환경 폭력에서 벗어난 후 자유롭게 살다가 코사와에서 죽기를 소망한 친구들은 좌절한다. 그들은 펙스톤의 신임 소장과 부인

을 납치하며 항의하는 방식을 택하게 된다. 그 결과는 툴라와 자신들의 죽음이다. 신식민 세력은 군대를 동원한 학살로 툴라와 친구들이 주도한 저항을 진압한다.

하지만 툴라는 이러한 결말을 예견하고 있다. 친구들에게 코사와나 조국이 어둠을 헤치고 빛으로 나오는 날을 자신들이 못 보고 죽을지도 모른다고 토로한다. 그럼에도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신뢰하며 투쟁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신식민 세력을 몰아내는 투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으며, 많은 시간을 요구한다는 관점을 견지하며 친구들을 설득한다. 다음 세대가 변화를 위한 투쟁에 나서도록 씨앗을 심는 것이 자신들의 몫이라고 말한다. 툴라는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씨앗을 심었어. 씨앗은 틀림없이 싹을 틔우고 널리 퍼질 거야. 기다려야 해. 사람들이 깨어날 거야(We've planted seeds in minds, the seeds are bound to germinate and spread; we only need to be patient, people will awaken. 303)라는 말로 자신들의 투쟁이 실패가 아니라 시작임을 알린다.

또한 툴라가 자신들의 이야기가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도 미래의 투쟁을 기대하는 ‘씨앗’이 가지는 의미를 공유한다. 툴라는 본인의 이야기에 무관심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자신은 그런 삶을 원하지 않는다고 고백한다(271). 비록 투쟁이 실패하더라도, 그녀는 펙스톤이 오기 전 아름답던 시절의 코사와 이야기, 그리고 펙스톤과 독재 정부가 앗아간 것을 다음 세대에 돌려주고자 했던 투쟁의 이야기를 지켜가고자 한다. 이 바램의 함의는 코사와 여성들이 부른 ‘세 마리 조그만 물고기’(the three little fishes)라는 노래에서도 등장한다. “이 이야기는 꼭 전해줘야 해. 모두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닐지라도”(This story must be told, it might not feel good to all ears. 본문 이탤릭체. 138)라는 가사를 가진 노래는 원래 괴물에게 잡아먹혔지만, 간신히 탈출한 물고기에 관한 이야기이다. 하지만 환경 문제로 고통받는 코사와의 실태를 조사하러 온 미국 복원 운동 단체 사람들에게 들려준 노래라는 점에서 의도는 명백하

다. 은폐되거나 왜곡된 환경 폭력이 낳은 비극을 외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틀라의 소망과 세 마리 물고기 노래는 투쟁의 ‘씨앗’이다. 씨앗처럼 이야기가 커지고 퍼져나갈 때 진실이 알려지고, 잘못을 비판하고 변화를 요구하는 투쟁의 목소리가 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틀라와 마을 여성들의 소망이 저자 음베헤의 소망일 것이다. 환경 폭력으로 고통받는 아프리카 저개발국가의 문제를 소설에 담은 것은 현실에서 벌어졌던 혹은 벌어지고 있는 비극을 널리 알리고, 또한 그 비극을 해결하는데 많은 사람이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신진 소설가이지만, 음베헤는 닉슨이 말한 작가-활동가의 역할을 자기 방식대로 이행하고 있는 작가라고 볼 수 있다.<sup>9)</sup> 그녀는 느린 폭력의 비가시성과 이것으로 더욱 고통받는 가난한 사람들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 삶을 소설로 그려내며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만들고 있다. 따라서 음베헤와 『우리가』는 이러한 환경 폭력을 가시화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환경주의에서 높이 평가할 만한 작가와 작품으로 간주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는 환경 폭력을 전지구적 차원에서 고민하게 만드는 시각을 제시하고, 환경 폭력을 극복하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이 요구되는지를 권고하는 소설이기에 의미 있는 작품임이 틀림없다. 즉 『우리가』는 제국주의, 식민주의와 신식민주의와 같은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자원 개발과 환경 폭력을 검토하는 것이 무슨 이유로 필요한지를 보여주며, 기존 환경주의의 단면적 접근을 극복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작품으로 의의가 있다. 그리고 환경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의 주체적 실천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우리가』는 폭로에만 그치는

---

9) 닉슨은 대표적인 작가-활동가로 사로-위와를 포함해 인도의 아룬다티 로이(Arundhati Roy), 케냐의 왕가리 마타이(Wangari Maathai),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나딘 고디머(Nadine Gordimer), 사우디아라비아의 압델라흐만 무니프(Abdulrahman Munif) 등을 언급하며 이들의 글쓰기와 저항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5).

작품이 아니라 적극적인 실천을 강조하는 소설로 주목받을 가치가 있다.

(부산대학교)

## ■ 주제어

임βολ로 음베크,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환경 폭력, 가난한 사람들의 환경주의, 원유 채굴, 신식민주의, 제국주의

■ 인용문헌

- Amatya, Alok and Ashley Dawson. "Literature in an Age of Extraction: An Introduction." *Modern Fiction Studies* 66.1 (2020): 1-19.
- Apte, Poornima. "How Beautiful We Were." *Booklist*, vol. 116, no. 17, Jan. 2000, pp. 20-21.
- Bartels, Anke, Lars Eckstein, Nicole Waller and Dirik Wiemann. *Postcolonial Literature in English*. Stuttgart: J. B. Metzler, 2019.
- Biana, Teresia Muthoni, Selline A. Oketch and Caroline Kinuu Kimathi. "A Voice of Resistance and Activism: A Critique of Imbolo Mbue's *How Beautiful We Were*." *Af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10.3 (2022): 312-320.
- Doll, Jen. "Going Global." *Publishers Weekly*, vol. 267, no. 14, Jun. 2020, pp. 48-49.
- Ehanire, Bebedicta Adela. "The Weapons of Subjugation in Imbolo Mbue's *How Beautiful We Were*." *ALT 40: African Literature Coming of Age*. Ed. Rnerst N. Emenyonu. Woodbridge: James Currey, 2022. 107-118.
- Fanon, Frantz. *Black Skin, White Masks*. Trans. Charles Lam Markmann. London: Pluto, 1986.
- \_\_\_\_\_. *The Wretched of the Earth*. Trans. Constance Farrington. New York: Grove, 1963.
- Gasztold, Brygida. "Environmental Neocolonialism and the Quest for Social Justice in Imbolo Mbue's *How Beautiful We Were*." *Text Matters* 12 (2022): 195-210.
- Ivry, Henry. "Insurgency, History, and Infrastructure in Namwali

- Serpell's *The Old Drift* and Imbolo Mbue's *How Beautiful We Were*.” *Contemporary Literature* 64.2 (2024): 149–181.
- Karmakar, Goutam and Rajendra Chetty. “Extraction and Environmental Injustices: (De)colonial Practices in Imbolo Mbue's *How Beautiful We Were*.” *eTropic* 22.2 (2023): 125–147.
- Kline, Christina Baker. “Imbolo Mbue.” *Poets & Writers*, vol. 44, no. 4, Jul/Aug. 2016, pp. 37–38.
- Mbue, Imbolo. *How Beautiful We Were*. Edinburgh: Canongate Books, 2022.
- Mwaga, Robert, Stephen Mutie and Murimi Gaita. “Dramatization of Agency and Ecological Consciousness in *How Beautiful We Were* by Imbolo Mbue and *Oil on Water* by Hellon Habila.” *East African Journal of Arts and Social Sciences* 7.1 (2024): 163–174.
- Nare, Motsusi, Peter Moopi, and Oliver Nyambi. “Global Coloniality and Ecological Injustice in Imbolo Mbue's *How Beautiful We Were*.” *Journal of Black Studies* 55.4 (2024): 349–372.
- Nixon, Rob. *Slow Violence and the Environmentalism of the Poor*. Boston: Harvard UP, 2011.
- Shea, Renée H. “What We Ought to Do: The Song of Imbolo Mbue.” *Poets & Writers*, vol. 49, no. 2, Mar/Apr. 2021, pp. 36–41.
- Venugopal, Arun. “Author Imbolo Mbue Explores The Politics Of Oil in *How Beautiful We Were*.” *Fresh Air*. 29 April. 2021. Retrived, 20 Aug. 2023. <<https://www.npr.org/2021/04/29/991956171/author-imbolo-mbue-explores-the-politics-of-oil-in-how-beautiful-we-were>>
- Wenzel, Jennifer. “Reading Fanon Reading Nature.” *What Postcolonial*

*Theory Doesn't Say*. Eds. Anna Bernard, Ziad Elmarsafy, and Stuart Murray. New York: Routledge, 2016. 185-201.

\_\_\_\_\_. "Turning over a New Leaf: Fanonian Humanism and Environmental Justice." *The Routledge Companion to the Environmental Humanities*. Eds. Ursula Heise, Jon Christensen, and Michelle Niemann. New York: Routledge, 2017. 165-173.

Werman, Marco. "West African Villagers take on an American Oil Giant in a New Novel by Imbolo Mbue." *The World*, 8 March, 2021. Retrived. 20 Aug. 2023. <<https://theworld.org/stories/2021/03/08/west-african-villagers-take-american-oil-giant-new-novel-imbolu-mbue>>

Xausa, Chiara. "From This Love We'll Demand Our Rights, and We Shall Win': A Postcolonial Ecocritical Reading of Imbolo Mbue's *How Beautiful We Were*." *Il Tolomeo* 25 (2023): 197-212.



■ Abstract

**Neocolonial Environmental Violence and  
Resistance of the Poor in Imbolo Mbue's *How  
Beautiful We Were***

Ha, Sangbok  
(Pusan National Univ.)

Drawing on Rob Nixon's perspective, which synthesizes discussions of environmentalism and postcolonialism, and Frantz Fanon's theories on decolonization in the Global South, this paper scrutinizes the environmental issues stemming from oil extraction in Imbolo Mbue's novel, *How Beautiful We Were*. To achieve this, the paper first delineates the severity of environmental violence in the fictional African village of Kosawa, focusing on two dimensions: the slow violence inflicted on the environment and its inhabitants by oil extraction, and the slow violence related to the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s surrounding oil development. The analysis further posits that this profound environmental violence has its roots in the colonial era and has been exacerbated by the neocolonial system after independence. To elucidate the persistent nature of environmental violence, the paper examines the underlying factors, emphasizing the role of indigenous dictators and the middle class, who, in collusion with international colonialists, act as primary agents perpetuating this violence. Additionally, the paper explores the evolution of the Kosawa

people into proactive agents of resistance against environmental violence. In conclusion, the paper asserts that the resistance of the Kosawa people, emblematic of the victims of environmental violence in Africa, represents not a defeat but a foundational step towards a new beginning.

### ■ Key words

Imbolo Mbue, *How Beautiful We Were*, environmental violence, environmentalism of the poor, oil extraction, neocolonialism, imperialism

### ■ 논문게재일

○투고일: 2024년 7월 31일 ○심사일: 2024년 8월 12일 ○게재일: 2024년 8월 13일

# 『영어권문화연구』 발간 규정

## 제1조 (학술지 발간의 목적과 성격)

- (1) 동국대 영어권문화연구소(이하 '연구소'라 칭함)는 영어권 문화와 문학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학자들의 연구활동과 정보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학술지 『영어권문화연구』(*The Journal of English Cultural Studies*)를 발간한다.
- (2) 본 학술지는 영어권문화연구와 관련된 논문들을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의 내용은 영어권의 인문, 철학, 문학, 문화 연구나 학제적 연구의 범위 안에 포괄될 수 있는 독창적인 것이거나 그러한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제2조 (학술지 발간 일정)

- (1) [학술지 발간] 학술지는 매년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 연 3회 발간한다.
- (2) [원고 접수와 심사] 원고는 수시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기고자에게 게재 희망호를 명시하도록 요구한다. 논문 접수 마감은 1권은 2월 28일, 2권은 6월 30일, 그리고 3권은 10월 31일로 하고 이때까지 접수된 논문에 대해 해당호 게재 여부를 위한 심사를 진행한다. 기한보다 늦게 투고된 논문들에 대해서는 편집회의를 통해 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투고 및 심사일정은 다음의 표와 같다. 투고 및 심사 일정에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편집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 제3조 (학술지의 발간규정에 대한 심의 및 제/개정)

- (1) 학술지의 발간규정에 대한 심의 및 제/개정은 편집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편집위원회에서 확정하고 편집위원장이 이사회에 보고한다.

## **부 칙**

본 규정은 2010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영어권문화연구』 편집위원회 운영 및 심사 규정

## 제1조 (편집위원회의 설치목적과 구성)

- (1)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영어권문화연구』의 편집과 출판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에 수록될 논문의 심사 및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수행한다.
- (3)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들로 구성한다.
- (4) 편집위원장은 연구소 운영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 (5)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편집위원 중에서 편집 간사를 선임할 수 있다.
- (6) 편집위원회는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 (7) 편집위원은 학문적인 조예가 깊고, 연구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회원 중에서 전문성, 대내외적 인지도, 경력사항, 연구실적, 연구소기여도, 지역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8) 편집위원은 연구실적이 우수한 상임이사나 회원 가운데서 추천을 받아 이사회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 (9) 편집위원회의 임기는 최소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10) 편집위원회는 연구소에서 추진하는 기타 출판 사업과 관련하여 연구소이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지원하도록 한다.
- (11) 편집위원은 전공 영역을 고려하여 투고 논문을 세부 전공에 맞게 심사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고루 선정한다.

## 제2조 (편집위원회 구성원의 임무)

- (1) 편집위원장은 『영어권문화연구』의 편집과 출판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총괄 조정하고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한다. 또한, 학술지와

관련하여 제반 대외 업무를 수행한다.

- (2) 편집위원장은 학술지의 편집 및 출판회의를 주관하고, 원고를 두고 받아 관리하며, 심사를 진행한다. 편집회의에 투고된 원고를 보고하면서 각 논문마다 전공분야에 맞는 심사위원을 추천받아, 해당 논문에 대한 3인 이상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규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고 관리한다.
- (3)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편집회의에서 논문심사위원을 추천하고 위임받은 논문에 대한 심사를 수행한다.
- (4)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연 2회 이상 학술지의 편집방향과 특성에 대해 협의한다. 특히 특집호를 기획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전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예정 발행일 8개월 전까지 편집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소의 이사회에 보고한다.

### 제3조 (원고 접수, 논문 심사, 사후 관리)

- (1) [접수 및 관리] 원고는 공정한 투고 시스템을 사용해 모집한다. 투고된 원고의 접수 및 심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과 절차는 편집위원장이 총괄한다.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원고마다 투고자의 인적 사항, 논문 투고 및 심사 현황, 출판 등 사후 관리를 일람할 수 있는 원고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 (2) [심사 송부] 논문의 심사는 심사의 합리성, 투명성, 공정성을 위해 투고자와 심사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지 않고(blind test) 인비로 진행한다. 편집위원장은 접수한 논문의 저자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삭제한 후 심사 위원회에 송부한다.
- (3) [심사위원 위촉] 각 논문의 심사위원은 그 논문에 적합한 전공분야 3인의 편집위원으로 연구 기여도, 심사경력 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의 편집회의에서 선정하여 위촉한다. (편집위원 중에 해당분야 책임자가 없을 시에는 다른 회원에게 심사를 위촉할 수 있다.)

(4) [심사 일정] 심사위원은 심사를 위촉받은 후 2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심사결과서와 함께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

(5) [심사 기준] 논문심사는 1) 논문 주제의 창의성, 2) 논문 주제의 시의성, 3) 논지의 명확성 및 일관성, 4) 논리적 논지 전개, 5) 논문의 가독성, 6) 학문적 기여도와 같은 논문의 질적 심사와 7) 논문 형식의 적합성, 8) 인용문헌의 적합성 및 정확성, 9) 논문 초록의 적절성, 10) 논문 작성법(MLA) 준수 등과 같은 형식 평가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심사자는 평가결과를 연구소의 심사결과서 양식에 따라 서술식으로 평가하고 종합평가 결과를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중 택일하여 판정한 후 논문심사결과서를 편집위원회로 송부한다. ‘게재 가’ 판정이 아닐 경우 그 이유나 수정-보완 지시 및 게재 불가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도록 한다.

(6) [게재 판정] 논문의 게재여부는 해당 분야에 학문적 조예가 깊은 전공자 3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심사위원 2인 이상이 ‘게재가’ 혹은 ‘수정 후 게재’로 평한 논문만을 원칙적으로 게재 대상으로 한다. 각 논문에 대해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게재 불가’로 판정하면 그 논문은 해당호에 게재할 수 없다. 그 구체적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게재 가: 논문 심사 결과 편집위원(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의 “게재 가” 판정이 나왔을 경우.

나) 수정 후 게재: 사소한 문제점들이 있어 약간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로서,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이 “수정 후 게재” 혹은 그 보다 상위의 종합평가결과로 판정하는 경우.

다) 수정 후 재심사: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많아 대폭적인 수정을 한 후에 재심사가 요구되는 경우로서,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이 “수정 후 재심사” 혹은 그보다 하위의 종합평가 결과로 판정하는 경우.

라) 게재 불가: 논문 심사 결과 편집위원(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의 “게재 불가” 판정이 나왔을 경우.

- (7) [심사 결정 및 보고]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 3인의 논문심사 보고가 완료되면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편집위원장은 해당 논문에 대한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투고자에게 통지하며, 이때 심사위원 3인의 심사평 사본을 심사자 인적 사항을 삭제한 후 첨부한다.
- (8) [논문 수정 및 재심사] 심사위원이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한 때는 수정해야 할 사항을 상세히 적어 논문 필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빠른 시일 내에 수정 보완 혹은 재심을 위해 다시 제출하도록 한다. 재심사는 1차 심사 위원 1인이 참여하고 2인의 신규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진행한다. 재심사의 경우 심사위원 2인 이상이 ‘수정 후 재심’이나 ‘게재 불가’로 판정하면 그 논문은 해당 호에 게재할 수 없다.
- (9) [심사결과 통보] 접수된 모든 논문은 연구소 일정에 따라 40일 이내에 필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필자에게 유선이나 전자우편으로 게재 확정을 통보하고, 논문의 집필자가 학술지 발행 전에 <논문 게재 예정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편집위원장은 이 증명서를 발급한다.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집필자에게 <게재 불가 통지서>를 발송한다. ‘수정 후 게재’나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받은 논문은 편집위원(심사위원)의 심사평과 함께 수정 후 다시 제출할 일시를 적시하여 수정제의서를 발송한다.
- (10)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논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에게서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5일 이내에 서면 혹은 전자메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논문 제출자의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편집위원회는 해당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요청하고, 해당 심사위원은 5일 이내에 재심사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단,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투고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편집위원회 2/3이상의



동의를 얻는 논문에 한해 재심을 진행한다.

- (11) [수정제의 수용원칙] 논문 집필자는 편집위원회의 수정제의가 있을 경우 이를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정제의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반론문을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편집위원장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수정제의를 수용하지 않고 재심요구도 없는 경우와 답변이 없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해당 논문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 부 칙

본 규정은 2010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2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영어권문화연구』 편집 및 교정 기준

## 1. 논문의 구성

- (1) 제목 : 제목은 논문보다 큰 글자(14 포인트)를 사용하고 부제목 (12 포인트)이 있는 경우에는 주제목 다음에 콜론을 찍고 부제목을 쓴다.  
작품제목은 영어로 쓴다.

예: 브라이언 프리엘의 휴머니티 이념: Translations를 중심으로

### (2) 논문의 소제목

로마 숫자를 원칙으로 하고, 다음의 방법으로 표기한다.

- 서론부분: I. 서론 (영문논문의 경우, I. Introduction)
- 본론부분: II, III, IV... (구체적 소제목 명기는 저자의 필요에 따른다)
- 결론부분: V. 결론 (영문논문의 경우, V. Conclusion)

### (3) 필자이름

- ▶ 논문 서두 우측 상단에 위치. 한글 성명을 쓴다.

예 : 홍길동

- ▶ 논문 본문 마지막, 주제어 전에 소속 학교 명칭을 넣는다.

예 : 동국대

- ▶ Abstract 경우에는 영문 성명 아래 영문 학교 명칭을 쓴다.

예 : Hong, Kil Dong (or Kil-Dong)

(HanKuk University)

- ▶ 영문 성명은 Hong, Kil Dong으로 한다.

- ▶ 공동필자의 경우: 맨 앞에 위치한 필자가 제1필자이고, 그 다음의 공동필자는 가나다 순 (영어 이름의 경우 알파벳순)으로 기재한다.

(4) 참고 / 인용 문헌(References / Works Cited)

본문이 끝난 뒤 반드시 인용 문헌(11 포인트)이라는 제목 하에 참고 및 인용 자료의 서지사항을 열거하고 인용 문헌이 끝나면 200 단어 내외의 영문 요약을 붙인다.

(5) 영문 요약

논문제목(14 포인트)은 영어로 쓴다. 제목 1줄 밑 오른쪽 끝에는 필자의 영문이름을 쓴다.

예: Myth-seeking Journey in Brian Friel

Hong, Gil Dong

(Dongguk University)

The theme of rebirth in Brian Friel is well expounded in many aspects : . . .

Its main objective is. . . .

(6) 주제어

본문이 끝나면 2줄을 띄고, 한글 논문인 경우 “주제어”를 제목으로 하여 5개 이상의 주제어를 한글로 명기한다. 그리고, 영문초록이 끝나고 “Key Words”를 제목으로 하여 5개 이상의 주제어를 영어로 기입한다. 영어 논문의 경우 “Key Words”를 제목으로 하여 5개 이상의 주제어를 영어로 기입한다.

(7) 본문

본문의 글자 크기는 10 포인트로 하되 줄 사이의 간격 비율은 160으로 한다.

## 2. 한글 논문에서의 외국어 사용

- 고유명사의 경우 작품명은 우리말로 번역하고 인명은 우리말로 옮겨 적되 교육인적자원부 제정 외국어 발음 규정을 따른다.
- 처음 나오는 모든 외국어는 괄호 속에 원어를 제시하되, 두 번째 부터는 원어제시가 필요 없다. 작품명과 번역된 저서명은 처음에 번역한 제목을 『』 안에 쓰고 이어서 ( ) 안에 원어 제목을 병기하고, 그 다음에는 번역된 제목만 쓴다. 한글 논문 제목은 「」 안에 쓴다.

예: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A Streetcar Named Desire)

## 3. 강조와 들여쓰기 (Indentation)

- (1) 본문 중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방점 혹 밑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 ’ 안에 쓰며, 인용문 중 강조 부분은 원저자의 명기에 따르고, 논문 필자의 강조는 이탤릭체로 쓰며 인용문 끝 출처 표시 다음에 한 칸을 띄고 (원문 강조) 혹은 (필자 강조)를 명시한다.

- (2) 모든 새로운 문단은 두 글자만큼(타자 철자 5칸) 들여쓰기를 한다.

## 4. 인용 및 출처 밝히기

모든 인용문은 한글로 번역하고 바로 뒤의 괄호 안에 원문을 덧붙인다.

- (1) 직접인용의 경우

- 한글로 된 번역본에서 인용할 경우에는 “ ” 안에 인용문을 쓰고 이어서 ( )안에 출처를 밝히고 괄호 밖에 마침표를 찍는다.

예: 레이몬드 윌리엄즈(Raymond Williams)도 말하듯이, “주인공은

죽지만 비극의 종말은 항상 삶의 가치를 더욱 확인시켜 준다”(55-56).

- 외국어 원본에서 인용할 경우 “ ” 안에 한글로 번역된 인용문을 쓰고 이어서 ( )안에 원문을 쓴 후에 적절한 문장부호를 사용하고 출처를 밝힌다.

예: “역설적으로, 오늘의 등장인물들은 저급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는 열정을 통해서 자신들의 위대함을 구축한다”

(Paradoxically, O'Neill's characters achieve their greatness through passions that might be thought of as base. 428- 29).

예: “어제의 고통”(yesterday's pain, 471)

- (2) 간접인용의 경우 출처는 문장의 마지막에 칸을 띄우지 않고 바로 이어서 ( )안에 쪽수를 밝히고 괄호 다음에 마침표를 찍는다.

예: 레이먼드 윌리엄즈(Raymond Williams)도 말하듯이 주인공은 죽지만 비극의 종말은 항상 삶의 가치를 더욱 확인시켜 준다고 할 수 있다(55-56).

### (3) 독립인용문

- 두 줄 이상의 인용의 경우 독립인용을 원칙으로 하며 이 때 독립인용문의 위쪽과 아래쪽은 한 줄씩 비워 놓는다. 독립인용문의 첫 줄은 어느 경우에도 들여쓰기를 하지 않으나 두 개 이상의 연속된 문단을 인용할 경우 두 번째 문단부터 들여쓴다. 또한 독립인용문은 본문보다 작은 9 포인트의 글자를 사용하고 전체적으로 좌우를 5칸 정도 본문보다 들어가게 한다.

- 괄호를 사용하여 독립인용문의 출처를 밝힌다. 본문 중 인용과 달리 인용문 다음에 마침표를 찍고 한 칸 띄 다음 괄호를 시작한다.

예: 길을 가다 영희를 만났다고 그가 말했다. (15)

(4) 인용문중 논문 필자의 첨삭

- 인용문의 중간부분을 논문필자가 생략할 경우 마침표 세 개를 한 칸 씩 띄운다.

예: 길을 가다... 만났다고 그가 말했다.

길을 가다 영희를 만났다... (뒤를 완전히 생략하는 경우에)

- 인용문의 대명사나 논문의 맥락에 맞춰 의미를 논문 필자가 지칭하여 밝힐 때 대명사나 어구 다음 []안에 쓴다.

예: In his [John F. Kennedy's] address, "new frontier" means...

(5) 구두점과 인용문

- 따옴표와 함께 마침표(또는 쉼표)를 사용할 때 마침표(또는 쉼표)는 따옴표 안에 오는 것이 원칙이지만 출처를 병기하여 밝힐 때는 '출처 밝히기' 원칙에 먼저 따른다.

예: 인호는 "영어," "불어"에 능통하다고 "철수가 주장했다."

레이몬드 윌리엄즈(Raymond Williams)도 말하듯이 "주인공은 죽지만 비극의 종말은 항상 삶의 가치를 더욱 확인시켜 준다" (55-56).

**5. 영문원고 및 영문요약을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의 교정을 받은 후 제출한다.**

**6. 서지 사항**

- (1) 인용 문헌이라는 제목 하에 밝히되 모든 출전은 저자 항목, 서명 항목, 출판 배경 항목, 쪽수 항목 등의 순서로 적는다. 그리고 항목 내의 세부 사항은 MLA 최신판의 규정을 따른다.

- (2) 단 한국어로 번역된 외국 문헌을 명기할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 저자 항목: 원저자의 한국어 발음 이름 중 성, 성표, 이름 순으로 기재한다.
  - 번역자 항목: 번역자 이름을 쓰고 “역”을 붙인다.
  - 서명 항목: 번역된 책 명을 겹낫표 안에 쓰고 괄호 안에 원서 명을 이탤릭체로 쓴다.
  - 출판 배경 항목: 번역서의 출판 도시, 출판사, 출판 연도 순으로 쓴다.  
예: 윌리엄스, 레이몬드. 이일환 역. 『이념과 문학』(Marxism and Literature).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2.
- (3) 하나의 문헌에 관한 서지항목의 길이가 길어서 한 줄 이상이 될 때 두 번째 줄부터 6칸 들여 쓰도록 한다.
- 예: Lewis, C. S. “View Point: C. S. Lewis.” Twentieth Century Interpretations of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 Ed. Denton Fox.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68. 110- 22.
- (4) 외국문헌 서지목록에 국내문헌도 함께 포함시킬 때는 국내문헌을 가나다 순에 의해 먼저 열거한 다음 외국문헌을 알파벳 순으로 열거한다.
- (5) 외국대학 출판사의 경우 University는 U로 Press는 P로 줄여쓴다. 외국 출판사의 경우 Publishers, Press, and Co., 등의 약호는 모두 생략하고 하나의 머리 이름만 쓴다.
- 예: Harper, Norton, Houghton, Routledge 등.  
예외로 Random House로 표기한다.
- (6) 같은 저자의 2개 이상 출판물을 명기할 때는 두 번째부터 저자이름은 다섯칸의 밑줄로 처리한다. (\_\_\_\_.)

- (7) 공동저자의 경우, 맨 앞에 위치한 저자가 제1 저자이고, 그 다음의 공동 저자는 가나다 순 (영어 이름의 경우 알파벳 순)으로 기재한다.
  
- (8) 기타 상세한 논문 작성법은 MLA 최신판을 따르고 그 기준을 한국어 논문 작성법에 응용하도록 한다.



## 『영어권문화연구』 투고 규정

1. [학술지 발간] 매년 4월 30일, 8월 31, 12월 31일 연 3회 발행하며, 한글 논문은 앞부분에 외국어 논문은 뒷부분에 게재한다.
2. [원고 제출시한] 1권은 2월 28일, 2권은 6월 30일, 그리고 3권 10월 31일 까지 편집위원장에게 투고 예정논문을 제출한다.
3. [논문의 내용] 투고 논문의 내용은 영어권의 인문, 철학, 문학, 번역, 문화 연구나 학제적 연구의 범위 안에 포함될 수 있는 독창적인 것이거나 그러한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기고 자격] 논문투고 자격은 원칙적으로 영어권문화연구에 관심 있는 대학원 박사과정 이상의 전공자나 연구자로 한다. 다만 석사과정생의 경우는 지도교수의 추천과 연구소장의 결정을 필요로 한다.
5. [원고 작성 및 기고 요령] 『영어권문화연구』 원고 작성 및 기고 요령을 따른다.
6. [편집요령] 『영어권문화연구』 편집 및 교정 기준에 따른다.
7. [심사기준] 『영어권문화연구』 발간 및 편집위원회 운영 규정 제4항 (원고 접수, 논문 심사, 사후 관리)을 적용한다.
8. [논문 게재료] 논문 게재 시 연구비를 지원 받은 논문은 30만원, 전임 논문은 20만원, 비전임 논문은 10만원을 논문 게재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9. [저작권 소유] 논문을 포함하여 출판된 원고의 저작권은 영어권문화연구소가 소유한다.
12. [규정의 개폐 및 수정] 본 규정의 개폐 및 수정은 편집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사회에서 개폐 및 수정을 의결한다.

## 『영어권문화연구』 원고 작성 및 기고 요령

『영어권문화연구』에 기고하는 논문은 아래의 원고 작성요령을 따라야 한다.

1. 논문은 제목을 포함하여 우리말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글로 된 논문은 본문에 한자와 영문 등을 쓰지 않기로 하되, 꼭 필요한 경우 괄호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외국어로 쓰는 경우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언어를 사용한다.
2. 외국어 고유명사는 한글로 표기하되, 처음 나올 때 괄호 속에 원어 표기를 제시한다. 작품명은 한글로 번역하되, 처음 나올 때 괄호 속에 원어 표기를 제시한다. 인용문은 번역하되, 필요에 따라 원문을 괄호 속에 병기한다. 운문의 경우에는 원문을 번역문 바로 아래에 제시한다. (인명이나 지명의 경우 해당 언어권의 발음을 존중하되, 결정이 어려울 때는 교육부 제정 외국어 발음 규정을 따르기로 한다.)
3. 각주는 연구비 관련 내용 및 재인용 사실을 밝히거나 본문 내용의 필수적인 부연 정보를 위해서 간략히 사용하고, 인용문헌의 명시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4. 미주는 가능한 사용하지 않는다. 실용논문의 경우 조사 및 실험 내용을 미주의 부록으로 첨부할 수 있다.
5. 컴퓨터를 사용하여 논문을 작성하되, 우리말 논문은 45자×450행, 영문 논문은 70자×500행(출판지면 약 20쪽) 내외로 한다. 논문의 작성은 가능하면 <아래한글> 프로그램(hwp)으로 하고, 문단 모양, 글자 모양 및 크기 등은 기본양식으로 한다.
6. 직접, 간접 인용 부분의 마지막 구두점이 마침표의 경우에는 출처 표기 원칙을 적용 받아(따옴표 다음의) 괄호에 이어서 표기한다.

7. 국내 서적이나 논문을 인용하는 경우 본문 중에 괄호를 이용하여 미국현대어문학회(MLA) 『지침서』(MLA Handbook for Writers of Research Papers)의 규정에 따라 저자와 쪽수를 명시하고, 논문 말미에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인용문헌(Works Cited)으로 밝힌다.
  - 필자(또는 저자). 「논문제목」. 『책 이름』. 편자. 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
  - 영문문헌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하고 책 이름은 이탤릭체로 한다.
  - 필자(또는 저자). 「논문제목」. 책 이름. 편자. 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
8. 국내문헌과 외국문헌을 함께 인용문헌으로 처리하는 경우, 국내문헌을 ‘가나다’ 순에 의해 먼저 열거한 다음, 외국문헌은 ‘ABC’ 순으로 열거한다. 인용문헌은 본문 중에 직접, 간접 인용된 문헌만을 명시하고 참고(references)로만 연구에 사용된 문헌은 (피)인용지수(impact factor)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명기하지 않는다.
9. 기타 논문 작성법의 세부 사항은 미국현대어문학회(MLA)의 『지침서』(MLA Handbook for Writers of Research Papers) 최근판 규정을 따르며, 한글 논문의 경우에도 미국현대어문학회 『지침서』의 세부 사항을 응용하여 따른다.
10. 심사의 공정을 위하여 필자의 이름과 대학 이름을 논문에 표기하지 아니하고, 본문에 필자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원고 제출시 필자의 신원은 ‘논문게재 신청서’에 적어서 제출한다.
11. 원고는 편집위원장 혹은 편집간사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3부의 인쇄본을 동시에 우송한다. 제출할 때, 다음의 기본사항을 명시한 표지를 붙이고, 원고(영문요약 포함)에는 일체 필자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말아야 한다. 게재 확정 이후 출판 교정 시에 필요에 따라 인적 사항을 첨부한다.
  - 논문 제목 (한글 및 영문)

- 필자 이름 (한글 및 영문) 및 필자 정보
  - 공동 연구의 경우 제1저자 및 교신저자가 있을 때 명시
  - 필자 소속단체(학교)명(한글 및 영문)
  - 필자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이동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게재 희망호
12. 모든 논문의 말미에 5개 내외의 어구로 주제어를 명시한다. 한글논문의 경우 논문 말미에 2줄 띄고 “주제어”를 제목으로 한글 주제어를 한글로 명기하고, 영문초록 말미에 2줄 띄고 “Key Words”를 제목으로 하여 5개 내외의 주제어를 영문으로 제시한다. 영어논문의 경우 논문과 영문요약 말미에 2줄 띄고 “Key Words”를 제목으로 하여 5개 내외의 주제어를 영어로 명기한다.
13. 모든 논문 뒤에는 20행 내외의 영문요약을 붙인다.
14. 원고는 접수 순서에 의해 편집위원회에서 각 논문의 심사위원회를 위촉하여 심사하고 게재여부는 원칙적으로 편집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원고 접수, 논문 심사, 사후 관리)에 의거하여 결정한다.
15. 편집위원회는 논문을 포함한 원고 필자에게 출판 최종 송고 이전에 논문 형식과 맞춤법에 대한 교정을 의뢰할 수 있고, 의뢰받은 논문의 경우 최종 교정 및 편집의 책임은 필자에게 있다.

## 원고작성 세부 지침

1. 용지규격: A4

2. 용지여백: 위 쪽: 56.00 mm                      머리말: 10.00 mm

왼 쪽: 49.99 mm    오른쪽: 49.99 mm

아래쪽: 60.00 mm    꼬리말: 0.00 mm

3. 아래의 사항은 편집 메뉴 중 “모양 → 스타일”을 이용하여 정하시오.

구 분	정렬 방식	행간	왼쪽 여백	오른쪽 여백	들여 쓰기	글자 크기	글자 장평	글자 간격	글자모양
논문제목	가운데	160%	0글자	0글자	0글자	14pt	90%	0%	한글: HY신명조 영문: Times New Roman 한자: HY신명조
부-소제목	가운데	160%	0글자	0글자	0글자	12pt			
필자명	오른쪽	160%	0글자	0글자	0글자	10pt			
본문/바탕글	혼합	160%	0글자	0글자	2글자	10pt			
인용문	혼합	150%	2글자	0글자	2글자	9pt			
각주	혼합	130%	0글자	0글자	2글자	9pt			
머리말-홀수	오른쪽	150%	0글자	0글자	0글자	9pt			
머리말-짝수	왼쪽	150%	0글자	0글자	0글자	9pt			

\* 2글자: 5칸 띄우기

\* 인용문 들여쓰기: 두 개 이상의 연속된 문단을 인용할 경우, 두 번째 문단 부터 들여쓰기

\* 논문의 시작 쪽에서는 머리말 감추기를 하시오.

접수 제 호

(심사) 호

## 수정·보완 의뢰서

심사 위원 ( )명의 심사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님의 논문을 『영어권문화연구』 제 ( )호에 게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아래의 심사위원들의 지적사항을 수정·보완하고 교정을 거쳐서 ( )년 ( )월 ( )일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수정시 필수 기입 사항

1. 수정·보완 사항의 항목별로 심사위원의 지적사항을 어떻게 고쳤는지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심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그 이유를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제출방법

1. 수정·보완이 완료된 논문과 수정·보완 의뢰서를 영어권문화연구소 이메일 계정(esc8530@dongguk.edu)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출력물의 우편송부는 편집시 그림이나 도표가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만 합니다.

년      월      일

영어권문화연구 편집위원장

## 수정·보완 확인서

논문 제목		
수정 및 보완 사항	논문 형식	
	논문 내용	

# 영어권문화연구소 연구윤리규정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국대학교 영어권문화연구소(이하 ‘연구소’)의 학술 연구 활동 및 연구소가 간행하는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 등의 성과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 윤리와 진실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연구원 및 투고자는 학술연구자의 위상을 높이고 연구자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증진되도록 본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본 학술지는 학술연구 저자들을 엄정하게 심사하여 선정하고 게재한다. 이에 따라 학술지에 게재를 희망하는 논문 저자뿐 아니라 편집위원(장)과 심사위원들의 연구윤리규정을 명확하게 아래와 같이 정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규정은 본 연구소의 학술지, 학술행사 발표문, 단행본, 영상물을 포함한 모든 간행물과 출판물 및 심사행위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특정 연구 분야의 윤리 및 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자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대필·이중투고 및 위 행위를 제안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forgery, fabrication)는 존재하지 않는 논문, 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alteration, falsification)는 참고문헌 등의 연구자료, 연구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plagiarism)”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결과 및 내용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자기표절”은 자신이 이미 발표한 논문 및 연구결과물(비학술단체 발간물, 학술대회 발표문, 연구용역보고서 등 국제표준도서번호(ISBN)가 붙지 않는 발표물은 제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게재하거나 그 논문 및 연구결과물의 일부나 전부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다른 논문 및 연구결과물에 포함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대필”은 남을 대신하여 글을 쓰는 행위를 말하고, “이중투고”는 동시에 복수의 학술지에 투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7. 기타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 또는 제보대상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제5조(설치) 연구소를 통해 연구를 수행하거나 발표하려는 자의 연구부정 행위를 예방하고, 연구윤리규정 준수 여부에 관한 문제제기, 조사, 심의, 판정 및 집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을 둔다.
2. 위원회 위원은 연구소장, 편집위원장, 운영위원장, 연구소 전임연구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소장이 위촉한다.
3.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4. 위원회의 위원장 및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인의 간사를 선임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1. 위원회는 위원장의 소집으로 개최하며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구부정행위로 제보, 또는 기타 경로를 통하여 연구기관에 의해 인지된 사안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로 인지된 사안에 대한 조사의 적부 판단, 조사위원회의 설치,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사안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4.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 제8조(조사위원회의 설치)

1.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연구부정행위라고 판단한 사안에 대하여 그 진실성을 검증하는 과정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연구윤리위원과 외부전문가 약간 명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조사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활동을 시작하며 조사결과에 대

한 조치가 완결된 후 해산한다.

3.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장으로 한다.
4. 연구소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 제9조(조사위원의 의무와 자격정지)

1. 조사위원은 심의에 있어 진실함과 공정함에 기초하여야 한다.
2. 조사위원은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인지한 내용을 사적으로 공표하지 않아야 하며, 검증과정에서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 조사위원은 심의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영향을 거부하여야 한다.
4. 조사위원은 자신과 사안사이에 심의의 공정함을 침해할 정도의 관련성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조사위원의 연구 결과 혹은 행위가 심의 대상이 될 경우, 당사자는 즉시 해당 심의 안건의 조사위원 자격이 정지된다.

### 제3장 연구윤리의 검증

#### 제10조(검증 시효)

1. 연구 윤리성 및 진실성 검증 필요성이 제기된 때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한 연구부정행위는 심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5년 이상이 경과한 연구부정행위라 하더라도 그 대상자가 기존의 결과를 재인용하여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 사용하였을 경우 혹은 사회적으로 연구소의 학술 연구 활동의 신뢰성에 심각한 위해를 가한 경우에는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 제11조(검증절차)

1.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였거나 또는 제보가 접수되면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를 개시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사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결과조치 등을 완료하여야 한다. 단, 위원회가 조사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거쳐 30일 한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심의대상이 된 행위에 대하여 연구윤리와 진실성 검증을 위해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4. 위원회 혹은 조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단, 사정에 따라 위원장의 판단으로 인터넷이나 전화, 서면 등을 활용한 비대면 출석도 허용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심의를 완료하기 전에 피조사자에게 연구 윤리 저촉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의 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6.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심의 결과에 대해 불복할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7.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의 재심의 요청이 없는 경우 위원장은 심의·의결 결과에 근거하여 조치를 취하며 조사위원회는 해산한다.

#### 제12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1.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2. 제보자는 위원회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와 문제 제기가 허위이며 피조사자에 대한 의도적인 명예 훼손이라 판단될 경우 향후 연구소 활동을 제한하는 등 허위 제보자에게 일정한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연구소와 위원회는 조사나 검증 결과 연구 관련 부정행위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노력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조사 결과에 대한 최종 심의를 완료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조치)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치는 그 경중에 따라 다음 항목 중에서 취하며 하나 또는 몇 개의 항목을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해당 논문 혹은 연구결과물 게재 취소 및 연구소 홈페이지 서비스에서 해당 자료 삭제
2. 해당 지면을 통한 공개 사과
3. 논문 투고 금지
4. 연구소의 제반 간행물과 출판물 투고 및 연구소의 학술활동 참여 금지
5. 해당자의 회원자격 정지

제14조(후속조치)

1. 연구 윤리 위반에 대한 판정 및 조치가 확정되면 조속히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2. 조치 후 그 결과는 인사비밀 문서화하여 연구소에 보존한다.
3. 필요한 경우 연구지원기관에 결과조치를 통보한다.

## 제4장 기타

### 제15조(행정사항)

1. 연구윤리 위반 사실이 인정된 경우, 논문 투고 및 심사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받은 제반 경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부 칙

본 규정은 2010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2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3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영어권문화연구 The Journal of English Cultural Studies

2024년 8월 31일 / 31 August 2024

17권 2호 / Vol.17 No.2

발행인 윤재웅

편집인 노현균

발행처 영어권문화연구소/Official Publication by

Institute for English Cultural Studies

30, Pildong-ro 1-gil, Jung-gu

Seoul, Republic of Korea, 04620

(046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계산관B 102호

Tel 02-2260-8530

<https://english-culture.dongguk.edu/>

E-mail: [esc8530@dongguk.edu](mailto:esc8530@dongguk.edu)

인쇄처: 동국대학교 출판문화원

(04626)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6길 2 동국대 충무로영상센터

신관 105호, 106호

전화: (02) 2264-4714, 0142

팩스: (02) 2268-7851